

그러므로 이런 인쇄물에서 빠져나와 삶 자체를 주목하게 되자마자, 그리고 사회에 시선을 던지자마자, 당신은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이 얼마나 적은지 알고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발자크⁵⁰는 수많은 농민이 어떻게 국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일생을 살아가는지, 강제로 부과된 무거운 세금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이미 알아챈 사람이다. 매일 무수히 많은 거래가 정부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업이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대다수는 정부에게 분쟁 해결을 호소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설령,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작정이더라도 말이다. 상업을 잘 아는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어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상인들이 거래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해 줄 것이다. 또 약속을 지키려는 상인들의 습관과 신용을 잃지 않으려는 소망만으로도 이상적인 정직함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부연 설명을 해 줄 것이다.

허풍스런 문구로 포장된 약으로 고객들을 해롭게 하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계약을 지키기로 한 명예로운 의무는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부유함만이 유일한 동기이자 목적인 지금의 상황 속에서조차 이런 상대적인 윤리의식이 발달해 왔다면,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실을 횡령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기본 원리가 아니게 되었을 때는 이런 윤리의식이 신속히 발달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 세대를 특징 짓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생각들을 더욱 더 지지해 주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진취적인 정신 덕분에 기업의 영역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고, 온갖 종류의 자유로운 조직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협약〉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자. 여기서는 이런 실례들이 워낙 많고 관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19세기 중반과 후반기 동안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비록 정치가나 사회주의 저술가들은 언제나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길 좋아해서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지만 말이다.

자유롭고 무한히 다양한 이 조직은 우리 문명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 조직들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주 쉽게 서로 동맹을 맺는다. 이 조직들은 문명화된 인간의 욕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나타나며 우필연적인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이 조직들은 정부의 간섭을 대신할 만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직들 안에서 사회 생활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조직들이 아직도 삶의 전 영역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노동자의 가난, 현 사회의 분열, 자본의 사회적 횡령, 그리고 국가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물들을 완전히 없애 보라. 그러면 문명이 활동하는 아주 다양한 영역이 이런 조직들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⁵⁰ 프랑스의 소설가로 근대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1799-1850). 대표작은 『고리오영감』, 『골짜기의 백합』. 농민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그린 『농민들 Les Paysans』 등이 있다.

빵의 쟁취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차례

머리말	3
서문	8
01. 우리가 가진 부	15
02.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권리	24
03.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34
04. 사유재산 수용	43
05. 음식	55
06. 주택	75
07. 의복	84
08. 방법과 수단	87
09. 사치스러운 취미에 대한 욕구	93
10. 유쾌한 노동	107
11. 자유로운 협약	115
12. 반론들에 대해	128
13. 집산주의적 임금제도	143
14. 소비와 생산	156
15. 분업	163
16. 산업의 분산	167
17. 농업	176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 국가의 국경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는 정부의 역할처럼 보였던 모든 일이 오늘날에는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더 쉽고 만족스럽게 처리된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진 진보를 연구하다 보면, 인류가 나아가는 추세는 정부의 간섭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실 상 불의, 억압, 독재의 화신이라고 할 국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미 살짝 엿볼 수 있다. 개인이 더 이상 법률로 묶여 있지 않고 사회적인 관습들에 의해서 묶인 세상을 말이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이웃의 지원, 서로 간의 협력과 연민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 말이다.

국가 없는 사회라는 생각은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의 정치 경제만큼이나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부터 국가를 일종의 섭리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우리가 받은 모든 교육, 가정 학교에서 배우는 로마 역사, 나중 로마 법이란 이름으로 공부하는 비잔틴 법전⁴⁹,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쳐지는 각종 학문들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믿는 일에 익숙해졌고, 국가의 덕목이 하늘의 뜻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미 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철학 체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가르쳐졌다. 모든 정치도 이 원리에 기초해 있고, 당파가 어떻든 간에 모든 정치인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정당에게 권력을 달라. 우리는 너무나 무겁게 억압했던 비참함으로부터 당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이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회학이나 법학에 관한 책을 어떤 것이든 좋으니 한번 훑어 보라. 그러면 거기에는 정부, 정부의 제도, 법률 등으로 온통 가득 차 있어서, 정부와 정치가들의 세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언론 역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똑같은 것을 믿도록 가르친다. 모든 기사는 의회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정치적인 계략으로 가득 차 있다. 반면에 광범위한 일상적 삶은 단지 경제 기사를 보도하는 지면이나 경찰 보고서와 법률 사건을 다루는 지면에 서나 볼 수 있다. 그래서 신문을 읽게 되면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존재들, 말하자면 인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조차 해 보기 힘들다. 태어나서 자라고 죽고, 슬픔을 알고 있고, 일하고 소비하는 수많은 사람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걸리적거리는 몇몇 인물들을 외부에 만들어 놓는데 이들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 때문에, 전체 인류는 우리의 무지로 인해 확대되고 과장된 이 인물들의 그늘에 가려지게 된다.

⁴⁹ 4세기 ~ 15세기까지 존속했던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의 법전. 6세기 유스티아누스 대제 재위당시에 편찬.

그러나우리의코뮌주의는푸리에나팔랑스테르주의자의공산주의도아니고, 독일의국가사회주의자들의공산주의도아니다. 이것은‘아나키즘적코뮌주의(Anarchist Communism)’로, ‘정부가없는코뮌주의’, ‘자유코뮌주의’를말한다. 이것은수천년동안인류가추구해온두가지이상인경제적인해방과정치적인해방이라는이상을종합한것이다.

II

정치적인조직과관련한우리의이상으로‘아나키사회(Anar-chy)’를받아들일경우, 우리는인간진보에서나타난또다른두드러진경향성을표현하기만하면된다.

유럽사회들이특정한지점을향해발달해갈때마다그사회는권위의명예를떨쳐버리고, 다소간개인적인해방의원리에기초한체제를대신세우곤했다. 그리고이부분적이거나보편적인혁명의시기는바로낡은정부가전복되는때였음을역사는보여준다. 뿐만아니라이시기는경제적인영역과지적인영역모두에서갑작스런진보가이루어진때였다.

그래서코뮌들이자유를얻은다음의이시기는, 길드조합들이자유로운노동으로역사적으로중요한위업을이룬시기이며, 아직까지어떤사회도그위업을능가하지못했다. 종교개혁이일어나서교황의권력이위태로워진것도위대한농민반란이일어난다음이었다. 그리고구세계유럽에서추방된불온분자들이대서양저편에새로운나라를만든것도짧게나마다시자유를누린이런사회에서였다.

또한문명국가들에서현재일어나는발전을관찰해보면, 정부의활동을점점더제한하고개인에게는더많은자유를허가하는경향을분명히볼수있다. 이런점진적인진보는우리눈앞에서계속되고있다. 비록케케묵은제도وام신이몰락하면서남긴쓰레기더미때문에방해를받을지라도말이다. 모든진보와마찬가지로이것역시길을가로막고있는오래된장애물들을치워버릴혁명을기다리고있다. 혁명이일어나면이진보는새로이혁신된사회에서자유로운영역을찾을수있다.

다음과같은식의정부구성이라는해결불가능한문제, 즉‘스스로사회의하인이되는일을그만두지않으면서, 개인에게복종을강요하는정부’를구성하려는문제로오랫동안헛되이노력한끝에야사람들은마침내모든형태의정부로부터스스로를해방시키려는시도를할것이다. 그들은공동의목적을추구하는개인과단체간의자유로운협약으로조직을구성해서자기들의필요를충족시키려고고시도할것이다. 작은지역단위들은각자의독립성이긴급하게필요하게될것이다. 공공의목적을고려하는가운데개인적인이해관계를조절하기위해서상호간의합의가법을

머리말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은나에게책의첫머리에몇마디말을써달라고부탁하였다. 나는그의바람에응하기는하지만, 상당한거북함을느낀다. 그가이저작에서내세우는일련의주장에아무것도덧붙일수없기때문에, 나는그의말이지닌힘을약하게할까봐걱정된다. 그러나우정이나를용서할것이다. 프랑스의“공화주의자들”에게는가장품위있는행위가차르의발밑에엎드리는것이지만, 나는그가몽둥이로때리고성채의지하감옥에가두거나어두컴컴한뜰에서교수형에처하는자유인들과가까이지내고싶다. 이친구들때문에나는잠시배신자들의비열한짓을잊는다. 이배신자들은젊었을때목이쉬도록자유를외쳤지만, 지금은“라마르세예즈”[프랑스의국가] 와“하느님, 황제 [차르] 를지켜주소서”[제정러시아의국가] 두노래를결합시키려고애쓰고있다.

크로포트킨의최근저작『반역자의말 Paroles d'un révolté』은특히잔인한동시에타락한부르주아사회를격렬하게비판하면서, 국가와자본주의체제에대한혁명을호소하였다. 『반역자의말』 다음에나온이책은좀더평화로운모습을하고있다. 이책은사회변화에진심으로협력하고싶은선의를지닌사람들에게호소하면서, 그들에게임박한역사의단계들을주요특징에따라서설명하고있다.

책의제목『빵의쟁취』는아주넓은의미로받아들여야한다. 왜냐하면“인간은빵만으로살지않기때문이다.”관대한사람들과용감한사람들이그들의이상理想인사회정의를생생한현실로변화시키려고애쓰는시대에는, 우리의열망이포도주나소금과함께빵을쟁취하는것으로만족되지않는다. 생활의안락에필요하거나심지어는유용한모든것도쟁취해야한다. 우리는모두에게육구와즐거움의완전한만족을보장해줄수있어야한다. 우리가이첫번째“쟁취”를못하는한, 즉“가난한사람들이우리와함께있는”한원형경기장에갇혀있는잔인한짐승들처럼서로미워하고서로파괴하는이인간집단에게“사회”라는이름을주는것은쓸쓸한농담이다.

이책의첫장章부터저자는인류가이미소유한막대한재산과공동노동으로획득한놀라운기계설비를열거한다. 매년얻는생산물은모든사람에게빵을제공하기에아주충분할것이다. 만일도시, 집, 경작가능한들, 공장, 수송도로, 학교등의엄청난자본이사유재산으로소유되지않고공동재산이된다면, 행복한삶은쉽게쟁취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우리가자유롭게처분할수있는힘은쓸모없는노동이나모순된노동에쓰이지않고, 양식, 주거, 의복, 안락함, 과학연구, 예술연마를위해인간에게필요한모든것을생산하는데쓰일것이다.

그렇지만인간소유물의회수, 한마디로말해서수용은아나키즘적코뮌주의로만 이루어질수있다. 정부를쓰러뜨려야하고, 정부가만든법을비난해야하며, 정부의헌제를거부해야하고, 그대리인들을무시해야한다. 그리고자발적으로행동하면서자신의친화력, 이해관계, 이상, 착수한일의성질에따라결속해야한다. 책에서가장중요한이수용문제는또한저자가아주자세하면서도간결하게꼭언급이다른문제중의하나이기도하다. 하지만그는이문제도이제는불가피한다음혁명에대한연구가요구하는냉정함과비전의명료함을갖고다루었다. 이렇게국가를뒤엎어버리면해방된노동자집단은더이상독점자들과기생충같은존재들을위해힘들게일할필요가없기때문에, 자유롭게선택한직업에헌신하며토지경작이나산업생산을과학적으로수행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토지경작이나산업생산은연구나즐거움에주어진휴식과쉬여있다. 이책에서농업노동을다루는부분은큰재미를준다. 왜냐하면그부분은실제의경험으로이미검증된사실들을말하기때문이다. 그것들은모두를위해어디에서나대규모로적용하기쉬운사실들로소수의치부致富만을위한것이아니다.

빈정거리는사람들은세련된젊은이들의악덕과결점을비웃기위해“세기말 Fin de siècle”을말한다. 그러나지금문제되는것은한세기의말과는다른것이다. 우리는한시대, 즉역사의한시기의끝에도달하였다. 우리는오래된문명전체가끝나는것을보고있다. 무력을사용할수있는정부당국의권리와전횡, 유대인의물인정전통, 로마인의엄격한법해석이더이상우리를압도하지못한다. 우리는새로운믿음을공언한다. 이믿음은동시에과학이기도한데, 이믿음이진리를추구하는모든이의것이되면, 그것은실현의세계에서구체화될것이다. 왜냐하면역사의법칙중첫번째것은사회가그이상에따라만들어진다는것이기때문이다. 낡아빠진질서의옹호자들은그질서를어떻게유지할수있는가? 그들은더이상믿지않는다. 더이상안내자도깃발도없기때문에, 그들은되는대로싸운다. 개혁가들에맞서서그들은법과총, 몽둥이를든경찰, 대포부대를갖고있다. 그러나이모든것은어떤하나의사상과병행할수없다. 그러므로선의와억압의구체제전체가일종의전前역사에서곧사라질운명이다.

물론, 임박한혁명은 - 인류의발전에서아무리중요하더라도 - 갑작스런비약을행한다는점에서이전혁명들과거의다르지않을것이다. 자연은결코비약하지않는다. 그렇지만수많은현상에의해서, 수많은깊은변화에의해서아나키즘사회가이미오래전부터발전해왔다고말할수있다. 자유로운사상이교리의문자에서벗어나는곳에서는어디서나, 연구자의재능이오래된공식을무시하는곳에서는어디서나, 인간의의지가독립된행위로표출되는곳에서는어디서나, 강제된모든규율에반항하는진지한인간들이흔쾌히결합해서로가르쳐주면서지배자없이함께생활하며육구를완전히만족시키는곳에서는어디서나, 아나키즘사회가나타난다. 이모든것이아나키이다. 그것이알려지지않았다하더라도말이다. 그것은점점더인정받고있다. 그것이어떻게승리하지못하겠는가? 왜냐하면그것은이상理想이있으며또그의지의대담성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반면에그반대자들

기때문에, 한부분에제공된서비스는모든부분에제공된서비스나마찬가지라고생각하고있다.

어느공공도서관에들어가게된경우를생각해보라. 꼭파리의국립도서관이나니어도대영박물관이나베를린시립도서관을떠올려보라. 그곳에서는당신이요청한책을대출해주시전에사회에어떤기여를했는지묻지않을것이다. 심지어책목록을어떻게이용하는지모르다면사서가도와줄것이다. 대개는연구에공헌한사람을선호하겠지만, 그럼에도학회는박물관, 공원, 도서관, 실험실을개방하고있다. 학회의모든회원은다윈⁴⁸ 같은전문학자든아마추어연구자든상관없이연례좌담회에참석할수있다.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당신이정성들여서어떤발명을하고있다면, 특별한실험실에갈수도있다. 그곳에서자리를제공받고서오직나만이사용법을알고있는목수용작업대, 회전선반(旋盤) 같은온갖필요한도구와과학기구를제공받을수있다. 그리고원하는만큼그곳에서작업할수있다. 그곳에는도구들이있고, 당신의아이디어에흥미를느끼는다른사람들도있다. 다양한기술이있는동료노동자와협력할수도있고혼자일하는것이더좋으면그렇게해도된다. 하늘을나는기계를발명하거나무엇도발명하지않아도괜찮다. 그것은스스로알아서할 일이다. 당신은어떤아이디어를탐구하고있는중이고, 그것으로충분하다.

이와마찬가지로구조선에서일하는사람들은침몰하고있는배의승객에게신분증을요구하지않는다. 그들은구조선을바다에 띄우고는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성난파도를헤치며나아간다. 때로목숨을잃기도하지만그들은자기가알지도 못하는사람들을구하기위해서애를쓴다. 그리고무엇때문에이들이조난자들을개인적으로알아야할필요가있겠는가?

“그들은인간들이고, 우리의도움을필요로한다. 그것만으로도그들에게는충분히권리가있다. 구조받을권리말이다!”

이렇게우리는두드러지게코뮌주의적인이런경향이사방팔방에서다양한모습으로, 이론상으로는개인주의적인사회들의가장깊숙한중심부에서나타나고있는것을볼수있다. 그렇다면우리가어떻게의심할수있겠는가? 생산수단들이모두에게도움이되는식으로배치되고, 사업이코뮌주의원리들에따라운영되며, 노동이사회에서명예로운자리를다시되찾고, 모두에게필요한것이상으로생산하게된다면, 이미상당히강력한이코뮌주의적인경향이점점영향력을넓혀서마침내사회적삶의주된원리가될것이라는사실을어떻게의심할수있겠는가?

이러한징후들을따라가고다음장에서이야기할사유재산수용의실제적인 측면을좀더검토해보면, 우리는확신할수있다. 혁명이현재체제를지탱하고있는권력을무너뜨리게될때, 우리가가장먼저해야할임무는지체없이코뮌주의를실현하는일이라는것을말이다.

⁴⁸ 영국의자연과학자로진화론의제창자 (1809-1882).

되는경향이있다는점이고, 다른한편으로는현대적삶의수많은발전속에도코된주의적인원리가자리잡는경향이있다는점이다.

10 세기, 11 세기, 그리고 12 세기의코원들이군주들, 성직자혹은평신도라는구분으로부터해방되는데성공하자마자, 그들의공동노동과공동소비는그범위가빠르게확대되면서발전해갔다. 개인이아니라한마을주민이자기들의생산품을수출하기위해배에화물을싣고탐험대를꾸렸다. 그리고외국무역에서얻은이익은개인에게돌아가는것이아니라코원의모든사람한테나누어졌다. 그마을의행정부역시처음부터모든주민이먹을식료품을구매했다. 이런제도가남긴흔적은 19 세기까지사라지지않고이어지고있었으며, 사람들은자신의전설속에그기억을경건히간직하고있었다.

이모든것이사라져가고있다. 하지만어느시골지역에서는마지막으로남은코원주의의흔적을보존하기위해서여전히애쓰고있으며, 국가가무력으로그균형을깨트리는경우만아니라면성공하고있다. 그러는동안‘모두에게필요에따라나눈다’는이꼭같은원리에기초를둔새로운조직이다양한형태로무수히생겨나고있다. 왜냐하면코원주의의영향을일정정도받아들이지않으면존속할수없기때문이다. 상업주의시스템때문에사람들의마음이편협하고이기적으로되어가고있음에도코원주의로향하려는경향은끊임없이나타나고있으며, 우리의활동에다양한방식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과거에는통행료가부과되었던다리들이이제공공자산이되어서모두가무료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 주요도로들역시무료가되었는데동양은예외이다. 동양에서는여행객들이이동할때마다통행료를받는다. 또박물관, 무료도서관, 무료학교, 아이들을위한무료급식도있다. 공원과정원도모두에게개방되어있다. 거리는포장되어있고, 가로등이세워져있으며, 모두가자유롭게다닐수있다. 물은제한이나할당없이모든가정에공급된다. 이모든조정은바로‘필요한것을가져간다’는원리에기초를두고있다.

시가전철과철도들은타는횟수에제한을두지않는월정기권과 1 년정기권제도를도입했다. 헝가리와러시아두나라는철도요금에‘동일요금구획제도’를도입해서, 승차권을가진사람은 500 마일이나 800 마일이나상관없이같은요금으로여행할수있게했다.

이모든혁신, 그리고다른수많은분야의일반적인추세는개인적으로얼마나소비하는지를평가하지않는다는점이다. 어떤사람은기차로 800 마일을여행하고 싶어하고, 다른사람은 500 마일을여행하고 싶어한다. 이것들은개인적인필요다. 어떤사람의필요가두배더크다고해서요금도두배로지불해야할이유는딱히없다. 이런것들은지금의개인주의적인사회에서나볼수있는징후들일뿐이다.

게다가아직은미약하지만, 어떤사람이과거에공동체에기여했던정도나앞으로기여할가능성과관계없이개인의필요를고려하려는경향도있다. 우리는전체로서의사회를생각하기시작했고, 사회의각부분들은서로밀접하게결합되어있

무리는이제믿음이없으며, 운명에자신을맡기고는“세기말! 세기말!”이라고외치고있다.

따라서예고된혁명이일어날것이다. 그리고우리의친구크로포트킨은역사학자자격으로처신하면서이미혁명을마주대하고있다. 그는모두의노동에의한집단재산의소유권회수에대해자신의생각을설명하면서, 소심한사람들에게호소한다. 이들은불의가널리퍼져있다고생각하지만, 사회에대해공개적인반란을일으킬생각은감히못하고있다. 수많은이해관계와전통때문에그들은사회에의존하기때문이다. 그들이알고있는것처럼, 법은불공정하고기만적이며, 행정관들은강자의아첨꾼이자역자의억압자이다. 올바르게생활하고성실하게노동해도언제나뻥뻥조각을확실하게얻지못한다. 투기꾼의파렴치한짓이나전당포의악착스러운냉혹함이“빵의쟁취”와행복한삶을얻는데에는모든미덕보다더훌륭한무기이다. 그러나자신들의생각, 소원, 계획을식견있는정의감에따라정하는대신에, 대부분의사람들은술직한태도의위험을피하기위해어느엿골목으로달아난다. 신종교인같은이사람들은더이상아버지들의“불합리한믿음”을공언하지않는다. 그들은명백한교리는없지만패독창적인어떤비법전수에몰두하며혼란된감정의안개속에서갈피를잡지못하고있다. 그들은강신술사, 장미십자회*¹의회원, 불교도나마술사가될것이다. 소위석가모니의제자들, 그러나그들의스승의교리를힘들여연구하지않는우울한신사들과숙녀들은해탈이라는무화無化속에서평화를찾는체한다.

그러나이“아름다운영혼들”은끊임없이이상理想을말하기때문에, 안심한다. 우리는물질적존재이므로사실식량을생각하는약점이다. 왜냐하면우리에게는식량이자주부족했기때문이다. 식량이지금만큼은차르의백성인수많은노예형제들에게부족하며, 그밖의많은사람들에게는아직도부족하다. 그러나뻥을넘어서, 즉발의이용이우리에게제공할수있는행복한삶과모든집단재화를넘어서, 우리는완전히서로사랑할수있는새로운세계가멀리서우리앞에나타나는것을본다. 이새로운세계에서물질생활을무시하고순전히아름다움만을사랑하는사람들은이이상에대한고귀한열정을만족시킬수있다! 그들은그러한열정을그들의영혼의해소되지않는갈증이라고말한다. 더이상부자도가난한사람도없을때, 그리고굶주린사람이배불리먹는사람을더이상부러운눈으로쳐다볼필요가없을때, 자연스러운우정이사람들사이에서다시생겨날수있을것이다. 그러면유대감(오늘날에는꺼져버렸지만) 이라는종교가하늘의수증기에사라져버리는그림을그리는이어렵듯한종교를대신할것이다.

혁명은그것이약속한것보다더많은것을이룰것이다. 혁명은생명의원천을새신해서우리를모든경찰력의불순한접촉으로부터벗어나게할뿐만아니라, 마침내는우리의존재를고달프게하는저돈에대한비루한관심으로부터도벗어나게한다. 그때각자는자신의길을자유롭게갈수있을것이다. 노동자는자기에게맞는일

¹ 17 세기초독일에서생긴신비주의경향의비밀결사.

을수행할것이다. 연구자는판생각없이연구할것이다. 예술가는더이상법벌이를 위해아름다움에대한자신의이상을더럽히지않을것이다. 그리고이제부터는모두가친구이기때문에, 시인들이어렵פות이본위대한것들을일치협력해서실현할수있을것이다.

그때는아마도추방이나투옥을당하면서도헌신적으로선전하며새로운사회를준비한자들의이름을때때로상기할것이다. 우리는『빵의쟁취』를출판하면서그들을생각한다. 그들은감옥의창살을통해서또는외국땅에서이공통된사상의증언을받으면의지가좀더강해지는것을느낄것이다. 만일내가이책을신조때문에고통받는모든이에게, 특히평생동안정의를위해싸운매우소중한친구에게바쳐도저자는나의생각에동의할것이다. 나는그의이름을말할필요가전혀없다. 한형제의말을읽으면, 그가누구인지는그의심장의고동으로알수있을것이다.

엘리제르클뤼 Élisée Reclus*²

을돕는사람들이다. 그렇다면어떻게‘모든사람’이기여해서쌓은부에서각자의몫을계산할수있단말인가?

이렇게일반적이고중합적인관점에서생산을살펴보면우리는집산주의자들에게동의할수없다. 집산주의자들은각자의노동시간에비례해서임금을주는것을이상적인계획이라고여기거나올바른방향으로가는단계라고생각한다.

현사회에서상품의교환가치가그것을생산하는데어간노동량에따라실제로측정되는지를여기서논하지는않겠다. 이런측정은아담스미스⁴⁶와리카도⁴⁷의가르침, 그리고그들의발자취를따라갔던마르크스의가르침에따른것이다. 이주제에대해서는나중에다루도록하자. 여기서는집산주의자들의생각이, 노동수단을공동의유산으로생각하는사회에서지지받기어렵다는점을언급하는것으로충분하다. 노동수단이공동의유산이라는원리로부터출발한사회는, 맨처음부터모든형태의임금제를폐지할수밖에없음을깨닫게될것이기때문이다.

집산주의체제로건너간개인주의는토지와생산수단을공동소유로사회화하는부분적인공산주의와는나란히유지될수없을것이다. 새로운소유형태는새로운형태의보상체계를필요로한다. 새로운생산수단은낡은소비형태와나란히공존할수없으며, 낡은형태의정치체제에도더이상적응할수없다.

토지와노동수단을개인적으로소유하기때문에임금제도가생겨나는것이다. 임금제도는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발달하는데필요한조건이었다. 비록‘이익분배’로위장한채시도될지라도, 이임금제도는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함께무너질것이다. 노동수단의공동소유는반드시공동노동의결실을공동으로즐기도록해야하기때문이다.

더나아가우리는코뮌주의가바람직한것일뿐만아니라, 개인주의에근거를둔지금사회는반드시코뮌주의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밖에없다는주장을지지한다. 지난 3 세기동안의개인주의의발달은개인이자본과국가의횡포로부터스스로를지키려는노력이었다고설명할수있다.

어떤시기에개인은이런상상을했고, 이런생각을표현했던사람들은개인이국가와사회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있다고선언했다. 이개인은“나는돈을가지고내가필요한모든것을살수있다”라고말했다. 하지만이개인은잘못된길을가고있었기때문에, 현대역사는그가다음과같은사실을깨닫도록가르치고있다. 설령그의금고가금으로가득차있을지라도, 모두의도움이없으면아무것도할수없다는것을말이다.

실제로지금유행하는개인주의를따라가보면우리는모든현대역사에서어떤경향을발견할수있다. 한편으로는옛시대의부분적인코뮌주의의흔적들이지속

⁴⁶ 스코틀랜드의사회철학자, 정치경제학자로고전주의경제학의창시자 (Adam Smith, 1723-1790). 그의저서『국부론』은자유방임주의를표방한최초의경제학저서로알려져있음. 경제사회에서각개인의이익추구행동이‘보이지않는손’에이끌려국가의부와생산력향상을가져온다고봄.

⁴⁷ 영국의고전경제학자 (David Ricardo, 1772-1823). 경제이론에체계적이고고전적인형식을부여해 19 세기경제학을체계화시키고발전시킴. 자유방임자본주의를옹호함.

² 프랑스의지리학자이자아나키스트 (1830-1905).

03. 아나키즘적코뮌주의

I

사유재산이폐지되었을경우, 우리는모든사회조직을공동체주의적인 (communitistic) 노선으로조직하고유지할것이다. 아나키사회는공동체주의로나아가고, 공동체주의는아나키사회로나아갈것이다. 이들은현대사회의지배적경향인평등의추구를똑같이표현하고있다는점에서서로동일하다.

농민가족이직접심고거둔옥수수나자기네오두막에서짠양털옷을자기땅에서나온수확물로여길수있던시대가있었다. 그러나이런식의사고방식도아주정확한것이라고는할수없다. 당시에도공동의힘을모아만든도로와다리가있었고, 공동의노력으로물을뺏습지들이있었고, 모두의힘으로보수유지가되고있는올타리들로둘러싸인공유목초지가있었다. 만약천을짜는베틀이나직물을물들이는염료들이누군가에의해개선된다면, 모두가그덕을볼수있었다. 심지어당시의농민가족은혼자힘만으로는살수없었으며, 수많은방식으로마을이나공동체에의지하며살아갔다.

하지만오늘날의산업적상황에서는모든것이상호의존적이고, 생산의각분야들은나머지모든부분과서로맞물려있다. 그러므로생산물을개인의것으로여길근거가있다는주장은절대로지지받을수없다. 문명화된나라들의직물산업이나광산업에서성취해낸놀라운완성도는크고작은수많은다른산업이동시에발전했기때문에가능했다.

수에즈운하를만들면서콜레라로죽어갔거나, 생고타르터널⁴⁵을만들면서관절강직으로죽어간이탈리아인들, 노예제폐지를위해싸우다가총알과포탄에맞아쓰러진미국인은모두프랑스와영국의면직물산업의발전에기여한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영국맨체스터와프랑스루앙의공장들에서시들어가고있는여공들, (몇몇노동자의제안에따라) 직조기계의성능을향상시킨발명가도이산업의발전

⁴⁵ 스위스알프스산맥의철도터널로약 15 km길이다. 1871~1881 년까지건설되었으며, 건설과정에서약 200 명의노동자가사망했다.

서문

코뮌주의³와 사회주의에 대해 널리 통용되는 반론 중 하나는 그 이상이나 무나오래되었는데도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 국가에 대한 계획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코뮌리스트⁴ 조직들을 결성했고, 수 세기가 지난 뒤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 기간 중에는 대규모의 코뮌리스트 수도회들과 단체들이 출현했다. 그 뒤 영국과 프랑스에서 있었던 큰 변혁의 시기에도 똑같은 이상들이 다시 되살아났다. 마침내 1848년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으로부터 크게 영감을 받은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도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는 한다.

“그럼에도 알다시피, 당신들의 계획이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너무 낮은 이야기 같다. 인간의 본성과 욕구에 대한 당신들의 이해에 뭔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얼핏 보면 이런 반론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다 주의 깊게 고찰하는 순간이 반론은 힘을 잃는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첫째, 수 천 만의 사람들이 수 백 년 동안 자신들의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공동체들에는 사회주의를 이루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주요 생산 수단인 토지의 공동 소유, 그리고 여러 가구들 간의 노동 능력에 따른 분배가 그것이다.

만일 토지의 공공 소유가 서유럽에서 파괴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 때문이다. 즉, 정부가 귀족들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토지 독점 제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음 사실도 배우게 된다. 중세 도시들은 수 세기 동안 자기들 사이에서 생산과 교역을 담당하는 특정 사회 조직들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 기간은 지적, 산업적, 예술적으로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공동체적 조직들의 쇠퇴가 일어난 것은, 촌락과 도시, 농민과 도시민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무능력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두 힘의 서로 연대해서 자유 도시들을 파괴하는 군사 국가들의 성장을 함께 막아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펴본 인간의 역사는 코뮌주의에 반대할 만한 논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종류의 코뮌리스트 조직을 실현하려는 끊임 없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 노력들은 이곳저곳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음에 이르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런 결론에 이르는데가 정당하다. 우리 인간은 코뮌주의적인 원리들에 입각해서 농업과 갑자기 발전한 산업, 그리고

권리를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부를 가지고 보다 고상한 예술과 과학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이런 기쁨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안락자들이 독점해 온 것이다.

안락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으로,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다. 무엇이 안락함인지,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반면 ‘일할 권리’는 언제나 임금 노예가 되고, 고달프고 단조롭게 일하며, 미래의 중산층에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할 권리를 의미할 뿐이다. 행복한 삶을 살 권리는 ‘사회 혁명’을 의미하는 반면, 일할 권리는 상업주의와 관련된 단조롭고 고된 노동의 의미할 따름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들이 공동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손에 넣기에 가장 알맞은 때이다.

³ Communism : 보통은 ‘공산주의’ 혹은 ‘코뮌리즘’이라고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사유 재산과 불평등한 임금 체계가 없는, 서로 협동하는 자치 공동체 ‘아나코뮌’을 주장한 크로포트킨의 사상에 따라 주로 ‘코뮌주의’로 번역하기로 한다. ‘공동체주의’라고도 한다.

⁴ 일종의 공동체를 뜻하는 ‘코뮌리스트’이다.

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을 필요가 없고, 풍요로움 속에서 누구도 굶주릴 필요가 없으며, 모피옷이 가득한 가게가 가까이 있으므로 누구도 추위에 떨며 기진맥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런 것처럼 실제로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에게 ‘의무들 (DUTIES)’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민중의 ‘필요 (NEEDS)’를 고려하는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은 의회의 법령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오로지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손에 넣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만 이 일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진정으로 과학적인 방법이고, 수많은 민중이 이해하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우리는 민중의 이름으로 곡물 창고, 옷으로 가득 찬 상점, 주택을 손에 넣어야 한다. 어떤 것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고, 모든 결핍을 채우고,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체 없이 조직해야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과 더 많은 발전을 보장하는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일할 권리’ 같은 애매 모호한 말들은 이제 충분하다. 그런 말들 때문에 1848 년 파리의 민중은 잘못 된 길로 나아갔으며, 지금도 여전히 민중을 현혹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그런 말들이 쓰이고 있다.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삶이 앞으로 가능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자.

1848 년에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주장했을 때, 국영 작업장과 지방 자치 작업장들이 조직되었고, 그곳으로 보내진 노동자들은 하루에 1 실링 8 펜스를 받으며 아주 단조롭고 고되게 일했다. 그들이 ‘노동 조합’을 요구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참으시오, 친구들, 정부가 잘 알아볼 것이요. 그동안 여기 당신들 임금 1 실링 8 펜스가 있소. 지금은 쉬시오. 용감한 노동자여, 먹고 살기 위해 평생 동안 고되게 일한 다음이니 까 말이요!”

그러는 동안 대포들이 다시 수리되고, 예비군이 소집되었다. 노동자들의 조직 자체도 중산층에게 잘 알려진 수많은 방식으로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예전 정부를 폐지하고 4 개월이 지났을 때인 1848 년 6 월 어느 화창한 날, 노동자들은 아프리카 유형을 선고 받거나 총살당했다.

만일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권리 (the Right To Well-Being)’를 요구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부를 손에 넣을 권리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살만 한 집들이 가진 권리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식료품 상점들을 사회의 공동 소유로 할 권리, 굶주림을 너무나 잘 알고 난 뒤에 이제는 풍요로움의 의미를 알아갈 권리를 말한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 세대들이 노동으로 이뤄낸 결실인 모든 사회적인 부에 대해서 자기들의

급속하게 성장 중인 국제 교역이라는 세 요소를 연결시켜 줄 적절한 형식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국제 교역이라는 문제는 특히 골치 아픈 요인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 교역은 이제 더 이상 개개인이나 도시들이 원거리 무역과 수출로 부를 쌓는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전체 국민이 산업 발전에 뒤떨어진 나라의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부를 쌓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18 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이런 상황들은, 19 세기에 들어와 나폴레옹 전쟁⁵이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충분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현대 코뮌주의는 이 상황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프랑스 대 혁명은 그 정치적인 중요성과는 별개로 프랑스 민중이 시도한 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도는 1793 년과 1794 년에 사회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세 가지 특이한 행동 방침을 갖고 있었다. 첫째 시도는, 재화의 균등한 분배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가하는 수단을 통해서였는데 두 가지 모두 무거운 누진세를 적용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분배를 위한 토지의 완전 몰수, 부자들에게만 무겁게 과세되는 전쟁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화의 균등한 분배를 이루고자 했다. 두 번째 시도는, 몇몇 일차적인 필수품의 소비와 관련해서 일종의 자치 도시 코뮌주의 (Municipal Communism) 를 시도한 점이다. 즉, 자치 도시들이 일차 필수품들을 사들여서 원가로 판매한다는 시도였다. 세 번째 시도는, 모든 상품에 합리적인 가격을 매기는 전국적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생산품의 실제 생산 비용과 적절한 거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만 했다. 프랑스는 국민 공회 (the Convention)⁶

는 이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반동이 우세해질 무렵에는 거의 그 작업을 완수해내고 있었다.

아직까지만 한 번도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이 주목할 만한 운동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현대 사회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리옹에서 일어난 랑제 (L'Ange) 의 푸리에주의⁷와 보노나로티⁸와 바뵘프⁹의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와 그 동지들의 활동이 그것이다. 프랑스 대 혁명 직후에는 세 명의 현대 사회 이론의 중요

⁵ 대 혁명이후에 프랑스가 1803-1815 년 동안 여러 유럽 열강의 동맹에 대항해 벌인 전쟁으로 장군이던 나폴레옹이 주 로 이끌었다. 이 전쟁으로 프랑스는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일시적인 주 도권을 확립했다.

⁶ 1792 년 프랑스 대 혁명 당시 구 성된 의회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했다.

⁷ 프랑스 사회주의자 푸리에가 주장한 협동 조합 형식의 공동체.

⁸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탈리아의 급진적 사회주의자이자 선봉가 (Philippe Buonarroti, 1661-1733).

⁹ 프랑스 혁명 당시의 급진적 혁명가이자 저널리스트 (François-Noël Babeuf, 1760-1797).

한창시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푸리에¹⁰, 생시몽¹¹, 로버트오언¹²이 그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없는 사회주의를 주장한 고드윈¹³도 등장했다. 반면 보나로티와 바비프가 주도한 단체들로부터 기원한 비밀스런 코뮤니스트 단체들은, 그 이후 50 여년 동안 투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산주의 운동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보자면 현대 사회주의는 그 역사가 아직은 100 년도 채 안 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100 년의 처음 절반의 기간 동안은,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나라만이 현대 사회주의 이론을 고심해서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이 두 나라는 15 년에 걸친 유흥가득한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끔찍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두 나라 모두 동유럽에서 밀려오고 있는 거대한 반동 세력으로 둘러싸인 상태였다.

사실 1848 년 혁명이 전의 몇 년 동안 사회주의에 관한 논의가 가능했던 시기에는 오직 프랑스에서 1830 년 7 월에 일어났던 혁명¹⁴, 1830 년-1832 년에 일어난 개혁 운동이 후일 뿐이다. 그 시기에 비로소 끔찍한 반동 상태를 겨우 떨쳐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푸리에, 생시몽, 로버트오언의 염원들이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해 연구가 되었고,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주의 학파들이 자신의 특성을 뚜렷이 정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로버트오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농업과 공업이 함께 하는 코뮤니스트 (공동체) 마을들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각자의 배당금을 투자해서 좀 더 코뮤니스트적인 부락들을 만들기 위해 규모가 큰 협동조합 연합체들이 출범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총연합 (the Great Consolidated Trades’ Union)’도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노동당들과 ‘국제 노동자 연합 (the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¹⁵의 전신이다.

¹⁰ 프랑스의 사회이론가 (Charles Fourier, 1772-1837) 로, 생산자협동조합인 팔랑주 Phalange 라는 자급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 전환을 주장했다.

¹¹ 프랑스의 사회사상가 (Claude Saint-Simon, 1760-1825). 기독교 사회주의의 바탕을 마련했으며, 형제애가 산업과 사회의 과학적 조직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일종의 국가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¹²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기업가 (Robert Owen, 1771-1858). 19 세기 초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개혁가로, 사회 보장 제도 와 복지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공장을 운영. 계획 공동체 사회를 구상함.

¹³ 영국의 사회철학자이자 정치평론가 (William Godwin, 1756-1836). 국가 대신 소규모 자급 공동체를 주장하는 아나키즘 사상과 개인의 자유를 제기하는 글들을 써서 영국의 낭만주의 운동에 동을 개척함.

¹⁴ 1830 년 7 월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 당시 극단적인 반동 정치를 펼치고 있었던 프랑스 국왕 샤를 10 세가 발포한 소위 ‘7 월 칙령’에 대한 시민의 반발로 무력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혁명으로 ‘시민왕’ 루이-필리프 1 세가 왕위에 올랐다.

¹⁵ 1864 년 런던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의 국제적 노동자 조직으로 마르크스 등이 주도했다. First International 이라고도 함.

새로운 정부의 신사들은 가장 하잘 것 없는 하급 관리들까지도 꼬박꼬박 봉급을 받아갔다.

민중은 고통받는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과 평민의 선한 기질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믿는다. 그들은 ‘저쪽에’ 있는 의회에서, 시청이나 읍사무소에서, 공공 안전 위원회에서 자기들의 복지 문제를 의논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저쪽에’ 있는 그들은 민중의 복지를 제외한 하늘 아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793 년에 기근이 프랑스를 휩쓸어서 프랑스 대혁명을 망치는 동안, 민중은 비참하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파리의 상젤리제 거리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성들을 태운 호화로운 마차가 줄지어 늘어 서 있었고, 로베스피에르⁴⁴는 영국 헌법에 관한 자기의 논문을 논의 하라고 자코뱅파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1848 년 상업의 전반적인 중단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프랑스의 임시 정부와 국민의회는 민중이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걱정하기는 커녕 군인 연금과 형무소 노역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1871 년 파리 코뮌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센의 대포 아래에서 태어나고 작 70 일 밖에 존속하지 못했던 파리 코뮌 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말이다. 이 실수는 혁명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한,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하루에 고작 15 펜스를 받는 사람은 방위군으로 싸우면서 동시에 가족을 부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실수이다. 민중은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III

이 질문에는 오직 한 가지 대답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큰 소리로 선언한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은 옛 사회에서 어떤 계층에 속했든 지 상관 없이, 강하건 약하건 간에, 유능하건 무능하건 간에, 무엇보다 먼저 ‘살아갈 권리 (생존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는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생존 수단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큰 소리로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혁명의 첫날부터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대가 자기들 앞에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 되어야 한다. 대저택들이 바로 옆에 있으므로 이

⁴⁴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유력한 정치인 (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으로 자코뱅파를 주도했다. 루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독립적인 소생산자들이 주도하는 공화제를 주장했다. 단두대와 공포 정치 시대를 열었으며 자신도 나중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이나읍사무소, 관공서들로서둘러달려갈것이다. 어떤사람들은금박은박레이스로마음껏치장하고서해정관청의거울에비친자신의모습에감탄할것이다. 그리고는자신의새로운지위에걸맞게거드름을부리면서명령을내릴공리를할것이다. 그들이어떻게붉은장식띠, 수놓은모자, 권위적인몸짓도없이사무실이나작업장의동지들에게깊은인상을줄수있겠는가!

나머지사람들은공문서에파문헌채최대한의지를발휘해서그것들을이해하려고애를쓸것이다. 그들은법률을지어내고허풍스런단어들이가득한법령을공표하겠지만, 아무도그법을실행하려고애쓰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혁명’이 일어났기때문이다.

자기들이갖지못한권위를스스로에게부여하려고그들은옛정부에서쓰인상벌조항을찾으려고할것이다. 그들은‘임시정부’공공안전위원회‘시장’시의원장*치안위원’등의이름을갖게될것이다. 선거로뽑혔거나지명이된그들은위원회나공동체평의회를소집할것이고, 그곳에서는서로다른유파를대표하는 10~20명정도의사람이함께모여서자기들의입장을대변할것이다. 이들이대표하는것은흔히말하는수많은‘개인예배당’이아니라, 혁명의전망, 의미, 목표에관한서로다른많은생각들이다. 현실적개혁주의자들, 집산주의자들, 급진주의자들, 자코뱅파⁴²들, 블랑키주의자⁴³들이서로를밀치며말싸움으로시간을허비할것이다. 정직한사람들이야심가들과뒤죽박죽섞인채몰려들것이다.

그런데야심가들의유일한꿈은권력이기때문에그들은자기와같은출신의대중을경멸하며건어찰것이다. 온갖사람들이완전히정반대되는견해를갖고서함께모일것이고, 고작하루정도나지속될다수파를구성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없는하루살이연합을맺게될것이다. 그들은말다툼을하고서로를반동분자, 권위주의자, 불량배라고부르면서어떤중대한사안에대해서도서로합의를이뤄내지 못할것이다. 그들은결국하찮은것들이나질질끌면서토론하게될것이고과장된성명서이상의를만들지못할것이다. 운동의진정한힘이거리에서펼쳐지고있는동안에도, 그들모두는스스로에게대단한중요성을부여하고있을것이다. 이모든일은연극무대를좋아하는사람들을기쁘게해줄지도모른다. 그러나이것이혁명은아니다. 아직은아무것도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는동안에민중은고통받는다. 공장들은하릴없이멈춰서있고작업장도문을닫았다. 상업은정지상태에있다. 노동자들은이전에받았던빈약한임금조차도받지못한다. 음식가격은나날이비싸진다. 언제나그랬듯, 엄청난위기속에서도민중은끈기있게기다릴것이다. 1848년에프랑스민중은, “우리는궁핍한이석달을공화국에봉사하는기간으로내놓는다”라고말했다. 반면그들의대표자들과

⁴² 프랑스대혁명당시의회가장유명한격파정치단체로극단적인평등주의와폭력정치로알려졌다. 1793년중반부터 1794년중반까지혁명정부를이끌었고로베스피에르등이주도했다.

⁴³ 프랑스급진주의의전설적인순교자로명성이높은블랑크(Blan-que : 혁명이론가이며, 민중봉기의실천가)를지시하는사람들.

프랑스에서는푸리에주의자들이푸리에의주목할만한선언문을출판했다. 이선언문에는자본주의의성장에관련된것가지이론적인고찰들이더할나위없이훌륭하게설명되어있다. 이생각은오늘날‘과학적사회주의 (Scientific Socialism)’¹⁶로평해지고있다. 프루동¹⁷은국가의간섭이없는아나키즘과상호부조라는자신의사상을완성했다. 루이블랑¹⁸은『노동의조직 Organization of Labour』이라는책을출판했는데, 이책은나중에라살¹⁹의실천프로그램이되었다. 프랑스의비달(Vi-dal), 그리고보다발전한형태로독일의로렌츠슈타인²⁰은각자자기나라에서주목할만한작업을진행하면서, 1846년과 1847년에푸리에주의의이론적인개념을따로따로출간했다. 그리고마침내비달과특히베르²¹는집산주의(Collectivism)²² 체제를상세하게발전시켜나갔다. 비달은 1848년의국민회의가투표를통해집산주의에법적인외형을부여해주기를원했다.

그러나이시기의모든사회주의자의계획에는한가지공통적인특색이있었는데, 이점은분명하게짚고넘어가야한다. 19세기가밝아올무렵에글을썼던세명의중요한사회주의창시자는자기들앞에펼쳐진광대한지평선에너무나황홀해했다. 그바람에그들은자기들은자기들의사상을새로운계시로보았고, 스스로를새로운종교의창시자로여기게되었다. 사회주의는종교가되어야했고, 그들은새로운교회의우두머리로서그발전과정을질서정연하게조정해야했다. 게다가그들은프랑스대혁명에뒤따른반동의시기동안에책을썼던사람들이었다. 그래서그들은혁명이성취해낸것들보다는실패를더많이보게되면서대중을믿지않게되었다. 그리하여자기들이필요하다고생각한변화들을이루기위해대중에게호소하는방식을취하지않았다.

그와는반대로그들은그렇듯해보이는위대한통치자, 원지사회주의자처럼보이는나폴레옹이라는존재에게자신들의신념을피력했다. 나폴레옹이라면이새로운계시를이해할수도있지않겠는가. 그러면사회주의적공동생활체(팔랑스테

¹⁶ 푸리에, 생시몽, 오옌등이주장한초창기사회주의는나중에마르크스가주장한‘과학적사회주의’와는다르다는뜻으로현대에들어와서‘공상적사회주의’라는평가가붙여졌다.

¹⁷ 프랑스의사회사상가(1809-1865). 상호부조와국가의개입이없는아나키즘사상을주장했다.

¹⁸ 프랑스사회주의자(Louis Blanc, 1811-1882). 노동자들이운영하는‘사회적작업장’이론으로유명함.

¹⁹ 독일의사회주의자(Ferdinand Lassalle, 1825-1864). 마르크스의제자로초기노동운동을지도함.

²⁰ 독일의사회학자이자법학자(Lorenz von Stein, 1815-1890). 국가에의한사회정책실시를주장.

²¹ 프랑스의사회주의자작가, 저널리스트(Constantin Pecqueur, 1801-1887).

²² 개인을사회적집합체에종속되는존재로보는사회체제. 개인주의와반대의개념을갖는다. 생산수단과생산물의분배를사회가공동관리하려는시도로, 국가의개입, 소득의재분배, 공공수유제등에서는사회민주주의와비슷한뜻으로사용되기도한다.

르)²³들이나조합들의성공적인실험을보며그것이얼마나바람직한것인지를믿어주지않겠는가. 그러면자신이가진권위로인류에게좋은삶과행복을가져다줄혁명을평화롭게이루어내지않겠는가말이다. 천재적인군대통솔가이나폴레옹은당시막유럽을지배하고있었다. 왜안된단말인가? 사회조직의천재성이발현되어, 전유럽을이끌면서새로운복음을삶속에구현시키지말란법이없지않는가? 이런신념은너무나깊은뿌리를갖고있어서, 오랫동안사회주의의길위에자리를잡고있었다. 그자취들은심지어오늘날까지이어져내려와서, 우리사이에서도찾을수있다.

혁명으로다가갈수있는길들이도처에서느껴졌던시기는오직 1840 에서 1848 년사이의기간뿐이었다. 이시기에노동자계급은사회주의깃발을바리케이드위에다꽂기시작했고, 민중에대한믿음이사회개혁가들의마음속에다시한번비집고들어가기시작했다. 이믿음은한편으로는공화주의적인민주주의를이루리라는믿음이었고다른한편으로는자유로운연합, 즉노동자스스로가원하는사회를조직할힘이있다는믿음이었다.

그러나곧이어 1848 년 2 월혁명²⁴이다가왔고중산층이주도하는공화제가등장하면서희망은산산이부서졌다. 공화제선언이있은지거우 4 개월후에는노동자계급의 6 월봉기가일어났지만유혈사태를빚으며잔인하게진압되었다. 노동자들에대한일제사격이가해졌고, 수많은사람이뉴기니로유형을당했으며, 마침내나폴레옹의쿠데타가뒤따르게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은광포하게기소되었는데그들을제거하는작업이얼마나끔찍하고철저했던지, 그다음 12 년혹은 15 년동안에는사회주의의자취들을거의찾아볼수없게되었다. 사회주의관련저작물들이완전히말소되는바람에 1848 년이전에는그토록친숙했던이름들조차완전히잊힐지경이되었다. 당시유행했던 1848 년이전사회주의자들의주요한사상들이이처럼철저하게지워져버렸다가, 나중에우리세대가이사상들을새로이발견해서받아들이게되었다.

그러나 1866 년무렵에코뮌주의와집산주의가다시한번등장하면서새로운부흥이일어나게되었다. 이부흥은이상을실현할실제방법에대한생각이깊은변화를겪은채로이루어졌다. 정치적인민주주의에대한낡은신념은사라졌고, 맨처음의원칙들만이살아남았다. 이것은 1862 년과 1864 년에런던에서파리의노동자들이영국의노동조합주의자들과로버트오언지지자들과만나서합의했던내용으로‘노동자의해방은노동자스스로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 또한노동조합자체가생산수단을소유해야하며, 생산과정도자체적으로조직해야한다는원칙에도합의를보았다. 그리하여푸리에주의자들과상호부조론자들의

다. 이를테면혁명최초의날들의투쟁과바리케이드같은것들말이다. 그러나이투쟁, 처음에일어나는충돌은곧끝나버릴것이고혁명의진정한작업은오로지낡은체제가무너진뒤에야시작된다고말할수있다.

사방에서공격을당해힘을잃고무력해진구체제의지배자들은반란의입김으로곧쓸려갈것이다. 1848 년 2 월혁명당시의프랑스상황을살펴보면며칠이안되어중산층계급이옹호한군주제는사라져버렸고, 루이필리프 1 세³⁹가승합마차로도망치는동안파리는벌써자신의‘시민왕’⁴⁰을맞아버렸다. 1871 년 3 월 18 일에는티에르 (Thiers)⁴¹ 정부가몇시간만에파리를스스로의운명에맡긴채사라져버렸다. 하지만 1848 년과 1871 년에는오로지반란만이일어났을뿐이었다. 민중혁명이일어나기도전에‘구체제’의지배자들은놀라움만큼재빠르게사라져버린다. 구체제지지자들은나라밖으로도망칠것이고, 어딘가안전한곳에서음모를꾸미면서다시복귀할방책들을공리할것이다.

이전의정부가사라지고나면군대는여론의물결앞에서머뭇거리면서더이상지휘관들의명령을따르지않을것이다. 군대지휘관들역시신중하게, 그리고물래도망칠것이다. 군대는끼어들지않고중립을지키거나반란에참여할것이다. 하릴없이대기하고있는경찰은군중을진압해야하는지, 아니면‘코뮌만세!’를외쳐야할지몰라서당황할것이다.

한편어떤이들은자기숙소에조용히틀어박혀서새로운정부의의향을기다릴것이다. 부유한시민은집을싸서안전한곳으로황급히떠날것이다. 민중은남을것이다. 이것이바로혁명이자신의도착을알리는방식이다. 몇몇큰마을에서는자치정부인코뮌이선포될것이다. 거리에는수많은사람이돌아다니다가밤이되면즉석에서모임을만들어서이렇게물을것이다.

“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그리고공적인일들에관해서격렬하게토론을벌일것이다. 모두가그일들에관심을보일것이다. 지난날그런일들에가장냉담했던사람이어쩌면가장열의를보일수도있다. 모든곳에서선한의도와승리를확실히하고싶은강한열망이넘쳐흐를것이다. 이시기는승고하고헌신적인행동들이일어나는시기이다. 민중집단은앞으로나아가려는열망으로가득차있을것이다. 이모든일은장엄하고승고하다. 하지만여전히혁명은아니다. 오히려, 혁명가의일이이제막시작되었을뿐이다.

사회주의정치가들, 급진주의자들, 재능이있으나무시당했던언론인들, 정치연설가들은중산층이든노동계급이든상관없이모두빈자리를차지하려고시청

³⁹ 프랑스의마지막국왕 (Louis-Philippe, 1773-1859). 1830 년 7 월혁명으로왕위에올랐으나그가이끄는 7 월왕정은점점보수적이고친부르주아적인정책을펼쳤으며, 결국 1848 년 2 월혁명으로폐위당했다.

⁴⁰ 루이필리프 1 세의별명이다. 이전국왕들에비해서처음에는검소하게국가를다스렸기때문에이런별명이붙여졌다.

⁴¹ 프랑스의정치가이자역사가 (Adolphe Thiers, 1797-1877) 로, 1871 년에서 1873 년까지제 3 공화정의초대대통령을지냈다.

²³ 푸리에가주장한사회주의적인작업은공동생활체. 프랑스어로는팔랑주.

²⁴ 프랑스의왕정반대세력들이민중을동원하여자유주의적인개혁운동을전개하려다가경찰과충돌했고, 이로인해루이필립왕이퇴위. 파리시청에수립된임시정부는공화국을선포하고성인남자의보통선거권등여러조치들을시행했으나, 결국 1852 년나폴레옹의쿠데타로왕정이복귀되었다.

로들, 교육같은이막대한자본이독점가들이마음대로처분할수있는사유재산으로여겨지도록내버려두면안된다.

이풍요로운유산, 우리선조들에의해서고통스럽게얻어지고, 건설되고, 만들어지고, 발명된유산은반드시공동의재산이되어야한다. 그래서인류공통의 관심사가이유산으로부터모두를위한최고의행복을얻어낼수있도록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사적소유를금지하는재산수용이행해져야한다. 모두가행복한삶을사는것이목적이라면, 재산수용은그수단이다.

II

‘재산의수용’, 이문제는 20 세기사람들앞에역사가제기한문제이다. 즉, 모두의좋은삶에공헌하는코뮌주의로전부되돌아가는것을뜻한다. 그러나이문제는법률이라는수단으로는해결할수없다. 어느누구도그런상상을하지않는다. 부자들과마찬가지로가난한사람들도다음과같은사실은이해하고있다. 즉, 기존의어떤정부도이문제를해결할수없고가능한어떤정치적변화들도도마찬가지라는사실을말이다. 그들은사회혁명의필요성을느낀다. 그리고부자나가난한사람모두이혁명이곧닥쳐올일이고, 몇년안에터질지도모른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다.

19 세기후반의 50 여년동안인간의사고에서는아주큰변화가일어나고있다. 하지만이변화는유산계급에의해서실상억압받고있고, 자연스런발전이부정당해왔다. 그렇기때문에이새로운정신은이제격렬하게속박을부수고혁명안에서 실현되도록해야한다. 혁명은어디에서오게될것인가? 혁명은자신의도래를어떤식으로알릴것인가? 이질문에는어느누구도대답할수없다. 미래는감춰져있다. 하지만그것을지켜보고생각하는사람들은혁명의신호를잘못해석하지않는다. 노동자들과착취자들, 혁명가들과보수주의자들, 사상가들과활동가들모두가혁명이바로가까이에와있음을느끼고있다. 그렇다면이혁명이라는천둥번개가떨어질때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우리모두는혁명의극적인면을연구하는일에는많은주의를기울이고있지만, 혁명의실제적인작업을연구하는일에는너무적은노력을기울여왔다. 그래서우리는무대효과, 말하자면이위대한운동들의무대효과만을보려고하는경향이있

‘연합’이라는프랑스의이상이로버트오언의‘대강화무역동맹’이라는사상과손을맞잡은것이다. 이동맹은오늘날까지이어져서‘국제노동자연합’이되었다.

이새로운사회주의의부흥은고작몇년정도밖에지속되지못했다. 곧이어 1870-1871 년전쟁²⁵이일어났으며, 이제파리코뮌이일어나고사회주의의자유로운발전이프랑스에서다시일어나는게불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독일은자기네교사인마르크스와엔겔스의손을거쳐서프랑스‘1848 년세대’의사회주의를받아들였다. 말하자면독일은푸리에주의와루이블랑의사회주의, 그리고빠삐르의집산주의를수용했다는뜻이다. 프랑스는그만큼한발앞서있었던셈이다.

1871 년 3 월, 프랑스의발전을방해하는요소들을더이상바라보고만있지않겠노라고선언했다. 다시말해파리코뮌안에서자체적으로사회발전을시작하겠다는의도를선언한것이다. 이운동은너무나도빨리무너졌기에어떤공정적인결과를이루어내지못했다. 단지공동체주의만이남았으며완전한자치권에관한코뮌의권리에대한주장정도가남았을뿐이다. 하지만예전의‘국제노동자연합(인터내셔널)’에참여했던노동자계층들은이운동의역사적인중요성을즉시알아보았다. 그들은‘자유코뮌’이이제부터는현대사회주의사상을실현가능하게해주는매개체가될것이란점을이해했다. 1848 년이전에영국과프랑스에서그토록무수하게이야기되었던‘자유로운농업-공업연합코뮌’들이, 꼭 2 천명으로한정된푸리에식의팔랑스테르같은소규모공동체일필요는없었다. 이코뮌들은파리시처럼거대한덩어리집단이여야하고, 더나아가자치령정도의규모에서이루어진다면더좋은것이다. 어떤경우에이코뮌들은서로동맹하여국가를형성할수도있다. 심지어현존하는국가간의영토경계를고려할필요도없다 (5 개항구동맹²⁶이나한자동맹²⁷처럼). 이와동시에철도, 항구같은국제간의공공서비스분야에서대규모노동조합들이생겨날것이다.

이러한생각들이 1871 년이후의식있는노동자들사이에서, 특히라틴어권국가들²⁸에서막연하게나마형성되기시작했다. 자기네생활의세부사항들이정해지게될이런방식의몇몇조직들에서, 노동자단체들은다음사실을알게되었다. 국가가산업과관련된소유권을모두쥐고있거나농업과산업을조직할경우보다, 사회주의적삶의형태라는수단을통했을때그들의생활이훨씬쉽게이루어진다는사실을말이다. 이러한사상들이바로내가이책에서조금이라도명확하게표현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했던것들이다.

이책을처음썼던때²⁹로부터몇해가흐른지금에와서그당시를되돌아보면, 나는이책의주요사상들이틀림없이정확했다고분명히말할수있다. 국가가주도하

²⁵ 프로이센-프랑스전쟁. 프로이센군의압도적우세로당시비스마르크가실권을잡고있던프로이센이승리했고, 나폴레옹은포로가되었다.

²⁶ 영불해협이동쪽끝에위치한 5 개항구들이군사적, 상업적목적으로연합한것.

²⁷ 중세독일에서시작되어북유럽으로퍼져나간상인조합.

²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라틴계언어를쓰는나라들을말한다.

²⁹ 이책의초판은 1892 년에프랑스에서처음출간되었다.

는 사회주의는 분명상당히 큰 진보를 이루고 있다. 국영철도, 국영은행, 국가주도 무역이 여기저기서 활기차게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매 단계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국가 사회주의가 새로운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록 한정된 필수품들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을 지라도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동자들 가운데서, 특히서 유럽에서 하나의 사상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상은 심지어 철도망처럼 거대한 전국적 자산을 운영하는 일조차, 국가조직보다는 철도 노동자들의 동맹조합이 훨씬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사상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시도가 행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도들의 주된 사상은, 한편으로는 생산의 여러 부분들을 노동자들 스스로가 운영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단체들을 도시 안에서 계속 확대해 가자는 사상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노동조합제도 (Trade-unionism)’가 생산 운영권을 맡고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무역들을 조직하고,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 뿐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도 더 많이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산과 분배 모두를 위한 협동조합, 산업 분야와 농업 분야 모두를 위한 협동조합, 그리고 실험적인 자치 공동체들에서는 이 두 가지 사상을 결합하는 시도들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자치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온갖 다채로운 영역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가지 방향의 시도들은 나중에 엄청난 양의 창조적인 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어떤 정도라도, 코뮌주의의 대체물, 심지어 사회주의의 대체물로 여겨질 수는 없다. 코뮌주의와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라는 의미를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험적인 이런 시도들 모두를 틀림없이 살펴 봐야만 한다. 가령, 오언, 푸리에, 생시몽이 자기들의 자치 공동체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실험들은, 코뮌리스트 사회가 출현한다면 이룰 것이라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게 해 준 것들이었다. 언젠가 어느 문명 국가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설적인 재능으로 이러한 부분적인 모든 실험들을 종합해 보는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위대한 종합을 해 낸 건물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건물을 이루게 될 벽돌들의 견본들, 심지어 그 건물의 몇몇 방들의 견본들조차도 건설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의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온갖 종류의 관직으로 매년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직무는 소수 부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경제 활동들을 좌지우지하는 일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재판, 감옥, 경찰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소위 정이라고 하는 이 모든 번거로운 장치는 사실 상 아무 효과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도시의 빈곤을 아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면 언제나 범죄율이 상당히 줄어 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언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아주 해로운 정치적인 신조를 선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 당파나 저 당파, 이 쪽 정치인이나 저 쪽 투기꾼 무리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면서 ‘날조된’ 뉴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낭비되는 모든 노동 역시 고려해 봐야 한다. 여기에는, 부자들이 필요 할 때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경찰 집단, 수행원 집단을 유지하는 노동이 있다. 또 저기에는, 사고계의 번덕을 부채질 하고 유행을 쫓는 무리의 취향을 타락시키기 위해 낭비되는 노동이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소비자가 사게 만들거나, 과대 광고로 조잡한 물건을 강매하느라 낭비되는 노동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는 완전히 유해하지만 제조업자한테는 이익이 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노동의 양은 유용한 것들을 충분히 두 배로 생산 할 정도이다. 혹은 작업장들과 공장들에게 계를 배치 해서 지금 인구의 3분의 2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온갖 물품들과 상품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노동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 체제에서는 각 나라 생산자의 4분의 1 정도가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강제로 아무 일도 못하고 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4분의 1의 노동자는 부자들을 즐겁게 하거나 민중을 착취하는 결과밖에 내지 못하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명 국가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생산력을 빠르게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즉,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체제는 몇 년 안에 유용한 생산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충분하다! 우리에게 충분한 석탄과 빵과 옷이 있다!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능력을 가장 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여가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자.”

그렇다, 모든 것이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은 꿈이 아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1 에이커의 땅에서 고작 몇 부셀의 수확밖에 얻지 못하던 시절, 농업과 산업에 필요한 온갖 도구들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 써야 했던 시절에는 꿈이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력 모터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모터는 약간의 철과 석탄 몇 자루 만으로 말 (馬) 처럼 힘 세고 다루기 쉬운 숙련된 기술을 제공해 주고, 가장 복잡한 기계 장치도 작동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모두가 풍요를 누리겠다는 생각이 실현 되려면 집들, 목초지들, 경작지들, 공장들, 도

음식등이포함된수많은사치품역시굴과똑같은방식으로처분된것도말할필요가 없다. 가장필요한것들의생산이어떤식으로제한되고있는지를떠올려보는것으로충분하다.

수많은광부는매일기꺼이석탄을캐내어추위에떠는사람들에게보낼준비가되어있다. 그러나너무나자주, 광부중 3 분의 1 심지어 2 분의 1 의사들이일주일에 3 일이상을일하지못하게금지당하고있다. 그이유는물론석탄가격을계속오르게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수많은직공이직조기에서일하는것을금지당하고있다. 그들의아내와아이들이누더기를입고있으며, 유럽인구의 4 분의 3 이괜찮은웃을갖고있지못한데도그런생산제한이가해진다.

수백개의용광로와수천개의공장이주기적으로가동을멈추고아무일도하지 않으며, 다른공장들은겨우반나절만가동되기도한다. 모든문명화된나라에서는언제나 200 만명정도되는주민이오직일만하게해달라고요청하고있는데도거부당하는실정이다.

이수많은사람이황무지들을개척하게한다면얼마나좋을까! 이들이경작하기애나쁜땅을비옥한밭으로바꾸어서풍요로운수확을얻게한다면얼마나기쁜일일까! 잘관리하면서일한다면, 지금‘영구목초지’란이름으로쓸모없이방치되고있는수백만에이커³⁷의땅에서 5 배의생산을충분히해낼수있다. 또한지금에는이커당약 8 부셀³⁸의밀밖에생산하지못하는프랑스남부의건조지역들역시그만큼의생산을해낼수있다. 그런데도수많은분야에서부를생산하는일이라면기꺼이대담한개척자가되는일을기뻐할사람들이쓸모없이놓고있어야한다. 왜냐하면땅주인, 광산소유자, 공장소유자들이애초에공동체로부터빼앗을자기들의자본을터키나이집트의채권혹은남미파타고니아의금광에투자하는편을더좋아하기때문이다. 그결과로이집트의빈농들, 이탈리아의이민자들, 중국하류층노동자들이어쩔수없이노예임금을받고일하게된것이다.

이것은생산을직접적이고용의주도하게제한하는행위이다. 하지만간접적이고고의가아닌제한도있다. 이제한은인간의노동을완전히쓸모없는일에낭비하게만들거나오직부자들의아둔한허영심을만족시킬목적으로만생산을제한하는일을말한다.

어느정도의부가간접적으로제한되고있는지, 얼마만큼의에너지가낭비되고있는지를숫자로계산하는일은불가능하다. 물론그런계산을할수있었다면생산에도움이될수있었을지도모르고, 무엇보다생산에필요한기계를갖추는데유용했을지모른다. 유럽에서엄청난금액이군비로낭비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는것으로충분하다. 이군비의유일한목적은시장의통제권을손에넣어서인근국가에게유럽상품들을강제로팔고, 자국에서는보다쉽게착취를행하려하는것이다.

³⁷ 미국과유럽에서사용되는면적의단위. 1 에이커는약 4,047 m²이다.

³⁸ 주로농산물의무게를나타내는데쓰는단위로나라마다다르다. 본문에서는영국부셀을사용하고있다. 1 영국부셀은 62 파운드, 즉약 28.133 kg이다.

01. 우리가가진부富

I

인류는머나먼길을여행해왔다. 먼옛날사람들이투박한부싯돌도구를만들고, 사냥으로얻은불안정한노획물들로살아가고, 자기아이들에게바위아래의은신처와몇가지보잘것없는도구들을남겨주던때로부터머나먼길을여행해온것이다. 게다가광대하고, 잘알지못하는무시무시한자연이있었기에인류는자신들의비참한생존을유지하기위해자연과싸워나가야했다.

그럼에도그기나긴격동의세월이흐르는동안인류는헤아릴수없을만큼많은부富를축적했다. 땅을개간하고, 습지의물을빼고, 숲을벌채하고, 도로를건설하고, 산에터널을뚫었다. 건물을짓고, 발명을하고, 관찰하고, 추론해왔다. 또한복잡한도구들을만들고, 자연으로부터힘들게그비밀을캐내었으며, 마침내증기와전기를마음대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 그결과문명화된인간의아이는이전에살았던사람들이축적해놓은막대한자본을이용할준비가된채태어나는셈이다. 그리고이러한자본덕분에서사람들은자신의노동을타인의노동과결합하는것만으로도많은부를얻을수있게되었다.

넓은지역까지말끔하게개간된땅은최고품질의씨앗들을심기에안성맞춤인상태이다. 거기에기술과노동력이보태지면우리에게풍요로운보답을해줄것이

다. 이 보답은 인류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합리적인 경작 방법들도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의 드넓은 초원에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100 명의 사람들이 1 년 동안 1 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밀을 몇 달 만에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생산물을 몇 배로 증가시키고 싶다면, 땅을 잘 만듦과 각각의 작물을 적절하게 보살핌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사냥꾼은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려고 오륙십 마일을 돌아다녀야 했지만, 현재의 문명인은 그것의 천분의 1 밖에 안 되는 면적에서 훨씬 적은 수고로 보다 안정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 기후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 태양의 열기가 약해지면 인공적으로 난방을 하여 대신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식물 생장을 자극하는 일에도 인공적인 빛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인간은 유리온실과 온수 파이프를 이용해 정해진 공간을 자연적인 상태일 때보다 10-15 배는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다.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성취는 더욱 더 감탄할 만하다. 대부분 그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발명가들의 결실인 현대적 기계들을 이용해서 현재 100 명의 사람들이 1 만 명이 2 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의복과 관련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잘 운영되는 석탄 광산에서는 100 명의 광부들이 1 만 가구가 추운 날씨에 난방을 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매년 충분히 공급한다. 최근에는 만국 박람회를 위한 놀람도 화려한 도시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우뚝 솟아 오르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은 개척 국가들의 일상 생활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고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농업에서처럼 제조업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선조들의 노동, 발견, 발명이 소수에게 주로 이득을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도 분명하다. 즉, 인류 전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강철과 철제 발명품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이미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부유하고, 현재의 기계 장비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부유하다. 그리고 우리의 땅, 제조업들, 과학, 기술적 지식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해 쓰인다면 우리는 더 할 나위 없이 부유해질 것이다.

II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부유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가? 어쩌서 대다수 사람은 그토록 단조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가? 심지어

이런 까닭으로 영국의 인구는 1844 년부터 1890 년까지만 62 퍼센트 증가했을 뿐인데도, 생산은 가장 낮게 잡아도 2 배 정도인 130 퍼센트 성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인구가 더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생산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빈번히 찾아오는 농업 위기, 국가의 방해, 혈세 (징병제), 투기적인 상업과 금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밀 생산량은 4 배나 증가했으며 산업 생산량도 지난 80 년 동안 10 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진보가 더욱 인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민자들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혹은 유럽의 과잉 노동력의 유입이라든지 유덕분인지 미국에서는 10 배나 많은 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더 나은 조건 아래서 우리의 부가 어떠할지 아주 희미하게만 어림잡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부와 생산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과 나란히,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와 중간 상인의 수도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본이 점점 소수의 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소수 백만장자의 재산을 수용해서 합법적으로 모두의 유산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의 이런 예측이 사실로 입증되기는 커녕,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생충 무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민 30 명당 실제로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10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나라의 전체 농업 생산량은 700 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일한 결과이다. 그리고 광산업과 섬유업이라는 두 거대한 산업 부분에서도 노동자의 수가 250 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영국에서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 100 만 명이 조금 넘는 노동자가 전체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광산에서는 90 만 명이 못 되는 사람이 일하고 있고, 200 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 인구 조사에 따르면 겨우 400 만 명이 조금 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 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주註: 현재 국가 군수품 공장을 포함한 산업의 서로 다른 53 개의 부분에는 4,013,711 명의 사람이 고용되어 있다. 그리고 241,530 명의 노동자가 '철도 건설 및 관리국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Railways)'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의 총 생산량은 1,041,037,000 파운드에 이르며 순이익은 406,799,000 파운드다.)

그러므로 통계학자들은 4 천 500 만 명의 영국 주민 중 최대 800 만 명이 생산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숫자를 부풀려야 한다. 엄밀히 말해 영국에서 전세계 구석구석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의 수는 겨우 600 만에서 700 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곳저곳에서도 노동의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가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일하지 않고도 부당한 이익을 쌓아 올리는 주주와 중간 상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것이 전부 아니다. 자본 소유자들은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량을 떨어트린다. 지금까지 부자들만 먹었던 맛있는 진미들을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막으려고 다량의 굴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직물과

02.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권리

I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삶은 꿈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 덕분에 그런 삶은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문명화된 나라의 주민 중 생산하는 사람들은 3분의 1 도 채 되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그 이상도 알고 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일한 결과물을 헛되이 탕진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일을 하게 한다면, 우리의 부는 생산자들의 수에 비례해 증가할 것이 고어쩌면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의 예언자인 맬서스³⁶가 발표한 이론과는 반대로, 인류의 생산력은 번식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땅에 더욱 밀집해서 살게 될수록 그들이 부를 창조하는 힘 역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³⁶ 영국의 목사이자 경제학자 (Thomas Malthus, 1766-1834). 인구가 식량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빈곤과 전쟁, 약육이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노동자조차 왜 불확실한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면 모두에게 안락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생산수단을 가졌는데도 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 되풀이해서 말해 왔다. 매일 그들은 온갖 학문에서 가져온 논거로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소수의 사람이 땅, 광산, 도로, 기계, 식량, 주택, 교육, 지식처럼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이 강탈의 역사과정은 강제 이주와 전쟁들이 일어난 과정이고, 무지와 억압의 역사과정이었다. 이것은 인류가 자연의 힘을 제압하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인류의 생활이었다.

그 이유는 또한 이 소수의 사람이 과거에 자기들이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권리를 이용해서, 오늘날 노동 생산물의 3분의 2를 횡령하고 있는 가장 어리석고 부끄러운 방식으로 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한 달, 심지어 한 주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몰락시켜 놓고 대부분의 몫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조건에서만 다수에게 일을 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 소수의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며, 모두의 삶에 필요한 생필품이 아니라 독점가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생산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실에 모든 사회주의의 본질이 있다.

문명화된 나라를 실제로 살펴 보라. 예전에 온통 숲이었던 삼림지들은 개간되었고, 습지는 배수되었으며, 기후도 좋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예전에는 거친 식물들만 자랐던 땅이 오늘날에는 풍성한 수확물로 뒤덮여 있다. 계곡에 있던 바위들은 계단식 밭을 만드는 데 쓰여서 포도나무들이 그 위를 덮고 있다. 독하고 쓸쓸한 야생 열매나 먹을 수 없는 뿌리 말고는 사람이 먹을 만한 것들을 생산하지 못했던 야생 식물이 수 세대에 걸친 재배를 통해 즙이 많은 채소와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로 바뀌었다.

수많은 도로와 철도가 땅을 가르며 뻗어 있고 터널이 뚫린 산들을 가로질러 간다. 알프스, 코카서스, 히말라야 산맥의 황량한 협곡에서도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들린다. 강들은 배가 다닐 수 있게 되었고 해안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힘들게 건설된 인공 항만들이 광포한 바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배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바위를 뚫고 깊은 수직갱도들이 건설되고 미국 같은 지하 광산의 통로들이 건설되어서 석탄이나 광물들을 캐낼 수 있게 되었다.

도로들이 서로 교차하는 곳에서는 거대한 도시들이 생겨났으며, 그 안에서 산업, 과학, 예술의 모든 보물이 축적되고 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 갔고 지배자들에게 억압당하고 학대당했으며 고된 노동으로 기진맥진했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막대한 유산을 우리 세기에 물려준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숲을 개간하고, 습지의 물을 빼고, 도로를 건설하고, 뱃길을 내는 일을 해 왔다. 유럽에서 경작되는 모든 땅은 여러 민족의 땀으로 일궈졌다. 각각의 땅마다 강요된 노동의 이야기, 참을 수 없고 고된 노동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이 겪어온 고통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모든 철도와 터널에도 사람들이 흘린 피와 자국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광산의 수직갱도의 바위벽에는 그 갱도를 파기 위해 고군분투한 광부들의 땀이 자국이여 전히 남아 있다. 지하갱도를 지탱하는 기둥들 사이의 어느 공간에는 어떤 광부의 무덤이라는 표시가 새겨져 있을 수도 있다. 이 무덤들 각각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의 눈물, 그들의 궁핍과 비참함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탄갱안의 가스 폭발이나 바위가 무너지는 사고, 또는 홍수로 인한 한창 나이의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의 빈약한 급여에 의존해서 살던 가족들의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철로와 수로로 둘러싸인 도시들은 수 세기에 걸쳐서 유지되어 온 유기적인 조직체이다. 이 도시 아래를 파헤쳐 보라. 그러면 거리들, 집들, 극장들, 공공 건물들의 토대들이 하나 위에 또 하나 쌓인 식으로 층층이 건설된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도시의 역사를 조사해보면 그 도시가 문명화된 과정, 산업과 도시 고유의 특성들이 어떤 식으로 천천히 성장하고 성숙해왔는지 알 수 있다. 그 도시들은 몇 세대에 걸친 주민의 협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 도시의 모든 주택, 공장, 큰 상업들 각각이 지닌 가치는 지금은 죽어서 묻힌 수백 만 명의 노동자가 쌓아 올린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수많은 사람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국가의 부유’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개개 요소들의 가치는 그것들이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 때문에 생겨난다. 국제적인 상업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중심 도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런던의 조선소나 파리의 대형 상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바다와 육로를 통해서 매일 엄청난 양의 상품들이 수송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광산들, 공장들, 작업장들, 철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동해 왔다. 지구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른 수많은 이는 지금도 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이 문명은 50 년 안에 폐허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 어떤 사상이나 발명조차도 과거와 현재로부터 유래하는 공동의 재산이 아닌 것은 없다.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발명가들, 빈곤 속에서 죽어간 수 천 명의 발명가들이 인간의 재능을 구현하고 있는 이 기계들 각각을 발명하는 일에 협력해 왔기 때문이다.

수 천 명의 작가, 시인, 학자들이 지식을 늘리고 오류를 바로잡고 과학적 사고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세기의 경이로운 것들은 결코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수많은 철학자들, 시인들, 학자들, 발명가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과거 수많은 세기 동안 이루어진 ‘노동들’이다.

가야 한다. 즉, 생산수단들은 인류의 집단적인 노동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 때문에 생산역시 인류 공동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개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전혀 공정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힘닿는 데까지 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를 생산하는 데 각 사람들이 기여한 몫을 측정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여기, 막대한 양의 도구와 가구가 있다. 여기, 우리가 기계라고 부르는 철로 된 노예들이 있다. 이 기계들은 우리를 위해 톱질과 대패질을 대신하고, 실을 잣고 천을 짜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원자재를 가공해서 우리 시대의 경이로운 물건들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기계들 중 단 하나라도 자기 것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

“이 기계는 내 것이다. 당신이 이걸 사용하고 싶다면 당신이 생산한 모든 것에 부과된 세금을 내야만 한다.”

모든 세 시대의 봉건 영주가 소작농들에게 “이 언덕과 이들 판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수확하는 옥수수만 다 밟아 마다, 쌓아 올리는 벽돌 한 장 마다 매긴 세금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할 권리가 더 이상 없다.

모든 것이 모두의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일을 공평하게 분담해서 한다면, 그들은 함께 생산한 것을 공정하게 나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일할 권리’ 혹은 ‘각자는 자신이 일한 결과물들을 모두가 가져간다’와 같은 애매한 문구들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이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권리’이다!

웃나라들에게 규약을 강요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난다. 반란을 일으키는 저 ‘흑인들’을 쳐부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온 세상에서 대포 소리가 그칠 날이 없고, 민족 전체가 대량 학살되는 일도 일어난다. 유럽 나라들은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군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금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무겁게 부과되는지를 알고 있다.

교육도 여전히 소수 사람의 특권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자녀들이 열세 살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광산으로 일하러 가거나, 아버지를 돕느라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야만적인 작업 환경에서 과도하게 일하느라 녹초가 된 채 집에 돌아오는 노동자에게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쓸데없는 일이다.

사회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적대적인 집단으로 나뉘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란 한곳을 거머쥔 말에 불과하다.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어떤 사람은 아마 정치적인 권리를 크게 확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곧 이해방의 속삭임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향상과 성장으로 이어짐을 알고서는, 뒤돌아서서 자신의 의견을 바꿔 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억압적인 법률과 무력으로 지배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러한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정에 쫓겨서 있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 판사들, 사형 집행자들, 경찰들, 교도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첩보 행위, 거짓 증언, 스파이 행위, 협박, 부패를 번갈아 저지르면서 이 체제를 유지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는 사회적인 감정이 성장하는 것을 차례로 가로막는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올바름이 없으면, 자존감이 없으면, 연민과 상호 부조가 없으면 인류가 절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로를 약탈하며 살아갔던 일부 종들이 사라졌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상들은 지배 계급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배 계급은 우리와 반대의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사이비 과학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훌륭한 설교들은 가진 자들이 못가진 이들에게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이 원리를 실행해 보려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감정들이 사실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고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는다.

“거짓말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다”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럼에도 문명화된 삶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자신과 아이들은 위선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결과 속이 다른 도덕을 실천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는 거짓말들 사이에서 기분이 언짢아지기 때문에 궤변으로 스스로를 속인다. 위선과 궤변은 문명인의 두 번째 천성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런 식으로는 존속할 수 없다. 사회는 다시 진실 쪽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최초의 독점 행위에서 생겨난 결과들이 사회적 삶의 전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인간 사회는 최초의 원칙들로 되돌아

가령 생권³⁰, 마이어³¹, 그로브³²의 천재성은 산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서 전 세계의 모든 자본가보다 분명 더 많이 기여했다. 하지만 천재적인 사람들은 스스로가 과학의 아이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아이들이기도 하다. 수천 개의 증기 기관이 수년 동안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작동되고, 증기 기관의 열기가 부단히 동력으로 변환되고, 그 동력이 소리, 빛, 전기로 변환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천재들의 통찰은 그것의 기계적인 원인과 물리적인 힘들의 결합에 대해 공표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 세기의 아이들인 우리가 마침내 개념을 파악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매일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18 세기의 과학자들도 이 개념을 알았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18 세기에는 19 세기처럼 증기 기관과 나란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 산업에 혁명을 가져온 이 원리를 알지 못했거나 가버렸을지도 모르는 수십 년의 세월을 상상해 보라. 즉, 와트³³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급속도로 구체화시키고, 그가 구상한 엔진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소호³⁴에서 찾아 내지 못했더라면, 그리하여 완전한 기계 장치 속에 갇히게 된 이 증기, 말(馬)보다 온순하고 물보다 다루기 쉽게 된 이 증기가 마침내 현대 산업을 일으킨 핵심이 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라.

모든 기계가 이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역사는 오랜 기간의 잠 못 이루는 밤들과 가난, 환멸과 기쁨들, 그리고 몇 세대에 걸친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발견해 낸 부분적인 개선점들에 대한 긴 기록이다. 이 노동자들은 원래의 발명에다가 사소한 것들을 덧붙였는데,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가장 창조적인 아이디어들도 쓸모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새로운 발명은 하나의 종합이고, 그 이전에 역학(力學)과 산업의 광대한 분야에 서 이미 이루어진 해아릴 수 없는 발명들의 결과물이다.

과학과 산업, 지식과 그 응용, 발견과 그것의 구체적인 현실화, 그 덕분에 이어진 새로운 발견들, 두뇌와 손의 정교한 솜씨,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은 모두 협력해서 일한다. 각각의 발견, 각각의 진보, 인간부의 총합을 증가시킨 각각의 성장은 과거와 현재 사람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고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다.

³⁰ 프랑스의 엔지니어 (Marc Séguin, 1786-1875) 로, 연관보일러를 발명했다.

³¹ 독일의 의사이자 물리학자 (Julius Robert von mayer, 1814-1878) 로 열역학 제 1 법칙의 확립에 기여했다.

³²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 (William Robert Grove, 1811-1896) 로 화학 전지를 발명했다.

³³ 스코틀랜드의 엔지니어이자 발명가 (James Watt, 1736-1819). 증기 기관의 완성자로 유명하다.

³⁴ 와트가 동업자 매튜 볼턴과 함께 증기 기관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공장은 영국 버밍엄의 소호에 있었다.

그렇다면어느누가도대체무슨권리로이거대한전체의가장작은부분이나마 자기것이라고할수있단말인가? 무슨권리를가지고서“이것은당신들것이아니라 내것이다!”라고말할수있단말인가?

III

그러나인류가가로질러온무수한세월이흘러가는과정에서이런일이일어났다. 사람이생산을하도록해주고, 자신의생산력을늘릴수있게해주는모든것이소수사람의손에쥐어진것이다. 언젠가, 아마도우리는어떻게이런일이일어나게되었는지말할수있을것이다. 지금은그런사실이있다는것을언급하고, 그결과를분석하는것으로충분하다.

계속증가하는인구의필요들을충족시킬수있는것은실제로땅이가진가치덕분이다. 그런데오늘날이땅은소수의사람에게속해있다. 그리고이소수는다른이들이그땅을마음대로경작하는것을가로막거나, 현대적방식에따라서땅을경작하는것을허락하지않고있다.

광산들역시수세대에걸친노동의결과물이고, 그것의고유한가치는오직한나라의산업적인요구와인구밀도에서나온다. 그럼에도광산들역시소수가소유하고있다. 이소수의사람은자기들의자본증식에유리한투자라고여겨지면, 석탄생산량을제한하거나생산을완전히금지하기도한다.

기계역시소수의배타적인소유물이되었다. 심지어어떤기계가잘작동되는이유는처음의허술한발명에다가서너세대의노동자들이보다향상된기술을덧붙였기때문이라는것이논쟁의여지가없는사실인데도, 소수만이이기계를소유하고있다. 가령, 한세기전에레이스만드는기계를처음만들어낸발명가의자손들이오늘날스위스바젤이나영국노팅엄의레이스공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라고가정해보자. 이들이그곳에서자신의권리를주장한다면, 이런말들을들것이다.

“손대지마! 이기계는당신들것이아니야.”

철도는유럽의넘쳐나는인구, 산업, 상업, 시장이없다면낡고쓸모없는고철덩어리에불과하다. 이런철도들역시몇몇주주가소유하고있는데, 아마도그들은중세시대왕들보다더많은수입을가져다주는철도노선들이어디에위치하고있는지조차잘모를것이다. 이철로들을파내고, 깎아내고, 터널을뚫느라하루에도수천명이죽었다. 그런데만약그렇게죽어간이들의자손이누더기를입고굶주린채

로모여들어서철도주주들에게빵을달라고요구한다면, 총검과포탄이이들을뿔뿔이흩어놓을것이고‘기득권의이익’은안전하게지켜질것이다.

이처럼터무니없고악랄한체제때문에노동자의자식은자신이생산할커다란몫을주인에게넘겨주는것에동의하지않으면경작할수있는땅이없다. 관리할수있는기계도없고, 파낼수있는광산도없이인생을시작하게된다. 그는인색하고불안정한임금을얻기위해자신의노동력을팔아야한다. 그의할아버지와아버지가고되게일해서이농토에배수설비를했고기계를완전하게만들었다. 온힘을다바쳐서그일들을했는데도그들의자손은가장비천한노예보다도더가난한상태로세상에태어난다.

그들이땅을경작하도록허락을받는경우는생산물의 4 분의 1 을땅주인에게넘겨준다는조건일때만가능하다. 또다른 4 분의 1 은정부와중간상인에게넘겨주어야한다. 그리고국가, 자본가, 땅주인, 중간상인이징수해가는이런세금은언제나계속해서높아만간다. 이때문에그에게는자신의경작방법을개선시킬수있는여력도거의남아있지않다. 만약이자손이산업분야에서일을한다면, 그는국가가기계주의인이라고인정한사람들에게생산물의 3 분의 2 를넘기겠다는조건에서만일하도록허락받는다. 심지어이런일조차도항상얻을수있는것이아니다.

우리는봉건시대의영주들을소리높여비난한다. 영주들은소작농이생산한수확물의 4 분의 1 을넘겨주지않으면흫덩이하나도만지지못하게했던자들이다. 우리는그시절을아만적인시대라고부른다. 하지만형식만바뀌었을뿐지금도그런관계는똑같이남아있기때문에, 노동자들은자유계약이라는명목으로봉건적인의무를강제로받아들여야한다. 왜냐하면어디를가더라도더 나은조건을찾을수없기때문이다. 모든것이사유재산이기때문에그는이조건을받아들이거나 굶어죽을수밖에없다.

일이이런상황으로되어버린탓에우리의모든생산은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는것처럼보인다. 기업은공동체의필요를전혀생각하지않는다. 기업의유일한목표는투기꾼들의이익을늘리는것뿐이다. 이로인해일어나는무역시장의끊임없는변동과주기적으로일어나는산업위기때문에수많은노동자가거리로내몰리게된다.

노동하는사람들은자기임금으로자신들이생산한부를구매할수없다. 그리고산업은다른나라의부유한계급들에게상품을팔수있는해외시장을찾고있다. 따라서유럽인들은동양의나라들, 아프리카, 이집트, 톤킨³⁵, 콩고등지에서반드시농노제도의성장을조장해야만한다. 그리고그들은그렇게하고있다. 그러나유럽인들은곧어디에나자신과비슷한경쟁자가있음을알게된다. 모든국가가비슷한노선을따르며발전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끊임없는전쟁이일어난다. 시장에서우선권을차지하기위한전쟁, 동양을소유하기위한전쟁, 바다를지배하기위한전쟁, 수입품에관세를부과하고이

³⁵ 프랑스식민지시대에베트남북부홍강유역을가리키던명칭.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약간의 불평등과 피할 수 없는 부정행위는 틀림 없이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기주의의 수렁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끌어낼 수 없는 개인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부정행위가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부정행위의 수를 제한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경험, 그리고 모든 사회심리학은 일치 단결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장 훌륭하고 공정한 방법은 그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도록 믿고 맡겨두는 일이라고 말이다. 오로지 당사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직무상의 재분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빠트리게 되는 세부사항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검토하고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당사자들뿐이다.

III

더욱이 단번에 모든 주택을 완전히 공평하게 재분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산 수용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머지않아 문제들이 바로 잡힌다. 벽돌공들, 목수들, 그리고 주택 건축과 관련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자기들이 먹을 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자기들이 이전에 해왔던 일에서 중사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과거에 노동자들의 시간을 빼앗아 갔던 멋진 저택들을 개조해서, 대여섯 가구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몇 달 안에 새로운 집들이 세워질 것이고, 틀림없이 이 집들은 오늘날 노동자가 사는 집들보다 더 위생적이고 편리한 설비가 갖춰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편안한 집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나키즘적 코원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동지들, 조금만 기다리시오! 우리의 해방된 도시에는 자본가들이 자기를 위해 지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멋있고 훌륭한 집들이 건설될 것이요. 그 집들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요. 아나키즘적 코원은 이익을 보려고 건물을 짓지는 않는다오. 시민을 위해 세워지는 이 건축물들은 집단 정신의 산물로 온 인류에게 모범이 될 것이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모범 말이다.”

만일 혁명을 일으킨 민중이 주택들을 수용하고 임대료 없이 살 수 있음을 선언한다면, 주택들을 공유화하고 모든 가정이 버젓한 집에서 살 권리를 선언한다면, 혁명은 처음부터 코원주의적인 특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특성이서 결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혁명은 사유 재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지난 50 년의 역사는 대의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의회 정치라는 대의제 정부는 우리가 부여한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서 아주 무능했다는 사실 말이다. 앞으로 다가올 어느 시대에는, 19 세기를 인용할 때 의회 정치 (parliamentarism)⁵¹의 실패를 목격할 시기라고 말할 것이다.

이 무능은 모두에게 아주 자명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의회 정치의 결함들과 대의제 원리의 타고 난 사악함은 워낙 자명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연구했던 몇몇 사상가들 (J. S. 밀⁵², 러버데이스⁵³)조차 대중의 불만을 문학적 인형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몇몇 사람을 의원으로 지명하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지는 실제로 금방 알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활동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도록 하시오. 비록 당신들 중 누구도 그 영역들에 관해서는 사람이 없을 지라도 말이오!”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다. 다수파가 지배하는 정부는 기회주의자들에게 나라의 온갖 일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기회주의자들은 의회나 선거 위원회에서 다수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서, 간단히 말해 자기의 고유한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인류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고 이미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 국제 우편 노동 조합, 철도 노동 조합, 그리고 학문 연구 단체들은 법을 대신해서 자유로운 협약에 기초한 해결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날 여가 지기에 널리 흠여져 있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국제 의회’를 더 이상 선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갈 것이다. 직접 만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편지 왕래로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점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대표자를 파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할 것이다.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의 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하시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호주머니에 법률이 아니라 합의안을 넣어서 돌아오시오. 우리가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말이오.”

이런 방법이 바로 대규모 기업, 학문 연구 단체, 온갖 종류의 수많은 조합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 이미 유럽과 미국에 널리 퍼진 방법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자유로운 미래 사회의 방법이 될 것이다. 농노제도에 기반을 둔 사회는 전제 군주제를 유지하는 사회이다. 임금제도와 자본가들에 의한 대중의 착취에 토대를 둔 사회는, 정치적인 표현 수단으로 의회 정치를 이용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와 공동의 자산을 되찾게 된 사회는, 자유로운 단체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를 추구해야 하고, 역사의 새로운 경제 단계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

⁵¹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하는 정치 방식. 의회주의라고도 한다.

⁵² 자유주의 사상가인 영국의 철학자, 경제학자 (John Stuart Mill, 1806-1873). 『자유론』의 저자.

⁵³ 프랑스의 정치 경제학자 (Emile Levrays, 1835-1890). 많은 정치 pamphlet을 썼으며 파리로 와서 활동함.

운조직을 추구해야 한다. 각각의 경제적 단계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삶이 동시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유재산을 건드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질수 있다. 그런 뒤 시민은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아마도 비참한 다락방이나 오두막에서 살고 있을 동지들을 찾아내서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동지, 이번에는 진정한 혁명이고, 틀림없는 것 같소. 오늘 저녁에 이 장소로 오시오. 모든 이웃이 그곳에 와 있을 것이요. 우리는 주택들을 재분배할 것이요. 당신이 이 빈민굴 같은 다락방에서 사는데 지쳤다면, 와서 준비된 집들 중 방이 다섯 개 딸린 아파트를 고르시오. 그리고 일단 그곳에 이사를 하게 되면, 당신은 계속 살 수 있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소. 민중이 무기를 들고 있고, 감히 당신을 쫓아 내려오는 사람은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은 집과 넓은 아파트를 원할 것이다!”

아니다. 당신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달라고 시끄럽게 요구하는 것은 민중의 방식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항상 그들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아왔으며, 민중을 활기차게 해주는 분별 있는 양식과 정의로운 천성에 깊은 인상을 받곤 했다. 민중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두 번의 도시 봉쇄 기간과 참혹했던 1792년부터 1794년까지의 시기 동안, 파리의 민중이 배급식량과 장작을 서로 달라고 맞붙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1871년에 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참을성과 불평을 감내하는 태도는 외국 언론의特派원들이 끊임없이 찬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다. 맨 마지막 으로는 사람은 음식이나 불 없이 그날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립된 개인에게는 아주 많은 이기적인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런 본능들을 되살리고 장려하는 방법은 바로, 민중이 살집과 같은 문제들을 무슨 위원회나 이사회가 관할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방법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문제를 관료주의의 허약한 자비심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온갖 사악한 열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위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아주 작은 불평등이 말다툼과 상호 비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주어지게 되면, 엄청난 고통과 항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럴 만 한 이유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민중 스스로가 자기가 사는 거리들, 구역들, 지역들에서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고, 빈민가의 주민을 반쯤 비어 있는 중산층이 살던 주택으로 이사하게 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사소한 불편들과 작은 불평등은 어렵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의 선한 천성에 호소를 했던 적은 좀처럼 없었다. 이런 경우는 오직 혁명의 시기에 가라앉는 배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쓰였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런 호소가 헛되이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동자의 자기 헌신과 숭고한 행위가 호소에 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혁명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만약주택수용이라는아이디어가민중의해택된다면, 우리를위협하고있는넘을수없는모든장애물에도불구하고그것은실행될것이다. 물론새제복을입고서시청사무실의팔걸이의자에앉아있는훌륭하신분들은분명히장애물들을쌓아올리느라고바쁠것이다. 그들은집주인들에게지불할보상금과통계자료만드는일에대해이야기하고기다란보고서를작성하며시간을끌것이다.

강제로아무일도못한채기다리면서굶주림을겪고있던민중은결국아무일도안일어난다는사실을알게된다. 그들은혁명에대한애정과신뢰를잃어버리고, 반동주의자들이활약하게내버려둘것이다. 새로운관료주의는주택수용을모든이의눈에역겨운것으로비치도록만들면서끝내버릴것이다.

바로여기에실제로우리의희망을좌초시킬지도모르는암초가있다. 그러나만약민중이과거에자기들을현혹시켰던, 겉으로만그럴싸한주장들을무시하고새로운삶에는새로운조건들이필요하다는사실을깨닫게된다면, 그리고그들이직접그임무를수행하게된다면주택수용은큰어려움없이실행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어떻게? 어떻게그일을할수있단말인가?”

사람들이우리에게묻는다. 우리는이질문에대답하려고노력하겠지만한가지유보조건이있다. 우리는주택수용계획들을아주세세한부분까지설명하겠다는의도가전혀없다. 어떤사람이나단체는모두지금예상하는것보다앞으로다가올현실에서훨씬잘해낼수있으리라는사실을우리는이미알고있다. 인간은앞으로더욱위대한일들을성취해낼것이다. 그리고인간은예전에명령에따라행한것보다훨씬간단한방법으로훨씬잘해낼것이다. 그래서우리는어떤종류의주택수용이정부의개입없이이루어질수있을지에대해서만이야기하려고한다.

우리는그런일은불가능하다고단언하는사람들에게대답하려고우리의방식에서벗어날생각이전혀없다. 다만, 우리가어떤특정조직체계를옹호하는사람들이아니라는점만은말할수있다. 우리는재산수용이민중의주도에의해실행될수있다는사실을증명하는일에만관심이있다. 그리고그것말고는다른어떤방법으로도실행될수없음을보여주는일에관심이있을뿐이다.

주택수용이공정하게시작되자마자자원자단체들이모든지역과거리, 주택가에서생겨날것이라는점은아주분명하다. 이단체들은비어있는아파트와주택의수를조사하고, 지나치게많은사람이밀집해서살고있는집들의수를조사할것이다. 또비위생적인빈민가들, 거주하는사람수에비해지나치게넓은집들을조사해서비좁은공동거주지에서우글우글모여사느라숨이막힐지경인사람들이넓은집을이용할수있게할것이다. 오래지않아자원자들은거리와구역에있는모든아파트, 공동거주지, 가정집과시골저택을포함하는목록을완성할것이다. 그리고그목록에는모든방들이위생적인지아닌지, 크기작은지, 악취나는오두막인지호화로운저택인지까지가전부적혀있을것이다.

자원자들은자유롭게서로의논하며곧통계자료들을완성해낼것이다. 회의실과사무실들에서는잘못된통계가만들어질수도있겠지만, 올바르게정확한통계는개별적으로시작해서간단한것에서부터복잡한것으로자료를쌓아가야만만들

04. 사유재산수용

로스차일드⁵⁴는 1848년혁명때문에자신의재산이위협을받게되자, 다음과 같은책략을구상했다. 그는이렇게말했다.

“나는내재산이다른사람들의희생으로쌓였다는것을기꺼이인정한다. 하지만내일당장내재산을수많은유럽인에게분배한다면, 한사람이받을수있는몫은 고작 4 실링밖에되지않는다. 그렇다면좋다. 누군가내게자기몫을달라고요구한다면한사람당 4 실링씩을나눠줄것을약속하겠다.”

자기의약속을적당히공표하고난이백만장자께서는여느때처럼독일프랑크푸르트의거리를조용히산책했다. 지나가던행인서너명이그에게 4 실링을요구하자그는냉소적인미소를지으며돈을건네줬다. 그의책략은성공했고, 백만장자인그의가족은여전히그재산을그대로소유하고있다. 중산층의약삭빠른사람들도이와비슷한논리를내세우면서이렇게말한다.

“오, 사유재산의수용! 나는그게무얼뜻하는지잘알고있다. 사람들에게서외투를모두가져가서는산더미처럼쌓아놓는것이다. 그러면모든사람이자유롭게원하는걸가져갈수있고, 제일좋은외투를차지하려고자유롭게싸울수있다는뜻이다.”

그러나이런실없는조롱은경박하고얼토당토않은말이다. 우리가원하는것은외투들을다시분배하는것이아니다. 추위에떠는사람들은이런식의재분배에서이득을볼수있을지라도말이다. 또한우리가원하는것이로스차일드가문의엄청난재산을각자나눠갖자는것도아니다. 우리가원하는것은이세상에태어난모든사람이필요한기회를보장받을수있도록상황을조정하자는것이다. 가령, 쓸모있는기술을배울수있는기회, 그기술에숙달될수있는기회같은것들말이다. 그다음으로는우두머리나주인에게허락을구하지않고자유롭게일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 그리고자신이생산한것중제일큰몫을주인이나자본가에게넘겨주는일이없어야한다. 로스차일드가문이나반더빌트⁵⁵가문이소유하고있는재산은우리의자치적인공동생산체제를만드는일에쓰이게될것이다.

농부가자신이생산한것의절반을세금으로빼앗기지않으면서땅을경작하는날, 풍성한수확을위해땅을준비하는데필요한기계들을자유롭게쓸수있는날, 공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독점자본가가아닌공동체를위해서생산하는날, 그날은노동하는사람들이충분히먹고잘입는모습을보게되는날일것이고, 로스차일드가문이나다른착취자들이사라지는날일것이다. 그때가되면어느누구도자신

하지만새로운정부가앞으로무슨일을할지누가알겠는가? 새정부가강압적인수단을써서다시그런것을하지않으리라고누가말할수있을것인가? 새정부가그를오두막집에서쫓아내려고경찰을배치하지않으리라고누가말할수있을것인가? 파리로뮌이오직 4 월 1 일까지지불할집세만을면제한다고선언했음을보지않았던가! (3 월 30 일포고령: 이포고령에의해서 1870 년 10 월과 1871 년 1 월, 4 월까지지불하게되어있었던집세는무효가되었다.)

그다음부터노동자들은다시집세를지불해야했다. 당시파리가혼란상태에빠져서산업이정지한상태였는데도그러했다. 그래서파리의독립을지키기위해무기를들었던‘연합군’사람들한테하루 15 펜스의수당말고는자신과가족들이의지할만한것이아무것도없었던것이다!

이제는노동자가확실히알수있도록해야한다. 집주인이나소유주에게집세의지불을거부함으로써그가얻는것이단순히권위의해체로얻는이익만이아니라는사실을말이다. 임대료의폐지는그정당성이인정되고승인을받은것으로, 말하자면다수의동의를얻은것이라는사실을노동자는이해해야한다. 임대료없는집에서사는것은민중이큰소리로선언한정당한권리이다.

모든정직한사람의정의감에부합하는이방법이, 중산층들사이에흠여져있는몇몇사회주의자의해책택필때까지우리는기다려야할까? 혹은임시정부가구성될때까지기다려야할까? 만약그때까지기다려야한다면, 민중은오랫동안기다려야할것이다. 사실상반동세력이다시복귀할때까지말이다. 바로이런이유때문에권위와예속의외적표시인제복과배지들을거부하고, 민중사이에민중으로남아있는진정한혁명가들이민중과함께차츰차츰집세의폐지, 주택들을공유화하는일을실제로이루어나갈것이다.

그들은이런일들을위한토대를마련하고생각들이이방향으로성장하도록격려할것이다. 그리고이들이수행한노동이결실을맺었을때, 민중은틀림없이주택을공유화하는길로나아갈것이다. 그들은자기들의방식을방해할것이분명한이론들에귀를기울이지않을것이다. 즉, 집주인들에게보상금을지불하고그걸위해필요한기금을마련하는일을최우선으로여기는이론들에는귀를기울이지않을것이다.

주택의수용이이루어지는바로그날이야말로착취당해온노동자들이새로운시대가왔음을깨닫는날이다. 그날은노동자들이더이상부자들과권력자들에게속박당할필요가없어지는날이다. 그날은평등이공개적으로선언되는날이며, 혁명이예전에빈번히그랬던것처럼과장된걸치레가아니라진정한현실이되는날이다.

⁵⁴ 유대계은행가집안으로아주유명한국제금융자본가그룹을대대로운영하는사람들.

⁵⁵ 미국의네덜란드계대부호가문. 19 세기후반미국의호황기때철도등으로많은재산을축적했다.

다.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스스로 노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그 돈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의 3분의 2 나 고작 2분의 1 만 지불하면서 축적된 것이다.

게다가 집의 실질적 가치는 소유주가 그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달려 있다. 전체 과정의 악랄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런데 이 이익은 바로 그 집이 도시에 지어졌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즉, 포장된 도로와 다리, 부두가 있고 멋진 공공 건물들이 있으며 환하게 불이 밝혀진 수많은 다른 집과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에서 집의 가치가 생긴다. 도시에 사는 주민은 시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많은 안락과 편의를 누리고 있다.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정기적으로 통신을 주고받고 있으며 도시 자체가 산업, 상업, 과학, 예술의 중심지이다. 이처럼 도시는 20 세대 혹은 30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노동으로 살기 좋고 위생적이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집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파리의 어느 구역에 있는 집 한 채는 수천 파운드의 값이나 간다. 그 이유는 특정한 그 집에 그만한 가치의 노동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이 파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수세기 동안 노동자들, 예술가들, 사상가들, 학자들, 문학인들이 산업, 상업, 정치, 예술, 과학의 중심이 된 오늘날의 파리를 만드는 데 공헌했기 때문이다. 또한 파리가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문학 작품들 덕분에 파리에 있는 거리 이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리가 18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사람들의 고된 노동의 산물이고, 50 여 세대에 걸친 전 프랑스 국민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렴치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도대체 누가 이 땅의 가장 작은 한 조각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이 도시에 있는 가장 초라한 건물 한 채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공동으로 물려받은 유산의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비싼 값을 부르는 자에게 팔아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앞서 말했듯이, 노동자들은 이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기 시작했다. 무료 주택이라는 아이디어는 파리가 봉쇄되어 있던 대혁명 기간 동안에 아주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당시 노동자들은 집주인들이 요구한 지불 조건을 전적으로 완화시켜 달라고 거세게 요구했다. 이 아이디어는 1871 년 파리 코뮌 기간에 다시 나타났다. 그때 파리의 노동자들은 코뮌 협의회가 집세의 폐지에 관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주택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문제일 것이다.

혁명의 시기이든 평화의 시기이든 간에,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살집이 있어야 한다.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 아래 머리를 눕힐 지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사는 집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누추한 곳일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그를 내쫓을 수 있는 집주인이 있다. 사실상, 혁명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이 노동자의 누더기 옷들과 세간들을 길바닥으로 내던질 주택 관리인이나 경찰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생산한 것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려고 자기 노동력을 팔 필요가 없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는 좋다. 하지만 외부에서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다음 당신들 사이에 자리잡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사람이 자기 주위에 하인들과 임금노예들을 거느리고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희생을 이용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당신들은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경에 세관을 설치해서 당신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그들이 갖고 들어오는 돈을 몰수할 생각인가? 아나키스트 경찰이 여행자들에게 총을 쏘아대는 모습은 정말 불만만한 광경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밑바탕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의 재산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재산들은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빈곤한 사람들이 없게 되면, 그들을 착취하는 부자들도 더 이상 없다.

막대한 부가 생겨나기 시작하던 중세 시대를 잠시 살펴 보도록 하자. 어떤 봉건 영주가 비옥한 골짜기를 소유한다. 하지만 이 비옥한 골짜기에 사람들이 없는 한 영주는 부자가 아니다. 그의 땅은 그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달에 있는 땅을 소유하는 편이 낫다. 이 영주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무엇을 할까? 그는 농민들, 가난한 농민들을 구할 것이다!

만일 모든 농민이 한 뼛기의 땅을 갖고 있고 지대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거기에다가 농사일에 필요한 도구들과 가축이 있다면, 어느 누가 영주의 땅을 경작하려고 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돌볼 텐데 말이다. 그러나 전쟁, 기근, 전염병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한테는 말(馬)도 없고, 쟁기도 없다. (중세 시대에는 철제 물품들이 아주 비쌌고 수레를 끄는 말역시 아주 비쌌다.)

이 비참한 모습 모두는 자기들의 처지를 보다 낫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영주가 소유한 사유지의 경계 지역에서 공고문 하나를 보게 된다. 이 공고문에는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즉, 영주의 땅에 정착할 마음이 있는 노동자는 자기 오두막을 짓고 영주의 논밭에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연장과 재료를 받을 것이고, 한정된 몇 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땅을 무료로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몇 년이라는 그 숫자는 수많은 십자가호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농민들은 그 십자가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련하고 불쌍한 이 사람들은 영주의 땅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습지의 물을 빼고, 마을들을 건설한다. 9~10 년 정도 지나면 영주는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다. 5 년이 지난 다음에는 땅 임대료를 올린다. 그런 뒤에 임대료를 다시 두 배로 올리는데, 농민들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봉건영주들이만들어낸법률에의해서소작농민들의가난은점차땅주인인영주가소유하는부의원천이되어간다. 게다가농민의등을쳐먹는사람은영주만이 아니다. 수많은고리대금업자가젓싸게마을을뒹쳐서는소작농들을더욱비참하게만든다. 이것이바로중세시대에부가증가하게된방식이다. 그런데오늘날에도 여전히이와똑같은방식이아니겠는가? 농부에게무료로경작할수있는땅이있다면, 생색을내며빌려주는부스러기땅때문에농부가자작나리에게 50 파운드를지불하려고할까? 농부가자기생산물의절반을땅주인에게내놓아야하는소작제도에 동의할까?

하지만농부는가진것이아무것도없다. 그래서그는목숨을계속부지할수있기를바라면서어떤조건이든지받아들일것이고, 결국땅을경작해서땅주인을부유하게만들것이다. 그러므로 19 세기역시중세시대와마찬가지로농민의빈곤이 땅을선점한자들을부유하게만드는근본원인인것이다.

II

지주의재산은농민들의빈곤때문에축적된것이고, 자본가의부富역시같은원천에서나왔다. 중산층시민한사람을예로들어보자. 그에게는 2 만파운드의재산이있다. 물론그는 1 년에 2 천파운드정도를쓸수있는데, 그정도썸썸이는오늘날의터무니없고몰상식한사치에비하면사소한소비이다. 그러나 10 년을그렇게보내고나면그한테는아무것도남아있지않을것이다. 그래서‘실리적인사람’인 그는자기재산은손대지않은채그대로남겨놓고, 매년생활에불편함이없을정도의수입을얻으려고한다.

우리사회에서이일은아주쉽다. 왜냐하면도시와시골마을에는한달이나심지어보름동안살아갈돈조차없는노동자들이우글거리기때문이다. 그래서이부유한시민은공장을시작한다. 은행은부리나케또다른 2 만파운드를그에게빌려줄것이고, 그가‘사업수완’이있다는평판이들리면특히더그럴것이다. 그는상당한액수의이돈을가지고 500 명의노동자를맘대로부릴수있게된다.

만약그지역에서는모든남자와여자에게매일먹을빵이보장되고일상적인필요가이미충족된상태라면, 누가하루반크라운의임금을받고서이자본가를위해일하겠는가? 자기가생산한상품들이시장에서 1 크라운이상의값으로팔리고있는데말이다.

06. 주택

I

노동자들사이에서사회주의사상이자라나는것을가까이지켜본사람들은 분명이알아차릴것이다. 사람들이살주택이라는한가지중대한문제가어느틈엔가분명한결론에다다르고있다는사실을말이다. 프랑스의대도시들과다른많은소도시에서노동자들은주택들이국가가주인으로인정하는사람들의재산이아니라는결론에점차이르고있다. 이생각은민중의마음속에서자연스럽게성장해왔으며, 민중은‘사유재산의권리’가주택들로까지확대된다는것을다시는믿지않을것이다.

집은소유주가지은것이아니다. 수많은노동자가제재소에서, 벽돌공장에서, 작업장에서최저임금을받으면서열심히노동해서집을짓고, 꾸미고, 설비한것이

이되는것, 이것이바로아나키즘적코뮌주의가필연적으로우리를이끌어가는길이다. 재산수용이공정하게시작될경우에말이다.

혁명이그렇게멀리까지나아가게해보자. 그러면굶주림은우리가두려워해야할적이나아니다. 혁명을위태롭게할위험은굶주림이아니라, 겁이많은소심함, 편견, 미봉책들속에있다. 그위험은당통이프랑스대혁명때보았던그곳에있다. 당통은프랑스를향해이렇게외쳤다.

“대담하게, 대담하게, 다시한번대담하게.”

대담한생각이먼저이다. 그러면대담한행동은반드시그뒤를따르게될것이다.

우리가너무나잘알고있듯이, 불행하게도우리의도시들과인근의빈민가에는공핍하고비참한사람들이바글거리고있고그들의아이는뺨을달라고울어대고있는상황이다. 그리하여공장이제대로완성되기도전에자신을고용해달라는노동자들이앞을다뒤편서몰려온다. 100 명을모집하는데 300 명이몰려드는것이다. 그런상황에서공장이돌아가기시작한다면, 공장주가평범한사업능력을갖고있는사람일지라도분명자기가고용한노동자한사람으로부터 1 년에 40 파운드정도의이익을챙길수있다.

그렇게해서이시민은어느정도의재산을모을수있게된다. 만일그가이익이많은거래를선택하고, ‘사업수완’이있는사람이라면, 그는곧착취하는사람의수를두배로늘려서자기수입을늘려갈것이다. 그리하여그는중요한인물이되어간다. 그는이제다른유력인사들, 가령지역유지들, 부유한도시민, 법률가, 정치계의고위인사들에게식사대접을할수있게된다. 자기재산으로그는돈많은아내를맞이할수도있다. 점차그는자기아이들을좋은자리에앉히고, 나중에는어쩌면정부로부터뭔가좋은것을받지도모른다. 군대나경찰에납품하는계약을따내는식으로말이다. 그의돈은점점더많은돈을낳는다. 심지어그는전쟁이나전쟁에대한소문혹은주가등락을예측하면서더많은돈을벌기회를잡을것이다.

미국이쌓아올린엄청난부의 10 분의 9 는 (헨리조지⁵⁶가 〈사회문제〉라는자신의글에서쓴바와같이) 국가가거들어주는엄청난규모의부정행위가낳은결과이다. 유럽의경우에도군주제국가와공화제국가에서축적된부의 10 분 9 도미국과같은원천에서나왔다. 백만장자가되는데는다른방법이없고유일하게이방법뿐이기때문이다. 이것이바로부를쌓는비밀이다. 굶주리고비참한사람들을찾아내서그들에게하루반크라운의임금을주고 5 실링어치의상품을생산하게하라. 이런식으로재산을모은다음에는국가의도움을받으면서돈벌이가되는투자를몇번하는식으로재산을불려가는것이다.

우리는단지저축하는것만으로는아무것도이룰수없다는것을알고있다. 그렇게모은푼돈을굶주린이들을착취하는일에쓰지않는한말이다. 그런데도경제학자들의주장처럼미리계획하고절약해서작은재산을모으는일에대해서계속이야기할필요가있을까?

한구두장이의예를들어보자. 그의일은보수도좋고손님도많다. 그리고그는대단히절약하면서하루에 18 펜스에서 2 실링까지저축할수있고한달에 2 파운드를모은다. 또그는결혼도하지않았으며아이들도없다. 그리고그에게는소비하려는마음도전혀없다. 하여간뭐든지지원하는대로마음껏상상해보라!

어쨌든그는 50 살이되어도총 800 파운드를모으지못할것이다. 게다가그는나이가들어일할수없을때살아갈돈도충분히모으지못할것이다. 분명히이런방식으로는재산을모을수없다.

⁵⁶ 미국의경제학자 (Henry George, 1839-1897). 토지를공유화하고모든임대료를세금으로징수해서사회를위해써야한다고주장. 19 세기영국사회주의운동에큰영향을미쳤다.

그러나 한번에 상을 해보자. 우리의 구두장이 가약간의 돈을 모으자마자 그 돈을 알뜰하게 저축은 행에 예금한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자본가들에게 빌려줄 것이고, 그 자본가들은 곧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구두장이 도어편식으로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구두장이 어느 가난뱅이의 아들을 견습공으로 들인다. 그 견습공의 아버지는 5 년 후에 자기 아들이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되면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구두장이 견습공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만약 가게일이 번창하게 되면 구두장은 곧 두 번째와 세 번째 견습공을 들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두 세 명의 일꾼들을 고용할 것인데, 그들 역시 가난한 사람이라서 하루에 5 실링 어치 제품을 만들어 내면서도 반 크라운을 받으며 감사해한다. 그리고 구두장에게 운이 따른다면, 다시 말해 그가 충분히 빈틈 없고 충분히 인색하다면 그의 일꾼과 견습공은 하루에 거의 1 파운드를 벌게 해줄 것이고, 거기에서 구두장이 직접 만든 제품도 더 해질 것이다. 이제 그는 자기 사업을 더욱 크게 확장한다. 그는 점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애써 절약하거나 아낄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식이 있다면 그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갖는 일’이다. 깊이 따져보면 이것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업은 이런 법칙에서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상인은 중국에서 차(茶)를 사서 프랑스로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원래 들인 비용보다 30 퍼센트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는 아무도 착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무척이나 비슷한 상황이다. 만약 우리의 상인이 자기 물건을 직접 등에서 가져온다면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중세 시대 초기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 외국 무역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늘날처럼 아찔할 정도의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없었다. 중세 시대 상인들은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한 끝에 아주 드물고 힘들게 금화들을 벌 수 있었다. 그리고 상인들이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동기는 돈에 대한 열망보다는 여행과 모험에 대한 갈망인 경우가 더 많았다.

오늘날에는 상업 거래의 방법이 훨씬 간단해졌다. 얼마간의 자본을 가진 상인은 바쁘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책상 앞에 앉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는 대리인에게 전보를 보내서 수백 톤의 차(茶)를 사라고 지시한다. 대리인은 배에 다차를 싣고 몇 주 뒤에, 만약 그 배가 범선이라면 석 달 뒤에 상인에게 화물을 날라다 준다. 그는 항해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조차 없는데, 그가 구입하는 차상자와 배에는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인이 4 천 파운드의 비용을 들인 경우, 차를 거래해서 5 천 파운드나 6 천 파운드가 넘는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그가 어떤 진기한 상품에 투자하려는 의도가 없는 한 말이다. 진기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두 배로 불리거나 모두 잃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인은 기꺼이 바다를 건너 중국까지 갔다가 돌아올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비참하리만큼 적은 돈을 받고서 기꺼이 노예와 같은 고된 노동을

함’되는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이 분화된 후에는 그것을 전체로서 다시 통합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 전체가 따르고 있는 과정이다. 게다가 철학은 별도로 놔두고라도, 상황의 힘 때문이라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난 지 8 개월이지날 무렵이면 빵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파리시민들이 알게 하자. 그러면 파리사람들도 밀을 기르기 시작할 것이다.

땅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도시 주변, 특히 파리 근교에 지주계급이 소유했던 공원과 유원지를 찾아내서 경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수천 에이커의 땅들은 오직 숙련된 농부의 노동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파리시인근은 비옥하고 생산적인 밭으로 틀림없이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노동력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200 만 파리시민이 더 이상 러시아 공작들, 루마니아 귀족들, 베를린 금융업자 부인의 사치스런 유행과 유흥을 위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때,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돌리게 되겠는가?

지금 세기의 모든 기계적 발명품을 가지고, 복잡한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노동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발명가, 화학자, 식물학 교수, 그리고 시장에 다 팔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 (마켓가드너) 처럼 실제적인 식물학자들과 함께, 기계를 늘리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장 설비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시민의 조직 정신과 용기와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이 모든 것을 자유 자재로 활용하게 된 파리의 아나키즘적 코원의 농업은 프랑스 북부 지역의 거칠고 영성한 농업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서 증기, 전기, 태양력, 풍력이 사용될 것이다. 증기로 작동하는 쟁기와 쟁레가 땅을 미리 준비하는 거친 작업에 재빨리 쓰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비옥해진 땅에 필요한 것은 오직 인간의 합리적인 보살핌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성의 보살핌만으로도 땅이 풍성한 식물들로 뒤덮일 것이고, 1 년에서 너번씩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로부터 재배 기술을 배우고, 실험을 목적으로 남겨놓은 작은 텃밭들에서 다양한 방식을 실험해보며, 가장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로 겨뤄보기도 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길을 발견하고, 일에서 처가 떨어지거나 과로하는 일 없이, 도시에서는 너무나 자주 쇠약해지던 건강과 힘을 되찾게 되면 남녀 노소 모두가 논밭에서 즐겁게 농사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사일은 더 이상 단조로운 노역이 아니라 즐거움이 자축제가 되고 건강과 기쁨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불모의 땅이란 없다. 대지는 인간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이것이 현대 농업의 결정적인 표어이다. 대지에게 뭔가를 구해 보라. 그러면 대지는 빵을 줄 것이다. 올바르게 요청한다면 말이다. 비록 파리 근교의 센과 세네와 아즈 같은 작은 지역이 파리 같은 대도시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로 모든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식량 조달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농업과 산업의 결합, 한 개인이 농부이면서 기계공

대부분의 농민은 자기가 축을 그렇게 불리하게 팔아넘기기보다는 차라리 9 달 동안 먹을 곡물만 남겨놓고 나머지 곡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수확 시기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는 운이 좋으면 3 달 동안, 운이 나쁘면 6 달 동안 밀가루에 자작나무 껍질이나 살갭 껍질이나 닭 뼈를 섞어 먹는다. 그러는 동안 런던 시민은 러시아 농민이 생산한 밀로 만든 비스킷을 먹고 있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러시아 농민들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빵을 확보할 것이다. 이탈리아와 헝가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농부들이 유럽이 겪고 있는 곡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유럽에 부족한 모든 밀과 옥수를 공급하던 다른 나라 농민들의 그동안의 공헌을, 유럽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중산계급 문명은 산업이 발달한 나라와 열등한 민족을 착취하는데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맨처음 시작부터 그러한 문명을 위협하고, 소위 열등하다고 불리는 민족이 스스로 해방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 커다란 이익은 서유럽의 대도시들로 쏟아져 들어왔던 식량 공급이 꾸준하고 두드러지게 감소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시골 지역에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편으로는 땅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혁명에서 이익을 얻고서 자신의 구부린 등을 곧게 펼 수 있을 것이다. 농민들은 지금처럼 하루에 14 시간이나 15 시간씩 일하는 것 대신에 그 절반의 시간만 자유롭게 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초 생활 물품인 곡물과 고기의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더 이상 힘들게 일해서 게으른 부자들을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생산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역의 땅들이 개간될 것이고, 보다 새롭고 개량된 기계들이 사용될 것이다.

“일찍이 1792 년만 큼 땅이 활발하게 경작된 적은 없었다. 그 해는 농민들이 그렇게나 오랫동안 갈망해 온 땅을 지주로부터 되찾았던 때였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미셸레 (Michelet)⁶⁸는 프랑스 대혁명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오래지 않아 집약 영농이 모든 곳에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개량된 기계, 화학 비료, 그리고 필요한 재료 모두가 코뮌에 의해서 공급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처음에는 프랑스나 다른 곳들에서 농업 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시골에서 오던 식량 공급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던 것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소를 벌충할 수 있을 것인가?

그야 물론, 우리 스스로 일을 하면 된다. 치료책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 무리하게 만병통치약을 찾으려고 머리를 쥐어짤 필요가 전혀 없다. 작은 마을들 뿐만 아니라 대도시들도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기능들이 통

⁶⁸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프랑스 역사학자이자 문학가 (Jules Michelet, 1798-1874) 로 『프랑스 혁명사』 등의 저서가 있다.

참아내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걸까? 어떻게 그는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집을 신고 내리는 부두 노동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걸까?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궁핍하고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항구에 가서 부두가에 있는 작은 음식점이나 선술집에 한 번 들어가 보라. 그리고 자기의 노동을 팔려고 부두가로 몰려온 사람들을 바라 보라. 이들은 배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른 새벽부터 몰려온 사람들이다.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린 끝에 장기간의 항해에 고용되었다고 행복해하는 선원들을 한번 보라. 그들은 평생 동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것이며, 파도에 목숨을 잃을 때까지 다른 배를 타고 항해를 할 것이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가장 인 그가 돌아올 때까지 어찌 살아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누더기를 걸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 보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더 많은 예들을 들 수 있다. 그 예들을 통해서 크든 작든 모든 재산의 기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재산이 상업에서 유래했는지, 금융업, 제조업, 땅으로부터 유래했는지 관계 없이 말이다. 어디에서나 부자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나키스트 사회가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착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몇 시간 동안 생산적인 노동을 한 후에는 문명 사회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모든 사람이 예술과 학문이 제공하는 깊은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굶주림을 견우면할 정도의 임금을 벌려고 자기 노동력을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가진 금화들은 그저 수많은 금속 조각에 불과할 것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 테지만 더 이상 많은 부를 낳지는 못할 것이다.

위에서 제기된 반론에 답을 하면서 우리는 그와 동시에 재산 수용의 범위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 재산 수용은 모든 것에 적용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 생산물을 자기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가령 은행가, 공장주, 지주 같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산을 수용해서 공유화하는 우리의 방식은 간단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외투도 빼앗고 싶지 않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갖지 못한 까닭에 착취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길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곤궁하게 살 필요가 없고, 단 한 사람도 자신과 아이들이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노동력을 강제로 팔 필요가 없는 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재산 수용의 의미이다. 재산 수용은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의 의무가 될 것이고, 이 혁명은 지금으로부터 200 년 후가 아니라 곧,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일반적인아나키즘의개념과, 특히재산수용이라는개념은독립적인인격을가진사람들과게으름을최상의이상으로여기지않는사람들사이에서우리가상상할수있는것보다훨씬많은공감을얻고있다. 우리의친구들은종종우리에게경고를하고는한다.

“그럼에도너무멀리가지않도록조심하시오! 인간은하루아침에바뀌지는않는다고. 그러니재산수용과아나키즘의계획을지나치게서두르지마시오. 그렇지않으면연구적인결과를전혀얻지못할위험이있소.”

그런데재산수용과관련해서우리가두려워하는것은정확히그반대이다. 우리는재산수용을지나치게수행하는것이두려운게아니라, 그규모가너무작아서지속되지못할까봐걱정한다. 우리는혁명적인충동에도중에방해를받아서, 절반정도의어중간한조치들에지쳐나가떨어지지않도록해야한다. 그런조치들은어느누구도만족시키지못할것이고, 그러는동안사회는엄청난혼란에빠지게될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혁명에필요한관례적인행동을중단하면필요한힘을전혀갖지못하게될것이다. 그렇게되면전반적인불만만이널리퍼질것이고, 불가피하게반동이우세해질것이다.

실제로현대국가에서확립된관계들은세부적인부분만을공격하는것으로는변화시키기가불가능하다. 우리사회의경제조직은복잡하게뒤얽혀있다. 이조직은대단히복잡하고상호의존적이라서전체를홀뜨려놓지않고서는어느한부분도바꿀수없다. 어떤것을수용하려는시도를하자마자이점은곧분명해질것이다.

어떤나라에서제한된형태의재산수용이이루어졌다고가정해보자. 예를들어여러번제한되었듯이대지주의재산만이수용되어서사회로환원되고공장들은손대지않은채그대로놔두는경우를가정해보자. 또는어떤도시에서주택자산만코뮌에의해수용되고다른것들은개인소유로남아있는경우도가정해볼수있다. 혹은어떤공업중심지에서공장들은공유화되었지만토지는건드리지않고그대로인경우도있을수있다.

이모든경우에결과와는똑같은것이다. 즉, 새로운방침으로생산라인을재조직할수단이없는채로산업시스템은곰직하게붕괴될것이다. 산업과금융은교착상태에빠질것이고, 정의를이루어낼최우선원칙들은여전히실행되지않은상태일것이다. 그리하여사회는무력한상태에빠져서전체가조화로운사회를건설할힘이없게될것이다.

만약농업부분은대지주들로부터자유롭게되었는데산업부분은여전히자본가, 상인, 은행가가 지배하는노예상태로남아있다면어떤것도성취할수없을것이

도시에서일하는이노동자들이자기를착취하는자들이아니라자기의동지이며형제라고느낄것이다.

어쩌면우리는이렇게하기위해서산업을완전히바꾸는일이불가피하다는이야기를들을것이다. 아마도어떤분야에서는이말이사실일것이다. 하지만지금도시가농민들에게터무니없이싸게팔고있는옷, 시계, 가구, 간단한도구들을값싸게제공하는방식으로신속하게개혁할수있는부분들도있다. 직조공, 재봉사, 구두장이, 양철공, 목수, 그리고다른특수한기술을가진많은사람은유용하고필요한물품들을만들어내는일에쉽게자기에너지를쏟수있으며, 순전한사치품생산은삼갈것이다. 그러기위해서유일하게필요한것은대중의마음이이런변화의필요성을충분히확신해야한다는점이다. 그리고이것을정의롭고진보적인행동으로여길수있어야한다. 더이상대단하신이론가들이몽상하는그런꿈에속아서는안된다. 그들이꿈꾸는혁명이란산업에서나오는이익을손에넣는것만으로혁명을제한하고, 생산과유통은현재와똑같이놔두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이바로전체문제를바라보는우리의견해이다. 더이상농민들을크나큰수자를적어넣은종잇조각으로속이지말라. 그대신농민의생산물을그들에게필요한것으로바꾸게하라. 그러면땅의수확물들이도시로쏟아져들어올것이다. 이렇게하지못하면도시는굶주리게될것이고, 반동과절망이뒤를이어나타날것이다.

VII

알다시피모든대도시에는필요한곡물, 밀가루, 고기들을국내에서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들여와야한다. 다른나라에서는파리시에향신료, 어류, 다양한진미들뿐만아니라엄청난양의육수수과고기를보내주고있다. 그러나혁명이일어나면이대도시들은그들에게존하지못하게될것이다. 설령러시아산밀, 이탈리아나인도산쌀, 그리고스페인과헝가리산와인들이서유럽시장에넘쳐난다고할지라도, 이것들은남아돌만큼물자가풍부하거나저절로썩썩자라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가령, 러시아의농민들은하루에 16 시간을일하고있는데도매년 3 개월에서 6 개월동안절반의농민이굶주리고있다. 그이유는농민이지주나국가에게지불한곡물이해외로수출되고있기때문이다. 오늘날러시아농촌마을에는수확을끝내자마자경찰이나탄한다. 그리고어떤희생자가자발적으로수출업자에게자기곡물을팔아넘김으로써스스로희생하려고하지않으면, 경찰은지주들에게지불하기로한세금이나임대료를못냈다는이유로그농민에게남은마지막말과암소를강제로팔아치운다.

들은곡물을시장에내놓지않는사람들을거리낌없이단두대에보냈고, 식료품을
투기하는자들역시무자비하게처형했다는사실은역사적으로도잘알려져있다.
그럼에도곡물은나오지않았고, 도시는굶주림으로고통받았다.

그렇다면농부가행한힘겨운노고의대가로무엇이제공되었을까? 혁명정부
가발행한아시나지페⁶⁷, 즉매일가치가하락하는종잇조각들로지불하겠다는악
속이었지만그것조차제대로지켜질수없었다. 40 파운드가적힌종이쪽지로는장
화한컬레도살수없었다. 농민들이셔츠한장살수없는종잇조각과자신의 1 년노
동을바꾸는것에분개한것은지극히당연한일이었다. 그것이아시나지페로불리
든노동지페로불리든간에아무가치가없는지페가생산자농민에게지불되는한,
상황은언제나똑같은것이다. 시골은자기들이생산한식량을내놓지않을것이고,
도시는식량부족으로고통받을것이다. 설령반항하는농민들을예전처럼단두대
로보낸다고해도말이다.

우리는농민이행한노동의대가로쓸모없는종이돈이아니라그들에게당장필
요한물품들을제공해야한다. 농민에게필요한것은땅을경작할수있는적절한농
기구들, 악천후로부터보호해줄옷들, 희미한골품양초나수지를대신할등불과기
름이고, 삽, 갈퀴, 쟁기인것이다. 현상황에서농민은이런온갖것이부족한상태에
서힘겹게지내고있다. 그까닭은필요없다고생각해서가아니라, 궁핍에서달리는
그들의힘겨운삶속에서는이런수많은유용한물건을구입할여력이없기때문이다.
즉, 그것들을살돈이없기때문이다.

도시는때를놓치지말고농부들이필요로하는모든것을만드는일을해야한다.
부유한도시민의아내들을위해값비싼장신구들을만드는대신에말이다. 파리의
재봉들이시골주민이입을작업복과일요일에입을옷들을만들도록하자. 영국과
러시아귀족들그리고아프리카의금광거물의부인들이입을아회복을만드는대신
에말이다. 공장들과주물공장들은농기구들, 삽, 갈퀴같은것들을생산하게하자.
영국이프랑스와인을수입하는조건으로프랑스가그런물품들을보내기를기다리
는대신말이다!

더이상도시가시골마을에붉은색과푸른색혹은무지개색견장을두른감독관
을보내서농민이생산한것을이곳저곳으로가져오라는명령을전달하지못하게하
자. 그대신에시골주민에게친절한사절단을보내서우호적인방식으로그들에게
권유하도록하자.

“여러분의생산물을우리에게가져오시오. 그리고우리의창고와가게에서원
하는모든제품을가져가시오.”

그러면사방에서식료품들이쏟아져들어올것이다. 농민들은자기에게꼭필요
한것만을남겨놓고나머지는도시로보낼것이다. 그러면역사상처음으로농민은,

⁶⁷ 프랑스대혁명당시발행된채권. 파산한프랑스재정을구제하기위해서물수한교회토티지를담
보로발행되었으나마구발행된탓에점점가치가떨어졌고, 프랑스에심한인플레이션을일으켜서민중
을고통에빠트렸다.

다. 오늘날의농민은지주에게높은소작료를지불하느라고통받을뿐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온갖사람으로부터압박을받고있다. 소매상인은삼하나를반크라운
(30 펜스) 에팔면서농부를착취한다. 실제로그삽을만드는데들어간비용은 6 펜
스이하인데말이다.

그리고국가는농민에게세금을부과한다. 왜냐하면국가는공무원들을배치시
키는거대한위계구조없이잘굴러갈수없기때문이다. 또국가는비용이많이들
어가는군대를유지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모든국가의무역상인들은시장을얻
기위해서끊임없이싸우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어느날아시아나아프리카의어
느지역을착취하는일을두고일어난작은분쟁이결국전쟁으로변질지도모르기때
문이다.

게다가농민은시골지역의인구감소때문에도고통을겪는다. 시골의젊은이들
은사치품생산업체들이일시적으로제공하는높은임금에현혹되거나보다활기찬
생활이주는매력에이끌려서도시를향해떠난다. 그런산업에대한인위적인보호,
해외국가에대한산업적인착취, 만연하고있는증권투기, 생산을위해토양의질을
개선하고농업생산기계를개량하는일의어려움등, 오늘날에는이모든요인이결
합해서농업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

농업은높은임대료때문에허덕이고있을뿐만아니라착취에기반을둔사회가
지닌모든복합적인상황으로인해고통당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비록토지수용
이이루어져서, 모든사람이임대료를내지않고자유롭고최대한유리하게땅을경
작할수있게되면농업은한순간변명 (이마저도결코당연한일로여길수는없다) 을
누릴것이다. 하지만산업부분이그대로라면얼마안있어오늘날과같은수령에다
시빠지게될것이다. 모든일을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할것이고, 어려움은더욱가
중된다.

산업의경우에도똑같다. 앞서이야기한것과반대의경우를예로들어보자. 즉,
농업노동자를토지를소유한농민으로전환시키는경우말고, 공장들을그곳에서
일하는사람들에게넘겨주는경우를살펴보자. 비록공장주는쫓아냈지만땅주인
에게는땅을, 은행가에게는돈을, 상인에게는교환할물건들을그대로남겨놓는경
우이다. 일하는사람들의노동으로살아가는게으름뱅이들, 수많은중간상인, 엄
청난관리들을거느린국가를그대로유지하려고한다면, 산업은정지해버리고말
것이다. 여전히가난한농민들사이에서산업은구매자를찾지못할것이고, 원자재
를확보하지못해서생산품도수출하지못할것이다. 부분적으로는무역의중단때
문에, 크게는산업들이전세계에퍼져있기때문에, 제조업자들은힘들여일할의욕
을잃어버릴것이고, 수많은노동자는거리로내쫓기게될것이다. 굶주린군중은자
신들을착취하러나타난첫번째몹모자에게기꺼이복종할것이다. 심지어일자리
를보장해준다는약속만해준다면, 옛날의노예상태로되돌아가는일조차동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주들을몰아내고공장들을노동자의손에넘겨주었지만중간상
인무리는건드리지않고그대로남겨두는경우를살펴보자. 이중간상인무리는제

조업자들의 생산물을 빼돌리고, 거대한 상업 중심지들에서 옥수수, 밀, 가루 혹은 고기와 식료품들을 사고팔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할개를 치고 다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품 교환이 느려질 것이다. 곧 대도시들에서는 빵이 부족하게 되고, 대규모 생산단지에서는 그들이 생산한 사치품을 구매할 사람들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반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학살이 일어나서 총과 탄약으로 도시와 마을을 휩쓸 것이고, 추방과 유형이라는 향연에 정신없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바로 1815년, 1848년, 1871년에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고서 어느 한 가지를 개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느 날 한 나라가 어떤 형식으로든 지도지나 산업과 관련해서 사유재산을 공격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모두를 공격해야만 한다. 혁명이 성공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가 그러길 원한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인 재산 수용만으로는 변화를 제한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일단 '재산의 신성한 권리'라는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무수한 이론 중 어떤 것이 원칙의 폐지를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논밭에서 일하던 노예들에 의해서, 저기서는 기계의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에게서 그 원칙은 폐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파리 같은 대도시가 공장 지역의 주택들만을 수용하는 식으로 재산 수용을 제한한다면, 다음과 같은 은행가들의 권리 역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즉, 공장이 이전에 대출해 간 돈의 이자로 은행가가 총 200만 파운드를 코뮌으로부터 받아갈 권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대도시에서는 시골 지역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의 영향력으로 인해 농민들도 반드시 시주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철도역시 반드시 공유화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식량을 구하거나 일하러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물자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1793년 파리가 코뮌 때 그랬던 것처럼 곡물을 매점매석하는 투기꾼들의 공모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가 자체적으로 창고에 생활필수품을 비축하고 생산을 분배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두려워 애를 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토지, 광산, 공장, 제조업체들은 공유화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공공자산으로 여기는 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음식, 옷, 집 같은 소비재는 사유재산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대중적인 상식은 이런 미묘한 구별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는 나뭇가지로 엮은 피난처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숲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야만인들이 아니다. 문명인에게서는 지붕, 방, 화로, 침대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침대, 방, 집이 게으름의 본거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알맞게 따 뜻하고 불이 밝혀진 집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생산수단이다. 그곳은 내일의 노동력을 위해서 노동자의 신경과 근육이 힘을 회복하는 장소이다. 노동자에게 휴식이란 기계가 일상적인 수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파리를 예로 들어보자. 파리는 매년 수천 톤의 곡물, 40만 마리의 소, 30만 마리의 송아지, 40만 마리의 돼지, 200만 마리의 양, 그 외에 사냥으로 잡은 아주 많은 양의 짐승과 조류를 소비하는 곳이다. 게다가 이 거대한 도시는 2천만 파운드가 넘는 버터, 2억 개 이상의 달걀과 다른 식료품을 필요로 한다.

파리는 미국, 러시아, 헝가리, 이탈리아, 이집트, 인도에서 밀가루와 곡물을 수입한다. 육류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루마니아와 러시아에서도 수입한다. 전 세계에서 식료품과 관련해 파리에 기여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파리와 다른 대도시들은 어떻게 식료품들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즉, 시골 지역에서 길러지고 기꺼이 도시로 보낼 준비가 된 농산물을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권력과 권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 보인다. 그들은 먼저 경찰, 군대, 단두대 같은 억압 기구를 갖춘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세우려 할 것이다. 이 정부는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료품에 관한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그런 뒤 나라를 생필품 공급에 따른 지역으로 분할한 다음, 어떤 날에 어떤 장소로 지정된 양의 특정한 식료품이 보내지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식료품이 특정 지역에 수송이 된 다음, 지정된 날에 특정 관리가 수령해서 특정한 창고에 보관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서 주장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이다.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제멋대로의 공상에 불과하다! 펜대를 잡고 연구하는 이론가는 이런 식의 공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과 만나게 되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1793년 프랑스 상황이 이미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이론가 모두는 개인 속에 존재하는 독립 정신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도는 광범위한 반란을 불러일으키고, 서너 명의 매수자를 생겨나게 하고, 도시에 저항하는 시골 마을들을 생겨나게 하는 식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곳에 이런 제도를 강요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한다면, 온 시골이 도시에 대항해서 무기를 손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자코뱅식의 과격한 유토피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니 다른 형태의 어떤 조직이 이런 경우들에 들어맞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도 하자.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시골 지역들은 대도시를 굶주리게 했고 혁명을 망쳐 놓았다고 말았다. 그러나 1792년과 1793년에 프랑스의 곡물 생산량이 줄어 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는 곡물 생산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영주의 땅을 손에 넣고 그 땅으로부터 수확을 한 농민들은 종이 돈에 불과한 지폐를 받고는 자기들이 생산한 곡물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자기들의 생산물을 손에 쥐고서 가격이 오르거나 금이 도입되기를 기다렸다. 국민의 회의가 장엄 격한 규율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법적인 집행으로도 농민들의 동맹을 해산시키거나 곡물을 팔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국민의 회의 의원

것이다. 그렇다면 종종 말해지는 것처럼 운동을 선도하는 나라들은 뒤쳐진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코뮌주의 혁명이 모든 문명국가에서 성숙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분명히 아니다. 설령 바란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역사는 꾸물거리는 나라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게다가 어떤 한 나라에서 혁명이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것처럼 단번에, 눈 깜박할 사이에 성취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 어떤 오류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팸플릿에 의해서 선전되었던 ‘일일혁명’이라는 오류만큼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 팸플릿은 3월 18일 베를린 혁명이 프로이센에 대한 정부를 세웠다고 간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1905년부터 1907년까지 러시아에서 이러한 오류가 만들어내는 해악들을 충분히 목격했다. 사실상 러시아가 그랬듯이 프로이센은 1871년까지 ‘헌법’이라고 부르는 중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의 정부는 없었다. 그래서 1870년대의 정부를 위한 예산이 발의될 때까지 내각이나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프랑스의 대여섯 개 대도시들, 가령 파리, 루앙, 마르세유, 릴, 생에티엔느, 보르도 같은 도시들 중 하나가 코뮌을 선언한다면, 다른 도시들도 그 뒤를 따를 것이고 많은 소도시도 그 뒤를 따를 것인 점이 훨씬 실현 가능성이 많다. 다양한 광산 지역과 산업단지도 아마 ‘소유주’와 ‘고용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단체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골 지역은 아직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곳들은 기다려보는 태도를 취하면서 혁명적인 코뮌들과 나란히 존재할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제도에 따라 계속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토지 관리인이나 세금 징수원의 방문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된 농민들은 혁명가들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 농민들은 그 지역 착취자들에게 지불할게 산을 뒤로 미룰 것이다. 하지만 농민봉기에 항상 나타나는 특징인 실제적인 열의를 가지고서 (1792년의 농민들의 열정적인 노동이 이를 입증한다) 농민들은 땅을 경작하는 일에 뛰어들 것이다. 세금과 저당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땅은 농민들에게 훨씬 더 소중해질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겠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날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양상을 띠고, 다른 곳에서는 연방제 국가의 양상을 띠고, 모든 혁명이 약간의 사회주의적이겠지만 특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VI

이제 혁명이 일어난 도시로 되돌아가서, 시민이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자. 만약 나라 전체가 코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면, 필요한 식료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음식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더욱 확실하게 들어맞는다. 소위 경제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방금 말한 ‘구별’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그들도 기계 속에서 연소하는 석탄이 생산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역시 음식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산자에게 꼭 필요한 물품 목록에서 음식을 제외할 수 있단 말인가? 음식이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유물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인가? 부자들이 벌이는 향연은 사실상 사치에 불과할 뿐이지만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은 증기엔진 속에서 타고 있는 연료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일부분이다.

옷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뉴기니에서 사는 야만인이 아니다. 숙녀의 호화로운 의상은 사치품으로 분류해야겠지만, 린넨, 면, 양모로 된 일정량의 옷들은 노동자의 삶에 필요한 필수품이다. 그가 일터로 입고 갈 셔츠와 바지, 하루의 고된 노동이 끝난 다음에 걸치는 간편한 옷은 모루에 필요한 망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물건이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민중에게는 이것이 혁명이다. 정부를 깨끗이 몰아내면, 곧바로 민중은 제일 먼저 아담한 집과 충분한 음식, 그리고 옷을 틀림없이 보장받고 싶어할 것이다. 자본가에게 임대료나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말이다.

그리고 민중이 옳을 것이다. 생산수단과 소비재 사이에 아주 많은 차이를 두는 경제학자들보다는 민중의 방식이 훨씬 더 과학적일 것이다. 민중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학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유일한 학문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이 학문은 이렇게 불릴 것이다. ‘인간의 필요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수단에 관한 연구.’

그러면더멀리나아가기전에, 우리는유럽의상황을훑어살펴보고어떤과정으로혁명이진행될지에견해볼수있다. 또는최소한혁명의가장본질적인특징이무엇일지에측해볼수있다. 온유럽이한꺼번에들고일어나서재산수용이보편화되고코뮌주의원리들이너나할것없이모든사람을고치시키는일이일어난다면, 그것은분명아주바람직한상황일것이다. 이렇게전세계적인봉기가일어난다면우리의임무가훨씬더간단해질것이다.

그러나모든징후를살펴보면그런일은일어날것같지않다. 물론우리는혁명이온유럽을에워쌀것이란사실을의심하지않는다. 유럽대륙의 4 대도시인파리, 빈, 브뤼셀, 베를린중의한곳에서혁명이일어나서정부를무너뜨린다면, 나머지세도시도몇주안에그뒤를따르리란점은거의확실하다. 더나아가스페인과포르투갈이있는이베리아반도나심지어영국런던과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같은곳들조차도오래지않아그뒤를따를가능성이많다. 하지만도처에서나타날혁명이 과연똑같은성격을띠고있을지는대단히의심스럽다.

그보다는오히려재산수용이유럽곳곳에광범위한영향을끼칠가능성이훨씬 많다. 그리고유럽의중요한국가중한곳에서이정책을시행하면, 나머지모든나라에영향을끼칠가능성이매우많다. 혁명이시작되는모습은지역마다아주다를것이고, 그과정도나라마다차이가있을것이다. 1789 년 ~1793 년에프랑스농민들이마침내봉건영주의권리로부터해방되고, 왕권이부르주아들에의해무너지게되기까지 4 년이걸렸다.

이사실을염두에두고서혁명은다소점진적으로발전해나갈것으로보고준비를해야한다. 이곳저곳에서혁명의발걸음이더디게나아갈지라도낙담하지않도록하자. 유럽모든나라에서일어나는혁명이그시작에서어느정도로공공연하게사회주의적성격을띠게될것인지는의심스럽다.

생각해보면, 독일은통일된제국의꿈을여전히실행해나가고있다. 독일의진보적당파들은 1848 년프랑스에서와같은자코뱅주의공화국과루이블랑의원리에따른노동조직을꿈꾸고있다. 그런반면프랑스민중은공산주의적코뮌이든아니든상관없이, 그무엇보다도자유로운코뮌을원하고있다.

앞으로혁명이일어난다면, 독일이 1793 년의프랑스보다훨씬더나아갈것이란사실을믿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다. 18 세기프랑스대혁명은 17 세기영국의 명예혁명보다한걸음더나아간것이였다. 프랑스대혁명은왕족과토지를소유한봉건귀족의권력을일격에폐지했는데, 영국에서는여전히그권력이영향력을 발휘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만약독일이한발더나아가서 1793 년에프랑스가한일보다더많은일을하게된다고해도, 독일의혁명을탄생시키는사상들은의심할여지없이 1848 년프랑스사상들일것이다. 한편러시아혁명에영감을주게될사상들은아마도 1789 년사상과 1848 년사상을결합한것일것이다.

그러나이런예측들에지나친중요성을부여하지않는다면, 우리는다음과같은 결론을내릴수있다. 즉, 혁명이서로다른유럽국가들에서각기다른성격을갖게될 것이라는결론이다. 또한재산의사회화를달성하는정도모든곳에서서로다를

05. 음식

I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미래에 공공빵집이나 공공식당이 세워져서 속임을 당하거나 식중독에 걸릴 위험 없이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사를 하러 공공식당에 가는 일이 분명히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고, 개인적인 입맛에 맞게 마지막에 뭔가를 첨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엄격하고 고정된 규정이나 의무로 만드는 것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것들은 가혹한 압제나 미신에 의해 왜곡된 두뇌에서 생겨난 병적인 생각이다.

누가 코원의 음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될까? 이 물음은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이다. 모든 마을은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고, 우리는 이해답이 모두 정답에 따라 나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노동이 다시 조직될 때까지 혼란스러운 시기가 계속되고, 실업자들 중에서 상습적으로 게으른자와 진짜 노동자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시기 동안, 이용 가능한 식량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나누어져야 한다. 이 새로운 질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코원에서 모숨을 감출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야량이 넓었고 천성적으로 원한의 감정을 품지 않는 다수민중은 함께 남아 있는 모든 사람과 빵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다. 남아 있는 사람이 정복자이든 정복당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런 생각이 고무될지라도 혁명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이다. 일이다시 시작되면, 어제의 적대자들이 같은 작업장에 나란히 서서 일하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일하는 사회에서는 게으름뱅이들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비판자들이 곧바로 소리친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이 충분히 먹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필품들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는 다음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V

혁명 상태에 있는 도시는 어떤 방법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지만, 의지할 만한 수단은 분명히 그 지역과 또 이웃한 나라들에서 일어난 혁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만약 온 나라가, 더 바람직하게는 온 유럽이 동시다발적으로 사회혁명을 성취하고 코원주의로의 철저한 이행을 시작한다면, 방법은 간단해질 것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몇몇 지역만이런 시도를 행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방법이 정해질 것이다.

만일다가울 혁명이 사회혁명이라면, 그 목표나 수단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모든 반란과 구별될 것이다. 새로운 목적에도 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 100 년 동안 프랑스에서 보았던 세 번의 위대한 민중 운동은 많은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경우 예민층은 낡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생명을 바쳤다. 그러나 선봉에서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그들의 존재는 다시 희미해지고 말았다. 어느 정도 정직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부가 구성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일을 맡았다. 즉, 1793 년의 공화국 정부, 1848 년의 노동당 정부, 1871 년의 자유코원이 그것이다. 과격한 자코뱅주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던 이 정부들은 맨 먼저 정치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이를테면 정부 기구를 재조직하는 일, 행정부서에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일, 시민의 자유 같은 문제들이 그것이다. 노동자 단체들이 새 정부의 구성원을 감시하면서 때때로 자기들의 의견을 그들에게 강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조차도 지도자가 중산층이든 노동계층이든간에 항상 중산층의 사상이 우세했다. 그들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빵의 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위대한 사상들이 나타나서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때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한다. 하지만 그 당시 민중은 빈민가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혁명이 시작된 바로 순간부터 산업은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생산물 유통에 제동이 걸렸고, 자본은 자취를 감췄다. 고용주인 주인은 이 시기에도 두려울 게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주변의 빈곤한 상황을 이용해서 투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익배당금으로 배를 불렀다. 반면 임금 노동자들은 부득이하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빈곤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던 것이다.

굶주림이나 나라전역으로 퍼졌고, 이런 굶주림은 구제에서조차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지롱드파⁵⁷들이 우리를 굶어죽이고 있다!”

1793년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고, 곧이어 지롱드파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이 ‘산악당’⁵⁸과 코뮌에게 주어졌다. 코뮌은 실제로 빵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파리지민을 먹이기 위해서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리옹에서는 푸셰(Fouche)와 콜로테르보와(Collot d’Herbois)란 공화파 당원들이 도시 곡물 창고를 설립했지만, 그 창고를 채우는 데 지출된 예산은 애초로 올 정도로 부족했다. 시의회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밀가루를 매점매석했던 제빵업자들은 교수형을 당했다. 그래도 여전히 빵이 부족해서 민중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왕당파 옹호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 식량 부족의 책임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하루에 12~15명 정도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여기에는 하인들과 공장 부인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하인들이 많이 처형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장 부인들은 이미 독일 코블렌츠로 도망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 수백 명의 공장들과 자작들을 단두대로 보냈을지라도 희망이 없기는 똑 같았을 것이다.

빈곤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다. 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임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사람에게 천여구의 시체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자 사람들은 지쳐서 나가떨어지기 시작했다. 반동주의자는 노동자들의 귀에 이렇게 계속 속였다.

“당신들이 자랑스러워한 혁명은 이제 그만! 당신들은 이전보다 훨씬 비참하게 되었잖소.”

그러자 부자들은 점점 더 용기를 내고 숨어 있던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며,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들의 사치스런 생활을 보란 듯이 과시했다. 그들은 향수 냄새가 나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는 이제 충분해! 혁명으로 당신들이 대체 뭘 얻었지?”

가슴 깊이 실망하고 지치고 인내심도 바닥이 난 혁명가는 결국 혁명의 대의가 또 다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자기 오두막집으로 물러나서 최악의 상황을 기다렸다.

그다음에는 반동이 기양양하게 등장해서 반혁명의 일격을 가했다. 혁명은 죽었고, 혁명의 시체를 짓밟는 일 말고는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었다. 왕당파의 백색 테러가 시작되었다.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고, 단두대는 결코 쉬는 법이 없었으며, 감

⁵⁷ 프랑스대혁명 당시 비교적 온건한 공화파로 나중에 과격한 자코뱅파에의해 무너졌다.

⁵⁸ 좌익성향의 과격정파로 프랑스대혁명 시기에 자코뱅파인 당통과로 베스피에르를 지지했고, 국민의회에서 높은 좌석을 차지한 데서 이런 이름이 유래했다.

면, 가장 엄격한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배할 것이라 사실을 말이다.

민중이 모인 모임에 가서 사냥한 고기 같은 맛있는 음식들은 게으른 귀족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위해 남겨 놓고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검은 빵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면, 분명히 야유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모임 자리 혹은 거리 모퉁이나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은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남겨 놓아야 한다고 연설을 해 보라. 온 도시에 자고 새 다섯 쌍과 백포도주 한 상자 밖에 없지만 이것들은 아픈 사람들과 회복기 환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해 보라. 아픈 사람들 앞에는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해 보라.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라면, 우유와 염소젖은 아이들을 위해 남겨 놓아야 한다고 말해 보라. 만약 공동체가 극도로 절약을 해야 할 경우라면, 아이들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고기를 주고, 건장한 사람에게는 마른 빵을 주어야 한다고 말해 보라.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저런 필수품들이 부족해서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 할 경우, 그것들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고 말해 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당신의 의견이 과연 보편적인 동의의 얻어내는 지 아닌지를 한 번 살펴 보라. 배불리 먹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민중은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이것을 이해해 왔다. 심지어 사치스럽게 살던 아이조차도 거리로 내쫓겨서 민중과 접촉하게 된다면 이 사실을 금방 이해할 것이다.

군인들의 제복과 병영 내의 군대식당을 문명의 결정판으로 여기는 이론가들은, 국영식당과 ‘간이 급식소’ 제도를 틀림없이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지적할 것이다. 그런 커다란 부엌들이 만들어지면서 연료와 음식이 절약되고, 누구든 그곳에 가서 자기 몫의 스프와 빵 그리고 채소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방면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중요한 절약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100가구의 화덕에 각자 물을 피우기보다는 한꺼번에 100가족분의 스프를 끓이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장한다. 즉, 어떤 주부가 자기 냄비와 자기 집 화덕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녀더러 공동 부엌에서 요리된 감자를 가져가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혹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자유’가 있기를 원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커다란 공공식당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식탁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요즘에는 그런 식당들에서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곤 한다. 이미 파리의 주부들은 정육점에서 고기 국물을 사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온갖 스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또 런던의 주부들은 이미 구워진 고기 덩어리를 살 수 있으며, 사과파이나 대황으로 만든 파이를 빵집에서 소량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시간과 연료를 절약할

이숲과잡목림을소유하고있고, 그숲에나무가풍부하게우거져있다고치자. 모든 사람은이웃의여론말고는다른허가나방해를받지않고각자원하는만큼나무를가져갈수있다. 목재로쓰일나무들은항상귀하기때문에신중하게분배를해야할것이다.

공동으로사용하는목초지의경우에도같은원리가적용된다. 목초지가충분하고넉넉하다면, 아무런제한없이그리고각농가의가축의수가얼마이든상관없이목초지에서풀을뜯게할수있다. 목초지가부족하지않는한, 가축이풀을뜯어먹는땅을분할하지않을것이고여물을아까워하지도않을것이다. 스위스의모든코뮌과프랑스와독일의수많은코뮌은공동목초기가있으면어디든지제도를실행하고있다.

동유럽나라들의경우에는거대한숲들이있고땅도부족하지않다. 그런나라의농부들은각자가한정된범위에서땅이나목재를할당받는다는생각없이필요한만큼나무를베어내고, 원하는만큼의땅을경작한다. 하지만그것들이부족해지는상황이온다면, 곧바로목재는각가정의필요에따라허가를받아야할수있게될것이고, 땅은분할될것이다. 러시아에서는이미이런일이행해지고있다.

한마디로말해이제도는다음과같다. 공동체가소유한것들이충분할경우에는어떤할당제나제한을둘필요가없다. 하지만필수품들이모자라거나부족해지면공정하게할당하고나누는것이다. 유럽에서는 3 억 5 천만명의인구중 2 억명이자연스런코뮌주의제도를여전히따르고있다. 한가지주목할만한사실은대도시에서도한가지필요한물자를배분하면서도똑같은제도가널리행해지고있다는점이다. 즉, 충분하기만하다면물이각가정에아무제한없이공급되고있는것이다.

공급이부족해질걱정없는한, 어떤수도회사가각가정의물소비량을일일이확인하지않는다. 원하는만큼써라! 그러나큰가뭄이들어서공급이부족할것이라는우려가있으면, 수도회사들은신문에간략한공지를내어서상황을알릴것이다. 그러면시민은물소비량을줄이고물이낭비되지않게할것이다.

그러나물이실제로부족해지게된다면어떻게해야할까? 할당제에의지해야할것이다. 이방법은위낙자연스럽고상식에맞는것이라서, 1871 년에파리시가두번이나봉쇄되었을시기동안에는두번모두할당제가요청되었고시행되었다.

이러한할당배급제가어떻게잘운영되는지를보여주려고세부적인것들을조사하고상세하게목록을작성할필요가있을까? 이제도가현재시행되는것보다분명히더공정하고평등하다는사실을증명하기위해서굳이그렇게할필요가있을까? 이모든목록과세부사항은중산층사람들을설득시키지못할것이고, 애석하게도중산층의편견에감염된노동자들을설득하는데도쓸모가없을것이다.

이들이생각하기에민중이란국가업무를그만두자마자서로를공격해서상대의것을게걸스럽게빼앗을준비가된야만인무리이다. 그러나민중이술선수범해서일을결정하고자발적으로행동하는모습을한번도본적이없는사람들만이다음과같은사실에의심을품을것이다. 즉, 민중이상황을자유롭게통제할수만있다

옥은사람들로가득찼다. 그러는동안상류사회와사교계의걸치레와유행은옛날의자리를되찾아서예전과다름없이즐겁게행진해나아갔다.

이것이우리가거쳐온모든혁명의전형적인모습이다. 1848 년에파리의노동자들은공화국이업무를보던석달동안굶주렸다. 그런데도그들은자기들이낼수있는최대한의힘을발휘했고, 6 월에는최후의필사적인노력을기울였으나, 이노력은피의강물속에가라앉고말았다.

1871 년에파리코뮌은싸울사람들이부족해서몰락했다. 코뮌은교회와국가를분리하는법안은제정했지만, 사람들에게빵을공급하는방책을시행하는일을소홀히했고, 애석하게도그일을하려고했을때는너무늦어버린뒤였다. 그리하여파리에서는우아하고세련된신사들이코뮌지지자들을조롱하는일이일어나곤했다. 신사들은그들에게몇푼의돈을줄테니목숨을팔러가라고명령했으며상류층이모이는레스토랑에가서마음편히성찬을즐겼다. 마침내코뮌도자기의실수를알아차리고서공동급식소를열었다. 그러나너무늦었다. 시간이너무많이흘러버렸고, 벌써베르사유왕궁의군대가성벽을포위하고있었다.

“빵, 혁명이필요로하는것은빵이다!”

우리가분명히알아야할것은혁명의맨첫날부터마지막날까지, 해방을위해싸우는모든지역에서빵이없어서고통받는사람이단한사람도없어야한다는점이다. 단한사람의여성도자선으로던져질지모를싸구려빵하나를받기위해피로에지친군중과함께빵집문앞에서있어서는안된다. 또한단한명의아이라도제대로먹지못해비틀거리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

중산층사람들은항상‘위대한원칙들’, 차라리위대한거짓말들이라고해야할것들에관해목청을높여왔다. 반면민중에게는모든사람에게빵을제공하는일이훨씬더중요하다. 중산층시민과중산층계급의생각에휩쓸린노동자들이회의실에서자기들의화려한언변을구사하고있는동안, 그리고실용적인사람들이정부형태에관해끝없는논쟁을벌이고있는동안‘유토피아를꿈꾸는사람’인우리는매일먹을빵의문제를고민해야한다.

우리에게는모든사람이빵을먹을권리가있고, 모두에게돌아갈만큼충분한빵이있다는사실을선언할만한무모함이있다. 그리고‘모두에게빵을!’이라는슬로건을가지고서혁명을승리로이끌것이라는믿음이있다.

II

우리가유토피아주의자라는사실은잘알려져있다. 그래서우리는혁명이모든사람에게집, 음식, 옷을확실히보장해야한다는사실을믿는다. 이사상은어떤당파를지지하나와는상관없이중산층시민에게는지극히불쾌한사상이다. 왜냐하

면그들은배고픔이채워진민중을손아귀에두고지배하기가쉽지않다는사실을잘알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우리는주장을유지할것이다. 즉, 혁명에참여하는민중을위해빵을구해야만하고, 빵의문제가다른모든문제보다우선시되어야한다고말이다. 만약혁명이민중의관심사를가장먼저고려한다면, 그혁명은올바른방향으로나아간다. 그리고빵의문제를해결하는일에서우리는평등의원리를받아들여야한다. 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이다른모든해결책을제외할수밖에없다.

앞으로다가올혁명은, 1848 년혁명과관련해서보면거대한산업위기가운데서터져나올것이확실하다. 지난반세기동안상황은들끓어오르고있으며점점더안좋은쪽으로변하고있다. 이모든일이진행되는방식은다음과같은경향을보인다. 새로운국가들이국제적인무역거래목록에들어가려고하면서세계시장을손에넣기위한분쟁들이일어나고있으며, 전쟁과관세관련문제가끊임없이일어나고있다. 또한국가의부채, 미래에대한불확실성, 세계곳곳에서벌어지고있는거대한식민지개척사업같은일들이일어나고있다.

지금순간에도유럽에는수백만의실업자가있다. 그러므로우리앞에서갑자기혁명이일어나서화약을실은기차에불이붙듯이순식간에번져나간다면상황은더욱나빠질것이다. 유럽과미국에서바리케이드가세워지자마자일자리가없는사람의수는두배로늘어날것이다. 이많은사람에게빵을공급하기위해서무엇을해야할까?

자기들을‘실무가’라고부르는사람들이이문제를솔직하게자문해본적이있는지의여부를우리는잘모른다. 하지만그들이임금제도를유지하고싶어한다는것은알고있다. 그러므로그들은실업자들에게음식을주기위한수단으로‘국영작업장’과‘공공근로’를자랑스럽게내세우리라는것을예상할수있다.

왜냐하면 1789 년과 1793 년에도국영작업장이문을열었고 1848 년에도똑같은방식에의존했기때문이다. 또나폴레옹 3 세⁵⁹도 18 년동안파리의프롤레타리아들에게공공근로일 자리를제공해서그들을만족시키는데성공했기때문이다. 그로인해오늘날파리는 8 천만파운드의부채를지고있으며, 시민은한사람당 3~4 파운드의지방세를내고있다.⁶⁰

‘야수길들이기’라는이탁월한방법은로마제국에서도관례적으로시행되었고, 심지어 4 천년전의이집트에서도행해졌다. 마지막으로는전제군주들, 왕들, 황제들은항상채찍을움켜쥔시간을벌기위해서민중에게음식부스러기를던져주는책략을쓰곤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실무능한’사람들이임금제도를연구하는이방법을칭송하는것은당연하다. 이집트파라오가썼던유서깊은이방법을마음대로쓸수있는데, 다른방법을고안한다고머리를쥐어뜯필요가무엇이었겠

⁵⁹ 나폴레옹 1 세의조카로 1848 년 2 월혁명으로수립된공화국에서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1808-1873). 하지만임기도중에쿠데타를 일으켜서공화국을붕괴시키고황제에즉위했다.

⁶⁰ 1904 년파리시의부채는 2,266,579,100 프랑에이르렀고, 그부채로인한수수료는 121,000,000 프랑이었다.

대로자신들의얼간이같은이론들을실킨터벌리게내버려두자. 그것으로어떤권위도어떤권력도갖지못할테니까! 그러면민중의조직정신, 무엇보다도모든사회계층을통틀어서프랑스국민속에본래갖춰져있었지만좀처럼실행해볼기회를얻지못한저감탄할만한조직정신이일깨워질것이다. 심지어파리같은대도시에서도그런정신이혁명의한가운데서나타나서, 자유로운노동자들로이루어진거대한동업조합이각자에게필요한식량을공급할준비를할것이다.

민중이자유롭게행동하게해보라. 그러면열흘안에식량공급이감탄스러울정도로질서있게이루어질것이다. 열심히일하는민중을한번도본적이없는사람들, 평생동안자료더미에파묻혀서살아온사람들만이이사실을의심할것이다. 탁월한조직능력을지닌민중에대한‘엄청난오해’에대해서, 바리케이드가세워져있던시기에파리시를목격한사람들에게이야기해보라. 또런던에서부두노동자대파업이일어나서 50 만명의굶주리는사람들을먹여야만했을당시의런던시를목격한사람들에게도그이야기를해보라. 그러면그들은민중의조직능력이하급관리의얼빠진관료주의보다얼마나더뛰어난지를말해줄것이다.

보름이나한달정도는어느정도의불편과혼란을견뎌내야할테지만, 이런상황이분명그리큰문제로여겨지지는않을것이다. 수많은사람한테는이런상황조차자신들이예전에처했던조건들보다는한발진보한상태일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혁명의시기에는사람들이어떤사건들에대해열심히토론하면서한조각의빵과치즈를나눠먹어도충분히만족스러워할수있는법이다. 어떤경우든간에, 즉각적인필요라는긴장된상황에서자발적으로생겨난체제는, 무슨위원회따위에게들어가는편협한이론가들이회의실에서고안한그어떤것보다도분명히훨씬바람직할것이다.

IV

모든사람이각자필요한만큼식료품을받을수있게하려면, 어떤기초위에서사회를조직해야하는것일까? 이것이우리가맨처음에맞닥뜨리게되는문제이다. 여기에는선택의여지가없다고대답할수있다. 코뮌주의가공정하게자리를잡기위해서는한가지방법밖에없다. 또한우리의정의로운천성을만족시키면서동시에실제적인방법도한가지밖에없다. 다시말해, 이제도는이미유럽의농업코뮌들⁶⁶이채택했던방법이다.

어느농업코뮌을예로들어보자. 어디에있건상관은없다. 심지어자코뱅주의자들이모든공동체적인관습을파괴하려고최선을다한프랑스도괜찮다. 그코뮌

⁶⁶ 중세시대이나타난유럽농촌의주민자치공동체를말한다.

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프랑스 역사가 미네 (Mignet)⁶²는 그들을 ‘여전히’ 아나키스트 ‘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의 뒤를 이어서 당통⁶³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 파가이드 혁명가들을 단두대로 보내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단두대로 올라가야 했다. 그 결과 이런 유흥극에 신물이 난 민중은 혁명이 실패했음을 알아차리고 패배를 인정하고는, 반동주의자들이 뒤편으로 하게 내버려 두었다.

질서가 회복되면, 사회민주주의자들⁶⁴은 아나키스트들을 처형할 것이다. 점진적 사회주의자인 페이비언주의자⁶⁵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처형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반동주의자들에게 페이비언주의자들이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혁명은 막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다. 만약 민중의 힘이 충분히 강할 경우에는, 혁명이 자리를 잡고서 아나키즘적 코뮌주의가 세력을 잡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사상이 아니다. 민중 스스로가 우리의 귀에 이 사상을 속삭여 왔으며, 다른 해결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코뮌주의자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만약 민중의 추진력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상황은 아주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어느 날은 빵집을 약탈하고, 그 다음 날에는 굶주리는 일대 신에 반란이 일어난 도시의 민중은 곡물 창고들, 가축 시장을 손에 넣을 것이고 사실상 모든 식량 창고와 모든 음식 손에 넣을 것이다. 선의에 찬 시민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원자로 나서서 모든 기계와 곡물 창고의 물품 목록을 대강이나마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혁명이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파리에서 일어난다면 24 시간 안에 코뮌은 통계 위원회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71 년의 봉쇄 기간 동안에는 결코 찾아내지 못했던, 파리가 보유하고 있는 식료품의 양을 알아낼 것이다. 48 시간 후에는 수백 만 장의 일람표가 인쇄되어서 이용 가능한 식량의 양이 얼마인지, 어디에 비축되어 있는지, 분배 방식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모든 거주 지역과 거리에서, 그리고 행정 구역 안에서 자원자 조직이 구성될 것이다. 식량과 물품의 보급을 담당하는 자원자들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을 것이다. 과격한 자코뱅주의자들이 총칼로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자칭 ‘과학적’이라는 이론가들이 끼여 들어서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차라리 그들이 하고 싶은

는가? 그러나 혁명이 처음부터 이러한 길로 들어서도록 잘못 인도된다면, 그 혁명은 길을 잃고 말 것이다.

1848 년 2 월 27 일에 국영 작업장이 문을 열었을 때, 파리의 실업자 수는 8 천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 주가 지나자 실업자 수는 이미 4 만 9 천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 만 명에 이르렀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을 세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의 상업과 제조업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수는 오늘날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혁명의 시기에는 전반적인 대변동으로 인해 거래와 산업 부분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유일한 것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출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이다. 또한 소수의 중산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 생산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쨌든 유럽에서 혁명이 의미하는 것은 최소한 절반의 공장과 작업장이 어쩔 수 없이 조업을 중단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수백 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내쫓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무에 능한 사람들’은 국가의 실업구제 사업을 써서 참으로 끔찍한 이상향을 막아 보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즉석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수단을 써서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는 준다는 것이다!

프루동이 이미 50 여 년 전에 지적했듯이 사유 재산에 가장 작은 공격을 가하기만 해도 머지 않아 사기업과 임금 노동에 기초한 사회 체제를 완전히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생산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을 다시 조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 시스템을 재조직하는 일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수백 만의 사람이 생존 수단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실제적인 해결책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크나큰 임무에 과감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지지할 수 없는 미봉책을 써서 상황을 일시적으로 수습하려고 애쓰는 대신, 새로운 기반에 기초한 생산을 다시 조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럴 경우 필요한 행동 방침은 다음과 같다. 혁명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곳들의 모든 식량을 즉각 압수하고, 그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자원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에 공장 노동자들과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즉, 그들에게 필요한 원재료들과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확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이다. 대신 공장 노동자들은 작업을 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프랑스가 독일의 은행가 부인들, 러시아의 황후, 하와이 제도에 있는 샌드위치 섬 여왕의 몸치장을 위해 비단

⁶² 『프랑스 혁명사』 등을 쓴 프랑스의 역사가 (françois auguste marie mignet, 1796-1884).

⁶³ 프랑스의 법률가로 프랑스 대혁명 지도자의 한 사람 (George Jacques Danton, 1759-1794). 자코뱅파의 지도자.

⁶⁴ 현존하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으로 혁명과 전제주의를 거부한다.

⁶⁵ 1880 년대에 영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조직한 사회주의 단체 이름에서 유래했다. 진보적이고 온건한 사회주의 형태로 발전했으며, 마르크스의 이념과 달리 ‘점진적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나새틴을 찢다든가, 파리가 전세계의 부자들을 위해 멋진 장신구나 노리개들을 유행에 맞춰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면, 프랑스 농민의 3분의 2는 불을 밝힐 마땅한 등불도 갖지 못할 것이고, 현대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도 갖추지 못할 것이라 점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방치돼 있는 비생산적인 수많은 땅을 최고의 이익을 내는 땅으로 만듦과, 척박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제아래서는 4분의 1, 아니 10분의 1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 비옥한 토양으로 변하면, 그 땅에서 집약영농을 할 수 있다. 그곳의 식물들은 텃밭이나 화분에 심긴 꽃들만큼이나 많은 보살핌을 받으면서 재배될 것이다. 이것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실제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순전히 상황에 따른 힘 때문에 일이 일어날 것이다.

III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임금제도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필요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 어떤 산업 관련 기업을 설립한다. 그는 공장이나 작업장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생산을 조직하며, 고용인에게 정해진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잉여 가치 혹은 이익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자기가 기업을 경영한 것에 대해서, 혹은 이익을 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또는 상품의 시장 가치에 변동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자신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가령,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들과 나누는 다거나 ‘물가 임금 연동제’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임금 연동제에 따르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경우 임금도 무조건으로 올려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계속자들이 산업을 지휘하면서 동시에 알짜배기 결실도가 저간다는 조건에서 만약 간의 희생을 감수할 것이라 뜻이다.

알다시피, 집산주의는 임금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 비록 집산주의가 현존하는 질서에 상당한 변화로도 도입할 지라도 말이다. 집산주의는 고작해야 국가를 대체한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각각의 고용주를 대신하는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인 일종의 대의제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집산주의 아래에서 산업의 지휘권을 가진 주체는 국가 혹은 코뮌의 대표자들 혹은 그들의 대리인과 관료들일 것이다. 모두를 위해 생산의 잉여를 사용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있다. 게다가 집산주의는 단순 노동자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사이에 미묘하지만 아주 광범위한

차별을 만들어 낸다. 집산주의자의 눈에 비숙련 노동은 단순 노동일 뿐이다. 반면 수공업 장인, 기계공, 엔지니어, 학자 등이 하는 일은 마르크스가 복잡한 노동이라고 불렀던 것으로서 더 높은 임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노동자와 수공업 장인, 직조공, 학자 모두는 임금을 받으며 국가에 봉사하는 하인일 뿐이다. 최근에는 ‘관리들’이란 말로 하인이라 함이 지닌 불쾌함을 완화시키고 있지만 말이다.

어쨌든 다가올 혁명이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모든 형태의 임금 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임금 노예 노동을 거부하는 코뮌주의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만드는 것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에 점진적으로 도입된다는 조건이라면 현재 제를 집산주의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혁명의 시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로서는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도 그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지만 말이다. 정치 혁명은 산업의 기초를 뒤 흔들지 않고 도이룰 수 있다. 그러나 민중이 사유 재산에 손을 대는 혁명은 상품 거래와 생산의 마비를 불가피하게 가져올 것이다. 국가 금고에 가득 찬 엄청난 공금으로도 수많은 실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새로운 원리를 토대로 삼아서 산업을 재조직하는 일은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임금 제를 지지하는 이론가들을 위해서 민중이 몇 년 동안이나 반쯤 굶주린 상태를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다. 힘겨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생활품 공유화와 식량 배급을 요구할 것이다. 참고 견디라고 설교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민중은 그렇게 오랫동안 참지 않을 것이고, 식량이 배급되지 않으면 그들은 빵 집을 약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중이 그들 앞에 닥친 모든 일을 거절만 큼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그들은 총살당할 것이고, 집산주의를 실험하기에 적당한 실험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질서, 규율, 복종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금방 깨달을 것이다. 스스로를 혁명가라 부르는 이들의 손에 민중이 총살당하게 되면, 다수 대중의 눈에 혁명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때문에 자본가들은 틀림없이 질서 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고, 심지어 집산주의자들이라도 별로 상관 없을 것이다.

자본가들은 그런 식의 처세를 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집산주의자들을 밟아 버릴 수단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질서가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불보듯 뻔하다. 질서 옹호파들은 약탈자들을 총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폭동의 주모자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들은 다시금 법정을 열고 교수형 집행을 복귀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열렬한 혁명가들이 처형을 당할 것이다. 1793년의 프랑스 상황이다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 반동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자. 맨먼저 ‘에베르파 혁명당원들 (Hebertists)⁶¹’ 과 ‘과격파들’ 이 단 두 대로 보내졌다. 그 투쟁

⁶¹ 프랑스대혁명 당시 정치가이자 작가, 무신론자였던 에베르를 따르는 정치파벌.

에 출간된 자료들은, 강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일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축적된 자본을 가진 권력자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을 10 배, 100 배로 증가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맞서서 자신들의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철도회사 동업조합들(자유로운 협약으로 만들어진 신디케이트⁸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지는 것이다. 즉, 국가의 특혜를 받는 모든 강력한 자본에 스스로 맞설 수 있는, 자유로운 합의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힘에 놀라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이런 편파성에도 불구하고 작은 회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집권화된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철도 산업에서 고작 대여섯 개의 대기업만을 볼 수 있지만, 놀랄 만큼 협약을 잘 맺은 영국에서는 110 여개가 넘는 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분명 프랑스와 독일 회사들보다 더 잘 운영되어서 승객과 화물을 빠르게 수송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다. 국가의 특혜를 받는 자본은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소자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점이다. 즉, 유럽의 철도들을 소유하고 있는 수백 개의 자본주의 회사 사이에 서 맺어진 합의는, 몇몇 회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합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다. 대표자들은 이 회의에서 서로 토의하고, 자기네 회사에게 법률이 아닌 제안서를 제출한다. 이것은 정부와 관련된 모든 원칙, 군주 제 혹은 공화제, 전제 군주제나 대의제 등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유럽의 관습 속에 소심하게 도입된 혁신이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

III

우리는 국가를 옹호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글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누가 운하 수송 관련 일을 조정할 것인가? 당신네 아나키스트 ‘동지들’ 중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즉 자기 거룻배로 운하를 가로막고서 수천 척의 다른 배들을 방해할 생각이 떠오른다면, 누가 그러분별 있게 행동하라고 강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가정 자체가 다 소공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자.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⁸⁶ 동일한 시장 내에서 몇 개의 기업이 연합한 기업조합. 생산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판매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경쟁을 줄이고 시장을 독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용은 완전한 사회혁명의 싹을 품고 있다. 주택 수용을 실행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모든 일의 특성이 결정된다. 우리는 아나키즘적 공민주의를 향해 곧게 뻗은 탄탄한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횡포한 개인주의의 진흙탕 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한편에서는 이론적이 고 다른 편에서는 실제적인 수많은 반론을 틀림없이 맞닥뜨리게 되리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행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대자들은 당연히 정의의 이름으로 저항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파리에서는 시민만이 이 모든 좋은 집을 차지하고, 반면 시골 농민들은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러나 오히려 하지 말도록 하자. 이런 정의 열광자들은 기력 상실 속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정작 자신들이 암묵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노동자가 악취나는 다락방에서 숨이 막힐 듯이 비좁게 살고 있고, 다락방 창밖으로는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들이 보인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혼잡한 빈민가에서도 동자가 죽세 대 전부가 공기와 햇빛을 갈망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러한 불공평을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혁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성실한 저항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자. 혁명의 초기에는 도시와 시골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불평등은 전환의 시기에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바로잡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골 마을에서는 농민들이 지주, 상인, 고리대금업자, 국가가 지웠던 짐을 끄는 짐승의 신세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사는 집들도 분명히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불평등을 피하기 위해서 케케묵은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우리가 멈추어야 할까?

소위 말하는 실제적인 반론들 역시 그렇게 대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의 힘겨운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갓은 고난을 겪으면서 어찌어찌 자기 가족들과 살기에 딱 알맞은 집을 사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어렵게 얻은 행복을 우리가 빼앗으려 하고 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 만일 그 집이 그의 가족이 살기에 딱 알맞은 집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 그는 자신의 작은 텃밭에서 맘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를 방해하기는 커녕 그를 거들여 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집엔 빈방들이 있어서 그가 방을 세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세입자에게 이제 더 이상 집주인에게 방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 줄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 하지만 집세는 무료이다. 더 이상 빚독촉을 하는 사람도 수금인도 없다. 사회주의가 모든 것을 폐지했다.

이번에는 이런 가정을 해보자. 어느 집주인은 많은 방을 전부 독차지하며 살고 있는데, 근처의 가난한 부인은 다섯 아이들과 비좁은 방 하나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경우

라면사람들은이집주인의빈방들을적당히개조해서가난한부인과다섯아이들이 살기에알맞게바꿀수있는지알아볼것이다. 그렇게하는것이다락방하나에서쇠 약해가는어머니와다섯아이들을그대로두는것보다훨씬정리롭고공정하지않겠 는가? 호화롭게사는부자나리는팅빈저택에편안히살고있는데말이다. 게다가 어쩌면이선량한부자나리가자신해서그렇게하려고서두를지도모른다. 어쩌면 그의부인도그렇게근집을유지해줄하인들이더이상없게되었을때는이큰집의절 반으로부터해방된것을기뻐할지도모른다.

“그래서당신들은모든것을다뒤집어놓으려고한다.”

법과질서의옹호자들은말한다.

“퇴거와이사들이끝없이이어질것이다. 방향을완전히전환해서새롭게시작 하려면, 차라리모든사람을집밖으로나오게한다음에, 제비뽑기로집들을재분배 하는것이낫지않을까?”

비판자들은이런식으로말할것이다. 하지만우리는굳게확신하고있다. 만 일어떤정부도이문제에간섭하지않는다면, 그리고이일을맡기위해생겨난자유 로운단체들에게모든변화를맡겨둔다면, 퇴거와이사들은훨씬적을것이라고말 이다.

모든대도시에는많은빈집과아파트가있어서빈민가에살고있는사람들이들 어가살기에거의충분할정도이다. 궁전같은호화저택들과방이많이떨린고급아 파트의경우에는, 많은노동자가할수만있다면그곳에서살지않으려고할것이다. 수많은하인이없는상태에서는그런저택들을유지할수가없기때문이다.

그런저택들에살던사람들도머지않아덜사치스러운집을찾아봐야겠다고생 각할것이다. 귀부인들도부엌에서손수요리를하기에는그런저택이별로적당하 지않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사람들은점차차분히자리를잡아갈것이다. 총검으 로위협을하면서부자들을다락방으로보낼필요가전혀없을것이다. 혹은무장한 호위대와함께가난한사람들을부자의대저택으로데려갈필요도없을것이다. 민 중은가능한최소한의혼란과소동을겪으면서, 쓸모있는집들을찾아내서우호적 으로자리를잡아갈것이다.

우리에게는시골의공동체적코원들이농지를재분배했던실례들이이미있지 않은가? 그때그코원들은할당된농지의주인들을거의방해하지않았기때문에, 누구나그들이사용한방법이아주합리적이고양식있는방법이라고칭찬할수밖에 없다. 러시아에서코원이농지를관리하던시절에는농지의주인이거의바뀌지않 았다. 사유재산이 지배하고서로간의분쟁들을끊임없이법정으로가져가던때보 다말이다. 그렇다면유럽의대도시주민이러시아나인도의농민들보다지성이모 자라고조직화하는능력이부족하다고생각해야할까?

더욱이우리는다음과같은사실을못본척해서는안된다. 모든혁명어느정도 일상적인삶에혼란이일어남을의미한다는사실을말이다. 의심할여지없이혼란 이있을것이다. 하지만오로지손실만을가져오는혼란이되어서는안된다. 혼란은 최소화되어야한다. 우리스스로가직접이해관계가있는모임들에참여해서일을

철도), C.P.R(캐나다태평양철도), 세인트고트하르트터널철도의중역인반더빌 트와폴리아코프스 (Polyakoffs) 같은소위‘우리시대의왕들’이라는실업계거물 들에게독점권이라는특혜를베풀지않았던가?

그러므로우리가철도회사들사이에이루어진합의를하나의예로드는경우에, 그것은결코경제적인경영관리에관한하나의이상으로예를드는것이아니다. 또 한기술적인조직의이상으로예를드는것도아니다. 이를예를드는이유는다음과같 은사실을보여주기위해서이다. 즉, 다른사람들을회생시켜서자기들의이익배당 금을축적하는것말고는다른목적없는자본가들이‘국제외무성’같은것을만들 지않고도철도를성공적으로개발할수있다면, 노동자들의협회들은유럽철도장 관같은것을임명하지않아도그런일들을그만큼잘할수있고, 심지어더잘해낼것 이라는사실을보여주기위해서이다.

언뜻보기에도다른반론은좀더심각해보인다. 우리는이런이야기들을들것이 다. 우리가말한합의는완전히자유로운것이아니고, 큰회사들은작은회사들에게 강압적으로명령할것이라고말이다. 예를들어서이렇게이야기할수도있다. 국가 의지원받는데어느부유한독일회사는베를린에서바젤까지가는승객들이라이프 치히를지나가는노선대신퀵과프랑크푸르트를경유하도록만든다. 혹은이러 한회사는영향력있는주주들에게이익을주기위해서화물의운송을 130 마일이 나멀리돌아가게 (장거리로) 만들고, 그리하여간선철도노선을황폐하게한다. 또미국에서는때로승객들과화물들도무지있을수없을만큼민주회로를어쩔수 없이돌아가야하는데, 이것은철도거물의호주머니에달러를쏟아붓기위해서라 는예를든것이다.

우리의대답은달라지않을것이다. 즉, 자본이존재하는한더큰자본은소자 본을억압할것이다. 하지만억압이조직자본으로부터만오는것은아니다. 억압 은또한국가의지원때문에생겨난다. 국가가만들어낸독점권이라는특혜를입은 큰회사들이작은회사들을억압하는것이다.

영국과프랑스의사회주의자들은오래전부터보여주었다. 어떻게영국의법이 온갖방법을다써서중소기업들을파괴하고, 농민들을빈곤으로몰아넣는권력을 갖고있는지를말이다. 그리고어떻게법이그렇게빈민이된수많은사람을산업계 의부유하고용주들에게넘겨주어서, 임금어얼마나되든상관없이일할수밖에없 도록만들었는지를말이다. 철도에관련된법률제정도똑같다. 군사전략에중요한 노선들, 보조금을받는노선들, 국제우편을독점할수있는권리를회사들등, 부유 한금융가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한온갖법률이만들어져서적용되었다. 모든유 럽국가가돈을빌리고있는로스차일드가철도에자본을투자하면, 그의충실한심 복인유럽의각료들은그가더많은돈을벌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미국의경우, 권위주의자들이이상적으로여기는민주주의나라에서가장수치 스러운부정행위들이철도와관련된모든일에달라붙어있다. 그래서한회사가값 싼운임으로다른경쟁회사들을무너트린다면, 대개는뇌물을받은국가가그회사 에게준당덕분에손해를보상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의밀관련거래에관해최근

손에넣을철도노동자들이왜합의에도달하지못하겠는가? 상트페테르부르크-바르샤바구간회사와파리-벨포트구간의회사가공동지휘관이라는사치스런직책없이도서로조화롭게일할수있다면, 자유로운노동자단체들로구성된우리사회에왜정부가필요할까?”

II

오늘날사회전체를구성하고있는부정한조직에도불구하고, 사람들은자신의 이해관계가완전히부정당하지않을경우에는권위의개입이없어도서로합의를하고있다. 이런실례들을입증하려고노력할때, 우리는제기되는반대들을무시하지 말아야한다.

이런모든실례에는제각기불충분한면이있다. 왜냐하면강자에의한약자의착취, 부자에의한가난한이들의착취에서벗어난단하나의조직이라도예로들기가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국가주의자들이늘하던논리대로우리를향해다음과같이 말하는것은바로이런이유때문이다.

“이런착취를끝내기위해서라도국가의개입이필요하다는걸당신들은알것이다!”

그들은단지역사의교훈을잊고있을뿐이다. 그들은국가자체가프롤레타리아들을만들어내고, 착취자들의손에그들을넘김으로써현질서를유지하는일에어느정도로기여했는지말하지않는다. 그들은사적자본과빈곤이라는일차적원인들의 3 분의 2 는국가에의해인위적으로만들어진것인데, 그것들이계속존재하는가운데어떻게착취를끝내는일이가능하다는건지를우리에게증명하는것을잊은것이다.

우리가철도회사들간에성립된협정에대해이야기하면, 부르주아국가의송배자들은아마도이렇게말할것이다.

“철도회사들이직원들과여행자들을얼마나억압하고학대하는지를보지않는가? 유일한해결책은노동자들과국민을보호하기위해국가가개입하는것이다!”

하지만우리가여러번반복해서말하지않았던가? 자본가들이존재하는한, 이런권력의남용은영원히지속되리란사실을말이다. 기업들에게오늘날그들이소유하고있는독점권과다른권리들을부여한것은정확히국가, 자기때에는후원자인척하는국가이다. 국가가가거제도와보증계약을만들어내지않았던가? 국가가파업중인철도노동자들을해산시키려고군대를보내지않았던가? 그리고철도가처음으로시운전을할때 (아주최근에러시아에서도있었다), 국가는자신이보증한주식의하락을막기위해서, 철도사고들을심지말라고언론에압력을가할정도로철도거물들의특권을확대하지않았던가? 국가는 P.L.M(파리-리옹-지중해

시작해야하고, 이사회나위원회에맡겨서는안된다. 그렇게하면우리는모든사람이느끼는불편의정도를줄여가는일에제대로성공할수있을것이다.

민중을대표하는명예를달라고졸라대는어느경박한후보자를투표로선출해야하는상황을만든다면, 그들은어리석은실수를무심코또저지르는것이다. 이런후보는자신이모든것을알고있고, 모든것을할수있고, 모든것을조직화할수있다고여기는사람이다. 그러나민중스스로가자들이알고있는것, 그리고자기들과직접관련이있는일을조직하는일을맡게되면, ‘입씨름만하는의회’를모두합친것보다훨씬더잘해낼것이다. 파리코윈이그적절한사례가아니던가? 영국의부두노동자총파업⁶⁹은어떤가? 또온갖농촌공동체가끊임없이사실을증명하고있지않은가?

⁶⁹ 영국런던에서 1889 년에행해진부두노동자총파업을말한다.

07. 의복

I

주택들이 시민의 공공자산이 되고, 모든 사람이 매일의 음식을 공급받게 되면, 또 다른 단계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복에 관한 문제가 당연히 그 다음으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일하게 해결책은, 옷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가게와 창고를 민중의 이름으로 손에 넣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서각자가 필요한 옷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의복을 공유화하는 일, 즉 각자가 필요한 옷을 공동창고에서 가져갈 권리를 갖는 것은, 주택과 식량의 공유화로부터 쉽게 추론할 수 있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분명 우리가 모든 시민의 외투를 강제로 빼앗아서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다음에 제비뽑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위트와 재간을 적절히 갖고 있는 우리의 비판자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말이다. 외투 한 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게 하자. 오히려 어떤 사람이 외투 열 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걸 빼앗고 싶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뚱뚱한 부르주아에게서 꺼리는 것보다는 새 외투를 더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 외투가 남아돌만큼 충분할 것이어서, 굳이 헌 옷들을 입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도시에는 가게들과 창고들을 조사해보면 파리, 리옹, 보르도, 마르세유 같은 도시에는 남녀노소 모든 시민에게 공급하기에 충분한 옷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즉시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얼마 안 있어 공동양복점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다. 대규모 생산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계들 갖추게 되었을 때, 오늘날 양복과 드레스를 만드는 큰 작업장이 얼마나 빠르게 일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검은 담비가죽으로 안감을 덴 코트나 벨벳 야회복을 원할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이렇게 외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여성이 벨벳 드레스를 맹목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모든 남성이 검은 담비가죽으로 안감을 덴 옷을 꿈꾸

이런 결과는 아마 두 가지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 혹은 유럽을 정복했던 어떤 군주라면, 파리, 베를린, 로마에서부터 철도선을 그려서 철도지도를 만들고 기차들의 운행시간을 조절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 세는 이러한 권력을 꿈꾸었다. 그에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를 잇는 철도의 개략적인 설계도를 보여주자, 그는 러시아 지도에 있는 두 도시 사이에 철도선을 긋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설계도이다.”

그리하여 직선으로 철도가 건설되었다. 깊은 계곡들을 메우고 까마득한 높이에 다다리들을 세웠지만, 몇 년 후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철도가 매일당 대략 12 만 파운드에서 15 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가지 방식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은 아주 다르게 진행되었다. 철도들이 한 구간씩 건설되었고, 각 구간들이 나중에 함께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들을 소유하고 있던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철도 회사는, 자기네 역으로 오는 기차의 도착과 출발과 관련해서 점차 상호 이해에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갖 나라에서 오는 열차들이 자기네 철로 위를 달리고 있어도, 화물을 내리지 않고 하나의 철도망에서 다른 철도망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이 자유로운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로 편지와 제안을 교환하고, 대표자들이 만나 회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특정한 점들을 논의했고, 그것들에 대한 합의에도달하더라도 법률을 만들지는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대표자들은 각자가 대표하는 회사로 돌아갔지만, 법률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승인되었거나 거부된 계약서 초안을 갖고 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설득시키기 어려운 고집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의 이해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합의했다. 함께 연결된 이런 광대한 철도망과 그것이 불러일으킨 엄청난 교통과 수송은 의심의 여지 없이 19 세기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로운 협약의 결과이다. 만약 누군가가 80 년 전에 이런 상황을 예언했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그가 바보이거나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수백개 회사의 주주들을 도리에 따르도록 만드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공상이고 동화일뿐이야. 오직 ‘철의 통치자’가 있는 중앙정부만이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철도에는 ‘유럽 중앙정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철도 부장관도 없고, 독재자도 없고, 심지어 대륙의 회나 관리 위원회조차 없다. 모든 것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래서 “교통을 조정하는 문제만 봐도, 중앙정부가 없는 절대 해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가 신봉자들에게 우리는 묻는다.

“그렇다면 유럽의 철도들은 중앙정부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대륙을 가로질러서 수백만 명의 여행자와 산더미 같은 화물을 계속해서 수송하고 있을까? 철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철도를

의 삶은 신문에서 계속해서 무시된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심지어 역사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왕의 생애나 의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다. 정치가들이 했던 연설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전부 보존되어 있다. 의회법규에 정통한 어느 나이의 의원이 말했듯이 ‘단한 사람의 표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없었던 연설들’까지 보존되어 있다. 국왕의 방문들, 정치가들의 좋고 나쁜 기분, 그들의 농담과 술책들은 모든 후세대를 위해서 정성들여 기록되었다.

하지만 중세 시대에도 시를 재건축했던 일, 한자 동맹을 맺었던 도시들 사이에도 고간엄청난 상업 거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 루앙시가 어떻게 대성당을 건축했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거의 기록이 없어서 조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어떤 학자가 일생을 바쳐서 이런 주제들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작업은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잊혀 버린다. 그런데 의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역사는 단지 사회 생활의 한 단면만 다루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인데도 말이다. 그런 의회의 역사는 계속 유포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진다.

이런 식으로는 매일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들이 성취해 내는 비범한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 세기의 주요한 업적들을 구성할 터인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업적들 중 몇몇가장 놀라운 것들을 주목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한, 어떻게 사람들이 조화롭게 협력하는지, 그리고 아주 복잡한 특성이 있는 일을 어떻게 협동해서 수행해 내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유 재산에도 대를 둔 현재 사회, 말하자면 약탈과 편협함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합의들이 항상 완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종종 비열한 목적을 가지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일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본보기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런 본보기들을 지금 사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위주의에 근거한 숨막히는 개인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체 삶 속에는 오직 자유로운 협약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하면서 이미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유럽에는 이미 17만 5천 마일의 철도 시스템이 있다. 오늘날에는 이 철도망을 이용해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까지, 프랑스의 칼레에서 터키의 콘스탄티노플까지 지체 없이, 심지어 열차를 갈아탈 필요도 없이 (급행 열차일 경우)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역에서 부친 짐 꾸러미는 터키든 중앙아시아든 간에 상관 없이 주소가 쓰인 어느 곳에서나 받아볼 수 있다. 그것을 보내는 데는 종이 한 장에다 목적지를 적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지도 않는다. 지금이라도 각각의 여성에게 옷을 고르라고 한다면, 최신 유행의 온갖 기이한 장식들을 붙인 옷들보다 간소하고 실용적인 옷을 더 좋아하는 여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취향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혁명의 시대에 유행하는 패션은 틀림없이 간소한 것이다.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소심한 시기 도 있지만 대담한 순간도 있다. 비록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의 편협한 이해 관계를 추구하고 보잘 것 없는 사상에 빠져 있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중대한 위기가 닥치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위대함과 열정의 시기가 될 것이다. 관대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오늘날 사익을 챙기는 자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얻을 것이다. 헌신적인 행동들이 분출할 것이고, 고결한 행위들은 또 다른 고결한 행위들을 낳을 것이다. 이기주의의 자조차 참여하지 않고 망설이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비록 그가 본받지는 않을지라도 관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게 될 것이다.

1793년의 대혁명 시기에는 이런 종류의 실례들이 아주 많았다. 인류를 순식간에 향상시키는 이 열정의 급류가 일어나는 시기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언제나 이런 정신적인 부활의 시기 동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귀한 열정이 하는 역할을 과장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열정들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사회를 발견하리라고 희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열정의 힘으로 최초의 가장 힘든 시기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우리는 나날의 일상이 그런 고조된 열광 상태에 끊임없이 영향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감정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이다.

새로운 아나키스트 사회가 이런 우애의 물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노예 상태와 억압 때문에 축적된 파편들과 쓰레기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해서이다. 나중에 이 우애는 굳이 헌신적인 정신에 호소하지 않아도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압제가 사라지고, 연대감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혁명의 특성이 우리가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묘사해 본 것과 같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성이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의 시도들은 좌절될 것이다. 모든 거리와 구역마다 단체들이 생겨나서 의복을 담당하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의료의 재고 목록을 작성할 것이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은 대략 어떤 것들인지를 밝혀낼 것이다. 의복의 문제에서도 시민이 식량 문제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공동 창고에 풍부하게 있는 것들은 무료로 제공할 것이고, 양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조급씩 배분할 것이다.

모든 남자에게 검은 담배가 죽안감을 댄 외투를 주거나 모든 여자에게 벨벳 야회복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아마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과 생활 필

수품들을구분하게될것이다. 그리고검은담비모피와벨벳은잠정적으로삶에꼭 필요한물품은아닌것으로분류될것이다.

오늘사치품인것이미래에는모두가흔히쓰는것이될지어떨지는시간이증명 하도록놔두자. 반면필수품인의복은아나키스트도시의모든주민에게보장될것 이다. 잠정적으로사치품으로간주된물품들을아픈사람들과허약한사람들에게 제공하는일과, 평범한시민의일상적인소비재가아닌특별한물품들을덜건강한 사람들에게가져다주는일은민간의사적인활동으로남게될것이다.

“하지만그것은회색빛획일화를뜻하고, 인생과예술에서모든아름다운것의 끝을의미한다”고주장하는사람이있을수있다. 우리는대답한다. “분명히그렇지 않다”라고. 그리고이미존재하고있는것들을증거로삼아추론한것에기초해서, 우리는어떻게아나키스트사회가재산을축적하는백만장자를허락하지않고서도 시민의가장예술적인취향을만족시킬수있는지를보여줄것이다.

11. 자유로운협약

I

우리는대대로내려온편견, 그리고잘못된교육과훈련으로인해모든곳에서정 부, 법률의제정, 행정관들의유익한지배를받고있다는식으로우리자신을설명하 는일에익숙해져있다. 그렇기때문에경찰의감시가없어지는순간사람들이야수 처럼서로를갈가리찢어버릴것이라고믿게되었다. 만약혁명이일어나는동안권 력조직이붕괴되면그런절대적인대혼란이일어날것이라고말이다. 그래서수많 은사람이법의어떤개입없이도스스로자유롭게단체들을만들어낼것이고, 정보 의보호아래서보다나은결과를얻을것이라는사실에는눈을감고지나쳐버린다.

일간신문을펼쳐보면, 모든지면마다정부가수행하는업무들과정치적인부정 행위에관련된기사들이 가득차있는것을볼것이다. 다른세상에서온사람이그걸 읽는다면그는주식거래행위들은예외로치더라도, 유럽에서는몇몇거물의명령 에의한것말고는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다고믿게될것이다. 신문에서는행정법 규가없어도협회들이나학회들이생겨나고, 자라나며, 발전해나간다는소식은전 혀찾을수없다. 거의아무것도말이다. 심지어‘이런저런사건들’(프랑스신문들에 서가장인기있는칼럼) 이라는표제가붙은것이있어도, 그사건들이경찰과관련이 있기때문에실린것이다. 가정에서벌어지는극적인사건, 반란행동같은것들은오 직경찰이그장면에등장할때만언급될것이다.

3 억 5 천만명의유럽인들이서로사랑하거나미워하고, 일하거나자신의정 기적인수입으로살아가고있다. 하지만문학, 연극, 혹은스포츠를제외하면그들

08. 방법과수단

I

어느한사회, 한도시, 한지역이주민에게생활필수품을보장해주려면 (그리고우리는어떻게생활필수품이란개념이확장되어서사치스럽다는것들까지포함할수있는지를보여줄것이다), 그사회는생산에절대적으로필요한것들을부득이하게손에넣어야할것이다. 다시말해서토지, 기계, 공장, 운송수단등을손에넣어야한다. 사적소유자들이손에쥐고있는자본도몰수해서공동체에돌려줄것이다.

이미이야기했듯이부르주아사회가저지른커다란해악은, 각각의산업적이고 상업적인기업들이내는이익의상당부분을자본가가차지하고그들자신은일하지않으면서살아간다는점이다. 뿐만아니라생산이전부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기 때문에, 모든사람의행복을보장하려는목적으로수행되지않는다는점도있다. 바로이런이유때문에그것은비난받아야한다.

상업적인생산이모든사람을위해운영된다는것은절대적으로불가능하다. 그렇게되기를바라는것은자본가들이자신의활동영역을넘어서서어떤의무를수행하기를기대하는일이다. 이의무는자본가들이지금의자신이기를그만두지않고서는수행할수없는것들이다. 즉, 자신의부유함을추구하는사적인공장주이기를그만두어야하는것이다.

고용주개인의사적인이익에기반을둔자본가조직은사회가그들에게서기대할수있는모든것을사회에게제공하고있는데, 바로노동생산력을증가시키는일이다. 증기, 화학의갑작스런발전, 우리세기에이루어진다른발명들덕분에일어난산업혁명으로이득을얻은자본가들은스스로를위해인간의노동에서나오는이익을증가시키는일을하고있다. 그리고지금까지는아주크게성공했다. 하지만자본가에게그것말고다른의무들을부과한다는것은터무니없는일이다. 예를들어자본가가이막대한노동이익을사회전체를위해서쓰기를기대한다는것은그에게박애주의와자비심을요구하는격이지만, 자본주의기업은자비심에기초할수없다.

이제사회가해야하는일은, 첫째로지금은특정산업에만한정되어있는이생산성을더욱크게확대해서공공의이익을위해쓰는것이다. 그러나이런노동생산성을모두의행복한삶을보장하는데쓰려면사회는모든생산수단을손에넣어야한다.

늘그렇듯이경제학자들은특정부류의젊고건강한노동자들, 현재제아래의특수산업분야에맞게숙련된기술을가진노동자들이비교적좋은삶을산다는것을우리에게상기시켜줄것이다. 경제학자들이자랑스럽게가리켜보여주는것은언제나그런소수의사람이다. 하지만이런소수노동자들의예외적인권리인이행복조차과연안전한것일까? 아마도내일이되면, 부주의함, 장래에대한준비부족, 고용주들의탐욕이그들의일자리를빼앗을지도모른다. 그리고몇달혹은몇년동안누렸던편한세월을이제는가난과결핍으로값아야할지도모른다.

얼마나많은직물업, 철강업, 제당업같은중요한산업들이쇠퇴하거나조업을중단하는모습을보아왔던가! 투기때문에, 또는작업의자연스러운대체때문에, 혹은자본가들사이의경쟁의결과때문에말이다. 주요한직물업이나기계공업조차 1866 년을지나오면서그러한위기를겪어야했다면, 소규모기업모두가조업중단의기간을보내야만했다는사실은말할필요조차없다.

게다가특정부류의노동자들이누리는상대적인행복을위해치러야하는대가는어떤것일까? 불행히도농업의몰락, 농민들에대한파렴치한착취, 다수민중의빈곤으로그대가를치르고있다. 어느정도의안락을즐기는소수의힘없는노동자들과비교해서, 얼마나많은사람이안정된임금도없이, 부르는곳이라면어디든갈준비가된채로, 하루벌어서하루를근근이살아가고있는지모른다. 얼마나많은농민이쥐꼬리만한수입을얻으려고하루에 14 시간씩일하고있는지모른다. 자본은시골의인구를줄여들게하고, 산업발달이거의안된식민지와다른나라들을착취하고, 엄청나게많은노동자가기술교육도받지못한채자기직업에서조차열등한사람으로남아있게만든다.

분이선호하는것이있다면쇠고기로할것인지양고기로할것인지직접고르도록하라. 특별한양념을더좋아한다면입맛에맞게야채에특별한소스나양념을뿌려라! 하지만하나의화로가있는하나의부엌만으로도충분하다. 그리고할수있는한그곳을기분 좋게정리해놓도록하라.

왜여성들의노동은한번도중요하게여겨진적이없을까? 어쩌서모든가정에서어머니나서너명의하인들이요리와관련된일에그렇게나많은시간을써야만할까? 왜냐하면인류해방을원했던사람들이해방이라는자기들의꿈속에여성은포함시키지않았기때문이다. 그리고그들은힘든노동을건뎛야하는여성의어깨위에자기들이올려놓은‘그런부엌일따위’를생각하는것은, 자신들의우월한남성적인위엄에어울리지않는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여성을해방시킨다는것이대학, 법정, 혹은의회의원문을그녀들에게개방한다는것만을뜻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그렇게‘해방된’여성은항상자기집의가사노동을다른여성에게떠넘길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여성해방이란부엌과세탁실에서의고된노동으로부터여성을해방시킨다는뜻이기도하다. 그녀가정말로원한다면, 스스로자기아이들을기를수있는방식으로가정을꾸리면된다. 그러면서도그녀가자기몫의사회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충분한여가시간을확보해놓아야한다.

그런해방은이루어질것이다. 이미말했듯이상황은벌써개선되고있다. 다단계대로이해하도록하자. 자유, 평등, 연대같은아름다운말에도취된혁명이, 가정에서노예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면그것은제대로된혁명이아니라는사실을말이다. 가정에서노예제의지배를받고있는절반의인류는여전하나머지절반에대항해야할것이다.

이런기계들은제작하는데많은돈이들지않는다. 우리가그것들을여전히아주 비싸게사야하는이유는아직일반적으로쓰이지않기때문이다. 그리고무엇보다 주요한이유는신사양반들이모든기계각각에터무니없는세금을부과했기때문이다. 이신사들은호화로운삶을살고싶어하고, 땅, 원재료, 제조업, 판매업, 특허 제도, 관세등을두고서시세를예측하고투기를해온사람들이다. 가사노동으로부터의해방은소형가전제품들만으로이뤄지지않을것이다. 가정들은지금의고립상태에서벗어나고있다. 가정은다른가정들과협력해서이전에는제각기해왔던일들을공동으로하기시작했다.

실제로미래에는구두닦는기계뿐만아니라설거지기, 세탁기등을각가정마다갖고있을필요가없을것이다. 그와는반대로미래에는공동난방장치가있어서한구역전체의각가정마다열을보낼것이기때문에불피우는일을제각기안해도 될것이다. 미국의어떤도시들은이미그렇게하고있다. 커다란중앙난로가파이프를통해모든가정과방으로뜨거운물을보내고있으며, 온도를조절하려면마개를 돌리기만하면된다. 그리고어떤특정한방에할탈타는불을갖고싶다면, 중앙저장소에서난방목적으로특별히공급해주는가스에불을붙일수도있을것이다. 굴뚝을청소하고불을꺼트리않기위해하는끝없는일들, 얼마나많은시간이걸리는지를여성들이잘아는이런일들은사라질것이다.

촛불, 등불, 심지어가스마저도과거의것이되고있다. 버튼하나만누르면도시전체에환하게불을밝힐수있는도시들이있다. 실제로, 전기불이라는사치를자신에게선물하는일은단순히경제문제이고지식의문제다. 그리고최근에역시미국에서는, 사람들이가사노동거의완전히없애도록사회를구성하는것에대해 이야기하고있다. 그런사회를구성하기위해필요한것은모든주택가마다이런일들을담당하는부서하나를설치하는것뿐이다. 수레가각집의현관앞까지올것이고, 그러면닦아야할구두와설거지할사기그릇들, 세탁해야할의류, 수선해야할잡화들(그렇가치가있을경우), 먼지를털어야하는카펫을내주면된다. 그리고다음날아침이면이모든것을깨끗한상태로돌려받을것이다.

조금시간이지나면뜨거운커피와요리된달걀이알맞게준비되어서여러분의식탁에놓일것이다. 낮 12 시에서 2 시사이에 2 천만명이상의미국인과많은영국인이구운쇠고기나양고기, 삶은돼지고기, 감자와계절채소를먹는다. 그러면가장낮게잡아도 800 만개의불이두세시간동안지퍼져서고기를굽고채소들을 요리한다. 그리고 800 만명의여성들이각자의가정에서많은아빠아열두어개정도되는서로다른요리들을준비하느라자기시간을쓰고있다.

언젠가어느미국여성은이런글을썼다.

“한개의불이면충분한데도, 50 개의화로가타오르고있다!”

원한다면여러분의식탁에서아이들과함께식사를하라. 하지만한번스스로생각을해보라. 왜이 50 명의사람들이몇잔의커피와간단한음식을준비하는일에아침시간을통째로허비해야하는가! 두명의사람과화로하나만있으면그정도양 의고기와채소를요리할수있는데, 어째서 50 개의화로에불을피워야할까? 여러

이런상황은그저우연히일어난것이아니라자본주의체제에서필연적으로생기는일이다. 특정부류의노동자들에게좋은보수를주기위해서, 농민들은사회의 집을끄는짐승이되어야한다. 시골은도시를위해서황폐해져야한다. 소규모산업들은대도시의불결한외곽에모여서, 수많은잡화물품을거의공짜나다름없이만 들어야한다. 그래야적은월급을받는구매자들이대기업의상품들을구매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그렇게만들어진질나쁜천은월급이보잘것없는노동자들에게팔릴것이고, 기아임금에만족하는재단사들이그천으로옷을만들것이다. 동양의후진국들은서양에의해착취당하고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몇가지특권적인 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제한된안락을얻도록하기위해서말이다.

그러므로현재제도의해악은로트베르투스⁷⁰와마르크스가말한것처럼생산물의‘잉여가치’가자본가들에게돌아간다는점에있는것이아니다. 이런생각은사회주의적개념과자본주의체제에대한일반적인견해를협소하게제한하는것이다. 잉여가치체제는더깊은원인들이낳은하나의결과에불과하다. 해악은각각의세대들이소비하지않고남겨둔단순한잉여에있는것이아니라잉여가치가존재할것이라는사실에있다. 왜냐하면잉여가치가존재해야한다는것은남자와여자, 아이들모두가강요된배고픔에못이겨서자기들의노동이생산할수있는것보다훨씬적은몫만을받고노동력을팔아야한다는뜻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해악은생산수단들을소수의몇사람이소유하고있는한계속될것이다. 사람들이땅을경작할권리와기계를쓸권리를얻려고그것을소유한사람들에게무거운임대료를강제로납부하는한, 그리고땅과기계를소유한자들이자기들에게가장많은이익을가져다줄유망제품들을자유롭게생산할수있는한, 행복은아주소수의사람에게만일시적으로보장될뿐이다.

그리고그런행복은오직사회의다수를차지하는가난한사람들이가져다준것일뿐이다. 만약수많은다른노동자가동시에착취당하고있다면, 거래에서실현된이익을균등하게분배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문제는가능한인간의에너지를최소한으로써서모든사람의행복에필요한재화들을최대한많이생산하는것이다.

이런보편적인목표는사적소유자의목표가될수없다. 전체로서의사회, 생산에관한이런견해를이상적으로여기는사회가강제로모든것을수용해야하는것은바로이런이유때문이다. 그래야부를생산해서모두의행복을증진시킬수있기때문이다. 사회는토지, 공장, 광산, 통신수단들을손에넣어야할것이다. 그밖에도적절한생산방법과수단을연구해야한다. 뿐만아니라어떤생산이보편적인행복을증진시킬수있는지에대해서도연구해야할것이다.

⁷⁰ 독일의경제학자이자사회주의자 (Johann Karl Rodbertus, 1805-1875). 임대료와이윤이노동의잉여가치에서발생한다고주장했다.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해야만 자신과 가족을 위한 영양가 있는 음식, 안락한 집, 필요한 옷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물두하는 문제이다. 대체로 그들은 하루네다섯 시간이면 충분할 거라는 결론에 다르곤 했다. 모든 사람이 일한다는 암묵적인 조건 아래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말(18 세기 말) 에벤자민 프랭클린⁷¹은 그 한계를 하루 5 시간으로 정했다. 지금은 안락에 대한 요구가 훨씬 늘어났지만, 생산력 역시 늘어났고,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대지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해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오늘날처럼 제대로 갈지 않은 땅에 되는 대로 씨앗을 뿌리는 대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작할 경우 얼마의 땅에 미국의 대농장들 중 어떤 것은 30 평방마일이나 되는 것도 있지만 문명화된 국가의 비옥한 땅들보다 척박하기 때문에, 에이커당 고작 15 부셀밖에 수확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수확량이 유럽의 농장이나 미국 동부에 있는 농장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하루에 4 에이커의 땅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기계 덕분에, 100 명의 농부는 1 만명이 1 년 내내 먹을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밀을 한 해에 생산해 낼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그런 조건에서 주당 30 시간, 즉 6 일 동안 반나절인 5 시간씩 일하면 그는 1 년 내내 먹을 빵을 충분히 얻을 것이다. 또한 30 일 동안 반나절씩 일하면, 5 인 가족에게 같은 조건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얻을 수 있는 결과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즉, 집약적 농업 방법을 쓸 경우 반나절씩 6 일이 하로 일해서 온 가족이 먹을 빵, 고기, 채소, 심지어는 사치스러운 과일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게다가 오늘날 대도시에 세워지는 노동자 주택의 가격을 조사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국 대도시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250 파운드에 제공되는 작은 연립주택은 매일 5 시간씩 1 천 800 일 정도 일하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집은 최소한 50 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1 년에 약 36 일 동안 반나절 노동을 한다면 가정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갖춘, 가구가 딸리고 위생적인 집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똑같은 집을 소유주로부터 임대할 경우 노동자는 1 년에 100 일 동안 온종일 일해야 그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

⁷¹ 미국의 정치가, 과학자, 저술가 (Benjamin Franklin, 1706-1790).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기초위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르면서 인생의 많은 세월을 보냈으니 까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가정의 요리사, 수선공, 청소부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여성들은 자신이 요구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앞장서 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으스스대지 않고 기꺼이가 사노동을 할 여성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불평이 널리 퍼져 있다. 우리의 숙녀분도 예술, 정치, 문학, 혹은 게임 테이블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앞치마를 두른 노예가 되어 순순히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처녀들도 거의 없다. 하녀들을 찾아내는 일도 아주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서 지금의 삶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즉, 가사일의 4 분의 3을 기계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구두약을 칠 해서 직접 구두를 닦는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 구두솔 하나로 구두 한 짝을 이삼십 번씩 문지르는 것보다 더 바보같은 일이 있을까? 유럽 인구의 10 분의 1 은 비참한 거주지와 불충분한 음식이라고 구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런 일에서 자신을 팔아야 한다. 또 수백만 명의 여성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행위를 해낼 수도 록 자신을 노예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미용사들은 이미 반짝거리는 머리카락과 솜털 머리를 빗질해주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를 왜 다른 쪽 끝에는 적용할 수 없단 말인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오늘날 구두를 닦아주는 기계는 미국과 유럽의 큰 호텔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호텔이 아닌 곳에서도 이 기계를 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집에서 하숙하고 있는 영국의 큰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천 천히 구두를 닦아 줄 수 있는 기계 한 대를 보유하는 게 더 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설거지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저분한 이 일을 대부분의 가정주부가 싫어한다. 이 일을 싫어하지 않는 가정주부가 있다면 그녀가 단지가 사노예가 하는 이 일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더 잘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유럽에서 찬물이 공급되듯이 뜨거운 물이 각 가정마다 공급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설거지는 보다 간단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코크레인 (Cochrane) 부인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녀가 고안한 기계는 열두 다스나 되는 그릇과 접시들을 3 분 만에 닦아서 말려준다.

일리노이에 있는 한 공장은 이 기계를 제작해서 평균적인 중산층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은 가정들이 구두뿐만 아니라 설거지 그릇들도 그런 기계가 갖춰진 시설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구두를 닦고 설거지를 해주는 기계를 갖춘 단체가 두 가지 일을 맡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피부가 벗겨질 만큼 린넨 옷들을 빨래하고 비틀어 짜내는 일, 마루를 쓸고 카펫을 터는 일, 그리하여 먼지 구름이 가득 일어나고 나중에 먼지들이 내려앉은 곳을 다시 털어내라고 생각하는 일 모두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여전히 노예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계가 훨씬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이 일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에는 각종 기계들이 가정에도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각 가정에 동력 모터가 보급되면, 사람들은 몸을 쓰며 애쓰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않았다. 아니면그들은인위적인그룹활동을통해이욕구를채우려고애쓰고 있다.

사실상거대한호텔에불과한팔랑스테르공동체는어떤사람들을만족시켜줄 수있을것이다. 심지어인생의특정한시기에는모든사람을기쁘게해줄수도있을 것이다. 하지만많은대중은가족생활(미래의가족생활을뜻한다)을더좋아한다. 그들은각자의아파트를더좋아하고, 심지어앵글로색슨사람들은할수있는한 6~8 개의방이달린집을더좋아할것이다. 그런집에서는가족이나친구들과좀떨어져서지낼수있기때문이다. 때로는팔랑스테르공동체처럼함께사는게필요하지만, 그것이일반규칙이되면혐오스러운것이될것이다. 사회속에서서로교류하며시간을보낸다음에는혼자지내는시간을원하는것이인간본성의자연스런욕구이다. 혼자지내는고독이불가능한감옥이가장큰고문이되는것은바로이런이유때문이다. 반대로고독을보완해줄수있는몇시간의사회적교류가전혀없는독방감옥역시그만큼심하고문이된다.

경제문제를고려해서때로팔랑스테르공동체의좋은점을강조하는사람들이 있는데이들은하찮은장사꾼에불과하다. 가장중요한경제, 유일하게합리적인경제는모든사람의삶을즐겁게만드는것이다. 왜냐하면자기삶에만족하는사람은주변상황을저주하는사람보다분명히훨씬많이생산할것이기때문이다. (절고저돌적인코뮌주의자들은일터바깥에서의일상적인관계를자유롭게고르는것의중요성을이해했던듯하다. 종교적인코뮌주의자들의한결같은이상은공동으로식사를하는것이였다. 초기기독교도들이기독교에대한자신의충실한믿음을분명하게드러내보였던것도공동으로식사를하면서였다. 그때의흔적으로기독교의성찬식이아직도남아있다. 하지만저돌적인젊은이들은이런선성한전통을포기했다. 그들은공동식당에서식사를하지만, 그때마다마음가는대로골라잡은작은개별식탁에앉아서식사를한다. 또아나마의코뮌주의자들은각자가집을가지고있어서공동상점에서원하는식품을구입하기는하지만식사는가정에서한다.)

다른사회주의자들은팔랑스테르공동체를거부한다. 그렇지만가사노동을어떻게꾸려야하는지물어보면그들은이렇게대답한다.

“각자가‘자신의일’을할수있습니다. 내아내는살림을하지요. 부르주아의아내들도앞으로는그렇게할것입니다.”

그런데만일심심풀이로사회주의의놀이를하고있는부르주아가있다면, 그는관대한미소를지으며자기아내에게이렇게말할것이다.

“여보, 당신이사회주의사회에서하인도없이그런일을한다는게사실은아니겠지? 당신이우리의선량한동지인폴의아내나목수존의아내처럼일을할수가있겠소?”

하녀이든혹은아내이든간에남자들은언제나집안일은여성이어야하는일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여성들역시, 결국은인간해방에자기도참여하기를요구한다. 여성들은더이상가정에서소처럼일하고싶어하지않는다. 그녀는아이들을기

이숫자들은우리의불완전한사회체제를전제로하고서오늘날영국에서집을짓는데는비용의최고치로추정한것임을주목해야한다. 벨기에에서는노동자주택이훨씬더적은비용으로지어지고있다. 그러므로모든상황을고려해보면잘조직된사회에서는 1 년에 40 일간의반나절노동으로완벽하게편안한집을충분히얻을수있을것이라는사실을확실하게말할수있다.

이제옷문제가남아있는데옷의정확한가격을정하는일은거의불가능하다. 왜냐하면중간상인무리가가져가는이익이얼마인지추정할수가없기때문이다. 옷감을예로들어보자. 그천에는지주들, 양주인들, 양모상인들, 모든중개업자가부과한세금이매겨져있으며그다음에는철도회사들, 공장소유주들, 방직공들, 기성품판매도매상들, 소매상들, 위탁판매인들이부과한세금도더해야한다. 그렇게해야만각각의옷제품을구입할때자본가무리전체에게지불하는돈이얼마나되는지를대충알게될것이다.

그러나이일은불가능하다. 그렇기때문에런던의큰가게에진열된외투한벌에 4 파운드의가격표가붙어있을경우, 노동자가머칠의노동을해야그걸구입할수있는지절대로말할수없는것이다. 확실한것은지금의기계를이용하면믿을수없을만큼많은양의의복들을값싸고빠르게만들어내는일이가능하다는사실이다.

몇가지실례만으로도이사실을충분히증명할수있을것이다. 가령미국에서는 751 개의면방직공장(실을찾고천을짜는공장)에서 17 만 5 천명의남녀가 2 억 300 만야드의면제품과그밖에막대한양의실을생산하고있다. 평균을내보면 300 일동안매일 9 시간 30 분씩일하면 1 만 2 천야드가넘는면제품을만들수있다. 즉, 10 시간마다 40 야드의면제품을생산할수있다는뜻이다. 한가족이 1 년동안필요로하는면제품이최대 200 야드라고한다면, 총 50 시간동안일하면된다. 즉, 매일 5 시간씩 10 일간일하면된다. 그밖에도필요한실을얻을수있을것이다. 다시말해서바느질할수있는면, 천으로짤수있는실등을얻을수있기때문에면을섞여넣은양모제품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직물제조업에서언어진결과만보다라도 1870 년미국의공식통계는다음사실을말해주고있다. 즉, 노동자들이하루에 14 시간동안일할경우, 그들은 1 년에현면직물 1 만야드를만들어낸다는사실이다. 16 년뒤인 1886 년에는노동자들이일주일에 55 시간정도일해서 3 만야드의현면직물을생산할수있었다.

심지어작물로써서염색한면직물의경우에도, 그들은 1 년에 2 천 670 시간을일해서 3 만 2 천야드를생산했다. 시간당 12 야드정도를얻은셈이다. 그러므로한가족이 1 년동안필요한 200 야드의현면직물과염색한면직물을얻기위해서는, 1 년에 17 시간만일해도충분할것이다. 여기서주목할필요가있는것은이원재료들은대개밭에서수확한상태그대로공장에도착하는것이라서상품으로만들기전에재료를공정하는일이필요한데, 이과정도여기 17 시간속에포함된다. 그러나이 200 야드를상인에게서구입하기위해서는, 보수가좋은노동자라도최소한하루에 10 시간씩 15 일동안을일해야한다. 다시말해약 150 시간을일해

야한다는 뜻이다. 영국농민의 경우, 이비싼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달이나 그보다 약간 적은 기간 동안 노동해야 한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잘 조직된 사회에서는 1년에 50일 동안만 나절 노동을 하면, 오늘날 중하류 계층이 입는 것보다 더 잘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모든 사실에 따르면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반나절씩 60일만 일하면 되고, 집을 얻기 위해서는 40일, 옷을 위해서는 50일이 든다. 1년 중에 휴일을 빼고 일하는 날을 300일이라고 친다면, 이날들을 다 합해 봐야 고작 1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 하루 반나절씩 일하는 날이 150일 남아 있다. 이날들은 생활에 필요한 다른 것들, 가령 와인, 설탕, 커피, 차, 가구, 교통비 등을 얻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들은 단지 대략적으로만 계산을 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위의 계산을 증명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경우에, 각각의 나라에서 진짜 필요한 생산물들의 양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즉, 얼마나 많은 소위 문명화된 나라가 아무것도 생산하고 있지 않은지를 고려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이 곧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직업들에 쓰이고 있는지를 고려하고, 쓸모 없는 중간상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려할 경우에 말이다.

만약 필수품을 생산하는 일에 10명이 아니라 20명의 사람들이 종사한다면, 또 사회가 인간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애쓴다면, 이 20명의 사람들은 하루에 5시간만 일해도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낭비되고 있는 인간 에너지를 줄여서 이 힘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 나라의 생산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하루에 4시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 연구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농업과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몇 백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사회를 상상해 보자. 가령, 근교 인센에 투아즈 지역을 포함한 파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회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머리와 함께 손을 써서 일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는 여성들을 제외한 모든 어른이, 20~50살까지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할 의무가 있다. 일자리는 그 도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고, 그 행복은 오늘날 중산층이 즐기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내용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속한 노동자들은 각자 하루에 적어도 5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학문이나 예술에 전념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쓸 수도 있다. 아마도 인간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학문이나 예술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사치스럽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돌아갈 것이고 탄갱 폭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이런 광산을 볼 수 있고, 나도 그런 광산에 직접 내려가 본 적이 있다.

여기에서도 훌륭한 조직은 순전히 경제 문제이다. 내가 말하는 광산은 엄청나게 깊어 (466야드)를 가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200명의 광부가 하루에 1천톤 가량의 석탄을 캐내고 있었다. 한 사람의 광부가 하루에 5톤의 석탄을 캐내는 셈이다. 반면 내가 광산을 방문했던 1890년대 초, 영국에 있는 2천여 개 광산의 평균 채굴량은 한 사람당 1년에 300톤도 안 됐다.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조직과 관련된 푸리에의 꿈이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예를 쉽게 들 수 있다.

하여간 광산의 열악한 환경 문제는 사회주의 신문들에서 워낙 자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은 이미 이런 관점으로 교육되어 있는 상태이다. 철을 주조하고 석탄을 캐는 공장들도 현대적 대학들에 있는 가장 좋은 실험실만큼이나 위생적이고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이 더 훌륭할수록 인간의 노동 생산성도 더 늘어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평등한 사회에서는 일이 기쁨이고 위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 그런 사회에서는 ‘일꾼들’이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면 서 강제로 자기 노동력을 팔지 않을 것이다. 불쾌한 노역들은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불건강한 노동 조건들은 사회 전체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예들은 그런 조건들에 복종할지도 모르지만, 자유인들은 새로운 노동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노동은 즐겁고 분명히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오늘날에는 예외적인 것이 앞으로는 통례가 될 것이다.

이와 똑같은 일이 가사 노동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여성들의 어깨 위에 가사 노동이라는 힘겨운 노역을 부과하고 있다.

II

혁명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회는 아마도 가정에서도 예치럼 일하는 것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가사 노동은 마지막 남은 노예 형태인데, 아마도 가장 끈질긴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내려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팔랑스테르 주의 자들이 꿈꾼 방식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자들이 흔히 상상하는 방식으로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푸리에가 추창한 팔랑스테르 공동체는 많은 사람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다. 가장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공동 작업의 목적을 위해서 동료들과 만나야 할 필요성을 틀림없이느낄 것이다. 그가 자신을 커다란 전체의 일부라고 느낀수록 공동 작업은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휴식과 친교를 위해 남겨놓은 여가 시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팔랑스테르 공동체와 가족 스타일 공동체는 이것을 제대로 고려

이다. 그런데그괴물을조종하는사람은고작서너명의노동자들이다. 그들은이곳저곳에있는꼭지를열어서거대한크레인이물의압력에의해여기저기로움직이게 만들고있다.

이런곳에들어서면서여러분은귀가멀정도로큰소리를내는커다란압인기⁸⁴의소음을예상하겠지만, 거기에그런것은없다. 수백톤의거대한대포와대서양횡단증기선의크랭크가증기엔진에서나오는물의압력에의해버려지고있다. 그리고노동자들은엄청난양의강철덩어리를성형하기위해서그저꼭지를돌리기만하면된다. 그러면두께가아무리두툼해도흠이나갈라짐이없는균질의금속이만들어진다.

나역시지옥같은소음을예상했지만, 내가본것은치즈를자르는데필요한정도의소음으로 30 피트길이의강철주괴를자르고있는기계였다. 나를안내해주고있던엔지니어에게감탄을표하자그는이렇게대답했다.

“순전히경제문제일뿐입니다! 강철을평평하게만드는이기계는 42 년째사용되고있습니다. 만일이기계의부품들이잘못맞춰져있어서, 서로‘충돌하고’, 철을누르는판이움직일때마다빠격거렸다면, 이기계는 10 년도가지못했을겁니다!”

“용광로요? 그곳의열을사용하지않고새어나오게하는것은낭비가될것입니다. 몇톤의석탄을태운열이방사열로빠져나오게해서주물공을그슬릴이유가있을까요?”

“5 리그 (약 15 마일) 떨어진건물들도진동시키는압인기역시낭비입니다. 충돌보다압력으로철을버지는것이더낫지는않지만, 비용이적게됩니다. 손실이덜한것이지요.”

“이공장에서조명, 청결함, 각작업대에할당된공간도단순히경제적절약의문제일뿐입니다. 자신이하는일을잘볼수있고팔꿈치를자유롭게움직일수있을때노동자가일을더효율적으로할수있으니까요.”

그가말했다.

“사실입니다. 이곳으로오기전까지는우리도아주비좁은공간에서일했습니다. 대도시근방의땅은너무나비싸고땅주인들은아주탐욕스러우니까요!”

광산에서도상황은마찬가지이다. 우리는오늘날의광산이어떤모습인지줄라⁸⁵의묘사와신문기사를통해서잘알고있다. 그러나미래의광산은통풍시설이잘갖춰지고도서관에서처럼쉽게온도를조절할수있는곳이될것이다. 그곳에는지하에서죽어갈운명에처한말(馬) 들도더이상없을것이다. 지하건인차는탄광입구에서자동으로조절할수있는케이블에의해움직여질것이다. 환풍기가항상

09. 사치스러운취미에대한욕구

I

⁸⁴ 열이나압력을가해서금속을만들어내는기계

⁸⁵ 프랑스자연주의문학을대표하는작가. 사회주의자 (Émile Zola, 1840-1902). 대표작 『목로주점』 등.

인간이란 먹고, 마시고, 집을 마련하는 일만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존재가 아니다. 물질적인 결핍이 충족되자마자 다른 욕구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예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욕구들이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 욕구들은 아주 다양하고 각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그리고 사회가 점점 더 문명화될수록 개인성은 더욱 발달하게 되고, 이 욕구들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어떤 남녀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뭔가 특별한 만족 혹은 어떤 지적이나 물질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필수품 소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이나 금욕주의자는 이런 사치스러운 욕구들에 대해서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존의 단조로움을 깨트리고 삶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소한 것들이다. 나날의 노동 외에 자신의 취미에 맞는 단 하나의 즐거움조차 얻을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는 갖가지 고된 노동과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 얼마나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사회혁명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모두에게 빵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이런 저주스러운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유능한 노동자들이 자신을 착취할 고용주에게 자기를 고용해 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자와 아이들이 밤에 잘 곳이 없어서 떠돌고 있으며, 온 가족이 마른 빵만 먹으며 굶주린 아이들아가야 한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끝장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혁명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가까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강제로 고통스럽게 일해야 하는 노동자는 보다 고상한 즐거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보다 수준 높은 것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말이다. 가령, 학문의 즐거움, 특히 과학적 발견의 즐거움, 예술적 창조적 즐거움 같은 것들 말이다. 사회혁명이 모두에게 매일의 빵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소수만 누리는 이런 즐거움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사람이 여가를 누리도록 해서 자신의 지적능력을 개발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빵이 보장된 다음에는 여가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날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이 빵, 석탄, 옷, 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치스러운 욕구가 범죄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런 사치스러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의 아이는 빵없이 지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음식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치스런 것으로 여기는 욕구들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고, 또 같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취미와 욕구의 다양성은 인류의 진보를 확증해주는 주요한 것들이다), 특정방면에서 평범한 개인들의 취미를 넘어서는 욕구를 가진 남자와 여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모든 사람이 망원경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배움이 보편화 된다고 할지라도, 별이 가득한 하늘을 탐구하기보다는 현미경을 통해 원자 조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조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한다.

10. 유쾌한 노동

I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사회는 노동을 유쾌한 것으로 만들고, 모든 불쾌하고 불건강한 노역을 없앤 사회라고 말하면, 그들은 비웃음을 당한다. 그렇지만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런 방향으로 놀랄만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진보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고용주들 스스로가 이런 진보 덕분에 얻게 된 에너지 절약을 축하하고 있다.

공장을 과학적 실험실만큼이나 위생적이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확실하다. 공간이 넓고 환기가 잘 되는 공장에서는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작은 개선을 도입하는 일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런 개선들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해 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일터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이유는 공장 경영진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에너지의 가장 어리석은 낭비가 현재 산업체제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지금 시대도,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로 즐거울 만큼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장들을 이미 찾을 수 있다. 만약 그곳에서의 노동이 하루에 4~5 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그 일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말이다.

아주 굉장한 공장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곳이 하나 있다. 영국 중부의 시골에 있는 그 공장은 불행히도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곳은 위생과 합리적인 조직면에서 보면 완벽한 공장이다. 그 공장은 50 에이커의 부지에 세워졌고, 그중 15 에이커는 유리로 된 천장으로 덮여 있다. 내화벽돌로 포장된 바닥은 광부의 오두막집 바닥만큼이나 깨끗하고, 유리 천장은 그 일만 전담하는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늘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20 톤이 넘는 강철 주괴나 강철 빔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꽃의 온도가 섭씨 천도가 넘는 엄청난 용광로에서 30 피트 떨어진 곳에서 있다면, 여러분은 용광로의 커다란 문이 열리면서 강철괴물이 튀어나오는 모습 말고는 그것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어떤사람은좋은피아노를갖는것이가장큰열망이지만, 누군가는아코디언으로충분히즐거워한다. 취미는다양하겠지만예술적욕구는모든사람이다가지고있다.

현재우리가사는비열한자본주의사회에서예술적욕구를가진사람은운이좋아서많은재산을상속받지않는한, 이욕구들을충족시킬수없다. 아니면열심히공부해서지적인자산을얻는경우가있는데그러면그사람은이것으로나중에좀더자유로운직업을얻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언젠가는자신의취미를약간이나마충족시킬수있으리라는희망을품는다. 아마도이런이유때문에그는이상적인코뮌주의사회를비난할지도모른다. 코뮌주의사회에서는개인들의유일한목표가물질적인생활이아니냐고말이다. 그는우리에게이렇게말한다.

“아마도당신들의공공상점에는모두를위한빵이있을지도모른다. 하지만그곳에는아름다운그림, 광학기계, 화려한가구, 예술적으로세공한보석은없을것이다. 간단히말해서무한히다양한인간의취향을만족시켜줄수있는많은것이없을것이란뜻이다. 그리고당신들은코뮌이모두에게제공할수있는빵과고기, 그리고여성모두가입게될단조롭고우중충한린넨옷을제외한다른것들을갖지못하게억압할것이다.”

이것들은모두코뮌주의체제가생각해봐야할반대의견들이다. 또한미국의황무지에정착해서새로운공동체사회들을건설했던사람들이결코이해하지못했던반론이기도하다. 그들은공동체가모든구성원이입을만큼충분한천을조달할수있고, ‘형제들’이서투르게음악을연주할수있는음악실이있으며, 때때로연극한편을공연한다면그걸로충분하다고믿었다.

그들은도시민들과마찬가지로농민에게도예술적감수성이존재한다는사실을잊고있었다. 그리고예술적감수성을표현하는방식은문화의차이에따라다를수있지만핵심은똑같다는사실을잊고있었다.

공동체는생활에필요한일반적인필수품들을보장했지만것만으로는소용이없었다. 개성을발달시키는모든교육을억압했으나소용이없었다. 성경을제외한모든읽을거리는없었지만허사였다. 개인적인취미들이터져나왔고불만이널리퍼졌다. 누군가피아노나과학기구들을사려고하면싸움이일어났다. 그리고진보를위한요인들이사들여갔다. 그런사회는모든개인적인감정, 갖가지예술적성향, 그리고모든발전의싹을짓밟아버렸던조건에서만존재할수있었다.

아나키즘적코뮌도어쩔수없이이와같은방향으로가게될것인가? 분명히그렇지않다. 이코뮌이물질적삶에필요한모든것을생산하고, 다른한편으로인간정신이표현하려는모든것을열심히충족시키려고애써야한다는사실을이해한다면말이다.

II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를 둘러싼 해아릴 수 없는 가난과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거리에서 일 자리를 구걸하는 노동자들의 비통한 외침을 듣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논의하고픈 마음이 켜켜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게 된 사회에서 세브르산도자기나 벨벳 드레스를 가지고 싶어하는 특정 개인을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질문들 말이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제일 먼저 빵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하자고, 도자기나 벨벳은 그 다음에 알아보자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음식 말고도 다른 욕구들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아나키스트 사회의 힘은 분명 인간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이해하고,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자신의 온갖 지적이고 예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말이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45 세나 50 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4~5 시간씩 일하면, 사회의 안락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에게 하루의 노동은 5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일은 1 년에 300 일 동안 하루 시간씩 노동하는 것이며,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 물론 사람이 기계에 매인 존재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지력도 고갈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작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면, 특히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번갈아 할 수 있다면 그는 피로하지 않고 심지어는 즐겁게 하루 10 시간이나 12 시간 동안 일에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육체 노동을 4~5 시간 하고 난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일을 마친 셈이기 때문에, 하루 중 남은 5~6 시간은 자신의 취미에 따라 할 일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데 쓸 수 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한다면, 모두에게 보장된 필수품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는 먼저 논밭과 공장 등에서 사회의 총 생산에 기여하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하루, 한 주, 일 년의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예술적이거나 학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자신의 취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갖가지 취미와 모든 가능한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협회와 단체가 생겨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문학에 쏟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귀중한 사상을 널리 퍼트린다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단체를 만들 것이다. 작가, 식자공, 인쇄업자, 조판공, 제도사를 포함하는 단체를 말이다.

오늘날 어떤 작가는 하루에 몇 실링을 받고 짐나르는 짐승처럼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인쇄소에 자기 작품을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인쇄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식자공이 납중독으로 고통받고, 기계를 지키는 아이가 빈혈로 죽어간다고 해도, 그들을 대신 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자기의 노동을 몇 푼의 돈에 팔

다. 그리고 자기의 반나절 여가 시간의 일부를 그 협회 일을 하는데 제공함으로써, 그는 곧 꿈꾸던 피아노를 갖게 될 것이다. 천문학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문학자 협회에 가입해서 그 협회의 이론가들, 관찰자들, 계산가들, 천문기구를 만들어내는 기술자들, 과학자들과 아마추어들과 함께 협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협동 작업에서 자기 몫의 일으르 함으로써 바라던 망원경을 얻을 것이다. 천문관측소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들은 특히 거친 일로써, 벽돌공, 목수, 주물공, 기계공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정밀한 도구들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는 것은 주로 기술자가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루 중 대역 시간 동안 필수품을 생산하는 일에 전념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5~7 시간 정도를 각자 바라던 사치스러운 취미에 대한 모든 열망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협회가 그런 일들을 지원할 것이다. 지금은 하층은 소수만의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치스러운 취미는 부르주아 계급의 어리석고 허영에 찬 과시가 아니라 예술적인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각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해서 책, 예술 작품, 사치품 등 원하는 것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자극과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과 노예 사이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 일을 할 때, 우리는 주인과 노예 양쪽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화가인당신은일을마치고돌아오는길에석양을바라본적이있어야한다. 농부의
 흘림한모습을제대로파악하려면, 당신이농부들사이에서함께농부가되어본
 일이있어야한다. 당신이고기잡이에관한시를이해할수있으려면, 어부들과함께
 밤낮으로바다에서지내면서고기를잡아본적이있어야한다. 파도와싸우고, 폭풍
 우와맞서고, 거친노동끝에무거운그물을끌어올리는기쁨을경험하고, 텅빈그물
 을보고실망하는경험을해보아야한다. 또당신이인간의힘을이해하고그것을작
 품으로표현하려고한다면, 공장에서시간을보내본적이있어야한다. 생산적인노
 동의피로와기쁨을알고, 활활타는용광로의불꽃으로금속을연마하며, 기계장치
 속에들어있는활력을느껴본적이있어야한다. 실제로당신이사람들의감정을묘
 사하려면그감정속에폭빠져보아야하는것이다.

더욱이과거의위대한예술가들처럼, 민중의삶을살아본적이있을예술가들의
 작품들은미래에도잘팔릴운명은아닐것이다. 그렇지만그작품들은살아있는전
 체를구성하는데없어서는안될중요한부분이될것이다. 그작품들이없으면전체
 도완전해지지않을것이고, 전체가없으면그작품들도더이상완전해지지않을것
 이다. 사람들은예술가들의작품을감상하려고그들이활동한도시로갈것이다. 그리
 고이런창작품들이지닌영적이고고요한아름다움은사람들의마음과정신에유익
 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러스킨⁸²과위대한사회주의자시인인모리스⁸³가그렇게나여러번훌륭하게
 증명했듯이, 예술이발전하기위해서는수많은중간단계를거치면서산업과밀접
 한관계를맺어야한다. 말하자면산업과뒤섞여야하는것이다. 거리에서, 공공기
 념물의안팎에서, 인간을둘러싼모든것이순수하게예술적인형태를띠고있어야
 한다.

그러나이것은오로지모든사람이안락과여가를즐길수있는사회에서만실현
 될수있다. 그런사회가되어야만비로소각자가자신의능력을발견할여지가있는
 예술협회가이나타날것이다. 왜냐하면그런예술은엄청나게많은육체노동과기
 계적인보완작업이없이행해질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예술협회들은회원들
 의집을아름답게장식하는일을시작할것이다. 스코틀랜드에든버러시의선량한
 자원봉사자들인젊은화가들이그도시의가난한사람들을위한큰병원의벽과천장
 을장식했던것처럼말이다.

개인적인감정을작품으로표현하는화가나조각가는그것을사랑하는사람이
 나친구에게선물할것이다. 사랑을위해서작품을만들어내는것이다. 이렇듯사랑
 으로부터영감을받은그의작품이, 오늘날무척이나비싸다는이유로속물들의허
 영심을만족시키는예술보다더못한것으로여겨지게될까?

생활에꼭필요한것들에포함되지않은온갖즐거움에관해서도이와똑같은원
 리가적용될것이다. 그랜드피아노를원하는사람은악기제작협회에들어갈것이

비가된굶주린사람들이더이상없게되는날, 오늘날착취당하고있는노동자가교
 육받게되는날, 그리하여자기의생각을글로적어서다른사람들과소통할수있게
 되면작가들과학자들은자신의시와산문을출판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서로협력
 해서인쇄일을할수밖에없을것이다.

작업복과육체노동을열등함의표시로여기는한, 작가가스스로인쇄소에서자
 기책의활자를조판하는모습을보면사람들은놀라게생각할것이다. 기분전환을
 위해서라면체육관이거나게임을할수도있지않은가? 그러나육체노동에서연
 상되는불명예가사라지고모든사람이자기손으로일해야할대가되면어느누구도
 대신일해주지않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그들의송배자들과마찬가지로작가들도공활자를조판하는법
 을배우게될것이다. 그들은활자를조판하고, 페이지를매기고, 인쇄기에서나오
 는책을받아보는그순결한즐거움을알게될것이다. 이멋진기계들, 아침부터밤까
 지그것을지켜봐야하는어린노동자를고문하는도로구르던이기계들은, 자기
 들이좋아하는작가의사상을널리알리려고그걸사용하는사람에게는즐거움의원
 천이될것이다.

그로인해문학이손해볼일이있을까? 시인이바깥에서일을하거나, 인쇄소에
 서자기작품을인쇄하도록도움을준후에는덜시인다워지는걸까? 소설가가숲이
 나공장에서다른사람들과어깨를맞대고일하거나, 도로나철로를만드는일을하
 고난다음에는인간의본성에대한이해를잃어버리게될까? 이질문들에답을할수
 있겠는가?

어떤책들은부피가줄어들수도있지만줄어든페이지에다많은것들을담을수
 있을것이다. 아마도쓰레기같은인쇄물들은거의출판되지않을것이다. 하지만인
 쇠된것들은보다주의깊게읽힐것이고, 그진가를더욱인정받을것이다. 책은잘
 교육받은광범위한독자들의관심을받을것이고, 그들에게는책을평가할만한충
 분한역량이있을것이다.

게다가인쇄기술은구텐베르크시대이후로거의진보하지않았고, 여전히초기
 단계에머물러있다. 손으로 10 분동안쓴것을활자로조판하는데는 2 시간이걸
 린다. 하지만증가하고있는사상을보다신속하게전달하는방법들이연구되고있
 으며, 언젠가는발견하게될것이다. (이글을쓰느니로그것들이이미발견되었다.)⁷²

모든작가가자기작품을인쇄하는일에서자기몫을하지않는다는것은얼마나
 안타까운사실인가! 만약그렇게했다라면인쇄업이벌써얼마나진보했겠는가. 그
 랐더라면우리는 17 세기와똑같은활자를더이상사용하지않았을것이다.

III

⁸² 영국의저술가, 미술비평가, 사회사상가 (John Ruskin, 1819-1900).

⁸³ 영국의화가이자공예가, 시인, 저술가, 사회운동가 (William Morris, 1834-1896).

⁷² 이글을쓸당시는타자가발명되지않았을때였다. 그뒤로곧미국에서타자가발명되었고, 크로프트킨도나중에는이타자를알게되었다.

이런사회를생각하는것은꿈일까? 모든사람이생산자가되고모든사람이학문과예술을계발할수있도록교육받고, 모든사람이그렇게할수있는여가를갖는사회를생각하는게꿈일까? 그런사회에서사람들은자신이선택한작품들을출간하기위해협력해서일할것이고, 각자가자기몫의육체노동을하면서그일들에게여할것이다.

우리에게는이미수많은학문단체와문학단체, 다른많은단체들이있다. 그리고이단체들은특정한학문분야에관심이있거나, 자기들의작품을출판할목적으로연합한자원자들의단체나마찬가지이다. 이런단체들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에글을쓰는저자들은고료를받지않으며, 한정된부수를제외하고이간행물들은대개비매품이다.

이런간행물들은같은학문분야를연구하고있는전세계의다른단체들에무료로보내진다. 협회의어떤구성원은자신의견해를한쪽으로요약해서간행물에게재할것이고, 어떤사람은여러해에걸친연구결과를광범위한작품으로발표할수도있다. 반면에다른사람들은보다발전된연구를위한출발점으로그간행물을참고하는데만족할것이다. 어떻게해도아무런문제가없다. 저자와독자모두가관심을가지고있는작품을생산하는일에협력하고있는것이다.

개인저자들과마찬가지로학계도노동자들이인쇄일을하는인쇄소로가서함께일할것이다. 오늘날학계에소속된사람들은, 실제로악조건아래서행해지고있는육체노동을경멸하고있다. 하지만모든구성원에게풍부한철학교육과과학교육을제공하고있는공동체는, 어떻게해야육체노동을인간의자부심이되게끔조직할수있는지를알것이다. 이런공동체의학문단체들은탐험가들, 과학애호가들, 노동자들이함께연합하는곳이될것이다. 이단체의모든사람이육체노동을알고있고, 모두가학문에관심을가지고있을것이다.

예를들어지리학을연구하는단체가있다면모든회원이지구의지층을조사하는일에기여할것이다. 각회원은자기몫의연구를분담할것이고, 지금은 100 명정도밖에없는조사자들이만명으로늘어나서, 우리가 20 년동안할수있는조사보다더많은일을 1 년안에해낼것이다. 그리고그들의연구들이출판된다면서로다른분야에기술을가지고있는만명의남녀가지도를그리고, 도안을작성하고, 활자를조판하고, 책자를인쇄할것이다. 그들은기쁜마음으로자신의여가시간을할애해서여름에는탐사를나가고겨울에는실내에서작업을할것이다. 그리고그들의연구물들이출판되면, 100 명이아니라만명의독자들이그들이공동으로해낸연구에관심을보일것이다.

진보는이미이런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다. 심지어오늘날에도영국에영어대사전이필요하다고사람들이생각했을때, 자신의전생애를사전편찬에바친리트레⁷³ 같은사람의탄생을기다리지않아도되었다. 왜냐하면그일에흥미를느끼는

⁷³ 프랑스의언어학자이자철학자 (Émile Littré, 1801-1881). 표준불어사전의편찬자이다.

영광이란것이그작자그림이금도금된액자에넣어져서, 일종의낡은골동품점이라고할수있는미술관에걸리는것이다. 스페인에있는프라도미술관같은곳에가면, 무리요가그린‘그리스도의승천’그림이벨라스케스⁸⁰가그린거지나펠리페 2 세의개그림옆에나란히걸려있는것을볼수있다. 불쌍한벨라스케스, 불쌍한무리요! 자기네도시에는아크로폴리스⁸¹에서살았지만, 지금은루브르박물관의붉은커튼아래에서숨막혀하고있는불쌍한그리스조각들!

그리스조각가는대리석을조각할때, 그도시의정신과영혼을표현하려고애를썼다. 도시의모든감정과영광스러운전통이작품속에서되살아나도록한것이다. 하지만오늘날에는그런도시는더이상존재하지않으며, 공동으로추구하는이상도더는없다. 도시는서로알지못하는사람들의우연한집단이고, 이들은상대방을희생시켜서자기의부를쌓으려는것말고는어떤공통의관심사도없다. 조국이란게존재하지않는것이다. 국제금융가와넉마를줍는이가어떤조국을공유할수있겠는가?

오직공동의의상이있는도시, 지역들, 나라, 나라들의연합들이자신의조화로운삶을회복해야만예술은이런공동의이상들에서영감을얻을수있을것이다. 그러면건축가는더이상사원, 감옥, 요새가될건축물이아니라도시의기념물이될만한건축물들을고안할것이다. 화가, 조각가, 공예가는자신의그림, 조각상, 장식품을어디에놓아야할지를알게될것이다. 그들은모두동일한활력의원천으로부터예술적인힘을끌어올것이고, 모두함께미래를향해서영광스럽게행진할것이다.

그렇지만그때까지예술은그저무기력한상태일것이다. 현대화가들이캔버스에그린가장훌륭한작품들은자연, 마을, 계곡, 위험한바다, 장엄한산을묘사한것들이다. 그런대화가가단지주의깊게바라만보거나상상만하고, 한번도직접그일에참여해서즐거워해본적이없다면, 들판에서일하는시적이정경을어떻게표현할수있겠는가? 고작철새들이날아가던중에높은하늘에서보는정도밖에그시골을알지못한다면, 어떻게그것을표현하겠는가? 만일젊은청춘의활기로새벽에쟁기를끌고, 주위를가득채우는활기찬소년들의노랫소리에맞춰일하는건장한사람들곁에서긴낫으로건초를베는즐거움을모른다면, 어떻게그것을표현할수있겠는가?

땅과그위에서자라는것들에대한사랑은붓으로그린다고해서얻어질수있는것이아니다. 오직그땅에봉사를할때에만얻을수있다. 그리고땅에대한사랑이없이어떻게그것을그릴수있겠는가? 이런식으로그림을그렸던훌륭한화가들의작품이여전히그토록불완전하고, 삶에진실하지못하며, 대부분감상적인것은바로이런이유때문이다. 그들의작품속에는‘힘찬’기운이없는것이다.

⁸⁰ 스페인바로크시대의화가 (Diego Velázquez, 1599-1660). 대표작으로 〈시녀들〉 등이있다.

⁸¹ 고대그리스나로마에서집회등에쓰이던장방형의고대건축물이나장소.

로이용할수있는작업공장이다. 도구들과동력기관들은무료로제공되고, 오직금속재로나목재를쓸때만원가를받는다. 그렇지만불행하게도노동자들은직장에서 10 시간의노동을다끝내서녹초가된밤에나그곳에갈수있다. 게다가그들은자기의발명들을서로가보지못하도록주의깊게감추곤한다. 왜냐하면현사회의해악이자방해물인특허제도와자본주의가지적이고도덕적인진보로가는길을가로막고있기때문이다.

V

그렇다면예술은어떠한가? 우리는사방에서예술의타락에대한탄식을듣고있다. 정말로우리는르네상스시기의위대한거장들보다한참뒤떨어져있다. 예술적인기교들은최근에커다란진보를이루고있다. 어느정도의재능을타고난수많은사람이제각기다양한분야에서예술을하고있지만, 예술은문명으로부터달아나고있는것처럼보인다. 기교들은발전하고있지만영감은예전만큼예술가의작업실에찾아오고있지않다.

실제로예술적영감은어디에서오는것일까? 오직위대한사상만이예술에영감을불어넣을수있다. 우리의이상으로는예술은창조와동의어이다. 그리고예술은앞을내다보아야한다. 하지만몇몇아주드문경우를제외하면, 전문예술가들은너무나속물적이어서새로운지평을감지하지못하고있다. 게다가이런영감은책에서나올수있는것이아니다. 이영감은삶으로부터나와야한다. 그런데지금사회는그것을불러일으킬수없다.

라파엘로⁷⁷와무리요⁷⁸는낮은종교적관습들이그대로유지되고는있지만동시에새로운이상에대한탐구를추구할수있었던시대에그림을그렸다. 그들은어떤도시에도있는성당들을장식하는그림을그렸는데, 그성당들은그자체로여러세대에걸친종교적인작품들을대표하는것들이었다. 신비로운모습의장엄한바실리카⁷⁹ 형식의성당은도시의삶자체와관련이있었기때문에예술가에서영감을줄수있었다. 그들은일반인에게기념이될만한작품을만들려고일을했다. 그들은동료시민에게말을걸었고, 그보답으로예술적영감을얻을수있었다.

그들은성당의본당, 기둥들, 채색된창문들, 조각상들, 세공한문들을만들어낼때도같은방식으로대중의마음에호소했다. 오늘날에는화가가바라는가장큰

⁷⁷ 이탈리아르네상스시대의화가이자조각가 (Raffaello Sanzio, 1483-1520). 대표작으로〈아테네학당〉, 〈성모〉 등이있다.

⁷⁸ 17 세기스페인의화가 (Bartolomé Esteban Murillo, 1617-1682). 종교화외에도평민들을그린풍속화를많이남겼다.

⁷⁹ 집회등에쓰이던장방형의고대로마건축물로, 초기기독교교회를말하기도한다.

1 천여명의자원자들이자발적인무료봉사를제공했기때문이다. 그들은도서관들을살살이뒤지고, 주석을달면서, 한사람이일생에걸쳐해도완성하지못했을일을몇년안에해내었던것이다. 인간지성과관련된모든분야에서이와똑같은정신이나타나고있다. 그러니다음과같은사실을예상하지못한다면, 우리는인간성에대해서아주제한된지식만을갖고있는셈이다. 즉, 미래에는이러한일시적인협력이더욱많아져서, 점차개인적인연구작업을대신하게될것이라는사실말이다.

이사전작업이실제로집단적인작업이되기위해서는많은자원자자들, 인쇄공들, 독자들이공동으로작업할필요가있다. 그곳은우리에게육체노동과정신노동이결합된실례들을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자인어느저자는자신이쓴기사를직접조판해서신문을만들어내고있다. 이런시도들이드물기는하지만실제로있다. 그리고이시도들은진보가어떤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이시도들은자유로향하는길을보여주고있다. 미래에는어떤사람이자기시대의사상을넘어서는뭔가쓸모있는이야기를갖고있다면, 그는필요한자금을선불해줄만한편집자를굴이찾을필요가없을것이다. 그는인쇄일을잘알고있는사람들과그의새로운연구결과속에는아이디어를인정하는사람들속에서협력할사람들을찾을것이다. 그들은함께이새로운책이나잡지를출판할것이다.

문학과저널리즘은더이상돈벌이의수단으로쓰이거나다른사람들을희생시키면서유지되는일을그만둘것이다. 하지만앞으로그렇게되었을때, 문학과저널리즘을내부에서잘아는사람이있을까? 과거에문학을후견했던사람들로부터마침내문학이자유로워지기를열렬히바라지않는사람도있지않을까? 또지금문학을이용하고있는사람들이그때에도있지않을까? 드물게예외는있겠지만, 문학의저속함에비례해서대중으로부터돈을받아내려하거나, 다수의저급한취향에쉽게영합하려는사람이있지는않을까?

문학과학문은오직인류의발전을위한연구작업들속에서만자신의적절한자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이처럼돈벌이라는속박에서해방된문학과학문은, 오직그것들을사랑하는사람들에의해서만, 그리고그사람들을위해서만육성되고발전해나갈것이다.

IV

문학, 과학, 그리고예술은자유로운사람들에의해서육성되고계발되어야한다. 오직이런조건에서만그것들은국가와자본의명예로부터해방되는데성공할것이고, 그것들을질식시키고있는부르주아의저속함으로부터해방될것이다.

오늘날의학자들은자신이관심있는주제들을연구하기위해어떤수단을쓸수있는가? 국가에게도움을요청해야할까? 국가는 100 명중에오직한사람의후보

자에게만 도움을 주고있고, 그것도 그후보자가 정해진 길만을 따르겠다고 표면상으로나마 약속해야만 얻을 수 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어떤 식으로 다윈을 거부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가 멘델레예프⁷⁴를 얼마나 모욕적으로 대했는지를 기억하자. 어떻게 런던 왕립 학회가 열과일의 비례 관계를 측정 한 줄⁷⁵의 논문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우리는 이 사실을 플레이퍼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는 줄이 사망한 후에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억하도록 하자.

모든 위대한 연구, 과학에 변혁을 가져오는 모든 발견이 아카데미나 대학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이런 연구들이 다윈이나 라이엘⁷⁶처럼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는 엄청난 궁핍 속에서 연구하면서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나, 실험실을 구하러 다니느라 하염없이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 연구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나 책들을 얻을 수 없는 데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때로 계획한 목표에도 달하기 전에 죽어간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의 이유이다. 그런 이들은 무수히 많다.

대체로 국가가 지원 하는 연구 보조금 제도는 너무나 형편 없고 불쾌한 것이어서, 과학은 언제나 그런 지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 자원자들의 해조 조직되고 유지되는 수많은 학문 단체가 있는 것이다. 어떤 단체들의 모든 재산과 백만 장자의 부를 가지고 그들이 소유한 보물을 살 수 없을 정도이다. 어떤 정부 산하 연구소도 자원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런던 동물 학회’만 큼 부유하지 않다.

이 협회의 동물원에는 수 천 마리의 동물은 사들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전세계에 있는 다른 단체들과 수집가들이 보내 준 것이다. ‘봄베이 동물 학회’는 선물로 코끼리 한 마리를 보냈다. 다른 날에는 이집트의 박물 학자들이 하마와 코뿔소를 보내왔다. 또한 새들, 파충류, 수집한 곤충들처럼 대단히 훌륭한 선물들이 매일 세계의 온갖 지역에서 도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진 것들 중에는 종종 세상의 모든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떤 동물을 사로잡았던 여행가가 있었다. 그는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동물을 아끼지만, 협회에 그 동물을 선물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이 틀림없이 좋은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방문객이 내는 입장료는 그 거대한 시설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런던 동물 학회’나 다른 유사한 단체들의 결점은 그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협회의 회비를 지불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즉, 이 거대한 시설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수

⁷⁴ 러시아의 화학자 (1834-1907). 당시 알려진 63 종의 원소의 특징에서 일정한 주기를 발견했으며, 이를 토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⁷⁵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 (James Prescott Joule, 1818-1875). ‘줄의 법칙’을 발견했고, 열과 일의 관계를 탐구하는 실험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⁷⁶ 스코틀랜드의 지질학자 (1797-1875).

은 고용인은 협회의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명함에 ‘F.Z.S(동물 학회 회원)’이라는 신비로운 글자를 쓰는 것 말고는 협회에 참여 할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도 결점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런 곳들에 필요한 것은 보다 완전한 협력이다.

과학자들에 대해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발명가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위대한 발명 대부분이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러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잘못된 판단들,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 가족들, 실험 도구와 재료의 부족, 이것들은 우리 문명의 진정으로 합당한 금지인 발명들을 이루어서 산업을 풍요롭게 해 준 거의 모든 사람이 거친 역사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불쾌하고 해롭다고 여기는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허 제도가 시도되고 있지만, 그 결과 아무런 인자 우리는 알고 있다. 발명가는 몇 파운드의 돈을 받고 자신의 특허권을 판다. 그리고 자본금을 제공하기만 한 사람은 종종 그 발명 덕분에 생긴 엄청난 이익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특허 제도는 발명가를 고립시킨다. 발명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연구를 비밀로 유지하게 되고, 그리하여 연구는 종종 실패로 끝난다. 반면에 근본적인 문제에 그다지 몰두해 있지 않은 머리에서 나온 가장 간단한 제안이 때로는 그 발명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실용화시키도록 도와 주기도 한다. 국가의 모든 통제와 마찬가지로 특허 제도 역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생각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제도는 이론상으로도 심각하게 부당하며, 실제로도 발명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발명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 있는 사고와 대담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전반적인 교육 체계는 이런 것들을 모두 시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발명 정신에 필요한 것은 과학 교육을 널리 보급시키는 일이다. 그래야 탐구자의 수가 수백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리라는 믿음을 갖는 일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발명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것은, 열정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오직 사회 혁명만이 이러한 사고 하려는 충동, 대담성, 과학적 지식, 모두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동력과 온갖 종류의 도구가 구비된 거대한 연구소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많은 산업 실험실이 모든 탐구자에게 개방 될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한 다음에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기계로 가득 찬 훌륭한 연구실들에서 하루 6 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실험을 하고, 다른 동지들, 다른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것이다. 이 사람들 역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서로 도움과 가르침을 주고 받을 것이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만남은 그토록 고대하던 해답을 찾아 내게 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솔라노 이고로독 (Solanoy Gorodok)이라는 연구소는 기술적인 문제에 한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곳은 설비가 잘 갖춰져 있고 모든 사람이 무료

혹은학회의 명예회원 후보자가단한사람이라도있을까? 그들은어떤시기에필요한것보다더많은면직물, 의복, 시계가생산되었기때문에경제위기가온다고말한다. 하지만우리모두는소비할수있는것보다더많이생산하는일에집요하게매달리는자본가들의탐욕을맹렬히비난하지않았던가!

그러나신중하게조사해보면이모든논증이불합리하다는것을증명할수있다. 사실상, 널리사용되는물품들중에서필요한것보다더많은양이생산되고있는것이단하나라도있는가? 대규모수출국들에서보내지고있는모든필수품을하나하나조사해보라. 그러면거의모든것이정작그것들을수출하는나라의주민을위해서서는불충분한양이생산된다는사실을알게될것이다.

러시아농민들이유럽으로밀을보내는것은여분의밀이남았기때문이다. 러시아에서밀과호밀이아무리풍족하게생산되어도오로지그곳의인구가충분히먹을정도로만생산하고있을뿐이다. 일반적으로농민들은지대와세금을지불하기위해서수확한밀과호밀을팔때, 실제로 1 년동안자신에게필요한것까지강제로팔아야하는실정인것이다.

영국이세계곳곳으로보내고있는석탄도잉여분이아니다. 왜냐하면국내소비를위해서는매년일인당 4 분의 3 톤만을남겨둘뿐이라서수백만의영국인이겨울에불을피우지못한채지내거나겨우채소를삶을정도로만불을피우는실정이기때문이다. 사실, 불필요한사치품들을제외한다면, 영국이다른나라보다많이수출하는것들중충분히생산되는단하나의필수품은면직물이다. 면직물생산만큼은영국인들이쓰고도남을만큼필요이상으로많이생산하고있다. 그런데도영국에사는사람들의 3 분의 1 이상이누더기라고할만한옷들을입고있는것을보면, 우리는이렇게묻지않을수없다. 즉, 수출하고있는면직물은전체적으로보면국내인구의실제필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태에서수출하는것이아닌가?

비록맨처음수출을시작할때는그랬을지모르지만, 수출되고있는것은대개잉여물이아니다. 신발을만들지만자신은맨발인구두장이우화는예전에기능공들에게사실이었던것처럼국민의경우에도사실이다. 우리는우리자신에게필요한물품들을수출하고있다. 그렇게하는이유는노동자들이자신의임금만으로는자가생산한것들을살수가없기때문이고, 그외에도자본가들과은행가들한테임대료나집세나이자를지불해야하기때문이다. 계속증가하고있는안락한삶에대한욕구도여전히충족되지않고있다. 뿐만아니라생활에꼭필요한필수품조차도종종부족한실정이다. 그러므로‘과잉생산’이란존재하지않는다. 적어도경제학이론가들이말하는의미에서의과잉생산은존재하지않는다.

다른사항도한번살펴보자. 모든경제학자들은‘사람은자신이소비하는것보다더많이생산한다’는공인된법칙이있다고말한다. 즉, 자기노동의결과물로살아가고난다음에도잉여가남는다는것이다. 그러므로땅을경작하는농가한가구는대여섯가구가먹을식량을충분히생산할수있다. 하지만이런말은우리에게아무런의미가없다. 만약그것이각각의세대가미래세대를위해서뭔가를남겨놓는다는뜻이라면, 그것은사실이다. 가령, 어떤농부는나무를 많이심는데, 이나무

“어떤코원혹은코원들단체가운하에서자기네배가다른배들보다먼저가게만들고싶어하는데, 그들은아마돌을나르기위해서운하를가로막을것이다. 그러는동안다른코원에서필요한밀을수송하는배는기다려야한다. 이럴경우, 정부가아니라면누가이수송문제를조정할수있을것인가?”

그러나현실의삶은다시한번보여주었다. 다른모든곳과 마찬가지로이곳에서도정부없이잘해나갈수있다는사실을말이다. 자유로운협약과자유로운조직이해롭고비용이많은느제도를대신해서더잘해나갈수있다.

우리는네덜란드에서운하들이어떤의미를갖는지잘알고있다. 운하들은이나라의주요도로나마찬가지이다. 또한그운하들을통해서얼마나많은수송이이루어지는지도알고있다. 우리가도로나철도를통해수송하는것을네덜란드에서는운하를운항하는배들이수송한다. 그곳에서도다른배보다앞서가려고하면서싸움이일어날지도모른다. 그러면수송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정부가실제로개입해야할것이다.

그런데그렇지가않다. 네덜란드인들은오래전에베타사람들의길드나신디케이트(동업조합)를통해서보다실용적인방식으로문제를해결했다. 이것은항해의필요에의해생겨난자유로운연합들이었다. 배들의운항방식에관한권리는항해등록부에적힌순서에따라조정되었다. 배들은서로순서에따라야했다. 길드에서제명당하는고통을감수할각오를하지않는한누구도다른배들을앞질러갈수없었다. 누구도정해진날보다더오래부두에머물러있을수없었다. 만약배주인이부두에머무는동안신고갈화물을찾지못하면아주불리한일이었다. 그는새로운배들에게자리를내주기위해서빈배로라도출항해야했다. 이런식으로서로의항해를방해하는일을피했다. 비록배를소유한주인들간에끊임없는경쟁이존재했지만말이다. 경쟁이폐지되었더라면, 협약은훨씬더진심어린것이되었을것이다.

물론선주들은동업조합에자유롭게가입하거나안하거나할수있었다는점은두말할나위가없다. 가입여부는그들이알아서할일이었지만, 그들대부분은가입하는쪽을선택했다. 게다가이동업조합들이워낙많은이익을제공했기때문에라인강, 베저강, 오데르강을따라서널리퍼졌고, 베를린까지퍼져나갔다. 선원들은비스마르크⁸⁷ 대제가네덜란드를독일에합병시키고, ‘국가운하운항참모부최고고문관’이라는기다란직위만큼이나많은금박견장을단사람을임명할때까지기다리지않았다. 그들은국제적인상호합의를이루는편을더좋아했다. 러시아뿐만아니라독일과스칸디나비아반도사이를운항하는범선을소유한많은선주역시이동업조합에가입했다. 발트해에서의운항을조정하고, 범선들이서로교차할때조화롭게뱃길을변경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였다. 이러한연합들은자유롭게나타나서조합을지지하는자발적인회원들을모집했으며, 정부와는보통아무런관계도갖지않았다.

⁸⁷ 프로이센의정치인이자외교관 (Otto von Bismarck, 1815-1898). 독일통일을완성해서독일제국을건설했고재상을지냈다.

그렇지만여기서도더큰자본이소자본을억압하는일이충분히일어날법하다. 아마도동업조합역시독점단체가되려는경향이있을수있는데, 특히어떻게든개입하곤하는국가로부터엄청난보조금을받았을경우에그러했다. 그래도우리는 다음두가지점을잊지말도록하자. 이런동업조합들은조직회원들의사적인이해관계에만관련을갖는단체들을대표한다는점이다. 그리고만약생산, 소비, 교환이공동으로이루어지는사회화로인해각선수들이어쩔수없이코뮌연합에가입하게된다면, 혹은자신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수많은다른조합에도가입하게된다면, 상황은아주다른양상으로전개될것이라는점이다. 바다에서는강력한선수들단체가육지에서는약하다고느낄수있기때문에, 그들은철도, 공장, 그밖에다른단체들과타협을보기위해서어쩔수없이자신들의주장을줄일것이다.

하여간미래를논의하지않더라도정부없이잘해나가고있는또다른자발적인협회가있다. 그예들을더인용해보자. 지금선박들과배들에관해야기하고있는중이므로, 19 세기에나타난가장훌륭한조직들중의하나를이야기해보자. 이것은우리가자부심을가질권리가있는협회들중의하나인‘영국구명정협회’이다.

매년 1 천척이상의배가영국해안가에서좌초된다고알려져있다. 튼튼하게만들어진편선은바다에서폭풍우를두려워할일이좀처럼없다. 위험이나타나는곳은해안근처이다. 배의선미에있는기둥을산산이부수는거친물결, 돛과돛대를쓸고가버리는광풍, 키를잡기어렵게만드는격류, 배를좌초시키는암초와모래톱들이해안근처에있기때문이다.

심지어아주먼옛날, 해안가주민이배를암초로유인하고, 배에실린화물을약탈하기위해서불을피우는관습이있었던시절에도, 그들은조난당한선원들의목숨을구하는일에는항상최선을다했다. 난파된배를보게되면그들은자기들의배를떠워서선원들을구하러가곤했다. 그러다가그들자신도목숨을잃는일이흔하게있었다. 모든해안가마을에는조난당한선원들을구했던남자들뿐만이아니라여자들에게대한이야기가영웅담으로전해져내려오고있다.

국가와과학자들이바다에서죽는사람들의수를줄이기위해서중요한일들을한다는점은의심할여지가없다. 등대, 신호체계, 해상지도, 기상경보등은사상자수를크게줄였다. 하지만여전히수천척의배와수천명의사람이해마다구조를필요로한다.

이를위해서선의를가진몇사람이발벗고나섰다. 스스로가훌륭한선원이자항해자인그들은폭풍우에도부서지지않고전복되지않는구명정을발명해냈다. 그리고그들은이구명정들을만들고어디서나이용될수있도록해안가를따라서비치하는데필요한자금을모으기위해, 자신들의모험적사업에대중의관심을불러일으키는일에착수했다.

자코뱅주의자가아니었던이사람들은정부에게의지하지않았다. 그들은자신의계획이성공하기위해서는협동, 열정, 지역에대한지식, 그리고특히그지역선원들의헌신이필요하다는사실을이해하고있었다. 또한처음조난신호를발견한후에밤바다의격심한파도속으로배를떠우는사람들, 어둠과성난파도에대한공

그리고생산할수있다면, 그들에게예술, 과학, 오락이라는절대적으로필요한것의목록에는포함되지않는모든즐거움을위한여가시간이충분히있을것인가? 만일그대답이‘그렇다’라면지금무엇이그들을방해하고있는가? 그들이장애물을치우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할까? 그러한결과를이루기위해서필요한것은시간인가? 그렇다면그들이그시간을갖게하자! 하지만모든사람들의필요를충족시킨다는생산의목적을잊지는말자.

만약사람의가장절박한필요가충족되고있지않다면, 우리는노동생산성을높이기위해무엇을해야만할까? 혹시여기에다른원인이있는것은아닐까? 혹시우리의생산이사람의필요를잊어버리고완전히다른방향에서잘못해매고있는것은아닐까? 그래서생산체계가완전히잘못되어있는것은아닐까? 우리는바로그렇다는것을증명할수있으므로, 모든사람들의필요를실제로충족시킬수있도록어떻게생산을재조직할수있는지를알아보도록하자.

이것만이사태에직면하는유일하게올바른방법처럼보인다. 즉, 정치경제학을사회생리학이란학문이되도록하는유일한방법인것이다. 사회생리학이지금문명국가들의생산그리고문명화되지않은인도의공동체들이나원시인들의생산을다루는한, 그학문은현재의경제학자들이말하는것이상의다른사실들을거의말해주지않을것이다. 다시말해서, 동물학과식물학을다루는장들과유사하게단순히서술만하는장들일뿐이라는뜻이다. 그러나이장이인간의필요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에너지절약이란점에초점을맞춰서서술된다면, 이장은제대로된설명일뿐아니라정확한설명도될수있을것이다. 현재의체제에서인간에너지가얼마나심하게낭비되고있는지를분명히보여줄것이고, 이체제가존재하는한인간의필요는결코충족되지않으리란점을입증할것이다.

그러면우리가보는관점이완전히뒤바뀐다. 아주많은길이의웃감을짜는직조기뒤에서, 강철판에구멍을뚫는기계뒤에서, 배당금을넣어두는금고뒤에서우리는남들을위해자신이준비한잔치에서대개제외되곤하는숙련된생산자의모습을보게될것이다. 또한우리는소위말하는가치와교환의‘법칙들’은오늘날일어나고있는사건들을아주잘못설명한것일뿐이란사실을이해할수있다. 그리고생산이사회의모든필요를충족시키는방식으로조직될때는상황이아주다르게돌아갈것임을알게될것이다.

II

우리의관점에서살펴보면, 그모습이변하지않을정치경제학의원리란단하나도없다. 날마다우리귀에메아리치고있는단어인‘과잉생산’을예로들어보자. 과잉생산때문에경제위기가일어난다는주장을지지하지않는경제학자, 학회회원,

여기, 함께 모여서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견고한 집에서 살고
 뜰을 구를 수 있다. 원시인의 오두막집은 더 이상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들
 은 어느 정도 안락하고 견고한 집을 원한다. 그럴때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생산
 력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자마자 우리는 곧 알게 된다. 유럽에 있는 모든 가족이 안락한 집
 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영국과 벨기에 혹은 폴란드⁹⁴에 지어진 집 같은 것이거나 그와
 비슷한 모습을 한 방들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면, 통풍이
 잘 되고 설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전깃불이 들어오는 아담하고 깔끔한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의 10 분의 9 는 한번도 견고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지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날마다 일을 해야만 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여가나 돈을 가져본 적
 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한 그들은 번듯한 자기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계속해서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들 경제학
 자들은 소위 생산의 법칙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매년 지어지는 집의 수를 계산한다.
 그리고는 새로 지어진 집들의 수가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므로
 유럽인의 10 분의 9 는 오두막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통계로 증명해본다.

식량문제도 넘어가보자. 경제학자들은 분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세세히 열한
 다음에, 분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조업
 에 종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업에 따라 농부들은 이만큼 생산하고 있고, 공장은 저
 만큼 생산하고 있고, 교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제학자들
 은 판매, 이익, 순이익 혹은 잉여 가치, 임금, 세금, 예금 등을 분석한다. 그러나 그
 령게 멀리까지 그들이론을 따라갔는데도 우리는 조금도 더 알게 된 것이 없다. 그래
 서 그들에게 묻는다.

“각각의 농가에서 매년 10 명, 20 명, 심지어는 100 명이 먹을 만큼 충분한 밀
 을 기를 수 있는데도,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빵이 부족한 것인가?”

그러면 그들은 분업, 임금, 잉여 가치, 자본 등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는 생산
 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 결론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
 요한 빵을 자기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만약 생산할 수 없다면 그를 가로
 막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말이다.

여기 3 억 5 천만 명의 유럽인이 있다. 그들은 매년 아주 많은 빵, 많은 양의 고
 기, 포도주, 우유, 계란, 버터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많은 집과 옷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가?

포로고민하지 않고, 조난당한 배에 닿을 때까지 10 시간씩 파도와 싸울 수 있는 사
 람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을 찾
 아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연대감과 희생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듯이 운동은 완벽하게 자발적인 운동이었고 협약과 개인의 진취 정신으로
 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해안가를 따라서 수백 개의 지역 단체가 생겨났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지도자 인양 굴지 않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들
 이 사는 마을에서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구했다. 어느 부자가 어떤 마을에 구명
 정선착장을 지으라고 천 파운드를 기부했을 때도,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지만 장소
 를 선택하는 일은 부자가 아닌 그 지역 어부들과 선원들에게 맡겨졌다. 새로운 구명
 정설계도 들 역시 해군 본부의 감수를 받지 않았다. 이 협회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구명정을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있는 보트에 완전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반드시 구명정을 타는 사람들의 바람대로 배를 만들고 설
 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그 결과, 해마다 새로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자원자들이
 조직한 위원회들과 지역 단체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상호 보조와 협약에 의해
 서 말이다! 오, 아나키스트들! 게다가 그들은 지방세 납세자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
 하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4 만 파운드에 이르는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는다.

그 결과가 여기 있다. 1891 년 이 협회에는 293 척의 구명정이 있었다. 같은 해
 에 협회는 601 명의 조난당한 선원들과 33 척의 배를 구했다. 설립 때부터 합하면
 32,671 명의 생명을 구했다. 1886 년에는 세척의 구명정이 파손되었고, 거기에
 탄 사람 모두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자 수백 명의 새로운 자원자들이 협회
 에 가입하고 스스로 지역 단체들을 조직했다. 그리고 이 열띤 운동은 20 척의 구명
 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켜서 다음 사실도 주
 목해보자. 협회는 매년 어부들과 선원들에게 상점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세 배나 싸
 가격으로 품질 좋은 기압계를 보내주고 있다. 또한 협회는 기상학적 지식을 널리 보
 급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를 관계자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이들 수백 개의 위원회와 지역 단체는 권위적인 위계질서로
 조직되지 않았다. 오로지 자원자들, 구명정 조원,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
 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중앙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는 법이 없으며 단지
 통신 연락 센터일 뿐이다. 어느 지역에서 교육이나 지방세에 관한 어떤 문제로 투표
 를 하는 경우에도, ‘전국 구명정 협회’의 위원들은 위원 자격으로는 토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행히도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겸손함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용감한 사람들은, 한번도 폭풍우에 맞서 싸워본 적이 없
 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조
 난의 첫 신호를 접하자마자 그들은 구명정으로 달려가 바다로 나아간다. 여기에는

⁹⁴ 미국 워싱턴 주 남동부에 있는 도시

수놓은어떤제복도없지만선량한의지는아주많다. 이와같은종류의다른협회인 ‘적십자’를예로들어보자. ‘십자가’라는이름은별로중요하지않다. 협회에대해설명해보도록하자.

50 년전에어떤사람이이렇게말하는것을상상해보라.

“국가는다루에 2 만명을학살하고, 5 만명이넘는부상자를만들어낼수있지만, 이전쟁으로인한희생자들을도와줄능력없다. 따라서전쟁이계속일어나는한, 개인적인진취정신이개입해야하고선의를가진사람들이인도적인사업을위해서국제적인조직을만들어야한다!”

감히이런주장을한사람이당시에얼마나비웃음을받았을까! 처음에그는유평아를꿈꾸는공상가라는소리를들었을것이다. 그래도그가가만히있지않으면이런말을들었을것이다.

“무슨헛소리! 당신이말하는자원자들은도움이가장필요한바로그곳에서는전혀찾을수없을것이고, 자원병원들은안전한장소에한데몰려있을것이고. 반면에야전병원들에서는모든게부족할거요! 당신같은공상가들은, 국가들사이의대항이란불쌍한병사들이어떤도움도못받고죽어가도록내버려두는것임을잊고있소.”

말하는사람이많은수목이런기운빠지는말들도늘어났을것이다. 우리중에어느누가사람들이이와같은어조로말하는것을들어보지않은사람이있겠는가? 그러나우리는이제어떤일이일어났는지알고있다. 적십자협회는모든나라, 모든곳에서, 수천개의현장에서, 자유롭게스로조직되었다. 그리고 1870-1871 년에전쟁⁸⁸이터지자자원자들이일을시작했다. 남자와여자들이스로봉사해나섰다. 수천개의병원과야전병원조직되었다. 기차들이부상자를위한야전병원, 식량, 봉대, 의약품들을나르기시작했다. ‘영국적십자위원회’는음식, 의복, 농기구들, 곡물씨앗, 땅을갈아줄가축들, 심지어는운전해줄사람과함께중기경운기까지갖춘전체호송대를보내어, 전쟁으로황폐해진지역의농사를도와주었다! 구스타프무와니에 (Gustave Moynier) 가쓴『적십자』란책을참고해보라. 그러면얼마나많은일이수행되었는지를보고정말로감동받을것이다.

다른사람들의용기, 양심, 지성을줄곧부인하려들면서, 오로지자신만이세계를판결할수있다고믿었던예언자들의어떤예측도실현된적이없다. 적십자자원자들의헌신에대해서는칭찬할말이모자랄정도이다. 그들은가장위험한곳에배치되기만을간절히바랄정도로아주열심이었다. 프로이센군대가진격해왔을때, 나폴레옹 1 세가다스리는국가로부터월급을받는군의관들은부하들과함께도망쳤지만, 적십자자원자들은포화아래에서비스마르크군대와나폴레옹군대장교들의잔학행위들을참고견디면서, 국적과상관없이모든부상자들을아낌없이돌보는일을계속했다.

⁸⁸ 비스마르크대제시절의프로이센이나폴레옹 1 세시절의프랑스와별인전쟁을말한다.

우리는모든권위주의적학파와는다른관점에서사회와그사회의정치제도를바라본다. 왜냐하면우리는국가에서시작해서개인으로내려가는것이아니라, 자유로운개인에서시작해서자유로운사회로나아가려고하기때문이다. 우리는경제적문제들에있어서도똑같은방법을따른다. 우리는생산, 교환, 세금부과, 정부같은것들을논의하기에앞서, 개인의필요와욕구, 그리고그것을충족시킬수있는수단들을연구한다. 언뜻보면이차이는사소해보일지도모른다. 하지만실제로이방식은공식적인주류정치경제학의모든표준을뒤엎는것이다.

누구든상관없이어느경제학자의저서를펼쳐본다면, 여러분은그가‘생산’으로글을시작한다는것을발견하게될것이다. 즉, 분업, 공장, 기계, 자본축적이라는부담을만들어내기위해오늘날쓰이고있는수단들을분석하면서시작한다는뜻이다. 아담스미스에서부터마르크스까지모든경제학자들은이런방향을따르고있다. 그들은책의뒷부분에서야‘소비’를다룬다. 다시말해, 지금사회에서개인들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사용하는수단들을다룬다는뜻이다. 그리고소비를다룰때조차경제학자들은자신의소유를위해서로경쟁하는사람들사이에서부자가어떻게나누어지는지를설명하는것으로그친다.

어쩌면여러분은이것이논리적이라고말할지도모른다. 필요를충족시키기전에앞서필요한수단을만들어내야하지않느냐고말이다. 하지만뭔가를생산하기전에여러분은먼저그것에대한필요를느껴야하지않을까? 인간이처음사냥을하고, 가축을기르고, 땅을경작하고, 도구를만들고, 기계를발명해낸것은, 그것이필요했기때문이야닌가? 생산을관리하는것은필요에대한연구여야하지않을까? 그렇기때문에이필요를고려하는것으로시작하는것이적어도논리적이라고말할수있다. 그런다음에이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생산이어떻게조직되는지, 그리고어떻게조직되어야하는지를논의하는것이다.

이것이바로정확히우리가하려고하는일이다. 그러나이런관점에서정치경제학을살펴보는순간정치경제학은완전히변화된양상을띤다. 정치경제학은단순히사실을기술하는것이아니라과학이된다. 그리고우리는이과학을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인류의필요에대한연구, 그리고인간에너지를최소한으로낭비하면서그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방법들에대한연구’라고말이다. 그래서이학문의진정한이름은‘사회생리학’이어야한다. 이학문은식물과동물생리학과비슷하게구성된학문이다. 식물과동물생리학은식물과동물의욕구를연구하고, 가장효율적으로그욕구를충족시키는방법들을연구한다. 일련의사회학안에서인간사회를다루는경제학은일련의생물학안에서유기체를다루는생리학이차지하고있는위치에놓일것이다.

14. 소비와생산

네덜란드인, 이탈리아인, 스웨덴인, 벨기에인, 심지어일본인과중국인도놀라우리만큼합의를잘이루어냈다. 그들은현장의필요에따라서병원들과야전병원들을배치했다. 그들은특히병원들의위생상태를두고서로겨루었다. 그리고많은프랑스인은적십자야전병원에서네덜란드나독일에서온자원자로부터받은상당한보살핌에깊이감사하며지금까지도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권위주의자들에게이런것이무슨소용이겠는가? 그의이상은국가로부터봉급을받는연대배속군의관이다. 적십자간호사들이그곳의직원이나이라면, 그들이적십자나그곳의위생적인병원에무슨관심이있겠는가!

바로얼마전에막생겨났는데회원이수십만이나되는조직이여기있다. 야전병원들과병원열차들을가지고있으며, 부상자를돌보는새로운치료법을고심해서만들어내는조직이다. 그리고이조직은처음에몇몇헌신적인사람이자발적으로주도해서생겨난조직이다. 아마도우리는국가가이조직과어떤관계가있을것이라는이야기를들을것이다. 그렇다. 국가는다이조직을손아귀에넣으려고손을내밀었다.

이조직의감독위원회는추종자들이왕자라고부르는자들이주로말고있다. 황제들과황후들은이조직의전국위원회를아낌없이후원하고있다. 하지만이조직의성공은이런후원들때문이다. 각나라마다있는수천개의지역위원회가있기때문에성공한것이다. 그리고개개인의활동, 전쟁의희생자들을돕고자하는모든사람의헌신때문에가능했다. 그리고이헌신은국가가개입하지만않는다면훨씬더커질것이다.

아무튼 1871 년전쟁에서영국인, 일본인, 스웨덴인, 중국인들이부상자들에게도움을보내려고열심히노력한것은, 국제감독위원회의명령때문이었다. 점령당한지역들에병원이세워지고, 전장에구급대를보낸것도국제원조부서의명령때문이었다. 그것은각국자원자들의자발적인주도에의해서였다. 일단현장에도착하면자원자들은모든나라의자코뱅주의자들이예상했던것처럼서로를마음대로지배하려들지않았다. 그들모두는국적을구분하지않고일에착수했다.

우리는이렇게위대한노력들이전쟁이라는그토록추악한원인에봉사해야하는것을유감스럽게여길것이다. 그리고마치시인의아이처럼이렇게몰어볼지도모른다.

“나중에치료를해줄거라면, 왜그들을다치게하나요?”

자본가들과중산층의권위와권력을파괴하려고노력하면서, 우리는전쟁이라는이름의대량학살을끝내기위해서도노력한다. 우리는적십자자원봉사자들이전쟁을끝내기위해우리와함께활동하는것을훨씬많이보게될것이다. 하지만우리는이대단한조직을자유로운협약과자유로운원조의결과로생겨난또다른실례로서언급해야한다.

만약인간들을몰살시키는기술과관련된예를들고자한다면결코끝이없을것이다. 독일군대의힘을뒷받침하고있는수많은단체가있다는사실을인용하는것

으로충분할것이다. 일반적인민음과는달리, 독일군대의힘은훈련에만의존하는 것이아니다. 즉, 군사적인지식을널리보급하려는목적을가진여러단체에도의지하고있다는뜻이다.

‘독일군대동맹’의가장최근회의들중하나에는 151,712 명의회원들로구성된 2,542 개동맹단체의대표들이참석했다. 그밖에도독일에는‘사격회’, ‘군대게임’, ‘전략게임’, ‘지형연구협회’같은수많은단체가있다. 독일군대의기술적지식이발달하고있는것은이런단체들이행하는워크숍들을통해서이지, 군대에서행하는훈련으로만그런것은아니다. ‘독일군대동맹’은군인들과민간인들, 지질학자들과체육교관들, 운동선수들과기술자등이모인온갖종류의단체들을포함하고있는가공할만한조직망이다. 자발적으로생겨난이단체들은스스로조직하고, 연합하고, 토론하고, 지역을탐사하기도한다. 독일군대의실제중추를이루고있는것은이러한자발적이고자유로운협회들인것이다.

물론그목적은몹시끔찍하다. 바로제국을유지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가관심을갖는것은, 군대조직이‘국가의위대한사명’임에도불구하고, 이조직을단체들의자유로운합의와개인들의자유로운진취정신이이끌어가게하면, 성공이훨씬확실해진다는사실을지적하려는것이다.

자유로운협약은심지어전쟁과관련된문제에서조차그런식으로호소력을갖고있다. 우리의주장을좀더입증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예들을들어보자. 산맥을통과하는길들을상세히연구하고있는‘스위스지형학자자원자단체’, ‘프랑스비행협회’, 30 만명의영국자원병, ‘영국포병협회’, 그리고영국해안을방어하기위해서지금조직중인협회도있다. 이와마찬가지로상선들로이루어진선단, ‘자전거타는사람들단체’, 그리고새로이조직된개인자동차조직과증기엔진이달린대형보트조직등도인기를끌고있다.

모든곳에서국가가뒤로물러나고있으며, 자신의신성한역할들을개인들에게로넘겨주고있다. 모든곳에서자유로운조직들이국가의영역을침범하고있다. 그럼에도우리가여기서인용한사실들은미래에더이상국가가존재하지않게되었을때, 어떤자유로운정부가우리를기다리고있는지를언뜻보여주는것일뿐이다.

통받는사람들에게너무나도귀중한이름이다! 결코그럴수없다. 왜냐하면프롤레타리아의도끼아래낡은제도들이무너지는날에는이런외침들이울려퍼질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빵, 집, 편안한삶을!”

그리고사람들은이외침들에귀를기울일것이다. 민중은이렇게말할것이다.

“우선삶에대한갈망, 그리고행복과자유에대한갈망이라는우리가한번도풀어보지못했던갈망을가라앉히자. 이기쁨을맛보고난다음에는중산층지배의마지막흔적들을없애는일을시작할것이다. 회계장부에서뿔아낸그들의도덕, ‘부채와신용’이라는그들의철학, ‘내것과네것’이라는그들의제도들을없앨것이다. 프루동은‘우리는파괴하면서건설할것이다’라고말했다. 우리는코뮌주의와아나키즘의이름으로건설할것이다.”

챙겨놓고있는사람들만큼많은일을할수없다는사실을그들도이해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그들은자기들의원칙을적당히완화시키기위해열심히애쓴다. 그들은말한다.

“사회는아이들을부양하고양육할수있을것이다. 또나이트사람들과약한사람을도울수있을것이다. ‘일한만큼’이라는원칙을적절히완화하기위해서사회가떠맡아야할비용을재는척도는의심할여지없이필요가될것이다.”

자선, 자선, 언제나기독교적이던자선이이번에는국가에의해조직이된다. 그들은고아원을개선하고노후보험과질병보험을시행하면그결과로자기들의원칙이완화될것이라고믿고있다. 하지만그들은‘먼저상처를입히고나중에치료한다’는생각은아직도버리지못하고있다! 그리하여공산주의를반대하고‘각자에게필요한만큼’이라는코뮌주의공식을마음편히비웃어준다음에야, 이주요경제학자들은자기들이뭔가중요한것을잊었다는점을깨닫는다. 그것은바로생산하는사람들의필요와욕구들이다. 경제학자들은이제야이것을인정하고있다. 다만이필요를측정하는것은국가이다. 필요가노동과균형을이루는지아닌지를조사하는것은국가인것이다.

국가는조금씩자선을베풀것이다. 이자선은영국의빈민구제법과극빈자수용소에서부터단지한걸음밖에떨어져있지않다. 거기에는아주사소한차이밖에없다. 왜냐하면우리가반감을갖고있는, 사회라고하는이게모역시어쩔수없이자신의개인주의적원리들을완화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이게모는또한코뮌주의적인방향으로양보를해야할것이고, 자선과같은방식으로그렇게할것이다.

이게모는또한가게들이악탈당하지않게하려고반페니짜리식사를제공한다. 전염병으로사회가황폐해지는것을막으려고대체로는형편없지만때로는아주훌륭한병원들을짓기도한다. 또한노동시간만큼보수를준후에자가파멸시킨사람들의자녀들에게주거지를제공한다. 그들의욕구들을고려하고서는조금씩자선을베풀는것이다.

우리가어디에서나말해온것처럼가난은부의첫째가는원인이었다. 최초의자본가들만들어낸것은가난이었다. 왜냐하면우리가너무나많이듣고있는‘잉여가치’가축적되기이전에, 굶어죽지않으려고자기노동력을파는데동의할정도로빈곤한사람들이있어야만했기때문이다. 자본가들을만든것은가난이었다. 그리고중세시대에가난한사람들수가매우빠르게늘어났던것은, 국가의설립에따른침략과전쟁때문이었다. 그리고동양에대한착취로부터얻은부가증가했기때문이었다. 이두가지원인은농촌공동체와도시공동체안에서함께살아가던사람들의유대관계를갈가리찢어버렸다. 그리고그들에게예전의부족적인삶속에서실천했던연대감이아니라착취자들의마음에속드는임금제원리를선언하도록가르쳤다.

그런데감히‘사회혁명’이라고부르는것으로부터생겨나는것이다사이임금제원리인것이다. 이‘사회혁명’이라는이름은굶주린사람들, 억압받는사람들, 고

12. 반론들에 대해

I

이제 코뮌주의를 반대하면서 나오는 주요한 반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반론들 대부분은 단순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문제들도 제기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에 관해 제기된 반론들에 우리가 응수할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도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문명화된 국민은 개인의 해방을 위해 오랫동안 힘겨운 투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노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국민 삶의 세세한 점까지 간섭하려는 정부를 묵인할 수 없다. 설령 그 정부가 공공의 선을 위한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어떤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사회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그 사회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널리 퍼진 불만으로 인해 서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자유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조직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사회이다. 이 사회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어떤 권위도 허용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강제도 사용하지 않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경제적 측면의 문제로 한정하고,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더 선량하지도 더 약하지도 않고, 더 근면하거나 덜 근면하지도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 사회가 성공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반론은 잘 알려져 있다.

“만일 각자의 생존이 보장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다면,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로 일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남에게 떠넘길 것이다.”

우선 이런 반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솔하게 제기된다는 점에 주목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 반론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지점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임금 노동을 통해 얻기로 되어 있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었는가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돈 때문에 하는 일보다 더

자원봉사자들일까?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시간을 써서 배의 갑판 위에서 매야드마다 케이블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기선 회사의 주주들이 어리석게도 케이블이 작동되지 않게 하려고 절연 피복에 박아 넣도록 한 못들을 제거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영역, 기쁨과 고통과 사고가 있는 인생의 참된 영역에서, 우리 중 어느 누가 우리 삶에 커다란 도움을 준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삶에 너무나 커다란 봉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봉사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들으면 분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그것은 적절한 때에 말해진 한 마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몇 달이나 몇 년 동안의 헌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봉사를 ‘노동 전표’로 계산해야 한단 말인가?

“각자의 노동을 각자에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 수표, 혹은 보상금으로 지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인간 사회는 두 세대가 상존 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장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곧 멸종하고 말 것이다.

만일 중산층 사회가 쇠퇴하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가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라 있어서 횃불과 손도끼를 가지고 과거의 제도들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받기 위해서만 주는 방식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회를 부채와 신용에 기초를 둔 상업적 회사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결국 집산주의자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도 어렵게 이해하고 있다. 만일 ‘각자의 노동을 각자에게’라는 원리가 시행된다면, 사회가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도 필수품들(일시적인 변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개인의 요구들이 각자의 노동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드 페페⁹³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두드러지게 개인주의적인 이원리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생계와 숙소를 제공하는 교육)을 위한 사회의 개입을 통해 적당히 완화될 것이다. 또 약자와 병자를 돕고 나이드는 노동자의 은퇴 후를 돕는 사회 기관 등에 의해서 보완될 것이다.”

그들도 세 아이의 아버지인 40세의 남자는 20살짜리 젊은이와는 다른 욕구들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침대 곁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성은 평화롭게 잠을 잔 남자만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 사회를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하느라 녹초가 된 남자와 여자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특권적 지위 때문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 주머니에 ‘노동 전표’를

⁹³ 벨기에의 의사이자 사회주의자 (César De Paepe, 1841-1890). 그의 저작들은 유럽의 노동 조합 운동과 생디칼리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드는기술자일까? 혹은자기자본을광산에투자한광산소유주일까? 어쩌면그는전문가들의조언과는반대로, 그곳에서양질의석탄이발견될거라고확신하는사람일지도모른다.

이모든사람이광산에서석탄을채굴하는일에기여하고있다. 각자자신의육체적힘, 에너지, 지식, 지성, 기술을가지고서말이다. 그리고생활필수품들이모두에게보장되었을때우리는말할수있을것이다. 모든사람은살아갈권리, 자신의필요를충족시킬권리, 심지어일시적인번덕조차만족시킬권리를가지고있다고말이다. 하지만우리가어떻게그들각자의노동을평가할수있단말인가?

그리고더나아가, 그들이채굴한석탄은전적으로그들만의작업물일까? 석탄은또한광산으로가는철로를건설한사람들, 모든기차역에서사방으로뻗어나가는도로를건설한사람들의작업도포함되지않겠는가? 또한땅을갈고씨를뿌린사람들, 석탄을태우는기계를만든사람들처럼어떤식으로든전체광산업이천천히발달하도록한사람들의작업도포함되지않겠는가?

이런사람들각각의노동을구별하는일은절대로불가능하다. 결과만을가지고노동을측정하게되면부조리함에빠지기때문이다. 전체일을분할하고그일에소요된시간으로그부분들을측정하는일역시우리를부조리함에빠트린다. 남은것은한가지뿐이다. 즉, 노동보다필요를우선시하는것이다. 무엇보다먼저살아갈권리를인정하고, 그다음에생산에기여한모든사람이행복한삶을살권리를인정하는것이다.

그렇다면인간활동의다른분야, 전체로서의삶이드러나는분야를한번살펴보자. 우리들중누가자기한일에대해서더높은보수를요구할수있을까? 병을발견해낸의사가그럴수있을까? 혹은위생적인간호로환자의회복을도운간호사가그럴수있을까? 증기기관은최초로발명한사람일까? 아니면증기가피스톤아래로흘러가도록밸브를열어주는줄을기계로달린레버에동여뒀던소년일까? 어느날이소년은밸브줄을잡아당기는일이지긋지긋해져서기계로달린레버에그줄을동여뒀던것이다. 자신이모든현대적기계의본질적인부품인자동밸브를발명했다는사실을알아차리지도못한채로말이다.

기관차를발명한사람일까? 아니면탄력성이부족한돌은기차탈선의원인이되므로, 이전에철로밑에 깔아놓았던돌대신에나무침목들을까는게 좋겠다고 제안한뉴캐슬의한노동자일까? 기차를멈춰세우거나지나가게하는신호수일까? 아니면기차를한선로에서다른선로로이동시키는전철수일까?

한편으로, 대서양항단케이블을건설해준것에대해서우리는누구에게감사해야할까? 과학자들이불가능하다고단언했는데도케이블로전보를보낼수있다고집요하게주장한전기기사일까? 두꺼운케이블대신지팡이만큼얇은것들로대체하라고조언한자연지리학자모리⁹²일까? 아니면어디에서왔는지누구도모르는

⁹² 미국의해군장교, 해양학자 (Matthew Maury, 1806-1873). 근대해양학의개척자로평가받는다.

생산적인지아닌지를아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인식조차못하고있는것이다. 이문제를올바르게다루기위해서는보다진지하게연구할필요가있다. 정밀과학을연구하는사람들은분명덜중요하고덜복잡한문제들을진지하게조사하며, 신중하게사실들을모으고분석하고난뒤에야자기의견을제시한다.

반면에우리가다루는문제에서반대론자들은항소할기회도주지않은채판결해버리는식으로행동한다. 가령, 미국의몇몇공산주의자단체가성공하지못했다는것을예로들면서반대하는식이다. 그들은꼭법정변호사처럼행동하고있다. 즉, 반대측변호인을어떤주장혹은자신과반대되는의견을대변하는사람으로여기는것이아니라그저방해꾼으로, 말하자면수사로가득한말싸움의적으로치부해버리는식이다. 법정에서재치있는대꾸를금방찾아낼만큼은이좋다면모를까, 다른경우에는소송이유를정당화하는일에는전혀주의를기울이지않는법정변호사처럼행동하는것이다. 이런이유때문에경제학의기본토대에대한연구, 즉인간에너지를최소한으로낭비하면서사회에최대한유용한생산을하는사회를만들기위한가장바람직한조건들에대한연구는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사람들은진부한주장들을되풀이하면서선을그어버리거나, 우리의주장을모르는척하고있다.

이러한경솔함에서가장놀라운점은자본주의정치경제학에서조차몇몇학자들은사실들을보고서어쩔수없이자기들학문의창시자들이만들어낸공리를의심하게되었다는점이다. 즉, 굶주림의위협이야말로사람들이생산적인노동을하게되는가장중요한동기라는공리말이다.

이학자들은지금까지너무나도많이부정되어온사실을알아차리기시작했다. 즉, 생산에어떤협동적인요인도이보다면그요인이개인적인이익보다더중요하게여겨질수있다는점이다. 임금노동의열등한성질, 현대농업과산업노동에서끔찍하게낭비되는인간에너지, 자기의짐을다른사람에게떠넘기고쾌락을추구하는사람들의계속적인증가, 생산에서점점더뚜렷해지고있는어떤활기의결여. 이런모든상황이‘고전학파’경제학자들의관심을끌기시작했다. 그들중어떤이들은자기들이혹시잘못된길을택한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 또어떤이들은오직이익이나임금이라는미끼로만유혹당한다고가정했던사람들, 상상속의사악한사람들이정말로존재하는지에대해서도의문을품고있다. 기존학설과반대되는이런의견은심지어대학에까지스며들어서정통경제학책들에서도발견할수있다.

하지만이것이수많은사회주의개혁가가여전히개인적인보수를지지하고, 임금노동이라는낡은성채를방어하는일을방해하지는못한다. 비록이성채를이루는돌들이과거의성채방어자들에의해서하나둘씩공격자들에게넘겨지고있을지라도, 이들은계속방어하고있다. 그들은강제가없으면대중이일하지않을까봐두려워한다.

그러나우리가살아가고있는시대에이와똑같은두려움들이두번표현되는것을듣지않았던가? 한번은흑인들이해방되기전미국의노예제폐지반대론자들에의해서였고, 다른한번은농노제가폐지되기전러시아귀족들에의해서였다.

“채찍질이없으면검둥이들은일하지않을것이다.”

노예제폐지반대론자들이말했다.

“영주의감독으로부터자유로워지면농노들은농지를경작하지않고내버려둘 것이다.”

러시아의농노소유자들이말했다. 이것은 1789 년에프랑스귀족들이했던말의반복이며, 중세시대의반복이고, 인간세상의역사만큼이나오래된반복이다. 그리고불의를없애는문제가제기되는시대라면언제나들게되는반복일것이다. 그리고해방현실은이말이거짓말이라는사실을보여준다. 1792 년에해방된프랑스농민들은그들의조상은알지못했던열렬한에너지에넘쳐서땅을갈았다. 해방된흑인들은자기부모세대보다더많이일을한다. 러시아농민은일요일뿐만아니라농노해방이선포된금요일까지축하하며해방이라는달콤한영광을만끽한다. 그후에는열의를갖고서일하기시작했다. 땅이자기것이되면농민은필사적으로일을한다. 필사적이라는말은농민이하는일에정확히들어맞는단어다. 노예제폐지반대론자들이반복하는주장은노예소유주들에게는가치가있을지도모른다. 노예들역시그런반복이가치가있다는것을알지만, 그동기가뭔지를알고있기때문이다.

게다가다음과같은사실을우리에게가르쳐준사람이경제학자들자신이나니던가? 즉, 대체로임금노동자의일은좋지도나쁘지도않은평범한노동인반면, 집중해서하는생산적인노동은자기가한노력에비례해서자기의부가증가한다는점을알고있는사람한테서만나온다는사실말이다. 사유재산을찬양하는모든찬송은부득이하게이원리로귀결된다.

그러므로사유재산의은총을찬양하고싶어하는경제학자들이다음과같은사실들을우리에게보여줄때, 사유재산에대한옹호라는논제를조금도증명해주지못한다는점은아주주목할만한사실이다. 즉, 자기땅을가진농민이비생산적이고, 질척거리고, 자갈이많은땅을경작하게되면, 그땅이어떻게풍요로운수확물들로뒤덮이는지를우리에게보여줄때말이다. 자신행한노동의결실을빼앗기지않게해주는유일한보장은노동수단을소유하는것이다. 이사실을인정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은사람이란자유롭게일할때실제로가장생산적이라는사실을입증할뿐이다.

또직업을선택할자유가있을때, 그를강제하는감독관이없을때, 노동자는실제로가장생산적이라는사실을보여줄뿐이다. 마지막으로자신의노동이자신과자기처럼일하는다른사람들한테이익을가져다주지만, 게으름뱅이들에게는이익을거의가져다주지않는다는사실을알고있을때, 사람은가장많이생산한다는사실을증명할뿐이다. 그들의논증에서빼야할것은아무것도없고, 우리가주장하는것도바로이런것들이다.

노동수단을소유하는형태와관련해서, 경제학자들은그문제를오직간접적으로만언급하고있다. 즉, 경작자가수확에서얻은이익과땅을개선했을때얻은이익을빼앗기지않도록보장해주는수단정도로만언급하고있는것이다. 그렇지만그밖에경제학자들이다른모든소유형태를반대하고사유재산을옹호하는자신의

사회에제공한봉사는돈으로그가치를매길수없다. 그것이공장이나논밭에서행한것이든정신적인것이든간에말이다. 생산과관련해서보면, 어떤가치(교환가치라는잘못된용어로쓰이고있다) 와사용가치를측정할수있는정확한기준은있을수없다. 만일두명의개인이하루 5 시간씩공동체를위해일하고있고, 시간이흐르면서이노동이그들각자에게똑같이마음에든다면, 우리는전체적으로보아서그들의노동은거의동등하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우리는그들의노동을분할할수는없다. 즉, 한사람이행한어느특정한날의시간의노동결과가, 다른사람의어느날의어느시간의노동결과와동일한가치를가진다고말할수없다는뜻이다.

우리는대충은말할수있을지모른다. 즉, 평생동안하루에 10 시간의여가시간을빼앗기고일한사람은, 하루에 5 시간만여가시간을빼앗기거나전혀여가시간을빼앗기지않은사람보다사회에훨씬많은기여를했다고말이다. 하지만우리는그가 2 시간동안일한것을측정할수는없다. 그리고그가일한 2 시간동안의결과물이 1 시간만일한다른사람의결과물보다 2 배의가치가있다고말할수없으며, 두사람에게그에비례해서보수를지급할수도없다. 이렇게하는것은산업, 농업, 그리고지금사회의모든삶속에복잡하게얽혀있는것전부를무시하는일이될것이다. 또한모든개인적노동이어느정도로전체사회의과거와현재노동의결과인가하는점을무시하는일이될것이다. 이것은우리가지금강철의시대를살고있는데도석기시대에살고있다고믿는것과마찬가지일것이다.

여러분이현대식탄광에들어가보면, 승강기를올리고내리는거대한기계를조종하고있는사람을볼것이다. 그는손에레버를들고서그기계를멈추기도하고방향을바꾸기도한다. 그가레버를내리면승강기는순식간에방향을바꾼다. 그는레버를위아래로움직여서어지러울정도로빠르게승강기를올려보내기도하고깊은수직터널로내려보내기도한다. 그는모든주의를기울여서작은표시기에눈을고정하고있다. 이표시기는승강기가터널의어느지점에서어떤속도로움직이는지를작은눈금으로알려준다. 그리고표시기가어느수준에도달하자마자, 그는필요한지점보다높지도낮지도않은곳에서승강기를급정거시킨다. 그러면곧바로탄광인부들이석탄수레에서석탄을퍼내고난뒤에빈수레를밀어낸다. 그러면그는레버를역전시켜서승강기를다시경도로돌려보낸다.

그는날마다 8 시간이나 10 시간동안쉬지않고일정한주의력을기울이고있어야한다. 그의두뇌가잠시라도긴장을늦추면승강기는불가피하게기어에부딪칠테고, 바퀴가부서지고, 줄이끊어지고, 사람들이깰려서광산의모든작업은중단될것이다. 그가레버를조작할때마다 3 초를허비한다면, 우리의현대적이고설비가잘된광산의채굴량은하루에 20 톤에서 50 톤까지줄어들것이다.

그렇다면광산에가장필요한사람이그사람일까? 아니면저밑에서승강기를올리라고그에게신호를보내는소년일까? 수직갱도의맨아래에서매순간마다목숨을걸고있으며언젠가가스폭발로죽음을맞게될광부일까? 아니면석탄이묻힌층을제대로찾지도못했으며, 단순한계산실수때문에광부들이돌덩이를파게만

분명우리는이런특권들에깊은반감을갖고있기때문에아나키스트인것이다. 이런권위주의적인사회에존재하는특권들에우리는이미깊은반감을갖고있다. 평등을선언하면서시작한사회속에그런것들이존재하는것을우리가참아낼수있을까? 일부집산주의자들이서둘러서임금의평등을선언한것은이런이유이다. 그들은혁명의숨결에영감을받은사회에서는임금격차를유지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을이해한사람들이다. 하지만그들도새로운어려움들과마주했는데, 자기들이생각한평등한임금역시다른집산주의자들의임금격차만큼이나실현불가능한공상이기때문이다.

모든사회적부를공동으로소유한사회, 이런부에대한모두의권리를대답하게 선언한사회, 각자가그부를생산하는데얼마나기여했는가와상관없이모두가권리를갖는다고선언한사회는현금이든노동전표로지불하건간에모든임금제도를어쩔수없이폐지하게될것이다.

IV

집산주의자들은“각자의노동을각자에게”라고말한다. 다른말로하면, 각개인인사회에봉사한정도에따라보수를받는다는뜻이다. 그들ㅇ느사회혁명이모든생산수단을공동소유로만드는즉시이원리를실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우리는다르게생각한다. 만약사회혁명이불운하게도이런원리를선언한다면, 혁명은필연적으로실패할수밖에없다고말이다. 그런원리를선언한다는것은지난세월들이우리에게떠넘겨놓은사회적인문제들을해결하지않은채그대로남겨놓는다는것을뜻한다.

물론일을더많이할수록더적게보상을받는우리사회에서는언뜻보면이원리가마치정의에대한갈망인것처럼보일지도모른다. 하지만실제로는단지불평등을영구화하는것일뿐이다. 임금제는이원리를선언하면서시작되었고, 결국명백한불평등과지금사회의온갖혐오스러운것들로귀결되었다. 왜냐하면노동이화폐나다른형태의임금으로평가받기시작하는순간부터다음사실을인정하는셈이기때문이다. 즉, 사람은스스로속박당할수밖에없는임금만을받을뿐이고, 국가가후원하는자본주의사회의전체역사는기록된것만큼좋은것이라고말이다. 임금제원리안에이미이런씩이들여있었던것이다.

그렇다면우리는출발점으로되돌아가서똑같은발달과정을다시거쳐야할까? 우리의이론가들은그러기를바라지만다행스럽게도그것은불가능하다. 우리가주장하는혁명은반드시코뮌주의혁명이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그혁명은피로물들것이고, 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논제를뒷받침하려면, 다음사실도보여줘야하는것이아닐까? 즉, 땅을공공으로소유하는형태에서는사적으로소유했을때만큼풍성한수확을결코할수없다는사실을증명해야하지않을까? 하지만그들은이사실을증명하지못했다. 사실, 관찰된사실은정반대의상황이다.

스위스보지방의코뮌을예로들어보자. 이산악지방에겨울이오면마을주민모두가숲으로나무를베러간다. 이숲은그들모두가공동으로소유하고있는곳이다. 가장열심히일하고가장주목할만한인간의힘이발휘되고드러나는시기는분명히이축제와같은노동기간때이다. 그어떤임금노동자도, 사유재산가의어떤노력도이노동에비교할수없을것이다.

혹은러시아의시골마을을한번살펴보자. 이마을에서는모든주민이코뮌소유거나코뮌이임대한틀판에서건초를베다. 여러분은그곳에서공동생산을위해서공동으로일할때사람들이얼마나큰성과를낼수있는지를볼수있을것이다. 동지들은가장많이낫질을하려고서로겨루고, 여자들도풀베는사람에게뒤지지 않으려고그뒤를따라가며열심히일한다. 이것은노동의축제이다. 이런축제에서는백여명의사람들이각자했으면머칠이걸려도끝내지못했을일을몇시간만에완성해낸다. 이런노동과비교한다면, 고립된소유자들이하는노동이란얼마나초라한대조를이루는지모른다!

사실우리는미국의개척자들과스위스, 독일, 러시아에서그리고어느프랑스시골마을들에서많은실례들을가져올수있다. 또러시아에서석공, 목수, 뱃사람, 어부등이모인노동자협동조합 (artels : 러시아에서옛날부터있었던노동자협동조합) 들이행하는노동을예로들수도있다. 이곳에서그들은각자맡은일을하고, 생산물과이익금을중간상인의중개를거치지않고직접분배한다. 또내가보았던영국의조선소에서행해지는노동도같은원리에따라보수가지급되고있다. 우리는또한유목민부족들이행했던대규모공동수렵과성공적으로운영되는수많은공동기업을예로들수있다. 우리는이모든경우에서보여줄수있다. 임금노동자의노동이나고립된사적소유주의노동과비교해서공동으로하는작업이두말할나위없이우수하다는사실을말이다.

행복, 다시말해서신체적, 예술적, 도덕적인욕구들이충족된상태는언제나일을하는데가장강력한동기가되어왔다. 돈때문에일하는사람은필요량을겨우생산하는데비해, 자유로운노동자는자기노력에비례해서자신과다른사람들을위한휴식과취미생활이증가한다는사실을알고있기때문에분명훨씬더많은에너지와지성을일에쏟아서더많은생산물을얻을것이다. 한사람은비참한처지에빠져있다고느끼지만, 다른사람은미래에휴식과풍요가있을거라는희망을가지고있다. 여기에모든비밀이있다. 그러므로모든사람의행복을목표로삼고있고, 모든사람이즐겁게살아갈가능성이목표인사회는사람들이자유롭게할수있는일을제공할것이다. 이런노동은분명히노예제, 농노제, 임금제라고하는몰이꾼의막대기아래에서행해지는노동에비해서훨씬뛰어나고, 훨씬더많은생산을하게될것이다.

오늘날에는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자기 몫의 노동을 남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항상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노동은 본질적으로 육체노동이다. 우리가 예술가나 과학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 누구도 육체노동으로 얻어지는 것들인 땀, 옷, 도로, 배, 불, 난방 등이 없이는 예술이나 과학을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즐거움이 아무리 예술적이거나 철학적이더라도, 그것들 모두는 육체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피하려고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삶의 토대인 육체노동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육체노동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육체노동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루에 10~12 시간씩 불건 강한 일터에 갇혀 있어야 하는 현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20~30 년 동안 어찌 평생 동안 똑같은 일에 매여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육체노동은 변변찮은 임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일의 부족, 빈번하게 빈곤이라는 운명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잘먹이고, 잘입히고, 즐겁게 살게 하고,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흔히 40 년 동안 일한다는 병원에서 죽어갈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육체노동은 평생 동안 열등함이라는 낙인을 달고 사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육체노동자들은 항상 정신노동자들보다 열등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10 시간씩 힘들게 일해야 하는 사람은 학문이나 예술이라는 고상한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제공해 줄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다. 심지어는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킬 만한 시간도 방법도 없다. 그는 특권층 사람들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 아래서는 육체노동이 저주스런 운명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 하나의 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즉, 이런 열등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고 자기 아이들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꿈 말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독립된 지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역시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육체노동자에게 급과 정신노동자에게 급이 있고 검은 손과 하얀 손이 있는 한 상황은 똑같은 것이다.

실제로 어느 노동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평범함, 빈곤,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그가 이율치한 노동에 무슨 흥미를 가지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자신들의 불쾌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때면, 우리는 그들의 인내심과 일에 대한 열의에 놀라움을 느낀다.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놀라운 제도 덕분이고, 이런 웃기는 임금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임금 격차는 세금, 정부의 보호, 자본가의 독점 등이 복합된 결과 처럼 보인다. 간단히 말해, 국가와 자본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모든 임금이론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나 중에도 안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론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집산주의적인 임금 격차가 개선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느 장관이 노동자가 1 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하루에 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기능공이 일반 노동자보다 두세 배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것은 평등을 향한 위대한 걸음일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 한 걸음은 진보와는 반대로 가는 한 걸음이다. 새로운 사회에서 단순 노동과 전문 노동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굴복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잔인한 현실을 하나의 원리로 인정하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1789 년 8 월 4 일 프랑스 의회의 신사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모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들은 그날 귀족의 봉건적 권리를 폐지한다고 선언했지만, 8 월 8 일에는 농민들이 귀족들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혁명의 보호 아래 묶어서 권리를 다시 승인했다. 또한 이것은 러시아 왕실이 했던 일을 똑같이 모방하는 일일 것이다. 러시아 왕실은 농노 해방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전에 농노들의 것으로 간주된 이 토지들이 앞으로는 귀족들의 소유라고 선포했다.

또는 더 잘 알려진 예를 들어 볼 수도 있다. 가령, 1871 년 파리 코뮌은 코뮌 의회의 의원에게는 하루 12 실링 6 펜스를 지급하는 반면, 방벽을 방어하는 동맹군들에게는 고작 1 실링 3 펜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월하고 민주적인 평등 행위로 갈채를 받았다. 사실, 코뮌은 관리와 병사 사이, 통치자와 피 지배자 사이에 있었던 예전의 불평등을 그대로 승인했을 뿐이다. 이런 결정이 기회주의자들이 구성했던 예전의 프랑스 하원에서 나왔다면 칭찬할 만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코뮌은 자신의 혁명적 원리를 실천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운명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존하는 우리의 사회 체제 아래에서는 장관이 1 년에 4 천 파운드를 받는 반면, 노동자는 1 년에 40 파운드나 그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데 만족해야 한다. 공장 감독은 노동자보다 두세 배 많이 받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온갖 차이가 존재해서 하루에 8 실링을 받는 사람부터 3 펜스를 받는 농부 딸까지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장관이 받는 높은 봉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8 실링을 받는 노동자와 3 펜스를 받는 가난한 여성 사이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출신 성분의 특권뿐만 아니라 교육의 특권도 폐지하라!”

분야의육체노동간에도똑같이적용되는게합리적이라고말이다. 그는다른식의 결론을내릴수가없었다. 왜냐하면그자신이라리카도의가치이론을받아들였고, 상품의교환가치는그생산에서사회적으로필요한노동의양에비례한다는이론을지지했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는이것이무슨생각인지를안다. 만일엔지니어, 과학자, 의사가단순노동자보다 10 배 100 배많은보수를받고, 직조공이농업노동자보다 3 배나많은보수를받고성냥공장에서일하는소녀보다 10 배더많은보수를받는다면, 그이유는그들의‘생산비용’때문이라교육의독점과산업의독점때문이다. 엔지니어, 과학자, 의사들은졸업증서나자격증이라는자기의자본을이용하고있을뿐이다. 마치중산층공장주가공장을이용하고귀족들이자기의작위를이용하는것처럼말이다.

어떤엔지니어에게단순노무자보다 20 배많은보수를지급하는고용주의경우도, 단순히개인적인이해관계때문에그렇게하는것이다. 만일그엔지니어가생산비용을 1 년에 4 천파운드절약해준다면, 공장주는그에게 800 파운드를지급할것이다. 그리고노동자들을교활하게착취해서 400 파운드를절약하게해주는감독관이있다면, 공장주는기꺼이그에게 1 년에 80 파운드나 120 파운드를더줄것이다. 자기가 400 파운드의이익을더얻을수있다고예상할때공장주는 40 파운드의추가비용정도는나눠줄것이다. 이것이바로자본주의체제의본질이다. 이와똑같은구별이서로다른육체노동직업들사이에서도행해지고있다.

그러므로그들이우리에게이런이야기를하게놔두지말자. 즉, 숙련노동자의대가를높이는‘생산비용’에대해말하게놔두지말자. 그리고대학에서즐겁게보내고있는어떤학생이 11 살때부터광산에서일하며창백하게시들어가고있는광부의아들보다 10 배나많은임금을받을권리가있다고말하게놔두지말자. 또직조공은농업노동자보다서너배많은임금을받을권리가있다고말하게놔두지말자. 직조공에게일을가르치는데드는비용이농업노동자에게일을가르치는데드는비용보다 4 배나많이들지는않는다. 그직조공은아직산업이발달하지않는나라들과의국제무역에서직조산업이거둬들이고있는이익때문에득을보고있을뿐이다. 그리고토지를경작하는것보다산업을더선호하는모든국가들이허락한특권으로말미암아이익을얻고있을뿐이다.

지금까지어느누구도생산자의생산비용을정확히측정해본적이었다. 비록귀족출신의게으름뱅이에대해서는노동자보다훨씬더많은비용을사회가부담하고있을지라도, 여전히다음과같은사실을살펴보아야한다. 즉, 가난한사람들의유아사망률, 빈혈로인한피해, 때이른죽음을고려해보았을때사회가건강한일용직노무자에게숙련공에비해서더많은비용을치르고있는것은아닌지말이다.

예를들어그들이다음과같은점을우리에게설득시킬수있을까? 즉, 파리의여직공에게지급되는 1 실링 3 펜스, 레이스짜는일을전혀모르고자란오베르뉴지방의농부딸이받는 3 펜스, 농부에게지급되는 1 실링 8 펜스는그들의‘생산비용’을나타내준다는이야기말이다. 우리는이보다더적게받으며일하는사람들을

또한기계처럼맹목적으로주어진명령에복종하게된그들의습관, 미래에대한희망도없이비참한삶으로이끌어가는그들의습관에도놀라움을느낀다. 그들은언젠가자신이, 혹은적어도자기아이들만이라고인류가쌍은부에참여하리라는희미한예상조차없이그런일을하고있다. 이러한부는풍요로운자연의온갖보물들, 지식의향유, 과학적이고예술적인창조같은것들인데, 오늘날에는소수특권층만이누리는것들이다.

우리가임금제를폐지하고싶어하고사회혁명을원하는것은, 바로이육체노동과정신노동사이의분리를분명히끝장내기위해서이다. 그렇게되면노동은더이상저주스러운운명으로여겨지지않을것이다. 노동은원래그래야하는것, 인간의모든능력을자유롭게훈련하고자유롭게사용하는것이될것이다. 더 나아가이제는임금제의채찍아래에서언어전다고알려져있는우월한노동에관한이신화를진지하게분석해봐야할때이다.

현대산업의특징인인간에너지의막대한낭비를이해하기위해서는, 우리가이따금씩조사하는시범공장들과작업장들이아니라수많은평범한공장을방문하는걸로충분할것이다. 약간이나마합리적으로조직되고운영되는공장이란곳에있다면, 인간의노동이낭비되는공장은백여개가넘기때문이다. 그런곳들은고용주에게아마하루에몇파운드를덜어다주는것말고는아무런실질적인동기도없이인간의노동이낭비되고있다.

이런곳에서여러분은 20~25 살나이의청년들이하루종일기다란작업대의자에앉아있는모습을본다. 그들은가슴을꼭수그리고열병에걸린것처럼머리와몸을떨면서, 요술쟁이처럼빠른속도로레이스직조기의부산물인면실부스러기의양끝을잡아매고있다. 부들부들떨리고금방이라도쓰러질것같은이몸통들이자기들나라에어떤자손을남겨놓을까? “그렇지만그들은공장에서정말로공간을거의차지하지않으며, 각자가매일나에게 6 펜스의이익을갓다준다”고고용주는말할것이다.

런던에있는어느커다란공장에서우리는 17 살의나이에이미대머리가된소녀들을보았다. 바퀴가달린가장단순한기계로성냥을작업대까지나르며되는데도, 이소녀들은성냥을담은낮은상자들을직접머리에이고서옮기느라그렇게된것이다.

그러나고용주는이렇게말할것이다.

“그렇게하면비용이거의안든다. 특별한직업이없는여성들의노동력은너무나싸다! 그런데왜우리가기계를쓰겠는가? 여자들이더이상일을못하게되면, 쉽게다른사람으로대신할수있다. 거리에는이런여자들이가득하다!”

공공얼어붙는추운밤에여러분은맨발의아이가팔에신문꾸러미를안고서부자의저택계단위에잠들어있는모습을볼것이다. 아동노동은위낙싸게먹히기때문에쉽게일을시킬수있다. 매일저녁마다 10 페니가량되는신문을파는가난한아이는고작 1 페니나 1 페니반을받을것이다. 그리고여러분은모든대도시에서몇달간실업자로지내고있는건장한남자들이무거운발걸음으로거리를헤매고있

는 모습을 계속 볼 것이다. 그동안 그들의 딸들은 식물공장의 과열된 증기 속에서 창백해지고 있고, 아들들은 손으로 구두약통을 채우고 있거나, 기술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 채소바구니를 나르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18 살이나 20 살이 되면 정기적으로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스크바까지, 나폴리에 서스톡홀름까지 인간 에너지의 낭비는 우리 산업에서 눈에 띄는 우세한 특성이자, 낭비가 어마어마한 비율에 이르는 상업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조차 없다. 정치경제학을 ‘임금제도 아래서의 낭비와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이 이름은 얼마나 슬픈 풍자인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잘 조직된 공장의 감독관에게 물어보면, 그는 순진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즉, 오늘날에는 숙련된 기술이 있고, 건강하며, 원기왕성한 노동자, 일할 의지가 있는 노동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일 자리를 구하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20~30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들이 보이면, 우리는 분명 그를 고용한다. 비록 지금 일하는 노동자 수를 줄이더라도 말이다. 그런 사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항상 고용된다. 다음 날에는 나이가 들고 할기가 덜한 노동자를 해고해야 할지라도 말이다.”

그리하여 방금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 그리고 미래에 해고 통지를 받을 사람은 모두 실업자라는 거대한 산업 예비군 부대에 강제 편입되게 된다. 이들은 오로지 작업량이 많을 때나 파업자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만 직조기와 작업대로 올라가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가 한산해 지자마자, 좀 나은 등급의 공장들에서 해고된 일반 노동자들은 어떠할까? 그들 역시 나이가 들고 서투른 노동자 로 이루어진 가공할 만한 실업자 군단에 들어가서 이유 공장들을 계속 전전해야 한다. 이런 이유 공장들은 자신의 고객들, 특히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속임수를 쓰고 고를 가미를 씌워서 간신히 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말을 걸게 되면, 여러분은 곧 이런 공장들에서는 절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싸구려 임금에는 싸구려 노동으로!”

이것이 바로 그런 공장들에 간 노동자가 동료로부터 받게 되는 충고이다. 노동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관대한 기분으로 순간에 고용주의 간청에 넘어가서 긴급한 주문에 맞추려고 강도 높은 일을 하는데 동의하면, 앞으로는 이런 심한 노동이 임금 비율을 정할 때 규칙으로 강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생산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어떤 산업에서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이 제한된다. 그러면 때때로 ‘살살 해라’라는 암호가 쓰이는데, 그 의미는 ‘형편 없는 임금에는 형편 없는 노동으로!’이다.

임금 노동은 노예 노동이다. 임금 노동은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생산하지 않으며, 생산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임금제가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데 가장 좋은 동기라는 신화에 의혹을 제기할 가장 좋은 때이다. 오늘날의 산업이 우리네 할아버지 시대보다 백배나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18 세기 말에 자연 과학과 화

산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생산에 기여한 몫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인데도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한 해보이다. 사회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원리, 끊임없이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원리에 토대를 둘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이런 제도를 갖게 된 나라나 코뮌은 어쩔 수 없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코뮌주의 사회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III

이미 말했던 것처럼 어떤 집산주의자 저술가들은 숙련 노동이나 전문 노동과 단순 노동 사이에 차별이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엔지니어, 건축가, 의사의 한 시간 노동은 대장장이, 벽돌공, 간호사의 두 시간 노동과 같이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훈련 기간이 필요한 직업과 단순한 일용직 노동 같은 온갖 종류의 직업 사이에 이와 같은 구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구별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노동자들과 그들을 지배한다고 우기는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계급으로 사회를 분할한다는 뜻이다. 즉, 거칠고 딱딱해진 손을 가진 하층 계급 위에 지식을 가진 귀족 계급이 위치하고 있고, 한 쪽은 다른 쪽을 위해서 봉사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한 쪽은 다른 쪽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하기 위해 육체 노동을 하고, 덕분에 여가를 얻은 다른 쪽 사람들은 자기들을 양육해주는 육체 노동자들을 지배할 방법을 연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지금 사회의 두 드러지게 이상한 특성 하나를 다시 부활시켜서 사회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너져 가는 우리의 오래된 사회에서 이미 악습이라고 선고 받은 원리를 다시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에 어떤 대답이 돌아올 지를 우리는 안다. 그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임금 격차가 존재할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마르크스를 인용할 것이다. 가령, 엔지니어의 ‘노동력’은 막일꾼의 ‘노동력’보다 사회에 더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사실,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던가? 즉, 엔지니어가 막일꾼보다 20 배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엔지니어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막일꾼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도 주장하지 않았던가? 이런 구분은 두 가지

이에대해서국가는 1 시간짜리노동전표를 8 천장지불할것이고, 이 8 천장의노동전표는철강노동자들사이에서적당하다고여기는방법으로분배될것이다.

한편 100 명의광부가 8 천톤의석탄을캐는데 20 일이걸렸고, 석탄은톤당 2 시간어치의값이나간다. 그러면광부조합은 1 시간짜리노동전표를 1 만 6 천장받아서자기들의평가에따라서회원들과분배할것이다. 만약광부들이강철은톤당 8 시간이나아니라 6 시간어치의가치밖에없다고항의하고, 또교수가간호사보다보수를 4 배더받기를바란다면, 국가가개입해서그런불화를조정할것이다.

한마디로집산주의자들이사회혁명을통해보고싶어하는체제는이런식이다. 알다시피그들의원리는다음과같다. 즉, 생산수단을집단적으로소유하고, 생산에소요된시간에따라각자에게보수를지급하며, 그럴때각자의노동생산성을고려한다. 정치제도의경우에는의회제가될텐데, 이것은선출된사람들에게내려지는적극적인지시와국민이찬성과반대를할수있는국민투표에의해수정되는의회제이다. 우리에게이체제는단순히실현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는사실을인정하자.

집산주의자들은사유재산의폐지라는혁명적원리를선언하면서시작한다. 그리고얼마지나지않아사유재산에서비롯된생산과소비조직을지지함으로써곧바로그원리를부정한다. 그들은혁명적원리를선언하지만, 이원리가필연적으로가져오게될결과들을무시한다. 그들은토지, 공장, 도로, 자본같은노동수단의사적소유를폐지한다는바로그사실자체는사회가완전히새로운경로를나간다는뜻임을잊고있다. 그들은사적소유를폐지하면현재의생산시스템을그수단뿐만이아니라목적까지완전히폐지해야한다는사실을잊고있다. 토지, 기계, 그외모든생산수단이공동자산으로간주되자마자, 개인들사이의일상적관계도변화해야한다는점을잊고있는것이다.

그들은“사유재산은없다”라고말한뒤, 얼마지나지않아일상생활에서나타나는사적소유를유지하려고애를쓴다. “생산에관한한여러분은모두코뮌이어야한다. 즉, 논밭, 도구들, 기계같은지금까지고안된모든것과, 공장, 철도, 부두, 광산같은것들이모두여러분의것이라는뜻이다. 이런공동자산을각자에게분배하는일에서는어떤근소한차이도두지않을것이다.”

“하지만내일부터여러분은새로운기계의제작이나새로운광산의채굴에서자신이받을몹에관해상세하게논의할것이다. 새로운생산의어떤부분이여러분에게속하는지를신중하게짚것이다. 여러분은자기가한노동시간을상세하게계산하고, 이웃들이 1 분의노동시간으로여러분보다더많은것을구매하는것이아닌지신경을쓸것이다.”

“1 시간으로아무것도측정할수없는경우, 또어떤공장에서는노동자가한꺼번에 6 대의직조기를지켜볼수있는데비해, 다른공장에서는고작 2 대만을지켜보는경우에는, 자신이사용한근육의힘, 두뇌에너지, 신경에너지를측정할것이다. 미래의생산에기여할각자의시간을측정하기위해서훈련기간을정확하게계

학이폭발적으로발전했기때문이다. 즉, 생산력은임금제라는자본주의적제도때문에늘어난것이아니라, 이런제도에도불구하고늘어난것이다.

III

이문제를진지하게연구해온사람들은코뮌주의의어떤장점도부정하지않는다. 다만이코뮌주의가완전히자유롭다는조건, 말하자면아나키즘적코뮌주의라고잘이해되었을경우에그러하다. 그들은돈으로지불되는노동은임금제의특징을계속가지고있을것이고, 그단점도계속유지할것이라는사실을알고있다. 설령그돈이국가의지배를받는노동자연합에서발행하는‘노동전표’라는이름으로변장한다고하더라도말이다.

그들은사회가생산수단을손에넣게되었을지라도, 임금제때문에곧전체체제가통발게되리라는점에동의한다. 그리고그들은인정한다. 모든아이에게‘통합적인’완전한교육이행해지고, 근면하게일하는문명화된사회의습관과직업을선택하고바꿀수있는자유가있고, 모두의행복을위해서평등하게수행되는일의매력이있는코뮌주의사회에서는, 생산하는사람들이부족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말이다. 그리고이생산자들이땅을 3~10 배더비옥하게만들것이고산업에서로운자금을줄것이라는점도인정한다.

우리의반대자들도동의한다. 그들은이렇게말한다.

“그렇지만위험은소수의부랑자로부터올것이다. 그들은유쾌하게일할수있는우수한조건인데도정기적으로일하는습관이없는사람들이다. 오늘날에는굶주림이닥쳐올지도모른다는두려움때문에가장반항적인사람들도할수없이다른사람들과함께일하고있다. 정시에출근하지않는사람은해고된다. 하지만한마리의검은양은하얀양떼전체를물들이기에충분하다. 두세명의게으르고반항하는노동자가다른사람들을나쁜길로끌어들일것이고, 그러면작업장에무질서와반항의기운이감돌게되어서작업이체대로되지않을것이다. 그렇게되면결국우리는이주모자들을제자리로보내도록하는강제적인시스템으로다시돌아가야할것이다. 그렇다면수행한노동량에비례해서임금을주는제도가이런강제를실행시킬수있는유일한방법이아니겠는가? 노동자의독립적인정서를상하게하지않으면서말이다. 다른모든방법은자유로운사람들의비위에거슬리는끓임없는권위의간섭을의미할것이기때문이다.”

우리생각으로는이것이비교적명료하게설명된반론이다. 우선첫째로, 이런반론은국가, 형법, 재판관, 교도관을정당화하려는주장과같은부류에속한다.

권위주의자들은말한다.

“사회적관습에따르지않는사람들이아주소수라도있는한, 우리는치안판사, 법정, 감옥을유지해야한다. 비록이런기관들이갖가지새로운악의원천이된다고해도말이다.”

그러므로우리는권위주의와관련해서일반적으로자주해왔던말을반복할수밖에없다.

“당신은있을법한악을피하기위해서그자체가더거대한악인방법을쓰고있다. 그리고이방법은당신이고치고싶어했던것과똑같은악의원천이되고있다. 왜냐하면노동자가자기노동력을팔지않으면살아갈수없게만드는임금제가지금의자본주의체제를만들어낸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당신은여기서생기는해악들을인정하기시작하고있다. 이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

게다가권위주의자들이사용하는이런식의논법은현존체제의해악들을정당화하는역지이론일뿐이다. 임금제도는코뮌주의의단점들을없애기위해서만들어진것이아니다. 임금제의기원은국가나사적소유의기원과마찬가지로어느곳에서든찾을수있다. 임금제도는강제로만들어진노예제도와농노제에서생겨났으며, 단지현대적으로겉모양을바꾼것에불과하다. 그러므로임금제를옹호하는주장은사유재산과국가를변호하려는주장과마찬가지로무가치한것이다. 그럼에도우리는이반론을살펴보고, 혹시그안에일말의진실이있는지를알아보려고한다.

우선첫째로, 자유로운노동의원리에기초해서세워진사회가일하지않는게으름뱅이에의해서정말로위협당하고있다면, 그사회가오늘날과같은권위주의적제도없이, 그리고임금제에의지하지않고서도스스로를보호할수있다는사실이분명하지않겠는가?

어떤특정한사업을위해서힘을합치고있는자원자단체를예로들어보자. 자원자들은모두이일이성공하기를진심으로바라면서의욕적으로일한다. 빈번히자기자리를비우는한회원만빼고말이다. 그렇다고그들이그한사람때문에단체를해산하거나, 대표를뽑아벌금을부과하거나, 벌칙을만들어야할까? 분명히그어떤것도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자신들의사업을위태롭게만드는그동료는어느날이런말을듣게될것이다.

“친구여, 우리는당신과함께일하고싶소. 하지만당신이수시로자리를비우고, 당신이맡은일을소홀하고있기때문에, 우리는서로헤어져야하겠소. 다른곳으로가서당신의태만함을참아줄만한다른동지들을찾아보시오!”

이방법은워낙자연스럽기때문에심지어오늘날에도도처에서실행되고있다. 이방법은모든산업영역에서벌금제도, 임금삭감, 감독제도같은모든가능한제도와경쟁하면서실행되고있다. 노동자는정해진시간에공장으로들어가긴하지만, 그가자기일을형편없게하거나게으름이나다른결점들로동료들을방해한다면, 또는그가싸우기를좋아한다면, 그걸로끝이날것이다. 그는어쩔수없이작업장을떠나야할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집산주의자들이선전하고있는이노동보상제도를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하자. (여전히자기들을집산주의자라고부르고있는스페인이나키스트들은, 집산주의를모든생산수단의공동소유란뜻으로이해하고있다. 그리고집산주의가‘각각의집단이코뮌주의나다른원리에따라서자기들이적합하게생각하는대로생산물을분배할자유’를뜻한다고보고있다.)

요컨대이런것이다. 모든사람이논밭, 공장, 학교, 병원등에서일을한다. 노동하는날은국가에의해정해져있다. 국가는땅, 공장, 도로등을소유한다. 일하는날은모두노동전표로지불되며, 이노동전표에는‘8 시간노동’이라고쓰여있다. 이수표를가지고노동자는국가혹은다양한법인체들이소유한가게에서온갖종류의상품을구매할수있다. 이수표는나누어서계산될수있어서한시간노동어치의고기, 심분노동어치의성냥, 반시간노동어치의담배를살수있다. 집산주의혁명이이루어진후에는‘2 펜스짜리비누’라고말하는대신‘5 분노동어치의비누’라고말해야할것이다.

대부분의집산주의자는중산층경제학자들 (그리고마르크스) 이구분한숙련노동과단순노동간의구별을성실하게따른다. 게다가그들은이렇게말한다. 숙련노동혹은전문노동은단순노동보다어느정도보수를더받아야한다고말이다. 따라서의사의 1 시간노동은간호사의 2~3 시간노동과똑같은것으로간주되어야하고, 비숙련노동자인막일꾼의 3~5 시간노동과똑같이여겨질것이다. “전문노동이나숙련노동은단순노동보다더많이받을것이다. 왜냐하면이런종류의노동은다소오랜훈련기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라고집산주의자인그뢴룬트(Grönlund)⁹⁰는말하고있다.

프랑스의마르크스주의자인게드⁹¹ 같은다른집산주의자들은이런구별을하지않는다. 그들은‘임금의평등’을주장하고있다. 의사, 교사, 교수는막일꾼과똑같은임금을 (노동전표로) 받을것이다. 병원에서환자를 8 시간간병하는일은토목작업을하거나광산이나공장에서 8 시간일한것과똑같은가치를가질것이다.

어떤이들은더욱양보를한다. 그들은도시의하수구청소처럼불쾌하고불건강한노동에는쾌적한노동보다더많은보수를지불해야함을인정한다. 그들은하수구청소부의 1 시간노동은교수의 2 시간노동만큼가치가있다고말한다. 몇몇집산주의자들은수행한일에대한다가를일괄로지급받는법인체협동조합을인정하고있다는점을덧붙이자. 이법인체는이렇게말할것이다.

“여기 100 톤의강철이있고, 그걸생산하는데 100 명의노동자가 10 일동안 일하는게필요하다. 그들의노동시간은하루에 8 시간이므로강철 100 톤을생산하는데 8 천시간이걸린다. 톤당 8 시간이걸린셈이다.”

⁹⁰ 미국의변호사, 작가, 정치운동가 (Laurence Grönlund, 1846-1899). 마르크스와라살의 국제사회주의개념을처음으로미국에도입한사람으로, 미국의사회주의운동에영향을미쳤다.

⁹¹ 프랑스의사회주의자연론인 (Jules Guesde, 1845-1922).

쩔수없이 인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의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임금제도도 마찬가지다. 일단 사유재산의 폐지가 선언되고 모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가 도입되면, 어떻게 임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도입산주의자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즉, 그들은 ‘노동전표’의 사용을 권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집산주의자 고용주인 국가를 위해서 수행한 노동에 대한 하나의 지불방식이다.

로버트 오언 시대부터 왜 초기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전표제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들은 단순히 자본과 노동을 조화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혁명적인 조치들을 써서 자본가의 재산을 손에 넣는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또한 왜 나중에 프루동 이리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채택했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상호부조 체계에서 그는 자본을 덜 불쾌한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그럼에도 사유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사적 소유를 혐오했지만, 국가에 대항해서 개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고 보았던 것이다.

다소 부르주아적인 몇몇 경제학자들이 노동전표를 인정한다는 사실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가 임금을 노동전표로 받는지, 공화국이나 제국의 초상이 찍힌 화폐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주택, 땅, 공장들의 개인적인 소유가 파괴되지 않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어떤 경우이든 최소한 주택과 자본의 소유는 생산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전표는 이 사유재산을 유지한다는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는 해결책일 것이다.

노동전표가 보석이나 마차와 교환될 수 있는 한, 집주인은 기꺼이 집세로 그것을 받을 것이다. 또 주택과 농지 그리고 공장들이 고립된 개인 소유주에 속해 있는 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 소유주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가령, 논밭이나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허락 받는 대가, 혹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허락 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소유주들은 갖가지 필요한 것들과 교환하는 대가로 노동자들이 지불하는 금, 지폐, 수표를 받는 데 동의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도가 유지되고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한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 논밭, 공장들이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니고, 코뮌이나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경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임금제인이 노동전표를 옹호할 수 있겠는가?

II

권위주의자들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정기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유지하는 사람은 전능한 고용주와 그가 고용한 감독관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약간 복잡한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제품이 완성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기업들에서만 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하나로 단결한 노동자들, 즉 공장 전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민간 산업의 가장 관찮은 공장들에는 감독관의 수가 프랑스 공장들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훨씬 적고 영국의 국영 공장들보다도 적다.

대중의 어떤 도덕적 규범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권위주의자들은 도덕이 유지되는 것은 지방 경비대, 판사, 경찰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사들, 경찰들, 지방 경비대들이 있음에도 도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이 많을수록 범죄자도 많다!”라는 오래된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곳은 산업 분야의 작업장들에서만 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곳에서 매일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단지 처벌들만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회사들과 협동해서 일하는 어느 철도 회사의 경우에, 그 회사의 기차들이 연착하고 화물들이 역에 방치되어 있는 식으로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며, 보통은 그런 위협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상업에서는 오로지 소송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계약을 준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며, 국가가 인가한 공립 학교들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약속을 어긴 상인 중에 열에 아홉은 판사 앞이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런던처럼 상업이 활발한 곳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대다수 상인이 그 사람과의 거래를 거절하는데 충분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들 중 한 사람을 법정에서 게만들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오늘날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거래를 하는 상인들, 수송 체계를 맡고 있는 철도 회사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 자발적인 노동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왜 사용되지 않겠는가? 가령, 각각의 회원들이 다음의 약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 협회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여러분이 20 세에서 45 세나 50 세까지, 하루에 4~5 시간 동안 생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떤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조건에서, 여러분에게 집, 창고, 거리, 수송 수단, 학교, 박물관 등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원하는 생산 단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오락, 예술, 과학 등 뭐든 취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1 년 중 약 1 천 500 시간은 식량, 의복, 집을 생산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일하거나, 혹은 공공 위생이나 수송 등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전부이다. 이 노동에 대한 대가로 모든 단체가 생산한 것과 앞으로 생산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보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수많은 연합 단체 중 어느 하나도 그 동기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이 유용한 물건

을 생산하는데 완전히 무능하거나 그 일을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고립된 사람이나 병자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다면, 기꺼이 그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특별한 조건 아래서 살고 싶어했고, 대열에서 이탈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다른 시민과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몇몇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친절하게도 필요한 모든 노동을 대신 해주어서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르주아 사회의 망령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넓은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조건을 찾아보길 바란다. 아니면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원리에 따른 사회를 조직하기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더 좋아한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졌을 때, 공동체 사회가 그들을 쫓아 보내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다.

IV

개인의 완전한 자유에 실제로 기반을 둔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있는지는 아주 의심스럽다. 사실, 자본의 사적 소유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게으름이 장려되고 있음에도 병자가 아닌 한 실제로 게으른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부르주아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 틀림없이 게으른 부르주아가 있긴 하겠지만 그들 역시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와는 반대로 모든 산업체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부르주아들을 분명히 한 사람이상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 부르주아들은 자기의 특권적인 지위 덕분에 불쾌한 일은 최소화하고, 공기와 음식 등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한다. 이런 조건들 덕분에 그들은 지나치게 과로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모든 노동자를 위해서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다.

또한 이 이야기도 꼭 해야만 한다. 즉, 부자들은 자기의 특권적인 지위 덕분에 종종 사회에 완전히 쓸모가 없거나 심지어 해가 되는 일들을 한다. 그럼에도 장관, 공장 사장, 상인, 은행가 등은 어쨌든 매일 몇 시간씩은 다 소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그런 의무적인 일보다는 여가 시간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 그 일이 심중팔구 해로운 경우라고 해도 그들은 지루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중산층이 토지를 소유한 귀족 계급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자신들이 그 뒤를 이어서 대중을 지배하게 된 것은, 분명히 그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일했기 때문

13. 집산주의적 임금제도

I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계획에서 집산주의자들은 이 중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자본가의 지배를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지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바로 대의제 정부와 임금 제도이다.

소위 말하는 대의제 정부에 관해서는 종종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의 역사가 준 그 모든 교훈에도 불구하고, 집산주의자들 사이에도 적잖게 존재하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국회나 시의회의 지지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의회의 통치권이 무너지는 중이고, 사방에서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리들까지 이 통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데도, 어째서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이 제도를 옹호하는 것일까?

의회의 통치권은 중산층이 왕권에 대항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승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그야말로 중산층이 주로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체제의 지지자들은 국회나 시의회의가 한 나라나 도시를 대표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한 적이 결코 없다. 그들 중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산층의 의회 제도를 민중에게 자유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왕권의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벽으로만 이용했다.

그러나 민중이 점차 자신들의 진정한 권익을 자각하고 있고 그 권익의 다양성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는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자들은 이 제도의 단점을 완하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헛되이 상상하고 있다. 의회가 의결한 것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시도를 해보기도 했지만 실패임이 드러났다. 소수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제와 다른 의회제 유토피아가 논의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실험들을 해본 후에, 그들은 의회제가 실패라는 사실을 어

이다. 심지어 (알든모르든간에) 해로운일까지하고자들이특권적인지위를방어하는일에도엄청난힘을발휘했기때문인것이다. 만약그들이게으른자들이었다면, 벌써오래전에존재하지않게되었을것이고귀족계급처럼사라졌을것이다.

하루에 4~5 시간동안유용하고, 즐겁고, 위생적인일을하는사회에서는이중산층사람들도자기들이맡은일을완벽하게잘해낼것이다. 또그들은오늘날처럼노동자들이힘들게일하는이끔찍한작업환경을개선하지않은채일하지는않을것이다. 만약헉슬리⁸⁹가런던의재봉공장에서 5 시간정도만이라도지내야했다라면, 그는틀림없이그공장을자신의생리학연구실만큼이나위생적으로만들수있는방법을찾아내었을것이다. 다수노동자의게으름에관해서는오직속물경제학자들과박애주의자들만이그런허튼소리를감히입밖으로낼수있다.

여러분이합리적인제조업자에게질문을한다면그는이렇게말할것이다. 즉, 노동자들이게으름피울공리만하고있다면모든공장은문을닫아야할것이고, 어떤엄격한조치를취하거나어떤감시제도를써도아무소용이없을것이라고말이다. 여러분은 1887 년에영국의고용주들사이에서일어났던공포를알고있을것이다. 즉, 몇몇소수의선동가가‘살살하라’는논리, 즉‘형편없는보수에는형편없는노동으로’, ‘적당히하고, 너무열심히일하지마라. 그리고할수있는한빈둥거려라’는말들을퍼트리기시작했을때고용주들은공포에떨었던것이다. “그선동가들이노동자들을부도덕하게만들고, 우리산업을망하게하고싶어한다!”라고외친사람들은바로전날에노동자들의부도덕성과불량한작업태도를심하게욕했던바로그고용주들이었다. 하지만노동자들이고용주들이묘사한것처럼게으른사람이라면, 다시말해고용주가직장에서해고시키겠다고끊임없이위협했던게으름뱅이들이라면, “부도덕하게만든다”는말이뜻하는바가대체무엇인가?

그러므로있을수있는게으른자들에관해야기할경우, 우리는이문제가사회에존재하는소수사람의문제일뿐이라는사실을제대로이해해야한다. 그리고이소수사람에관련된법률을만들기전에그런게으름이생긴원인에대해서연구해보는것이더현명하지않을까? 이성적인안목으로관찰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잘알고있다. 학교에서공부를안하고게으르다고평가받는아이는흔히형편없는방식으로가르침을받았기때문에그저이해를못하는아이일뿐이라는사실을말이다.

또한아이가가난과비위생적인공부환경때문에생긴뇌빈혈로고통받고있어서그런경우도매우빈번하다. 그리스어나라틴어공부에는게으름을부리던아가과학을아주열심히공부할수도있는데, 특히그아가몸과손으로하는구체적인실습을받으면서배울경우에는더욱그럴것이다. 수학을잘못하는소년도우연히자신이이해하지못하는산수의원리를설명해줄수있는누군가를만나게되면, 자기반에서제일수학을잘하는학생이될수도있다. 그리고일터에서는게으름을피우는노동자도새벽에떠오르는태양을바라보며자기뒷발을일구고, 모든자연이쉬고있는밤에도다시뒷발에서일하는중일수도있다.

⁸⁹ 영국의진화생물학자이자저술가 (Tomas Henry Huxley, 1825-1898).

먼저란잘못된장소에있는물질이라는말이었다. 이와똑같은정의를게으름뱅이라고불리는사람중얼에아홉에게도적용할수있다. 그들은자신의기질이나능력에어울리지않는방향으로가서길을잃고헤매는사람들이다. 위대한인물들의전기를읽다보면, 우리는그들가운데많은이가‘게으름뱅이’였다는사실과맛닥뜨린다. 그들은자기한테맞는길을찾아낼때까지오랫동안게으르게지냈다. 그러다가길을찾은후에는지나칠만큼열심히공부하고일했다. 다윈, 스티븐슨, 그밖에많은인물이이런종류의게으름뱅이에속한다.

게으름뱅이는자신의전인생을브로치의 18 번째부분을만드는일이나시계의 100 번째부품을만드는일들을하면서보내는것을꿈쩍이도싫어하는사람일경우가아주허다하다. 반면에그는자신의왕성한기운을어딘가다른곳에쓰고싶어한다. 또한때때로그는반항아이다. 즉, 그는고용주로서여금천가지줄거움을얻도록하기위해서평생을작업대에매여있기를거부할수있는사람인것이다. 그리고자신이고용주보다머리가나쁜사람이아니라는사실도알고있으며, 자신의유일한결점은대저택에서태어나는것대신에오두막집에서태어난것뿐임을알고있다.

마지막으로, 엄청나게많은수의‘게으름뱅이’는생계를위해어쩔수없이갖게된자신의직업에대해충분히재대로알지못하기때문에게으름뱅이가된사람들이다. 그들은자신의손으로만든불완전한것들을보고는좀났게만들어보려고헛되이애를써보기도하지만, 이미몸에벤나쁜습관때문에결코성공하지못할것임을깨닫는다. 그러고나서부터그들은자기직업을싫어하기시작하고, 또다른직업은알지못한채로전반적인일을모두싫어하게된다. 수많은실패한노동자와기술자는이런이유때문에고통을겪는다.

그런반면어려서부터피아노를잘치는법을배워온사람이나, 대패, 끌, 붓, 줄을잘다루는법을배워온사람은자신이하는일이아름답다고느낀다. 이런사람은피아노치는일이나끌을쓰는일혹은줄로쇠불이를다듬는일을결코포기하지않을것이다. 그는자기가하는일에서줄거움을찾아낼것이고, 너무지나치게몰아가지않는한, 그일때문에지치지않을것이다.

게으름이라고하는하나의이름아래에서로다른원인들때문에생긴일련의결과들이함께모여있다. 이것들각각은사회에악의원천이되는대신에선의원천이될수도있는것들이다. 범죄와관련된문제와인간의능력들과관련된문제처럼서로아무런공통점이없는사실들이함께모여있는것이다. 사람들은그원인을분석해보려는노력도하지않으면서, 게으름이나범죄에관해야기를한다. 그들은처벌자체가‘게으름’이나‘범죄’를유발하는것이아닌지자세히조사해보지도않고성급하게이잘못들을처벌하려고한다. (크로포트킨: 『러시아와프랑스의감옥』, 런던, 1887)

이러한이유로자유로운사회에서는게으른사람들의수가증가하는것을보게되면, 맨먼저게으름의원인을알아볼생각을분명하게될것이다. 처벌이라는수단을쓰기전에먼저그것을가라앉히기위해서이다. 우리가이미말했던것처럼단순

히빈혈문제라면, 아이의머릿속에과학지식을채워넣기전에몸이피를만들어낼수있도록영양을공급해주고원기를복돋아줄것이다. 그리고아이가공연히시간을허비하지않도록시골이나바닷가로데리고갈것이다. 그곳의탁트인야외공간에서그를가르쳐보라. 책에있는기하학이아니라뽕죽한탐까지의거리를재거나나무의높이를재는식으로기하학을가르쳐보라. 들꽃을꺾고바다에서낙시를하면서자연과학을가르쳐보라. 하지만제발아이의머릿속에고전어문장들이나죽은언어들을채워넣지는마라. 아이를공부못하는게으름뱅이로만들지마라!

아니면, 여기정리정돈을못하고규칙적인습관을갖지못한아이가있다. 아이들은먼저자기들사이에서질서를서로가르치도록놔두어야한다. 그리고나중에는지혜로운교사의지도아래실험실과실습장이라는제한된공간에서많은도구들을가지고하는일들이아이에게정돈하는방법을가르쳐줄것이다.

그러나여러분의학교의해서아이들을무질서한존재로만들어서는안된다. 그런학교에서질서란고작결상들이줄지어배치된것일뿐이고, 그학교에서행해지는가르침은혼란의참모습일뿐이다. 그런질서는어느누구에게도결코조화에대한사랑, 그리고일관성과올바르게일하는방법에대한사랑을불어넣지못할것이다.

여러분은알고있지않는가? 여러분이가르치는방법은 800 만명의서로다른능력을나타내는 800 만의학생들을위한답시고단하나의부서가고안한것이다. 그리고이런방법은오직일반적인수준에맞도록고안된, 학습체계일뿐이다. 여러분의학교는게으름을가르치는학교가되어가고있다. 감옥이범죄를가르치는대학인것처럼말이다. 그러니학교를자유롭게만들여라. 대학의학점제를폐지하고, 자원해서가르치려는사람들에게호소하라. 단지게으름을늘리는데기여할뿐인법을만드는것대신에이런식으로시작하라.

평생어떤물건의작은부품을만드는운명을받아들일수없다고말하는노동자에게는다른기회를주어라. 구멍뚫는소형기계때문에숨이막힐것같아서결국자기일을몸시 싫어하게된노동자에게도다른기회를주어라. 그런사람에게는땅을경작하거나, 숲에서나무를베거나, 폭풍우치는바다에서항해를하게하거나, 기관차를타고힘차게바람을가를수있는기회를주어라. 하지만그로하여금일생동안작은기계에만매여있게하거나, 나사못의끝을갈고있거나, 바늘귀를뚫는일에종사하게해서그를게으른사람으로만들지는말아야한다.

게으름의원인을없애라. 그러면일하는것을정말로싫어하는개인은거의없다는사실을당연하게생각할것이다. 특히자발적으로하는노동을싫어하는사람들은거의없고, 그들때문에법률을만들필요는전혀없다는것을당연하게생각할것이다.

는아마앞으로 30~40 년혹은 100 년을살게될것이다. 그래서농부의손자들도
이나무의열매들을따먹을수있을것이다. 혹은농부가몇에이커의미개척지를개
간할수도있다. 그러면미래세대에게남겨진유산이그만큼늘어났다고말할수있
다. 이런식으로도로, 다리, 운하, 집과가구들은다음세대에게전해지는많은‘부’
가되는것이다.

그러나우리가의미하는바는이런것이아니다. 우리는농부가자기가소비하는
것보다더많이생산한다는말을듣고있다. 하지만그들은오�히려이렇게말해야한
다. 국가가언제나농부가생산한것중많은양을세금으로빼앗아가고있다고말이
다. 성직자들은십일조현금으로빼앗아가고, 지주는지대로빼앗아가고있다. 예
전에는모든계급의사람들이자신들이생산한것을직접소비했다. 예상치못한사
고, 조립사업이나도로사업등에드는비용을따로남겨놓는것을제외하고는말이
다. 하지만오늘날생산하는사람들은어쩔수없이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식으로
근근이살아가고있고, 나머지생산물은국가, 지주, 성직자, 고리대금업자가빼앗
아가고있다.

그러므로우리는이렇게말할것이다. 농업노동자와산업노동자들은자기들이
생산한것보다덜소비하고있다고말이다. 왜냐하면그들은생산물의대부분을강
제로팔아야만하고나머지아주작은부분만을가지고만족해야하는실정이기때문
이다.

또한다음과같은점도주목해보자. 만약개인의필요가우리가연구하는정치경
제학의출발점이된다면, 우리는틀림없이코뮌주의에도달하게되리라는사실을
말이다. 이코뮌주의는가장철저하고경제적인방식으로우리의모든필요와욕구
를충족시켜줄수있는체제이다. 이와는달리, 우리의생산이필요를충족시키는데
부합하는지여부를묻지도않은채현재의생산방식으로부터출발해서이익과잉여
가치를목표로삼는다면, 우리는필연적으로자본주의고착해아집산주의에도달
하게될것이다. 이들은현재의임금제도를그대로유지하는두가지다른형태의제
도일따름이다.

사실, 우리가개인과사회의필요를고려하고, 인생의여러발달단계마다나타
나는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사람들이사용하고있는수단들을고려한다면, 곧바
로우리는오늘날하고있는것처럼되는대로아무렇게나생산하는것대신에노력을
조직적으로체계화할필요가있음을알게된다. 소수의부자들이점유한부가제대
로사용되지도않은채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넘겨진다는것은일반적인이익에전
혀부합하지않는다는사실이점점분명해지고있다. 그리고우리는이런방식들때
문에 4 분의 3 이나되는사람들의필요가충족되지못하고있다는사실도알고있
다. 따라서지금처럼쓸모없는것들에인간의힘을낭비하는것은범죄와다름없는
일이라는사실도알고있다.

더나아가, 우리는모든필요한물품들을가장유익하게사용하는방법은그것들
각각을제일먼저가장절실한사람들의필요를충족시키는데쓰는것임을깨닫고있
다. 다시말해, 소위말하는상품의‘사용가치’는흔히주장되는것과달리, 단순히일

시적인변덕에좌우되는것이아니라실제욕구들을충족시킬수있는가에달려있다는뜻이다. 그러므로코뮌주의가이러한일에부합할수있는논리적인결과가된다. 다시말해, 소비, 생산, 교환의관점을전체적으로아울를수있는조직이코뮌주의라는뜻이다. 우리의의견으로는코뮌주의만이진정으로유일하게과학적인것이다.

모두의필요들을충족시킬수있는사회, 그리고이목적에맞게생산을조직하는방법을알고있는사회는산업과관련된편견들역시깨끗이쓸어없애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경제학자들이흔히주장하는‘분업이론’을깨끗하게없애야한다. 분업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논의할예정이다.

15. 분업

I

정치경제학은사회에서일어나는사실을서술하고, 그것들을지배계급의이해관계에맞게정당화하는식으로언제나제한적이었다. 그렇기때문에경제학은산업에서분업을옹호한다고선언한다. 분업이자본가에게이익을가져다주고있기때문에원리로채택된것이다.

현대경제학의아버지인아담스미스는마을의어느대장장이를보라고말했다. 대장장이가못을만드는데숙달되지않았다면힘들게일해도하루에고작200~300 개의못밖에만들어내지못할것이다. 심지어는그못들도품질이나빨것이다. 하지만못만드는일말고다른일을전혀하지않는다면, 그는하루에 2~3 천개의못을어렵잡게공급할수있을것이다. 그래서아담스미스는서둘러결론을내렸다.

“분업하라, 전문화하라, 더욱전문화하도록하라. 오로지못대가리나뿔쪽한 끝부분을만드는방법만아는대장장이들을기르자. 그러면우리는더많이생산할것이다. 우리는부유해질것이다.”

일생동안못만만들라는운명을선고받은대장장이는자기가하는일에모든흥미를잃어버릴것이다. 제한된기술을가진그는완전하고용주의처분에맡겨질것이고, 때로 1 년중넉달간일을구하지못할수도있다. 그리고다른견습생이그의자리를쉽게대신할수있게되면, 그의임금은더욱낮아질것이다. 아담스미스는이런 모든점들을생각하지않았다. 그가“분업만세, 이것이야말로우리나라를부유하게만들진정한황금광맥이다!”라고외쳤을때그리고모든사람들이그의외침에합세했을때말이다.

나중에서시몽디⁹⁵나 J.B. 세이⁹⁶가, 분업이란전국민을부유하게만들어주는커녕부자들을더욱부유하게해줄뿐이라는사실을이해했을때, 일생동안부

⁹⁵ 프랑스의경제학자이자역사학자 (Jean Sismondi, 1773-1842). 아담스미스의신봉자였으나나중에는노동자보호를주장하며사회주의의기틀을닦았다.

⁹⁶ 프랑스의경제학자 (Jean Baptiste Say, 1767-1832). 아담스미스의학설을계승, 발전시켰다. ‘세이의법칙’, ‘3 생산요소론’등을확립했다.

로치의 18 번째부품을만드는운명을선고받은노동자는점점우둔해지고가난에 빠지게된다는사실을이해하게되었을때, 주류경제학자들은무엇을제안했을까? 아무런제안도하지않았다! 그들은마음속에서조차다음과같은점을생각하지않았다. 즉, 평생동안반복적이고기계적인노동을하면서혹사당한노동자는지성과 발명정신을잃어버리게되지만, 이와반대로다양한직업을가질수있다면국민생산성이눈에띄게증가할것이라는점을말이다. 하지만지금우리가생각하려는것이바로이점이다.

그렇지만분업을영속화하고때로분업을세습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이 오직경제학자들뿐이라면, 우리는그들이줄을대로떠들라고내버려두었을것이다. 하지만이박사님들께서가르치는생각들은사람들의마음속으로스며들어가서그들이나쁜길로빠지게한다. 그리고분업, 이익, 이자, 신용등의문제가마치오래전에해결된것인양계속반복해서들다보면모든중산층사람들과노동자들역시마침내는경제학자들처럼주장하게된다. 그들도똑같은미신을신봉하는사람이되는것이다.

그래서대부분의사회주의자들, 심지어경제학의오류들을지적하는것을두려워하지않는사회주의자들조차분업을정당화하는모습을보게된다. 그들에게혁명기간동안에도동을조직하는문제에대해서이야기해보라. 그러면그들은분업이계속유지되어야한다고대답할것이다. 즉, 혁명전에당신이장식브로치를만드는일을했다면, 혁명후에도그일을계속해야한다는것이다. 혁명으로이제는하루에 5 시간이상을일할필요가없게된것은사실이지만, 평생브로치를예리하게만들어야한다.

반면다른사람들은당신이평생동안무수한브로치를만들도록기계를발명할것이다. 그리고어떤사람들은문학, 과학, 예술등보다고상한분야의전문가가될것이다. 파스퇴르⁹⁷가탄저백신을발견하도록태어났다면당신은브로치를만들기위해태어난것이다. 그리고혁명은두사람이각자맡은일을하도록내버려둘것이다. 그렇다면이것은무시무시한원리이다. 사회에너무나해악이되고개인에게는너무나잔인한것이고, 너무나많은해로움의원천이되는것이다. 그래서우리는분업이라는이끔찍한원리를다양한실례를통해서논의해보자고제안한다.

우리는분업의결과들을충분히잘알고있다. 무엇보다먼저, 우리가두계급으로분열된다는사실은분명하다. 한쪽에는생산자가있다. 그들은아주적은양만을소비하고생각하는일로부터는제외되어있다. 왜냐하면그들은단지육체노동만을하기때문이다. 그리고그들의두뇌는활발하게활동하지않기때문에일도형편없이하게된다.

반면다른쪽에는소비자들이있다. 그들은거의혹은아예아무것도생산하지않으면서도다른사람들을대신해서생각할수있는특권을가지고있다. 그리고그들

⁹⁷ 프랑스의세균학자 (Louis Pasteur, 1822-1895). 미생물의자연발생설을부정하고, 미생물이질병의원인이됨을증명했다. 저온살균법과광견병백신등을발명했다.

은육체노동을하는사람들의세계를전혀알지못하기때문에, 형편없이생각한다. 그렇게해서기계에대해서는아무것도모르면서땅에서일하는사람이있는한편, 기계를다루는사람은농업에대한모든것을무시해버린다.

현대산업의아이디어는자신이이해할수도없고이해할필요도없는기계를지켜보고있는아이와아이의주의가잠깐이라도산만해지면벌을주는공장감독이있는상황을보여준다. 산업적인농업의이상은농업노동만하는사람들을모두없애고, 여가를이용해서틈틈이증기경운기와탈곡기를운전하는사람들을배치하는것이다. 분업은사람들에게꼬리표를붙이고낙인을찍는것을뜻한다. 즉, 어떤사람은 평생공장에서바닥만고아야하고, 어떤사람은공장감독이되고, 또다른사람은광산의특정부분에서거대한석탄차를밀어야하는것이다. 하지만그들중어느누구도기계, 산업, 광산업을전체로서알지못한다. 그결과그들은일에대해정확과발명하는능력을잃어버리게된다. 현대산업의초기에는이런마음과능력들이있어서우리가그렇게나자랑스러워하는기계를만들었는데말이다.

그들은개인에게적용하고있는이분업을국가에게도적용하고싶어했다. 인류는제각기전문분야를가진나라별작업장들로나누어졌다. 우리가배운대로, 러시아는옥수수를기르기로본래부터운명지어진나라이다. 영국은면실을생산하는운명이고, 벨기에에는직물을짜는운명이다. 반면스위스는간호사나여자가정교사를훈련시키는운명이다. 더 나아가각각의도시들도전문분야를확립했다. 리옹은비단을짜는곳이고, 오베르뉴는레이스를만들고, 파리는장신구를만든다. 경제학자들은이런방식으로생산과소비가자유롭게뻗어나갈수있는광대한분야들이열렸고, 이런방식으로인류를위한무한한부의시대가바로다가왔다고말한다.

그러나이원대한야망들은기술적인지식이널리퍼지자마자재빨리사라져버렸다. 오직영국만이면직물제조와대규모철강산업의일인자이고, 오직파리만이예술적인장신구들을만들어내는식으로상황이돌아가던특정시기동안에는모든일이잘되어갔다. 경제학자들은반박당하지않고서이른바분업이라는것을주장할수있었다.

그러나새로운사고의흐름때문에모든문명국가들은점차스스로제조업을하기시작했다. 그들은그전까지다른나라에서혹은자기네식민지들로부터수입하던물품들을자기나라가직접생산하는편이유리하다는점을깨닫게되었다. 왜냐하면식민지나라들도이제는본국에서부터해방되려는목적을갖게되었기때문이다. 과학적인발견들이생산방법들을널리보편화시키는역할을했고, 따라서자국에서쉽게생산할수있는것을외국에서비싼가격으로들여올필요가없게되었다. 그리고우리는이산업혁명이오랫동안너무나견고한것으로보였던분업이론에결정타를날리는모습을이미보고있다.

16. 산업의분산

I

나폴레옹전쟁이후영국은, 18 세기말에프랑스에서나타났던주요산업들을 무너뜨리는데거의성공하고있었다. 영국은또한바다의지배자가되었으며중요한경쟁자들도전혀없었다. 영국은그상황을잘이해했고자신의특권과이익을위해서어떻게그상황을이용해야하는지도잘알았다. 그래서영국은산업에대한독점권을확립해서, 영국만이제조한상품들을이웃나라에팔때마음대로가격을정하는식으로점점더많은부를쌓아갔다.

그러나 18 세기에프랑스에서일어난부르주아혁명으로농노제가폐지되고프롤레타리아가등장하게되자, 한동안정체되었던프랑스산업이다시일어나기 시작했다. 19 세기후반부터프랑스는공업제품에서영국의종속을받지않게되었다. 오늘날에는프랑스역시수출국으로변화했다. 프랑스는 6 천만파운드가넘는공업제품을판매하고있는데이제품의 3 분의 2 는섬유제품이다. 많은프랑스인이수출분야에서일하거나무역업에종사하고있고, 그수가대략 300 만명정도로추산된다.

그러므로프랑스는더이상영국에게종속된나라가아니다. 자기차례가되자프랑스도비단이나기성복같은특정무역산업을무역에서독점하려고기를쓰고노력했으며그로부터막대한수익을거두었다. 그러나영국이면직물제품독점권을잃어버리고있는것처럼프랑스도자기의독점권을영영잃어버리는시점에와있다.

동쪽으로뻗어나가던산업은독일에다다랐다. 50 년전에독일은중요한산업분야에서생산되는대부분의산업제품들을영국과프랑스에의존하던종속국이였다. 이제는더이상그렇지않다. 지난 50 여년동안, 특히프랑스-독일전쟁이후로독일은자국의산업을완전히재조직했다. 새로지어진공장들은최고의기계설비를갖추고있다. 영국맨체스터로부터온최신의면직산업기술, 프랑스리옹에서온최신실크산업기술들이제는독일의새로운공장들도적용하고있다. 리옹과맨체스터에서는현대적인기계설비를구비하기까지노동자들두세대혹은세세대가걸렸지만독일은완전해진기계를바로도입했다. 산업의필요에따라세워진기술

학교들은공장들에지적인노동자부대를보내고있다. 이들은육체노동뿐만 아니라두뇌도잘사용할줄아는실질적인엔지니어들이다. 독일산업은맨체스터나리웅이 50 여년간의노력들과실험들이라는암중모색끝에도달한바로그지점에서 시작하고있다.

독일국내에서제조업을잘해내게되면서독일은프랑스와영국에서수입하는 것들을해마다줄여나가고있다. 독일은공업제품생산에서아시아와아프리카와 경쟁을하고있을뿐만 아니라런던과파리와도경쟁할정도가되었다. 근시안적인 프랑스사람들은프랑크푸르트조약에대해반대한다고외칠지도모른다. 또영국의제조업자들은독일의경쟁력은철도요금이익간저렴하기때문이라고설명할지도모른다. 그들은하찮은문제점들만지적하면서질질끌고있고, 거대한역사적사실을무시하고있는지도모른다.

그러나예전에는영국과프랑스가쥐고있었던주요산업들이점차동쪽으로이동하고있다는점은확실하다. 그리고주요산업들은독일이젊고, 에너지가넘치며, 지적인중산층이있고, 외국과의무역으로부자가되려고열심인나라라는점을 발견하고있다.

독일이프랑스와영국의중속에서부터벗어나서직접면직물들을생산하고, 자체적으로만든기계들을설비하고, 사실상모든필요제품들을제조하는동안에, 러시아에서도역시주요산업이뿌리를내리기시작했다. 러시아에서일어난제조업의발달은아주최근의일이라서더욱교훈적인점이많다. 1861 년농노제가폐지될 당시러시아에는거의아무런공장도없는상태였다. 기계를써서만들어야하는온갖것들, 철도, 기관차, 좋은옷감재료등이모두서유럽에서수입되었다. 20 년이지나자러시아는벌써 8 만 5 천개의공장을갖게되었으며, 러시아에서만들어지는제품들의가치도 4 배나올랐다.

낡은기계들이교체되었고오늘날러시아에서쓰고있는거의모든강철, 4 분의 3 의철, 석탄의 3 분의 2, 모든기관차, 객차, 철로, 거의모든증기선이라시아에서직접만들어지고있다. 경제학자들말대로라면, 농업지역으로남을운명이었던러시아는공업생산을하는나라로빠르게발전하고있다. 지금러시아는영국에서거의아무것도주문하지않고, 독일에는아주약간만주문하고있다.

경제학자들은이런사실들이관세때문에그런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러시아에서만들어진면직물은런던에서같은가격으로팔리고있다. 자본에는국경이없기때문에독일과영국의자본가들은자기나라의엔지니어와감독을러시아와폴란드에데리고가서공장을세우기도한다. 여기서만들어지는제품들은영국제품들과품질의우수함을두고경쟁하고있다. 앞으로관세가폐지된다면, 제조업은이익만을얻을것이다. 얼마전에도러시아에있는영국인제조업자들은서구로부터수입되는면직물과모직물제품들에또다른강타를날렸다. 그들은러시아남부와중부에거대한모직물공장들을세우고는, 영국에서가져온완벽한기계설비를갖춰놓았다. 이제러시아는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최고품질의면직물과모

정신으로활기를얻게된프랑스는땅에서함께모여작업하면서미래에대한비전을보았다.

그리고해방된사회가자신이하나임을발견하고, 지금까지그들을분열시켜온증오와억압을없애버리게되는일도다시금땅에서모두함께일하면서일것이다. 그때부터는, 사람의에너지와창조력을백배로증진시키는무한한힘인연대감을자각할수있게된새로운사회는젊음의모든활기로미래를쟁취하기위해전진해나갈것이다.

사회는알지도못하는구매자들을위해서생산하는것을그만둘것이고, 충족되어야할욕구들과취미들을사회한가운데서찾아낼것이다. 이런일들을하는사회는모든구성원들각자에게삶과안락을아낌없고공평하게보장할것이다. 마찬가지로사회는자유롭게선택하고자유롭게성취할수있는일을함으로써얻는도덕적인만족감, 그리고다른사람들의삶을침해하지않으면서살아가는기쁨역시보장할것이다.

연대감에서태어난새롭고대담한정신에영감을받은모든사람들은, 지식과예술적창조라는고상한기쁨들을쟁취하기위해서함께전진해나갈것이다. 이런정신으로고취된사회는내부의불화나외부의적들을두려워하지않을것이다. 이런사회는과거의연합세력에대해새로운조화로움으로맞설것이다.

즉, 각자의진취정신과민중의재능에대한강성에서생겨난대담함으로그들과맞설것이다. 저항할수없는이런힘앞에서는‘음모를꾸미는왕들’도무력하게될것이다. 이힘앞에무릎을꿇는일말고그들에게아무것도남은게없을것이다. 그리고그들스스로도인류라는마차에매달려서사회혁명으로새롭게열린지평선을향해달려갈수밖에없을것이다.

그리고 2~3 개월이지나서일찍수확하는것들은가장절실하게필요한사람들에게주어질것이고, 그다음에는민중에게식량을제공할것이다. 그렇게나오랜세기동안기다려온민중은최소한의배고픔을달랠수있을것이고, 나중에는원하는만큼먹게될것이다. 그러는동안민중속에있는재능있는사람들, 반란을일키고부족한것이무엇인지알고있는나라의재능있는사람들은새로운경작방법들을실험하게될것이다. 이방법들은우리가이미훑아살펴본것들이며, 이때필요한것은오로지그것을보편화시킬수있는경험이라는세례뿐이다.

빛에대한실험이이루어질것이다. 이빛은시베리아동북부야쿠츠크시의위도보다낮은곳에서도 45 일만에보리가거의익게만드는알려지지않은재배요인이다. 집중시키거나인공적으로만든빛은식물의성장을촉진시키는일에서열과경쟁하게될것이다. 미래에무쇼¹¹⁷ 같은사람은태양광선으로움직이는기계를발명해서활용할것이다. 그래서사람들은지하깊은곳에있는석탄에저장된태양열을더이상애써구할필요가없을것이다. 사람들은미생물을배양해서흙을촉촉하게유지하는실험을할것이다. 이것은옛그제막생각해낸합리적인아이디어로, 이작은생명체들을토양속에살게해서, 실뿌리에필요한양분을공급하고, 토양의구성요소들을분해하고식물이흡수하게하려는아이디어이다.

사람들은실험을할것이다. 하지만여기서이야기를멈추도록하자. 그렇지않으면공상의영역으로들어갈지도모르니까말이다. 이미사실로인정된현실세계에머무르도록하자. 지금까지말한경작방법들은이미활용되고있고, 대규모로적용되고있는중이며, 산업경쟁에서벌써승리를거두고있다. 그러므로이런방법들을이용해서우리는유쾌한노동에대한보답으로편안함과취미생활을즐길수있을것이다. 최근의과학적발견들이우리에게힐끗보여준방법들가운데무엇이실제로쓰일수있을지는가까운미래에알게될것이다. 지금은새로운길을열어두는것으로그치도록하자. 이길은사람의필요와그것을충족시키는방법들에대한연구이다.

혁명에결여되어있을지도모르는유일한것은대담한진취정신이다. 젊은시절에벌써편협한마음을갖게되고, 나이가들어서는예전습관의노예가된마음을지닌우리는도무지대담하게생각할줄을모른다. 그래서어떤새로운사상이들려오면, 용감하게자기의견을말하기전에, 우리는곰팡내나는책들을뒤지면서, 옛대가들이그주제에대해어떻게생각했는지를알아내려고한다. 만약대담한생각과진취적인사고가혁명에부족하지만않는다면, 식량문제에서실패하게되는일은없을것이다.

프랑스대혁명의모든위대한날들중에서가장아름답고가장위대한하루는, 프랑스전역에서파리로온대표자들이‘연맹축제’를준비하기위해서, 상드마르스광장에모여삽으로땅을평평하게고르던날이었다. 그날프랑스는하나였다. 새로운

직물만을수입하고있다. 나머지는국내에서제조되고있으며, 공장과가내공업모두에서생산된다.

주요산업들은동쪽뿐만이아니라남쪽의반도로도퍼져나가고있다. 1884 년에이탈리아토리노에서개최된박람회는이탈리아의산업생산에서이루어진진보를보여주었다. 그리고다음과같은점에서도실수하지말도록하자. 즉, 프랑스와이탈리아중산층들사이에존재하는상호증오는그들간의산업적경쟁에서비롯된것일뿐이라는사실말이다. 스페인또한공업국이되어가고있는중이다. 반면동쪽에서는보헤미아⁹⁸가완벽한기계들을갖추고가장훌륭한과학적방법들을적용하면서, 갑자기새로운제조업의중심지로중요성을갖기시작했다.

우리는또한항가의주요산업에서일어난급속한발전을이야기할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그보다는브라질을여로들어보기로하자. 경제학자들은브라질에게앞으로도영원히흑화를생산해서그원재료를수출하고, 그대가로유럽에서면직물을받는나라라는선고를내렸다. 실제로 40 년전의브라질은 385 개의방적기계를가진 9 개의보잘것없는면직물공장밖에없었다. 오늘날브라질에는 150 만대의방적기와 5 만대의직조기를갖추고있는 160 개의면직물공장이있고, 해마다 5 억야드의직물을시장에내놓고있다.

심지어멕시코에서도이제는면직물을유럽에서수입하는대신아주성공적으로직접생산하고있다. 미국의경우를보면미국은유럽의감독으로부터완전히벗어났고, 자기들의상품제조능력을엄청날정도로의기양양하게발달시키고있다. 하지만국가산업의전문화에맞서는가장놀라운반대증거를보여주는나라는인도이다.

우리모두다음이론을알고있다. 즉, 위대한유럽국민은식민지를필요로한다는이론말이다. 왜냐하면식민지는면화, 가공하지않은양모, 향신료등의원재료를본국으로보내주기때문이다. 그리고본국은식민지에산업제품들을보낸다는미명아래, 실제로는손상된제품들과고철이된낡은기계등자들이더이상쓰지않는것들을모두식민지로보내버쳐분한다. 이일은비용이거의혹은전혀들지않는데도, 어떤물품들은때로터무니없이비싼가격에팔리곤한다.

이런것이그식민지이론이고오랫동안실제로실행되었던이론이다. 인도가황폐해지는동안런던과맨체스터에는부가쌓인다. 런던에있는인도박물관에는영국상인들이캘커타와봄베이에서수집한전대미문의재화(財貨) 들을볼수있다. 하지만영국의다른상인들과자본가들은다음과같은아주간단한아이디어를생각해냈다. 즉, 인도가매년 2 천만파운드에서 2 천 400 만파운드어치의면제품을수입하게하는것보다, 직접면직물을생산하게해서그곳주민들을착취하는것이훨씬편리할것이라고말이다.

처음에행해진일련의실험들은계속실패로끝났다. 수공업분야에서는나름대로장인들이고전문가인인도의직조공들은공장생활을견뎌낼수가없었고, 영국

¹¹⁷ 프랑스의물리학자 (Mouchot, 1825-1911) 로태양열실험했다.

⁹⁸ 체코슬로바키아서부지방을주로가리킨다. 원래는오스트리아에속한지역이었다.

리버풀에서 보내온 기계는 불량품이었다. 날씨도 고려해야 했고, 상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었다. 영국령 인도는 오늘날 본국인 영국과 경쟁하는 위협적인 라이벌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인도에는 대략 23 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200 개 이상의 면직물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들에는 600 만대 이상의 방적 기계와 8 만대 이상의 직조기가 있다. 그리고 40 만대의 황마 방적 공장도 있다. 인도는 매년 중국,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⁹⁹ 그리고 아프리카에 800 만 파운드 상당의 흰 면직물을 수출하는데, 이것들은 영국 특산품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자들은 때때로 실직해서 대단히 궁핍한 상태로 지내는 반면, 인도의 여성들은 하루에 6 펜스의 임금을 받으면서 극동 지방으로 보낼 면직물을 기계로 짜고 있다.

간단히 말해 영리한 제조업자들은 이전까지 영국에서 수출했던 면직물을 찢던 ‘공장 일꾼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도가 영국에서 단 1 톤의 철도 수입하지 않게 되리라는 사실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석탄과 철광석을 활용하는 일에서 생긴 초기의 어려움은 극복되고 있다. 그리고 영국과 경쟁할 만한 용광로들이 인도 양연안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식민지들은 자기가 생산한 공업 제품들을 가지고 본국과 경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20 세기의 경제를 좌우하게 될 요인이다.

그런데 왜 인도가 제조업을 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방해하는 것일까? 자본? 하지만 자본은 착취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지식? 하지만 지식은 어떤 국경도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 아니다. 인도의 노동자들이 지금 영국의 직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8 세도 안 된 수많은 소년 소녀들보다 더 열등하다는 말인가?

II

국가적인 산업들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몇몇 특별한 분야로 눈을 돌리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19 세기 전반기에 프랑스의 특산품이었던 실크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 모두는 리옹이 어떻게 실크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다. 처음에는 남부 프랑스에서 실크 원재료를 가져왔다. 그러다가 더 많은 실크 직물 제조를 위해서 점차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코카서스¹⁰⁰, 그리고 일본에 주문을 하게

⁹⁹ 현재의 인도네시아

¹⁰⁰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예전에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같은 소비에트 공화국이 있었다.

뉘주고 반페니까지 꼼꼼히 계산해야 하지만, 결국 그 돈은 자본가들과 지주들을 부유하게 해줄 뿐이다. 다만 인류가 그것을 ‘할 수 있다 (CAN)’는 점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자각이 인류에게 ‘할 것이다 (WILL)’는 힘을 부여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불어 인류가 정신적인 비겁이아 말로 지금까지 모든 혁명을 난파시켜 온 암초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VI

우리는 사회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혁명을 이야기 할 때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자기 아이들을 바라보던 노동자들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이렇게 묻는다.

“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모든 사람이 먹고 싶은 만큼 먹는데도 빵이 충분하겠소? 만일 반동 세력의 무지한 도구가 될 농민들이 우리 도시를 굶주리게만 든다면, 마치 1793 년 프랑스에서 볼렉 밴드¹¹⁶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굶주리게만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맘대로 무슨 짓이든 지 하라고 내버려 두자. 대도시들은 그들 없이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작은 작업장과 공장들에서 거의 질식 상태로 노동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유를 되찾게 되는 날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혁명 후에도 그들이 계속 공장에 갇혀 있을 것인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비축해 놓은 식량과 곡식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고기가 부족해지고, 채소들도 구경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아는데, 그들이 수출용 사치품들이나 계속 만들고 있을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들은 도시를 떠나 논밭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온 힘을 다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제도와 사상에 혁명을 가져왔듯이 예전에도 예상 태었던 경작 방법에도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수백 에이커의 땅이 유리 온실로 뒤덮일 것이고, 섬세한 손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은 어린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돌볼 것이다. 또 다른 수백 에이커는 증기 경운기로 땅을 갈 것이고, 거름을 넣어 땅을 개량하거나, 바위를 분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흙을 넣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 것이다.

이따금씩 노동을 하는 행복한 무리들은 실험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 땅을 농작물들로 뒤덮을 것이다. 그들은 농업을 잘 아는 사람들의 안내를 부분적으로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긴 잠에서 깨어나서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밝은 햇불에 환히 빛나는 민중의 위대하고 실천적인 정신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¹¹⁶ 프랑스대혁명 후 식량 등을 매점매석했던 투기자들 집단.

음이기때문이다. 하지만정원사들과원예가들은우리의주장을반박하기는커녕 더욱분명하게확증해주고있다. 19 세기에「영국원예학잡지」의편집자였고, 실제로가드너였던어떤사람은“영국에서가장유리한재배는포도재배이다”라고 쓰고있다. 알다시피가격이이사실을설득력있게말해주고있다.

이런사실들을코윈주의적인언어로옮겨보면, 우리는확실히다음과같이말할 수있다. 어떤남자나여자가 1 년동안의자기여가시간에서 20 시간을포도재배 라는대체로꽤나즐거운몇가지사소한돌봄을해준다면, 즉유렵의어떤기후든지 상관없이간단한유리덮개를해서두세그루의포도나무를보호해준다면, 그사람 은가족친구들이먹을만큼많은포도를따수있을것이라고말이다. 그리고이사 실은포도나무뿐만이아니라다른모든과일나무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코 윈은집약농법을대규모로실시할것이다. 코윈의주민은각자일년에대략 10 시 간이상을일하지않고도토착종이든외래종이든온갖가능한채소들과갖가지탐스 러운과일들을얻을것이다.

사실, 위에서이야기한것들을직접실험해서실제로증명하는것보다더쉬운일 은없다. 경운하기좋은비옥한토양 (영국근교워딩에서보았던토양) 으로이루어 진땅 100 에이커가수많은마켓가든으로전환되었다고가정해보자. 각각의밭들 은새싹들과어린묘목들을기르기위한온실들을갖추고있다. 그리고또다른 50 에 이커의땅에도온실이지어져있으며, 전체작업을조직하는일은실제적이고경험 많은프랑스의야채재배가, 건지점이나워딩의온실원예가들이맡고있다고가정 해보자.

저지점에서이 150 에이커를관리하는일에는에이커당평균 3 명이유리온실 에서일해야한다. 즉, 1 년에약 8 천 600 시간의노동이들어간다. 이걸기초로하 면, 150 에이커에는약 130 만시간이필요하다. 50 명의유능한원예가들이하루 5 시간씩노동제공하고, 나머지일은전문원예가가아닌사람들이하게된다. 이 들도곤살을쓰는법과식물을다루는법을배우게될것이다. 그러나우리가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작업으로최소한 4~5 만명이먹을과일과채소들을생산해낼수 있다. 꼭필요한채소와과일들뿐만이아니라특별한날에먹는약간호사스런것들 도생산해낼수있다. 이사람들중에 1 만 3 천 500 명의어른이기꺼이텃밭에서 일하려고한다고가정해보자. 그리고각각자는 100 시간을 1 년에걸쳐서일할수있 다. 이 정도의노동시간은아름다운정원에서친구들과아이들과함께보내는유쾌 한오락시간이될것이다. 그리고그정원은아마도전설속에나오는세미라미스¹¹⁵ 여왕의정원보다더아름다운것이다.

이것이바로우리가작성해야할균형잡힌노동의대차대조표이다. 오늘날우리 에게부족한과일을실컷먹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 그리고채소들을풍성하게먹 기위해서말이다. 오늘날주부들은신중하게이런과일과채소들을가족들에게나

¹¹⁵ 바빌론을처음세웠다고전해내려오는기원전 9 세기아시리아의여왕 (Semiramis). 미모와 지혜와호색으로유명하다.

되었다. 1875 년에리옹부근에서실크제품으로만들어진 500 만킬로그램의실 크원재료중에서프랑스것은고작 40 만킬로그램뿐이었다.

하지만리옹이실크원재료를수입해서실크를제조할수있다면, 스위스, 독일, 러시아같은나라들이왜그렇게하지않겠는가? 결국스위스취리히근방마을에서 실크제조업이발달하기시작했다. 스위스바젤은실크무역의거대한중심지가되 었다. 코카서스행정부는그루지야사람들에게완벽하게누에치는방법을가르치 고코카서스농민들에게견사를견직물로짜는기술을가르치기위해서프랑스마르 세유출신여성들과리옹출신의노동자들을고용했다. 오스트리아가그뒤를따랐 다. 그다음에는독일이리옹출신노동자들의도움을받아서거대한실크공장들을 세웠다. 마찬가지로미국도패터슨시에공장을세웠다.

오늘날실크무역은더이상프랑스가독점하는분야가아니다. 실크는독일, 오 스트리아, 미국, 영국에서도만들어지고있고, 지금프랑스에서사용되는실크제 품의 3 분의 1 은수입된것으로계산되고있다. 겨울에코카서스농민들은리옹의 실크직조공들이라면뫼주릴정도의임금을받으면서비단손수건을짜고있다. 이 탈리아와독일은프랑스로실크를보내고있다. 리옹은 1870 년에서 1874 년사 이에 4 억 6 천만프랑의실크직물을수출했지만, 지금은고작그것의절반정도밖 에수출하지못하고있다. 사실, 리옹이보다고급스러운제품들과패턴이새로운신 제품들만을독일, 러시아, 일본에보낼날이머지않았다.

그리고모든산업에서마찬가지일들이일어나고있다. 벨기에는더이상옷감을 독점하는나라가아니다. 옷감은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미국에서도만들어지 고있다. 스위스와프랑스의쥐라산맥지역은더이상시계제조를독점하고있지않 다. 시계들은어디에서나만들어지고있기때문이다. 스코틀랜드는더이상러시아 에보낼설탕을정제하지않는다. 정제된러시아설탕이영국으로수출되고있기때 문이다. 석탄과철강이나지는않지만, 이탈리아는자기네증기선에필요한금속판 과엔진을직접만들고있다.

화학산업도더이상영국이독점하고있지않다. 황산과소다는심지어우랄지 방¹⁰¹에서도만들어진다. 스위스빈터투어에서만들어진증기엔진은모든곳에서 명성을얻었다. 오늘날스위스는석탄도철도생산이안되고교역할무역항도없으 며, 가진것이아곤훌륭한기술학교들밖에없지만, 영국보다품질이 좋고더저렴한 기계들을만들고있다. 교환이론은이렇게끝이난다. 다른모든것과마찬가지로, 무역이나아가는경향은분산화로향하고있다.

모든나라들이농업을최대한으로다양한공장들과결합시키는것이유리하다 는사실을알아차리고있다. 경제학자들이소리높여외친전문화는분명히소수의 자본가들을부유하게해주고있지만, 이제는더이상별로쓸모가없다. 이와달리, 모든지역과모든나라가자기네가먹을밀과채소들을기르고소비할상품을대부분

¹⁰¹ 유럽과아시아의경계지역으로북빙양에서카스피해까지뻗은거대한우랄산맥이자리하고있 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양성이야말로 상호협동에서의 한 생산의 완전한 발달을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자 진보의 원동력이다. 반면에 전문화는 이제 진보의 방해물이다. 농업은 공장들과 가까운 곳에서만 번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공장이나 타나자마자 곧 수많은 다양한 공장들이 주위에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발명한 것을 가지고 서로를 지원하고 자극하면서 생산성을 증가시켜나갈 것이다.

III

밀을 수출하고 밀가루를 수입하는 것, 양모를 수출하고 모직물을 수입하는 것, 철을 수출하고 기계계를 수입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물품 수출에는 시간과 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불가피하게 낙후된 농업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실제로 응용해보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산업적 기술적 능력들은 발달되지 못하고 정체된 채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생산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땅을 경작하는 일도 더 이상 기계 없이, 대규모의 관개 시설 없이, 철도 없이, 비료 공장 없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기계, 철도, 관개 시설에 쓰이는 엔진 등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특정한 발명 정신과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이 발달해야 한다. 반면 삽과 쟁기가 유일한 경작 도구로 남아 있는 한 이런 정신들은 잠들어 있을 것이다.

논밭이 적절하게 경작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풍성한 수확물을 산출하려면 논밭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작업장들, 주물 공장들, 공장들이 생겨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직업의 다양성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기술의 다양성, 이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보의 진정한 힘이다. 그렇다면 이제 인구가 많은 적든 상관없이 어떤 도시 혹은 어떤 지역의 주민이 처음으로 사회 혁명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즉, 광산, 공장 등이 수용되고 국민 혹은 공동체의 소유라고 선언되고 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평상시 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혁명이 달성될 것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꿈일 뿐이다. 사회 혁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날 수 없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혁명이 앞으로 파리, 리옹, 혹은 어느 도시에서 일어 나서 노동자들이 공장, 주택, 은행 등을 손에 넣게 되면, 그렇게 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지금의 생산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국제 무역은 곧 정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외국 산 빵 재료들의 수입도 중단될 것이다. 필수품들과 식량의 유통이 마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란이 일어난 도시나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스코틀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 북부의 탄광 부근에서는 석탄 가격이 톤당 3 실링밖에 안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온실을 이용해서 포도 재배를 해왔다. 30 년 전에 이 포도는 1 월에 익어서 파운드당 20 실링에 팔렸고, 나폴레옹 3 세의 식탁에 오를 때는 파운드당 40 실링에 다시 팔렸다. 오늘날에는 같은 재배가 이 포도를 파운드당 겨우 2 실링 6 펜스에 팔고 있다. 그는 원예 학잡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엄청난 양의 포도가 1 월에 런던과 파리에 도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값싼 석탄 가격과 합리적인 영농 법 덕분에, 지금은 북쪽에서 생산된 포도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 과일들이 남쪽에서 생산되어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향과 정반대이다. 5 월에는 포도 재배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영국과 저지섬에서 온 포도들은 파운드당 8 펜스에 팔린다. 그럼에도 30 년 전에 팔리던 40 실링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로지 생산이 둔화되었을 때에만 유지된다.

3 월에는 벨기에 산 포도가 6 펜스에서 8 펜스의 가격으로 팔린다. 반면 10 월에는 런던 근교의 온실에서 인공적인 난방을 아주 약간만 해서 큰 막대한 양의 포도가 스위스와 라인강 지역의 포도원에서 팔리는 것과 같은 가격으로 팔린다. 아주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포도 재배에는 실제 팔리는 가격에 3분의 2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 이유는 과도하게 높은 토지 임대료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자들과 중간상인들이 떼어가는 만만치 않은 시설 비용과 난방 비용도 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가을에 안개가 많이 끼는 런던과 그보다 위도가 아래인 지역에서 달콤한 포도를 먹기까지는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이다. 가령, 런던 근교의 우리가 살던 시골집에 이대어 만든 온실은, 우리와 회반죽으로 된 길이 9 피트 10 인치, 넓이 6 피트 50 인치 크기의 볼품 없는 오두막 같은 곳이었다. 이곳은 9 년 동안 계속해서 10 월에 약 50 파운드의 아주 향기로운 포도를 우리에게 제공해주었고, 수확은 주로 6 년 생 함부르크 종 포도 나무에서 나왔다.

이 오두막 같은 온실은 비가 새어들어 올 정도로 형편 없는 곳이었다. 밤에는 기온이 항상 바깥 기온과 같았다. 난방을 하는 경우도 단연코 없었는데, 길 거리에 난방을 하는 것만큼이나 아무 소용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온 인관심은 매년 30 분의 시간을 들여서 포도가 지를 전지해주고, 손수레한 대분의 거름을 날라다 가온 실 밖의 붉은 점토에 심어진 포도 나무 밑동 위에 쏟아주는 것이 전부였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라인강과 스위스 레만 호수가 만나는 지역에서 포도 재배에 기울여야 하는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언덕들의 경사면에 수 많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계단식 밭, 퇴비를 운반해와서 역시 300~400 피트 높이에 있는 곳까지 나르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 스위스나 라인강변에서 포도를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노동 비용은, 런던 근교의 유리 덮개 아래서 기르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든다고 말이다.

이 결론이 역설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포도 나무는 남부 유럽에서 자라고, 그곳의 포도 재배 농부들의 노동에는 거의 비용이 안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나는이런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례들중에서가장놀라운것들을내책『농장, 공장, 작업장』에서이야기했다. 여기서는다음과같은사실을말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즉, 저지섬에서는고작한사람의숙련된정원사가포함된 34 명이온실이설치된 13 에이커에서재배를하는데, 그곳에서그들은이특별한재배법으로천톤이하의석탄을써서 143 톤의과일과일찍출하되는채소들을생산하고있다는사실이다. 이방법은지금건지섬과저지섬에서대규모로행해지고있으며, 수많은기선들이오로지온실에서얻은수확물들을수송할목적으로영국과건지섬사이를오가며운항하고있다.

오늘날우리는똑같은 500 부셀의감자를얻기위해매년 4 에이커의땅을파서일구고, 심고, 기르고, 잡초를뽑는등의일을해야한다. 반면에온실에서는, 아마도처음에는온실을세우기위해평방야드당반나절의노동을해야하긴하겠지만, 나중에는예전에필요했던 1 년노동량보다절반, 어쩌면 4 분의 3 까지절약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말한것들은사실이고, 누구나직접증명해볼수있는결과들이다. 그리고이사실들은사람이땅을합리적으로다룬다면, 그로부터얻을수있는것이무엇인지에관한암시가되고있다.

V

위에서우리가말한모든것은, 실제실험을이미통과한것을근거로한논의들이다. 논밭에서의집약농업, 물을공급받는목초지, 온실, 마지막으로유리덮개가있는가정용텃밭은모두실제로시행되고있는현실이다. 게다가요즘이경작방법들이널리퍼져가고있고보편화되는추세이다. 이방법들을쓰면더적은노동을들여서확실하게더많은수확을얻을수있기때문이다.

사실, 건지섬의가장단순한유리온실들을연구하고나서우리는다음과같은사실을확실히말할수있게되었다. 즉, 4 월에유리온실에서감자를기르는데드는노동은대체로노지에서같은양의감자를기를때필요한노동보다훨씬적게든다는사실이다. 노지에서감자를기르려면 4 배나넓은땅을파고, 물을주고, 김을매는등의노동을해야하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우수한농기구나기계를이용해도노동을절약할수있다. 그런농기구를사느라고처음에는비용을들여야할지라도말이다.

유리온실에서보통의채소들을기르는일과관련된종합적인자료는여전히부족한상태이다. 이재배방법은최근에서작되었고, 오로지작은지역들에서만행해지고있기때문이다. 그렇지만 50 여년동안일찍출하되는포도를재배해온방법에관련된자료들은이미갖고있으며, 이자료들은아주결정적이다.

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자체적으로공급을해내야하고, 생산을재조직해야한다. 만약그렇게하는데실패한다면, 그걸로끝이다. 그렇게하는데성공한다면, 그나라의경제생활은혁명적으로변화할것이다.

수입하던식량의양이줄어들고, 소비는증가하고, 수출을위해일하던 100 만명의파리시민이일자리를잃을것이다. 오늘날멀고가까운나라에서수입하고있는수많은물품들이목적지에도착하지못할것이고, 사치품교역도일시적으로정지될것이다. 그렇다면혁명이일어난뒤 6 개월동안그주민은무엇을먹어야할까?

우리생각으로는, 식량을보관했던창고들이비게되면대다수사람들이자기를이먹을음식을땅에서얻으려고애쓸것이다. 그들은땅을경작해야할필요성을느끼게될것이다. 파리근교나그지역근방에서농업생산과산업생산을결합할필요성을느낄것이다. 그들은그저자랑거리에불과한작업들을포기하고가장절박한필요인‘빵’을고려해야할것이다.

도시의수많은시민이도시농부가되어야할것이다. 지금의농부들처럼지치도록일하는방식은아니다. 지금농민들은겨우 1 년동안먹고살식량을간신히얻을수있는돈을벌려고힘들게농사일을하고있다. 하지만이제는인간이발명했고발명하게될가장훌륭한기계를대규모로적용한집약농업의원리가마켓가든¹⁰² 원리를따르는농업을하게될것이다. 도시민들은땅을경작할것이지만집나르는집승처럼일하지는않을것이다. 파리의보석상은그렇게일하기를거부할테니까말이다. 그리고미레가아니라지금당장, 혁명적인투쟁이일어나고있는동안, 적에게패배할지도모른다는두려움속에서이런일을할것이다.

농업은합리적인방식으로행해져야할것이다. 지금시대의경험을적절히활용하고, 유쾌한일을하는즐거운무리들로서스스로를조직하는남녀들에의해농사일이행해져야할것이다. 마치 100 여년전프랑스‘연맹축제’¹⁰³를위해파리의샹드마르스광장에서일했던사람들처럼말이다. 과도하게일하지는않으면서, 과학적으로조직되고, 자신이농기구들을발명하고개량하면서, 자신이공동체에쓸모있는사람임을자각한다면일은즐거운것이될것이다.

물론그들이밀과귀리만을재배하지는않을것이다. 그들은또한예전에는외국에서주문했던것들도생산할것이다. 그리고반란이일어난지역의주민들에게‘외국’이란혁명운동에가담하지않은모든지역을뜻한다는점을잊지말자.

1793 년과 1871 년에일어난혁명기간동안파리시는‘외국’이멀리떨어진나라만아니라바로같은나라안의아주가까운지역까지의미한다는사실을깨달았다. 1793 년과 1794 년에프랑스트루아시의곡물투기꾼들은파리의상퀼로

¹⁰² 시장과식당에내놓을목적으로채소와과일을재배하는방식, 일반농장보다상대적으로작으며, 직거리가많기때문에다양한채소와과일을혼작한다.

¹⁰³ 1790 년파리바스티유감옥탈환일주년을기념하기위해서 7 월 17 일에개최된축제. 축제일주일전부터약 20 만명의사람들이샹드마르스언덕을평평하게하는작업을하면서즐겁게축제를준비했다고한다.

트¹⁰⁴들을 굶어죽게만들었다. 이것은 베르사유 궁전의 음모자들에게 의해 프랑스로 들어온 독일군 대만 큼이나 추악하고 심지어는 사악한 것이었다. 반란을 일으킨 도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들 ‘외국인들’ 없이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못하겠는가? 프랑스는 나폴레옹 1세가 시행한 대륙봉쇄시기 동안에 사탕수수가 부족해지자 사탕무로 설탕을 만드는 법을 고안했다. 파리 시민은 더 이상 외국에서 초석(질산칼륨)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자기들 지하실에서 캐냈다.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우리가 과연 더 열등할까?

혁명은 주요 정치체제의 단순한 변화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은 발명정신이 10 배, 100 배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과학의 여명을 의미한다. 즉, 라플라스¹⁰⁵, 라마르크¹⁰⁶, 라부아지에¹⁰⁷ 같은 과학자들의 새로운 과학의 출현을 의미한다. 혁명은 제도들을 바꾸는 혁명보다 훨씬 깊고, 더욱 깊어져갈 인간 정신의 혁명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일단 혁명이 완수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이다. 혁명이 마치 가까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쳐가는 그런 것인 양 말이다! 무엇보다 먼저 중산층의 재산에 손을 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작업장, 조선소, 공장들에서의 경제 생활 전체를 완전히 재조직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할 것이다.

그리고 혁명은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만약 파리가 사회혁명 기간 동안 중산층의 지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1~2 년 정도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면, 아직 공장 생활에 억압당하지 않은 수많은 지식인들은 인간 정신이 무엇을 성취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즉, 발명정신을 자극하는 소규모 직업들의 도시인 파리에서 그들은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의 힘, 불순물들을 쓸어내는 바람의 힘, 우리가 딛고 선 대지에 활동하고 있는 고요한 생명력을 제외하고는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으면서 인간 정신이 무엇을 성취해 내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구상의 한 지점에서 얼마나 다양한 작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혁명에 의해 할 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직업들은 사람들에게 음식, 옷, 집을 제공해 줄 것이고, 수많은 지성적인 사람에게 온갖 사치스러운 취미까지 제공해 줄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구를 지어낼 필요는 없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 이미 실험해 보았던 것, 그리고 실제적이라고 인정된

¹⁰⁴ 원래는 노동자, 수공업자, 소상공인, 소자작농, 농업노동자들의 미합. 프랑스대혁명 당시에는 혁명을 이끈 민중 세력을 의미하는데, 부유한 시민과 귀족 계급이 입는 반바지(퀵로트)가 아닌 긴 바지를 입은 하층 계급을 일컫는다. 많은 이들이 자코뱅파 등의 좌익과 격파에 참여했다.

¹⁰⁵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Pierre de Laplace, 1749-1827). 수리물리학의 창시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저서로는 『천체역학』 등이 있다.

¹⁰⁶ 프랑스의 동물학자이자 진화론자 (Jean de Lamarck, 1744-1829).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필요한 기관은 발달하고, 불필요한 기관은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을 발표했다.

¹⁰⁷ 프랑스의 화학자 (Anton Lavoisier, 1743-1794) 로근대학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공기가 혼합물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연소의 본질을 밝히는 등 화학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들이 이 일을 워낙 잘해내고 있어서 (바랄 Barral 은 자기 자신이 『농업백과사전』 중 ‘마켓가드너’를 다루는 항목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최근 계약에서는 자신이 경작하던 땅을 떠날 때는 자기가 만든 흙을 가져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가구나 유리 액자 등과 함께 짐마차에 실려 가는 비옥한 양토, 바로 이것이 리카도 같은 학자들의 논문에 대한 실제적인 원예가들의 대답이다. 리카도는 지대나 소작료가 땅에서 얻는 자연적인 이익을 균일하게 분배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이다. 반면 우리의 원예가들의 신조는 이것이다.

“사람이 가치가 있는 만큼 토양도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파리나 루앙의 마켓가드너들은 건지 섬이나 영국의 동료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3 배나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산업을 농업에 응용한 건지 섬 같은 곳들에서는 아주 최근에 온실을 이용해서 흙뿐 만이 아니라 기후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50 년 전에 온실은 부자들의 사치품이었다. 온실은 심심풀이 오락용으로 이국적인 식물들을 기르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실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건지 섬과 저지 섬에서는 엄청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곳 수백 에이커는 벌써 유리로 덮여 있고, 작은 농장들마다 갖추고 있는 수많은 작은 온실들은 말할 것도 없다. 런던 근교인 워딩에서도 최근 규모가 큰 유리 온실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다른 몇몇 곳들에서도 그러하다.

온실은 온갖 재료들로 지어진다. 화강암으로 벽을 세운 온실에서부터 널빤지와 유리틀로 만든 간단한 온두막 같은 온실까지 다양하다. 유리로 덮인 온실을 짓는 비용은 비록 자본가들과 중간상인들에게 지불하는 각종 터무니없는 돈을 포함해도, 평방야드당 3 실링 6 펜스 이하이다. 대부분의 온실들은 매년 적어도 3~4 개월 동안은 난방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난방을 하지 않는 온실일지라도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물론 그런 곳에서 포도나 열대식물들을 기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감자, 당근, 콩, 토마토 등은 잘 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기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동시에 온상 덕분에 힘든 노동역시 피하게 되었고, 비료를 사는 비용과 작업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에이커당 3 명이 일하고, 각자가 일주일에 60 시간 이하로 일하게 되면, 예전에는 몇 에이커의 땅이 필요했던 수확량을 아주 작은 면적에서 얻을 수 있다. 경작 방법에서 최근 에이루어 진이 모든 성취의 결과로, 도시에서는 성인의 절반 정도가 제철에 나오는 품질 좋은 과일과 채소를 경작하는 일에 대략 하루 반나절씩 60 일간만 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갖가지 과일과 채소들을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오늘날의 온실은 유리 지붕 아래에 있는 단순한 가정용 텃밭이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온실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무판자와 유리로 만든 가장 단순한 온실, 난방을 하지 않는 온두막 같은 온실들도 아주 놀라운 수확을 가져다 주고 있다. 가령, 4 월 말에는 첫 수확으로 에이커당 500 부셀의 감자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름에 유리 지붕 아래의 아주 높게 유지되는 온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수확을 하는 식이다.

들이각자 1 년에 100 시간이넘는시간 (103 시간) 을일하게되면, 500 명이 필요로하는채소와과일을생산할수있다.

이런생산이예외적인경우가아님을이야기하고싶다. 파리시성벽안에있는 2 천 220 에이커의땅에서마켓가드너 5 천여명이이런식으로생산하고있다. 단지오늘날마켓가드너들은에이커당평균 32 파운드의지대를내기위해서어쩔수없이고달프게일해야하는처지에빠져있을뿐이다.

그렇지만누구나증명할수있는이러한사실들은, (남아있는 51 만 9 천에이커중에서) 1 만 7 천 300 에이커의땅에서파리와인근두지역의 350 만모든주민에게필요한채소들을충분히공급할수있음을입증하고있지않은가? 뿐만아니라지역의주민이먹을과일까지넉넉하게공급할수있다는사실도증명하고있다.

이만한양의채소와과일을생산하는데필요한노동의양을살펴보자. 지금파리에서경작하는마켓가드너의평균노동량을기준으로계산해보면, 하루 5 시간씩 5 천만노동일 (성인남성한사람당 50 일) 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영국해협에있는저지섬과건지섬에서행하고있는방식을따른다면, 노동일수를훨씬줄일수있다. 우리가기억해야하는것은, 파리의마켓가드너들은제철보다이르게나오는값비싼채소와과일들을생산하기위해서아주힘들게일할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이런재배시스템은보통먹는채소와과일을기르는데필요한것보다더많은노동이든다. 또한이들은터무니없는임대료를지불해야하기때문에그런것들을재배할수밖에없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게다가파리의마켓가드너들은자기들발에막대한경비를쏟아내는데도유리, 목재, 철, 석탄에많은돈을지불해야하고, 퇴비로부터인위적으로열을얻어야한다. 그러나온실을설치한다면비용이훨씬적게들것이다.

IV

말하자면, 마켓가드너들은놀라운수확량을얻기위해서어쩔수없이기계처럼 일하면서삶의온갖즐거움들을포기하고있다. 그러나몹시힘겹게일하는이사람들은흙을‘만들어낼수있음’을우리에게알려줌으로써인류에게크나큰공헌을했다. 그들은퇴비에서나오는열을가지고어린묘종들과묘목들에게필요한열을앞서서제공하는옛날식거름더미온상으로흙을만든다.¹¹⁴ 그리고그들은이런온상용흙을아주많이만들기때문에일부는팔아야할정도이다. 그렇지않으면그들발의흙높이가매년 1 인치씩높아질것이다.

¹¹⁴ 거름더미로퇴비를만드는것을뜻한다. 미생물에의해유기물이분해될때나오는자체적인열로 거름더미가잘분해되면검은색‘퇴비’가되는데, 크로포트킨은이것을“흙을만든다”라고표현하고있다.

것만으로도충분히혁명을이뤄낼수있다. 만약이시도가혁명의대담한격려와민중의자발적인추진력으로활기차고풍요로워진다면말이다.

17. 농업

I

파리시민이자신들이무엇을먹고있고, 이것들이어떻게생산되는지를아는것이공공의관심사와관련된문제임을이해하게되는날, 그리고이문제가지금의회에서벌어지고있는논쟁들보다훨씬중요하다는사실을모든사람들이이해하게되는날, 그날이오면혁명은현실에서달성될것이다. 파리는인근두개지역을손에넣고경작할것이다. 그렇게되면, 형편없고불충분한음식을사기위해서인생의 3분의 1 을노동해왔던파리의노동자들은이제식량을직접생산할것이다. (만일그런것이여전히있다면) 도시를둘러싼성벽안에서몇시간의건강하고매력적인노동을하면서말이다.

이제과일과채소로넘어가보자. 파리외곽으로나가서시장에내다팔채소들을기르는마켓가드너들의재배지를방문해보자. 학자들이있는아카데미에서몇마일떨어지지않은곳에서그들은 (경제학자들이무시하고있는) 놀라운일들을성취해내고있다.

가령, 시장판매용채소재배에관한책의저자인퐁스씨를방문한다고가정해보자. 그는땅이생산해주는것들을전혀숨기지않고예전부터계속책으로퍼내고있는사람이다. 퐁스씨와특히그의일꾼들은쉬지않고일하고있다. 3 에이커가채안되는 (2.7 에이커) 작은땅을 8 명이경작하고있다. 그들은하루에 12 시간을일하고, 심지어는 15 시간동안일하기도한다. 말하자면, 이상적이라고여겨지는시간보다 3 배나많이일하고있는것이다. 이상대로라면적어도 24 명정도가일해야한다.

이에대해서퐁스씨는아마도이렇게대답할것이다. 2.7 에이커의토지임대료로 1 년에내야하는총 100 파운드, 병영에서사오는비료대금 100 파운드때문에, 노동자들을착취할수밖에없다고말이다. 그는틀림없이“착취당하고있기때문에, 나역시착취하고있다”라고대답할것이다. 재배시설을설치하는데도 1 천 200 파운드가들었는데, 분명그돈의절반이상은공장을운영하는게으른산업귀족들이차지했을것이다. 사실, 이런재배시설은최대한으로잡아도 3 천일의노동일만들이면설치할수있고, 아마도그보다더적은일수가필요할것이다.

그러나그의수확물을살펴보기로하자. 당근약 10 톤, 양파약 10 톤, 무와작은채소들, 6 천통의양배추, 3 천개의콜리플라워, 5 천바구니의토마토, 최상품과일 5 천다스, 샐러드용잎채소 15 만 4 천개를수확하고있다. 간단히말해, 가로가 109 야드이고세로가 120 야드인 2.7 에이커의당에서총 123 톤의채소와과일이나오는것이다. 즉, 에이커당 44 톤이상의수확을올리고있다.

하지만한사람이 1 년동안먹는채소와과일의양은 660 파운드를넘지않는다. 그리고 2.5 에이커의시장용채소밭은 1 년동안어른 350 명의식탁에채소와과일을풍성하게공급할수있다. 그러므로 2.7 에이커를경작하기위해서 1 년동안고용된 24 명은, 하루에 5 시간만일하고도 350 명이먹을채소와과일을충분히생산할수있다. 그리고이숫자는최대 500 명까지늘어날수있다. 바꾸어말하면, 퐁스씨처럼경작하는경우 (그의수확량은이미추월되었지만), 350 명의어른

를 수확하고 있다. 조건이 좋은 들판에서는 10 에이커당 177 톤의 건초가 수확되는데, 이것은 젖소 36 마리의 1 년 여물이 되는 양이다. 지금의 목장 시스템에서는 소 한 마리 당 거의 9 에이커가 필요한 반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9 마리의 황소나 젖소를 기르는데 2.5 에이커면 충분할 것이다. 이것들은 현대 농업의 양극단을 보여준다.

영국 해협에 있는 건지 섬에서는 경작되고 있는 총 9,884 에이커의 땅 중 거의 절반 가량 (4,695 에이커) 에 곡물을 심거나 텃밭 채소들을 기르고 있다. 목초지로 남아 있는 것은 단 5,189 에이커 뿐이다. 이 목초지에서 1,480 마리의 말, 7,260 마리의 소, 900 마리의 양, 4,200 마리의 돼지들을 기르는데, 양과 돼지를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2 에이커당 3 마리의 양의 소와 말들을 기르는 셈이다. 이곳의 땅이 비옥한 것은 해초들과 화학 비료를 넣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파리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350 만 명의 주민으로 되돌아가면 가축들을 기르는 데 필요한 땅을 지금의 500 만 에이커에서 19 만 7 천 에이커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면적을 택하지 말고 일반적인 집약 농법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면적을 채택해 보자. 소를 대신하는 좀 더 작은 가축들에게 필요한 땅을 넉넉하게 더해서 가축을 기르는데 39 만 5 천 에이커를 쓸 수 있도록 하자. 만약 그려고 싶다면 식량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서 가축용으로 49 만 4 천 에이커를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이 땅을 생산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하는 날을 넉넉하게 500 만 일로 잡아 보자. 그러면 1 년 동안 하루 5 시간씩 2 천 만 일을 노동하고 그 중 절반은 영구적인 토양 개량 작업을 하는데 쓰더라도, 우리는 필요한 빵과 고기를 확실히 얻을 수 있다. 가금류, 돼지, 토끼 등에서 얻는 여분의 고기를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말이다. 또 품질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국인들보다 고기를 덜 먹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렇다. 영국인들은 야채가 빈약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육류 음식으로 양분을 보충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루 5 시간씩 2 천 만 일의 노동하는 날을 파리와 주변 두 지역에서 각각의 주민에게 나누면 얼마나 될까? 실제로 아주 조금이다.

350 만의 인구 중에는 노동할 수 있는 성인 남녀가 적어도 120 만 명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빵과 고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노동일은 한 사람이 1 년에 하루 5 시간씩 17 일만 일하면 된다. 원한다면, 우유를 얻기 위해 300 만 노동일이나 그 두 배의 노동일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빵, 고기, 우유라는 3 가지 주요 식품을 얻는데는 반나절 노동으로 25 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사실이 정도 일하는 것은 시골에서 하는 가뭇고 졸거운 일일 뿐이다. 이제까지 식품은 주택문제와 함께 지금 사람들의 10 분의 9 가 매일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이것들은 터무니없는 망상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대규모 실험으로 얻었고, 얻어지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사유 재산에 관련된 법률들과 일반적인 무지로 인한 방해만 없다면 농업은 이런 식으로 재조직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학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원리로부터 모든 추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비난을 종종 받는다. 잘못된 원리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게 만드는 유일한 동기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적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 비난은 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위대한 산업적 발견과 진정한 산업적 진보가 이루어진 시기는 모두가 행복하리라는 희망에 사람들이 고무되고, 개인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과학자들과 위대한 발명가들은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보다 큰 자유를 가져다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만약 와트¹⁰⁸, 스티븐슨¹⁰⁹, 자카르¹¹⁰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이 라고 보낸 밤들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비참한 상황을 가져왔는지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자기들의 설계도를 불태워 버렸거나 모형들을 부숴 버렸을 것이다.

정치 경제학에 널리 퍼진 또 다른 원리도 똑같이 잘못된 것이다. 이 원리는 어떤 분야에서 중종과 잉생산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결코 모든 사람의 결핍을 채워 줄 만큼 생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리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임금 받으려고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원리이다. 모든 경제학자는 일반적으로 이 원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암묵적인 정은 모든 이론과 경제학자가 가르치고 있는 이른바 모든 '법칙들'의 기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들로 이루어진 문명화된 단체가 모두에게 필요한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농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에서도, 이미 모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수단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알고 있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산업과 관련하여 이것이 사실이란 점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생산을 벌써 4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노동력을 덜 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과정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석탄과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 강철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과정, 대규모로 의류를 제조하는 과정들 말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농업도 마찬가지로 진작자 기들의 생산을 4 배 뿐 만이 아니라 10

¹⁰⁸ 스코틀랜드의 엔지니어, 발명가 (James Watt, 1736-1819). 증기기관을 완성했다.

¹⁰⁹ 증기기관차를 완성시켜 세계 최초로 기차를 달리게 한 사람. (Georg Stephenson, 1781-1848)

¹¹⁰ 프랑스 기술자이자 발명가 (Jacquard, 1752-1834) 로, 자카르 방직기를 발명해서 프랑스 건직물 공업에 혁신을 가져왔다.

배까지도증가시킬수있었다. 그들은그럴필요를느끼자마자실제로그렇게할수있다. 현재의자본주의적제도대신에사회주의적작업체계가세워지자마자그렇게할수있을것이다.

농업에대해이야기할때마다사람들은쟁기를끄느라고몸을구부린농부를상상한다. 그농부는제대로선별도안된옥수수씨앗을아무렇게나땅에뿌리고는종고나쁜날씨에따라어떤수확이있을지마음줄이며기다린다. 또사람들은아침부터밤까지일하는농부가죽이그결과로얻는것은거친잡자리, 마른빵, 질낮은음료뿐이라고생각한다. 한마디로, 농부를‘미개인’으로상상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이런비참한처지에빠진사람들에게사회가제공해줄수있는최선의구제책은세금과지대를경감해주는것이다. 하지만대부분의사회개혁가들조차도다음과같은농민을떠올려보는일에는관심이없다. 즉, 허리를뚝바로펴고, 여가를즐기며, 하루에몇시간만일해서자기가족을위한충분한식량을생산할수있을뿐아니라적어도 100 명의사람들에게공급해줄수있는식량을생산하는농민의모습말이다. 사회주의자들이꿈꾸는미래에대한가장빛나는꿈에서조차미국의대규모조방농업¹¹¹ 이상으로나아가지못한다. 이런농업은결국농업기술에서는유아기에불과한데오랄이다.

하지만의식있는농부는오늘날더폭넓은아이디어들을가지고있다. 그가구상하는것은그규모가훨씬웅장하다. 한가족이먹을만큼충분한채소들을기르는데는 1 에이커보다훨씬작은규모의땅만이필요하다. 25 마리의소를먹이는데도이전에한마리를키우던땅이상의공간이필요하지않다. 그가하려는일은토양을비옥하게만들고, 계절과날씨를크게개의치않고, 어린작물들주변의공기와왕을따스하게해주는것이다. 한마디로, 예전에 50 에이커에서수확했던것을 1 에이커의땅에서생산하면서도과거에비해총노동량을크게줄여서과도한노동이라는고역을없애려는것이다. 그농부는각자가즐겁고기쁘게제공할수있는시간이상을농사일에쓰지않으면서도, 모든사람에게식량을제공할수있다는사실을아는것이다. 이것이현재농업의경향이다.

농화학의창시자인리비히 (Liebig)¹¹²를따르는과학자들은종종단순한이론들에지나치게열중해서잘못된방침을시행하곤했다. 반면에별로많이배우지못한농부들은번영으로가는새로운길을열어젖혔다. 파리, 트루아, 루앙의마켓가드너들¹¹³, 영국과스코틀랜드의텃밭정원사들, 플랑드르와롬바르드지방의농부들, 영국해협에있는저지섬과건지섬의농부들, 시실리섬의농부들은우리의정신이쉽게파악할수없을정도로아주광대한지평선을열어주고있다. 최근까지농부한가족이땅에서생산하는것으로먹고살기위해서는최소한 17 에이커에서 20 에이커의땅이필요했고, 우리는그들의삶이어떤지를알고있다. 하지만집약농업

오늘날의사회는아직이단계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 하지만파리시민이나나지즘적코뮌을선언하도록하자. 그러면그들은필연적으로이단계에도달할것이다. 왜냐하면그들은사치스러운장난감 (빈, 바르샤바, 베를린에서도그것들을잘만들고있다) 들을계속만들어내다가빵도없이남겨질위험을무릅쓸만큼어리석은사람들이아니기때문이다. 더욱이농업노동은기계의도움으로곧모든직업중에서가장매력적이고즐거운일이될것이다.

“우리에게는충분한보석들과충분한인형옷들이있다.”

그들은말할것이다.

“지금이야말로노동자들이농사일을하며힘을회복하고, 활기를되찾고, 자연이주는감명을되찾고, 삶의즐거움을찾을수있는가장좋은시기이다. 이것들은도시변두리에있는어두컴컴한공장들에서는잊어버리고있었던것들이다.”

중세시대에스위스가영주들과왕들을쫓아낼수있었던것은총이아니라알프스의목초지덕분이었다. 현대농업은반란이일어난도시가부르주아들의연합세력으로부터자유로워지도록해줄것이다.

III

우리는파리와근교두개지역에서는 350 만명의주민이어떻게그지역땅의 3분의 1 만을경작해서충분한빵을얻을수있는지를알아보았다. 이제는가축으로넘어가보자.

고기를많이먹는영국인들은 1 년에성인한사람당평균 220 파운드보다약간 적은양의고기를소비하고있다. 그고기를모두쇠고기라고가정해보면, 황소 3분의 1 마리에조금못미치는양이다. (어린이들을포함한) 5 인가족에게는 1 년에황소한마리면비교적충분하다. 그러면인구 350 만명의연간고기소비량은 70 만마리가된다.

오늘날의목장시스템에서는 66 만마리의소를기르는데적어도 500 만에이커가필요하다. 소한마리당 9 에이커가필요한것이다. 그렇지만생물에의해물이알맞게공급되는초원시대 (최근에프랑스남서부에서수천에이커가이런초원이었다.) 에서는 125 만에이커면충분하다. 하지만집약농업을적용해서사료용으로비트를기른다면, 그면적의 4 분의 1 인 31 만에이커면충분할것이다. 그리고아랍인들처럼옥수수를사료로쓰고, 사일로에목초를저장하는방법 (목초가푸른상태일때압착하는방법) 을쓰면, 21 만 7 천 500 에이커만가지고도사료를생산할수있다.

이탈리아밀라노교외지역에서는하수도물이용해서들판에물을대는데, 이런식으로 2 만 2 천에이커의들판에서에이커당두세마리의소를먹일수있는건초

¹¹¹ 자연의힘에많은의지하고, 자본과노동력을적게투입하는대규모농업. 집약농업의반대개념.

¹¹² 독일의화학자 (Justus von Liebig, 1803-1873) 로클로로포름과클로랄을발견했다.

¹¹³ 시장에내다팔목적으로채소나과일등을재배하는사람들.

그들이삽을들고서그만한땅을전부갈지는않으리란것은분명하다. 그러면그 일에너무많은시간이들터인데, 에이커당하루 5 시간씩일해서 96 일이나필요 할것이다. 차라리필요한배수로를만들어서물을빼고, 땅을평평하게고르고, 돌 을발라내는일등을하는식으로한번에도양을개량하는편이바람직할것이다. 비 록경작할땅전체에이런사전작업을하는데, 하루 5 시간씩 500 만일, 에이커당 평균 10 일이걸린다고해도말이다.

그런다음에그들은증기경운기로땅을갈것이고, 이작업을하는데에이커당하루와 5 분의 3 일이걸린다. 또이단쟁기로일하는경우에는또다른하루와 5 분의 3 일이필요할것이다. 씨앗들은손에집히는대로가아니라증기선별기로분류될 것이고, 사방으로흩뿌려지는것이아니라줄을맞춰조심스럽게뿌려질것이다. 그 리고좋은환경에서작업이행해진다면, 이모든일을하는데에이커당하루 5 시간 씩 10 일에약간못미치는시간이걸릴것이다. 하지만 3 년이나 4 년동안훌륭한 경작방법으로 1 천만일을작업한다면, 나중에는예전보다반절만일하고도에이 커당 44 부셀에서 55 부셀의수확을얻을수있을것이다.

이런식으로하면, 360 만명의주민에게빵을제공하는데는노동은하루 5 시간씩 1 천 500 만일을쓰게된다. 그리고이작업은강철같은근육이없는사람이 나예전에땅에서일해본적이없어도모두가할수있는방식으로행해질것이다. 작 업을주도하고모두에게분배하는일은농사를잘아는사람들이하게될것이다. 노 동그자체는, 제아무리몸이악한도시의남녀라도기계를다루지못할정도는아닐 것이다. 그리고몇시간의훈련을거치면자기몫의농사일일해낼수있을것이다.

그런데파리와같은대도시까지금쳐해있는무질서상태에서는, 상류계급의일 하지않는사람들은제외하고도실업상태에있는노동자가약 10 만명정도는항상 있다. 이것을고려한다면우리는다음의사실을알수있다. 지금의제도아래서낭비 되고있는노동력만가지고합리적인경작을한다면, 파리와근교두지역을포함한 300~400 만명의주민에게필요한빵을제공하기에충분할것이다.

되풀이해말하지만, 이것은터무니없는꿈이아니다. 그리고우리는진정한집 약농업에대해서는아직제대로이야기하지도않았다. 우리는 (헬렛 Mr.Hallett 씨가 3 년간실험해서얻은) 특별한밀종자를예로들면서의지하지도않았다. 이 특별한밀은밀알하나를심으면 5~6 천알을수확할수있고, 때로는 1 만알까지도 생산한다는밀종자이다. 이만한수확량이면 120 평방야드의면적에서 5 인가족 에게필요한밀을충분히수확할수있다. 이와달리, 우리는단지프랑스, 영국, 벨기 에등지에서수많은농부들이이미어떤일들을성취해내고있는지를이야기했을뿐 이다. 그리고이미대규모의실험을통해얻은경험과지식으로앞으로어떤일들을 해낼수있을지를이야기했을뿐이다.

그러나혁명이없이는, 내일도모래도이일이실행되는것을보지못할것이다. 왜냐하면이일은토지소유자들과본가들한테이익을주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그리고이일이자신들에게유익하다는사실을알게될농민들한테는그일을추진하 기위해필요한지식도없고, 돈도없고, 시간도없기때문이다.

으로땅을경작하게되면, 농가에필요한모든것을생산하기위해서최소한으로필 요한면적이얼마인지조차말할수없다. 심지어사치품들까지포함해서농부가족 에게필요한것이계속늘어나갈지라도말이다.

20 년전에도이미다음과같이주장할수있었을것이다. 즉, 영국이아무것도수 입하지않아도 3 천만명정도는국내에서기른것만으로잘살수있다고말이다. 그 러나프랑스, 독일, 영국에서최근에이루어진진보를보면, 그리고우리앞에열린 새로운지평을찬찬히살펴보면, 우리는이렇게말할수있다. 이미많은곳에서행하 는방식으로땅을경작한다면, 척박한토양에서조차 5~6 천만명의주민이영국에 서살수있을정도로수확할수있다고말이다. 그리고이정도의수확량은땅에서이 끌어낼수있는것의극히일부에불과하다고말이다.

어떤경우이든지 (우리가지금보여주려는경우처럼), 우리는다음과같은가정 을완전히입증된것으로여길수있다. 즉, 앞으로파리와파리근교의센과센에투와 즈지역이아나키스트코뮌으로스스로를조직하게된다면, 그들은모두가직접일 을해서자기들에게필요한모든옥수수, 고기, 채소들을생산할수있을뿐만아니 라, 지금은사치스럽게여기는채소들과과일들역시모두에게충분할만큼생산할 수있을것이다. 설령전세계가그곳에만 1 부셀의밀, 한마리의소, 한바구니의과 일조차보내지않고, 오로지그들이알아서살도록내버려둔다고해도말이다.

그에더해서우리는다음과같은점도확실히말할수있다. 즉, 이렇게자급하 는데는노동의총량은지금이곳에살고있는사람들을먹이는데들어가는노동의총 량보다훨씬적은것이란점이다. 현재이곳사람들에게는오베르뉴와러시아에서 수확된곡물, 조방농업으로여기저기에서조금씩생산되는채소들, 그리고남부지 역에서자란과일들이필요하다.

그렇다고우리가모든교환이없어진길바라는게아니란점은아주분명하다. 또 한각지역이기후때문에약간은인위적인방식으로만재배되는것들을생산하려고 애쓸필요가없다는사실도아주자명하다. 그러나다음과같은사실에는주의를기 울여야한다. 즉, 오늘날이해되는것과같은교환이론은이상하리만큼과장되어있 으며, 그런교환은대개쓸모가없거나해가되기까지한다는사실이다.

더나아가우리는확실히주장한다. 사람들은남부에서포도를재배하는사람 들이나러시아와헝가리에서곡물을재배하는사람들의막대한노동에대해서는한 번도제대로생각해본적이없다고말이다. 그들이지금하고있는과도한노동은현 재의조방농업방법대신에집약농법을받아들인다면아주많이줄어들것이다.

II

우리의 주장들을 뒷받침해주는 무수한 사실들을 여기서 모두 인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독자들은 내가 쓴 다른 책 『농장, 공장, 작업장』을 읽어보면 될 것이다.

어떤 농업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실제적인 개념을 갖지 못한다면 도시 주민의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인근에 있는 시장용 채소들을 기르는 텃밭(마켓가든)을 조사해 보길 권한다. 도시인들은 마켓가든들을 잘 관찰하고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들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도시 주민도 20 세기에 유럽의 농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땅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내는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회 혁명이 어떤 힘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몇 개의 사실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우리는 유럽의 농업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알고 있다. 농부는 지주에게 수탈당하거나 아니면 국가에게 강탈당한다. 국가가 농부에게 세금을 적당히 부과할지라도, 고리대금업자가 약속어음을 이용해서 그를 예측할 것이고, 곧이어 농부는 실제로는 금융회사가 소유한 땅을 단지 경작만 하는 단순 소작인이 되어 버린다. 땅주인, 국가, 은행가는 이런 식으로 지대, 세금, 이자를 이용해서 농부를 수탈한다. 농부들이 수탈당하는 총량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생산물의 4 분의 1 이하는 결코 아니며, 생산물의 2 분의 1 까지 빼앗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주 최근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농부들은 총 생산량의 44 퍼센트를 국가에 세금으로 지불했다.

게다가 땅주인과 국가가 가져가는 몫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 농부가 뛰어나게 일을 잘하고, 발명 정신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보다 많은 수확을 하자마자 땅주인, 국가, 은행가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금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 에이커당 수확량을 두 배로 만들면 지대와 세금도 두 배가 된다. 그리고 국가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공리를 할 것이다. 계속 그런 식이다. 간단히 말해, 어디서나 농부는 하루에 12 시간에서 16 시간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방금 말한 세 약탈자들은 농부가 저축할 수도 있었을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농부가 자신의 경작 방법을 개선시키게 해주었을 것들을 도둑질해 간다. 농업이 그토록 천천히 진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농부는 우연히 약간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예외적인 지역에서 이들 세 흡혈귀들 사이의 싸움에 뒤따르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 아래에서만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농부들이 제각기 제조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기계, 삽, 화학비료 등은 농부에게 원가보다 서너배 더 비싸게 팔린다. 농산물의 가장 좋은 몫을 떼어 가는 중간상인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발명과 진보의 시대인 19 세기에, 농업만은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따금씩 만진 보해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약탈자들이 얼마 동안 방치해 놓은 작은 오아시스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우리는 집약 농업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생산해 낼 수 있는지를 배운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미국의 대초원 시대 (이곳에서는 에이커당 고작 7 부셀에서 15 부셀밖에 안 되는 빈약한 봄밀만을 수확하고 있으며, 이것조차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가뭄이 망쳐 놓곤 한다) 에서는, 단 8 개월 동안 500 명이 일해서 매년 5 만 명이 1 년 동안 먹을 식량을 생산한다. 최근 3 년간 이루어진 모든 진보에 힘입어 한 사람의 연간 노동 (300 일) 으로 생산한 수확물이 제분되어서 밀가루 형태로 시카고에 출하되는데, 매년 250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런 결과는 육체 노동을 아주 크게 절약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이 광활한 평원에서는 경운, 수확, 타작 등 이거의 군대식으로 조직되어 행해진다.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없고 시간 낭비도 없다. 모든 작업이 군대의 열병식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대규모로 행해지는 조방 농업이다. 이 농업은 땅을 기름지게 할 방도를 찾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토양에서 수확을 얻는다. 땅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산출하고 나면, 농부들은 어딘가 다른 미개간지를 찾아 떠나서 다시 그 땅을 고갈시켜 버린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집약’ 농법도 역시 행해지고 있다. 이 농법은 이미 행해지고 있으며, 기계 덕분에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이 행해질 것이다. 이 농법의 목적은 제한된 공간을 잘 경작하는 것이다. 즉, 땅에 거름이나 비료를 넣고, 땅을 개량하고, 집중적으로 작업해서 가능한 가장 많은 수확을 얻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매년 이런 종류의 영농법이 널리 퍼지고 있다. 프랑스 남부와 미국 서부의 비옥한 대초원 시대는 농부들이 조방 농업으로 에이커당 평균 11 부셀에서 15 부셀의 수확으로 만족하는 데 비해, 프랑스 북부에서는 집약 농법을 통해 에이커당 보통 39 부셀, 심지어는 55 부셀, 때로는 60 부셀까지 수확하고 있다. 따라서 4 분의 1 에 이커보다 작은 땅에서 한 사람이 연간 소비하는 식량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농업이 집약적인 것이 될수록 밀 1 부셀을 생산하는데는 노동력도 줄어든다. 사전 준비 작업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고, 배수로를 만들거나 돌을 골라내는 일처럼 땅에 필요한 개량을 하게 되면, 미래에는 수확량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단 한번 행해지면 늘어난 수확량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때로는 거름도 주지 않고 풀만 매주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토양에서 해마다 많은 수확을 얻기도 한다. 영국 동남부 하드포드셔의 로탐스테드에서는 40 년간 줄곧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왔다.

하지만 농업에 대해 장원로 맨스를 쓰지는 말고, 에이커당 44 부셀의 수확에 만족하기로 하자. 이 정도 수확을 얻는데는 예외적으로 좋은 토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합리적인 경작이 필요할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자.

파리와 그 근교에 있는 센과 세네투아즈 지역에서는 360 만 명의 주민은 연간 약 2 천 200 만 부셀의 곡물, 주로 밀을 식량으로 소비한다. 우리의 이론에 따르면, 이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의 1,507,300 에이커의 땅 중에서 494,200 에이커를 경작해야 한다.